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
그리고 정치가의 지배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임 성 진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
그리고 정치가의 지배

지도교수 강 상 진

이 논문을 철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임 성 진

임성진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원장	<u>정 호 근</u>	(인)
부위원장	<u>강 상 진</u>	(인)
위원	<u>강 성 훈</u>	(인)
위원	<u>권 혁 성</u>	(인)
위원	<u>전 현 상</u>	(인)

요약(국문초록)

『정치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첫 번째로 최선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최선 정체와 현실 정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의 쟁점은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가 동일한지 여부이고, 두 번째 문제의 쟁점은 현실 정체에 대한 논의가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에서 파생되는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치가의 지배’ 개념을 통해 모색하는 것이다.

Ⅱ부에서 도시국가, 시민, 정체가 논의된다. 도시국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 실현을 위해 수립된 공동체인데,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성된다.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우월한지 아니면 서로 동등한지에 따라 그리고 지배자가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지배는 주인의 지배, 왕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로 나뉜다. 도시국가에서 공직에 참여할 자격을 지닌 시민이 지배자가 될 수 있는데, 시민은 정체마다 다르다. 정체는 공직에 관한 도시국가의 조직인데, 지배자에 따라 왕정, 귀족정, 시민정,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으로 나뉜다. 정체는 지배자가 덕을 많이 가질수록 또는 지배자 사이에 혼합이 잘 이루어질수록 좋다.

Ⅲ부에서 정치학의 논의 주제인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가 논의된다. 우선 최선 정체는 3권과 7권에서 제시되는데, 3권의 최선 정체는 일인 또는 소수의 유덕자가 주도하는 왕정과 귀족정이고, 7권의 최선 정체는 다수의 유덕자가 주도하는 정체이다. 비록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는 동일하지 않지만, 덕을 지닌 지배자가 최고의 공익을 추구하여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동일한 정체로 규정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4~6권에서 제시되는 혼합 정체에는 차선 정체뿐만 아니라 지배자가 잘 혼합하여 오래 보존되는 정체도 있다. 혼합 정체에서 혼합된 지배자가 덕을 결여해도 정치가의 지배는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혼합된 지배자가 덕을 많이 지닐수록 정치가의 지배가 잘 이루어지면, 혼합 정체는 최선 정체를 필요로 하고, 최선 정

체는 ‘본’으로서 의미가 있다.

IV부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가 논의된다. 사익이 추구되는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공익이 추구되는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가의 지배를 위해 교대 지배, 법의 지배, 다수의 지배, 공익 추구가 필요하다. 네 가지 조건 중에서 공익 추구가 가장 중요하며, 정치가의 지배는 원칙적으로 네 가지 조건 모두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교대 지배 없이 가능하다.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는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이다.

『정치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본론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치가의 지배’ 개념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주도적인 지배의 측면에서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3권의 최선 정체와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는 동일하지 않지만, 지배자인 유덕자가 정치가의 지배의 핵심인 공익을 최고로 추구하면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와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는 동일한 정체로 규정될 수 있다. 둘째, 정치가의 지배가 덕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혼합 정체에 대한 논의는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치가의 지배는 덕에 좌우되기 때문에 혼합 정체에 대한 논의는 ‘본’이 되는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주요어 : 정치가의 지배, 정체, 최선 정체, 혼합 정체, 정체 분류, 덕,
혼합

학 번 : 2006-30037

[목차]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 그리고 정치가의 지배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정치학』의 연구사와 쟁점	4
2.1. 주제의 일관성과 작품 전승의 문제	4
2.2. 정체 규정의 문제	5
2.3. ‘정치가의 지배’ 개념 도입의 해석상 장점	7
3. 논의 주제와 순서	9
II. 도시국가, 시민, 정체	13
1. 도시국가	13
1.1. 최고 공동체인 도시국가	13
1.2. 도시국가의 수립 목적	15
1.3. 도시국가의 지배	17
1.3.1. 세 가지 지배: 왕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 주인의 지배	17
1.3.2. 세 가지 지배의 구분	22
2. 시민	25
2.1. 시민의 정의	25
2.2. 시민의 정의에 관한 문제	29

2.3. 좋은 사람과 훌륭한 시민의 동일성 문제	31
2.4. 시민과 정체	34
3. 정체	36
3.1. 정체의 정의	36
3.2. 3권의 정체 분류	37
3.2.1. 정체 분류의 기준	37
3.2.2. 정체의 종류	40
3.2.3. 정체 분류의 기준 문제	44
3.2.4. 시민의 정의와 정체 분류 사이의 문제	45
3.3. 4~6권의 정체 분류	50
3.3.1. 4~6권의 정체 분류의 도입 배경	50
3.3.2. 4~6권의 정체 분류 기준	53
3.3.3. 각 정체의 종류	57
3.3.3.1. 민주정의 종류	57
3.3.3.2. 과두정의 종류	65
3.3.3.3. 귀족정의 종류	67
3.3.3.4. 시민정의 구성 방식	69
3.3.3.5. 참주정의 종류	71
3.3.3.6. 왕정의 종류	72
3.3.4. 두 가지 정체 분류의 관계	74
Ⅲ.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	82
1. 정치학의 과제와 두 가지 논의 주제	82
1.1. 정치학의 과제	82

1.2. 정치학의 두 가지 논의 주제: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	85
1.3.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 관계	87
2. 최선 정체	90
2.1. 3권의 최선 정체	90
2.1.1. 정체 주도의 정당성 문제	90
2.1.2. 유덕자의 정당한 정체 주도 및 부자와 빈자의 부당한 정체 주도 ..	92
2.1.3. 집단을 이룬 다수의 정체 주도 한계	94
2.1.4. 법의 정체 주도 한계	104
2.1.5. 왕의 조건적으로 정당한 정체 주도	106
2.1.6. 3권의 최선 정체 규정: 왕정과 귀족정	109
2.2. 7권의 최선 정체	111
2.2.1. 최선 정체의 목표	111
2.2.2. 최선 정체의 전제 조건	113
2.2.3. 최선 정체의 시민	116
2.2.4. 7권의 최선 정체 규정: 귀족정	119
2.2.5.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 관계	120
2.2.6. 7권의 최선 정체를 귀족정으로 규정하지 않는 입장의 문제 ..	123
3. 혼합 정체	130
3.1. 차선 정체	130
3.1.1. 차선 정체: 중산층이 주도하고 가장 잘 보존되는 정체 ..	130
3.1.2. 차선 정체의 규정: 시민정	134
3.2. 혼합 정체의 정체 보존	135
3.2.1. 정체 변화의 문제와 원인	135

3.2.2. 정체 개선이 포함된 정체 보존	142
3.2.3. 정체의 보존 방법	148
IV.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	159
1.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159
1.1. 정체의 변천에 따른 지배의 변화	159
1.2. 주인의 지배에서 정치가의 지배로	162
2. 정치가의 지배 조건	165
2.1. 교대 지배	165
2.2. 법의 지배	168
2.3. 다수의 지배	174
2.4. 공익 추구	175
2.5. 네 가지 조건과 정치가의 지배의 관계	177
3.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	179
3.1.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민주정	179
3.2.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최선 정체	182
3.3.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혼합 정체	186
V. 결론	196
◎ 참고문헌	203

I. 서론

1. 문제 제기

인간은 홀로 살지 않고, 가정을 비롯한 여러 공동체 속에서 산다. 현재 대부분의 인간은 국가에 소속되어 사는데, 국적을 바꿀 수 있어도 국가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삶은 불가능하다. 국가는 국민에게 치안과 국방을 책임져주고, 삶의 편의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복지도 제공해서 인간은 오래 전부터 좋은 국가를 희망해왔다. 그러려면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인지 밝혀져야 하는데, 이천오백 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은 좋은 국가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고대 그리스의 국가는 ‘도시국가(polis)’로 일컬어지는데, 도시국가는 한편으로 지금의 국가처럼 정치적 주권을 지녀서 국가의 성격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단일한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도시의 성격을 갖는다. 도시국가는 지역마다 다른데, 정체(politeia)가 도시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 정체는 도시국가에 있는 공직들의 조직인데(『정치학』,¹⁾ 1278b8~9),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정체 간에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정체가 되거나 나쁜 정체가 된다. 지배자가 도시국가의 구성원 모두를 위해 지배하는 도시국가는 좋지만, 지배자가 자신을 위해 지배하는 도시국가는 나쁘다. 정체는 도시국가가 좋은지 여부를 좌우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정체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는데, 플라톤이 처음으로 정체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주로 『국가』, 『정치가』, 『법률』에서 최선 정체 또는 차선 정체가 무엇인지, 정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누가 최선 정체 또는 차선 정체의 지배자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철인통치자가 지배하는 최선 정체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최선 정체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법이 지배하는 차선 정체를

1) 앞으로 『정치학』에서 인용할 경우에 ‘『정치학』’을 생략한다.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정치학』의 기본 원전은 Dreizehnter(1970)가 편집한 판본이다.

추구할 것을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정체 분류를 통해 어떤 정체가 좋고, 어떤 정체가 나쁜지도 알려주었다. 그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로 『정치학』에서 플라톤이 정체에 관해 제기한 문제, 즉 최선 정체와 차선 정체가 무엇인지, 정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누가 최선 정체 또는 차선 정체의 지배자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룬 다음에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플라톤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여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다.

총 8권으로 구성된 『정치학』은 각 권마다 주제가 달라서 과연 일관성을 지닌 작품인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주제의 일관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정치학』의 주제는 최선 정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부정하는 입장은 『정치학』의 주제는 주로 최선 정체와 현실 정체라고 주장한다. 현실 정체에 대한 논의가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지 아니면 두 논의가 서로 다른 관심사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정치학』에 대한 이해는 달라진다. 전자라면 최선 정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후자라면 최선 정체 못지않게 현실 정체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될 것이다.

최선 정체는 주로 3권과 7권에서 논의되고, 현실 정체는 주로 4~6권에서 논의되는데, 우선 최선 정체와 관련하여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다. 3권의 최선 정체는 왕 일인 또는 소수의 유덕자가 지배하는 왕정 또는 귀족정인 반면, 7권의 최선 정체는 다수의 유덕자가 교대로 지배하는 정체로 해석되는데, 두 정체는 ‘최선 정체’라는 이름은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정체의 내용은 다르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 정체에 관해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않게 진술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 다음으로 현실 정체의 원리가 최선 정체의 원리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최선 정체의 원리는 덕 또는 정의이고, 현실 정체의 원리는 정체의 안정인데, 정체의 안정은 덕과 무관해 보이면서도, 덕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체의 안정이 덕에 좌우되면 현실 정체에 대한 논의는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정체의 안정이 덕과 무관하면 두 가지 논의는 별개의 논

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앞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의 지배(politikē archē)’²⁾ 개념에 주목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주목을 덜 받은 ‘정치가의 지배’ 개념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해석상의 난점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 개념의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은 최선 정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물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3권과 7권의 최선 정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론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세 종류의 지배, 즉 왕의 지배(열등한 자유인에 대한 우월한 자유인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동등한 자유인에 대한 동등한 자유인의 지배), 주인의 지배(열등한 비자유인에 대한 우월한 자유인의 지배)를 제시한다. 3권의 최선 정체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해석되는데, 우월한 일인 또는 소수의 유덕자가 열등한 다수의 비유덕자를 지배하여 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여겨지지만,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서 소수의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7권의 최선 정체에서 다수의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3권의 최선 정체와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지만,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는 동일한 정체로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가의 지배’ 개념의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은 연구자들을 괴롭혔던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와 현실 정체에 관한 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의 정체는 대부분 민주정 아니면 과두정인데, 이들 정체에서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지배자를 노예처럼 지배하는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졌다. 주인의 지배는 민주정을 주도하는 빈자가 부자를 배제할 때 또는 과두정을 주도하는 부자가 빈자를 배제할 때 이루어지는데, 자유인인 빈자와 부자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서로 혼합되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빈자나 부자가 서로를

2) politikē archē는 보통 ‘정치적 지배’로 번역되지만, 왕의 지배, 주인의 지배와 대비하기 위해 ‘정치가의 지배’로 호칭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II.1.3.1. 참고.

배제하는 정체는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정체인 반면, 이들이 혼합된 정체는 내분이 일어나기 어려운 안정된 정체이다. 정체의 안정은 빈자와 부자의 혼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덕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혼합 당사자가 더 좋고 더 많은 덕을 지닐수록 정체는 더 안정되므로 궁극적으로 정체의 안정은 덕에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체의 안정이 덕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현실 정체에 관한 논의는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체의 안정이 덕에 좌우된다는 측면에서 현실 정체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결국 현실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려면 지배자의 혼합이 필요한데, 지배자의 혼합은 덕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덕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최선 정체는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현실 정체의 ‘본(paradigma)’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정치학』의 연구사와 쟁점

2.1. 주제의 일관성과 작품 전승의 문제

『정치학』의 주제, 작품 순서 등에 관해 오래 전부터 논쟁이 있었다. 총 8권으로 구성된 『정치학』의 주제는 각 권마다 달라서 『정치학』이 주제의 일관성을 결여한다고 볼 수도 있고, 주제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 주제를 갖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정치학』이 주제의 일관성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에서 『정치학』의 주제는 최선 정체이고, 다른 주제는 최선 정체를 향해 있다. 이런 입장을 지닌 Scaino da Salo, Newman(1887~1902), Susemihl-Hicks(1894), Simpson(1997) 등은 전통적인 권들의 배치를 바꿀 것을 주장한다. 3권은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의 시작으로 끝을 맺는데, 4~6권의 주제는 현실 정체이고 7~8권의 주제는 최선 정체라서, 3권 다음에 7~8권이 이어지도록 작품 순서를 바꾸게 되면,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그 다음에 현실 정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들이 주장한대로 『정치학』의 작품 순서가 바뀌면 주제의 일관성은 확보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데, 8권에서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4권에서 현실 정체가 논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치학』의 작품 순서를 그대로 둔다. 『정치학』의 작품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면, 『정치학』은 주제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작품인가? Jaeger(1948)는 최선 정체와 현실 정체를 주제로 삼는 『정치학』은 주제의 일관성을 결여한다고 주장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젊었을 때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주제가 최선 정체인 1~3, 7~8권을 저술했지만, 말년에는 플라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주제가 현실 정체인 4~6권을 저술했기 때문이다. Schütrumpf(1991~2005)처럼 Jaeger의 입장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 Rowe(1991)는 최선 정체와 현실 정체를 논의하는 것이 정치학의 과제라서 『정치학』에서 최선 정체와 현실 정체에 대한 논의는 양립가능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 주제가 시기마다 다르다는 Jaeger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최선 정체의 원리는 덕 또는 정의인 반면, 현실 정체의 원리는 정체의 안정이어서 최선 정체와 현실 정체는 서로 다른 주제이다. 『정치학』이 주제의 일관성을 결여한다는 Rowe의 입장에 맞서 Miller(1995), Kraut(2002) 등은 현실 정체에 대한 논의는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를 전제하기에, 주제가 최선 정체인 『정치학』은 주제의 일관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정치학』이 주제의 일관성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과 주제의 일관성을 결여한다고 보는 입장은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둘 중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김재홍(2017)은 『정치학』의 작품 전승과 주제의 일관성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2.2. 정체 규정의 문제

『정치학』에서 주제의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선 정체와 현실 정체가 각각 어떤 정체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우선 최선 정체의 규정과 관련해

여 많은 논쟁이 있다. 최선 정체는 3권에서 왕정과 귀족정으로 규정되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선 정체를 특정한 정체로 명시하지 않은 7권에서 귀족정, 시민정(politeia),³⁾ 민주정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Vander Waerdt(1985a), Newell(1991), Chuska(2000)는 7권의 최선 정체가 3권의 최선 정체와 조건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최선 정체는 신과 같은 왕이 있으면 왕정이고 없으면 귀족정인데, 신과 같은 왕이 없는 한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는 동일한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맞서 두 가지 최선 정체를 다르게 보는 입장은 7권의 최선 정체의 규정에 따라 나뉘는데, Kahn(1990), Rowe(2000)는 7권의 최선 정체를 귀족정의 특징과 시민정의 특징이 결합된 시민정으로 규정하고, Bluhm(1962), Johnson(1990)은 7권의 최선 정체를 중산층이 주도하는 시민정으로 규정하며, Kraut(2002)는 3권의 왕정, 귀족정보다 좋은 정체인 7권의 최선 정체는 3권의 정체 분류를 통해 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다수의 유덕자 사이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를 귀족정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Keyt(1993), Bates(2003), Ober(2015)는 최선 정체를 민주정으로 규정한다. 국내에서는 노희천(2014, 2017)과 손병석(2018)이 최선 정체의 규정에 관해 논의한다. 노희천은 2014년 논문에서 최선 정체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체이며, 소수 엘리트의 귀족정이 아니라 다수의 유덕한 시민이 교대로 지배하는 정체로서 귀족정과 민주정의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한 반면, 2017년 논문에서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여 최선 정체는 소수 엘리트의 귀족정이 아니라 다수의 유덕한 시민이 교대로 지배하는 정체인데, 3권에 제시된 귀족정과 같다고 주장한다. 손병석은 최선 정체를 왕정 또는 시민정 또는 민주정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반박한 후에 최선 정체를 귀족정으로 규정하는데, 전통적으로 분류되는 귀족정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덕에 토대를 둔 ‘자연적 귀족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 최선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 밝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정체의 한 종류인 politeia는 흔히 ‘혼합정’으로 번역되지만, politeia의 번역어로 ‘시민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II.3.2.2. 참고.

최선 정체의 규정뿐만 아니라 현실 정체의 규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다. 우선 Bluhm(1962), Johnson(1990), Nichols(1992)는 차선 정체⁴⁾를 7권의 최선 정체로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도시국가에 적합한’이라는 조건이 붙는 최선 정체인 차선 정체는 조건이 붙지 않는 7권의 최선 정체와 다른 정체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차선 정체를 시민정으로 규정한 다. 그 다음에 시민정의 규정이 문제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정을 3권에서 중무장보병, 즉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로 제시한 반면, 4권에서 민주정과 과두정 또는 빈자와 부자가 혼합된 정체로 제시한다. 3권의 시민정, 4권의 시민정, 더 나아가 차선 정체가 동일한 정체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세 가지 정체를 시민정으로 규정하고, Samaras(2015)는 ‘첫 번째 민주정’⁵⁾조차 시민정으로 규정한다. 게다가 ‘첫 번째 민주정’의 규정도 문제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위 ‘첫 번째 민주정’을 4권 4장에서 민주정의 한 종류로 제시하지만, 4권 6장과 6권 4장에서 민주정의 종류로 제시하지 않는다. ‘첫 번째 민주정’이 존재하는지, 더 나아가 민주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 민주정’이 어떤 정체로 밝혀지는지에 따라 민주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2.3. ‘정치가의 지배’ 개념 도입의 해석상 장점

필자는 ‘정치가의 지배’ 개념이 『정치학』 주제의 일관성 문제와 정체 규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먼저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가 동일한지에 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정치가의 지배’ 관점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두 정체의 주도적인 지배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의 주도적인

4)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차선 정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4권 11장에 제시되는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를 편의상 ‘차선 정체’로 칭한다.

5) 4권 4장에만 제시되는 인용부호를 붙인 ‘첫 번째 민주정’은 민주정의 네 가지 종류 중 하나인 첫 번째 민주정과 다른데, 이에 관해서는 II.3.3.3.1.에서 논의할 것이다.

지배는 우월한 유덕자와 열등한 비유덕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왕의 지배인 반면, 7권의 최선 정체의 주도적인 지배는 유덕자 사이에서 세대 간 교대 지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가의 지배이다. 따라서 주도적인 지배의 측면에서 두 정체는 동일하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서도 지배자인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지배자가 누구인지가 정체를 규정할 수 있다면,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도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귀족정에서 지배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이익도 추구하는데, 유덕자라서 최고의 공익을 추구한다.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익 추구이다. 따라서 정치가의 지배의 핵심인 공익 추구의 측면에서 지배자가 최고의 공익을 추구하는 7권의 최선 정체와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는 동일한 정체로 규정될 수 있다. 공익 추구의 관점은 『정치학』에서 정체 규정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줄 뿐만 아니라, 주제 일관성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줄 수 있다. 동등한 자유인이 교대로 지배할 때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면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익이 추구되어야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사익이 추구되는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유덕자뿐만 아니라 혼합된 지배자도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가의 지배는 혼합된 지배자가 지배하는 혼합 정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혼합 정체에서 혼합된 지배자가 덕을 결여해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익이 덕에 좌우되면 궁극적으로 정치가의 지배는 혼합된 지배자가 덕을 많이 지닐수록 잘 이루어진다. 결국 정치가의 지배가 덕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현실 정체에 대한 논의는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정치가의 지배가 덕에 좌우되는 측면에서 현실 정체에 대한 논의는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정치가의 지배’ 개념이 주제의 일관성 문제와 정체 규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본론의 논의를 통해 밝힐 것이다.

3. 논의 주제와 순서

앞서 말한 『정치학』의 문제들은 정체와 관련이 있고, 정체는 도시국가 및 시민과 관련이 있어서 본론의 첫 부분인 II부에서 도시국가, 시민, 정체를 논의한다. 우선 여러 가지 공동체 중에 도시국가가 최고 공동체인 이유를 밝히는데, 이는 도시국가의 수립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시국가는 인간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로 밝혀질 것이다.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 적합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지배자가 자유인인지 비자유인인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우열이 있는지 서로 동등한지,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는지 사익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지배, 즉 주인의 지배, 왕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도시국가에 적합한 지배를 찾기 위해 도시국가의 구성원, 특히 시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II.1.)

도시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시민은 아니며, 심의와 판결에 참여할 자격을 지닌 사람이 시민으로 정의된다. 시민이 엄격하게 정의되면 네 가지 문제가 제기되지만, 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시민은 정체마다 다르지만, 정체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격 요건을 갖춰서 시민의 정의에 부합하면 시민이 된다. 정체가 도시국가의 정체성과 시민의 범위를 좌우하기 때문에, 정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II.2.)

정체는 지배자 또는 지배자 집단에 따라 여섯 가지 종류(왕정, 귀족정, 시민정,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가 있는데, 각각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체 분류가 필요하다. 3권과 4~6권에서 정체 분류가 제시되는데, 3권의 정체 분류는 지배자 집단의 수와 지배자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4~6권의 정체 분류는 이보다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각 정체의 종류에 대해 상세히 논의된다. 두 가지 정체 분류는 서로 다른 정체 분류로 보이지만,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좋은 정체의 기준인 지배자의 혼합은 궁극적으로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좋은 정체의 기준인 지배자의 덕에 좌우되기 때문에, 4~6권의 정체 분류는

3권의 정체 분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혀지게 된다.(Ⅱ.3.)

3권의 정체 분류에서는 최선 정체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4~6권의 정체 분류에서는 혼합 정체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데,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는 정치학의 여섯 가지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치학의 두 가지 논의 주제로 밝혀진다. Ⅲ부에서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에 대한 논의가 상세하게 이루어지는데, 최선 정체가 최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지만, 최선 정체의 추구가 불가능하면 혼합 정체가 추구된다. 후자의 경우에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최선 정체는 ‘본’으로서 의미가 있다.(Ⅲ.1.)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진다. 3권에서 도시국가의 여러 집단이 정체 주도를 주장하지만, 도시국가의 최고 수립 목적인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집단이 정체 주도를 정당하게 주장하면, 유덕자가 정체 주도를 정당하게 주장한다. 그리하여 유덕자가 주도하는 왕정과 귀족정이 3권에서 최선 정체로 밝혀지는데, 왕정을 주도하는 왕은 신과 같은 덕을 지닌 자로 밝혀진다. 집단을 이룬 다수와 법도 정체 주도를 주장하지만, 심의와 판결을 주도할 수 있는 집단을 이룬 다수는 매우 중요한 공직이 다루는 사안을 주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편적인 규정에 관한 사안을 주도하는 법은 개별적인 상황에 관한 사안을 주도할 수 없는데다가 정체의 영향을 받아서 제정된다는 점에서 정체 주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는 3권뿐만 아니라 7권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는 동일하지 않지만, 유덕자가 지배하는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비유덕자 자유인이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 있고 7권의 최선 정체에 없어서, 주도적인 지배의 측면에서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는 서로 다르지만, 정체의 지배자인 유덕자의 측면에서 두 정체 모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유덕자는 정치가의 지배에서 핵심적인 계기라 할 수 있는 공익을 가장 많이 추구하기에 두 정체는 동일한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는 소수의 유덕자가 다수의 비유덕자를 지배하

는 반면, 7권의 최선 정체는 다수의 유덕자가 교대로 지배하는 정체라서 후자는 다수의 유덕자가 지배하는 시민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체 분류의 실제 기준은 지배자의 수가 아니라 지배자이기 때문에 7권의 최선 정체는 시민정이 아니라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Ⅲ.2.)

그 다음으로 혼합 정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혼합 정체 중에 가장 좋은 정체는 4권 11장에 제시되는 차선 정체인데, 이 정체는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로서 지배자가 잘 혼합되어 안정되고 오래 보존되며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 밖의 정체는 혼합 정체와 비혼합 정체로 나뉘는데, 지배자의 혼합 정도에 따라 오래 보존되거나 쉽게 바뀌며, 오래 보존되는 정체는 좋고, 쉽게 바뀌는 정체는 나쁘다. 지배자가 혼합되지 않고 특정 집단이 지배를 독점하면 정체의 변화 또는 파괴가 쉽게 일어나기에 정체가 오래 보존되려면 지배자의 혼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체는 현 정체가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선되어 보존될 수 있다. 지배자가 사익을 추구해서 내분에 빠지기 쉬운 비혼합 정체에서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해서 잘 보존되는 혼합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IV부에서 이루어진다. (Ⅲ.3.)

정치가의 지배에 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IV부에서 이루어진다. 3권 15장에 제시된 정체의 변천사에 따르면, 과거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주인의 지배는 지배자가 자유인인 피지배자를 노예처럼 대하는 부당한 지배이기 때문에, 지배자의 사익이 추구되는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공익이 추구되는 왕의 지배나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시국가의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서로 동등한 자유인이라면 동등한 자유인에 대한 지배인 정치가의 지배가 도시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IV.1.)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대 지배, 법의 지배, 다수의 지배, 공익 추구가 필요하다. 서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교대 지배가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원칙과 관련해서는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하며, 개별적

인 상황과 관련해서 다수가 판단해야 하고, 공익이 추구되어야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 추구인데, 원칙적으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IV.2.)

정치가의 지배는 전형적으로 모든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민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겨지지만, 다수인 빈자가 정체를 주도하고 부자는 실질적으로 정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 번째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아니라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유덕자와 예비 유덕자 사이에 세대 간에 걸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혼합 정체에서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혼합이 잘 이루어진 차선 정체를 비롯한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에서도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정치가의 지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혼합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빈자가 지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고 피지배자가 자발적으로 지배 받으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밝혀지게 된다.(IV.3.)

Ⅱ. 도시국가, 시민, 정체

1. 도시국가

1.1. 최고 공동체인 도시국가

인간은 혼자서는 집단을 이룰 수 없지만 둘이 되면 공동체(koinōnia)⁶⁾를 이룰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본성적으로 자식을 낳고자 그리고 주인과 노예는 상호 보존을 위해 이익을 얻고자 공동체를 이룬다(1252a27~31). 본성적으로 수컷이 우월하고 암컷이 열등하기에 수컷은 지배하고 암컷은 지배받듯이(1254b13~14), 우월한 남편이 지배하고 열등한 아내는 지배받는다. 그 다음으로 사유를 통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자는 지배자이자 주인이고, 지배자가 앞을 내다본 것을 신체로 행하는 자는 피지배자이자 노예이다(1252a31~34). 남성과 여성 공동체, 주인과 노예 공동체가 결합되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생기는데(1252b9~10), 가정에는 두 가지 공동체 말고도 아버지와 아이가 결합된 공동체도 있다. 동일 인물인 남성과 주인과 아버지⁷⁾는 여성과 노예와 아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⁸⁾ 이들을 지배한다. 인간은 가정에만 있어도 생존할 수 있지만, 생존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공동체가 필요하다. 사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는 가정에서 마련할 수 있지만, 다채로운 음식이나 호사스런 옷 등은

6) 'koinōnia'는 보통 '공동체'로 번역된다. 이 말은 'koinos(공동의)'라는 형용사와 관련이 있는데, 공동체는 공동의 것(예컨대 땅)을 공유하는 구성원들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이다. 도시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있고, 군사 공동체, 종교 공동체, 사교 공동체 등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있으며,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부부 공동체도 있다. 우리 말 어감으로 부부 집단을 공동체로 말하는 것은 어색하지만, 부부 간에 '생활 공동체'라는 말이 쓰일 수 있어서 부부를 비롯하여 공동의 것을 공유하는 구성원들로 구성된 집단인 koinōnia를 일관되게 '공동체'로 번역한다.

7) 앞으로 편의상 '가장'으로 호칭한다.

8)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은 숙고하는 영혼의 부분을 완전하게 갖는 반면, 노예는 이 부분을 완전히 갖고 있지 않고, 여성은 이 부분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주도하지 못하며, 아이는 이 부분을 갖고 있지만 이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가장이 노예, 여성, 아이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1260a9~14).

가정에서 마련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을이 형성된다(1252b15~16). 여러 가정으로 구성된 마을에는 여러 명의 가장이 있는데, 최고 연장자가 가정을 지배하듯(1252b20~21) 마을도 지배한다. 마을은 규모 면에서 가정과 다를 뿐 가정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마을도 가정처럼 일인이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마을로 충분하지만, 이것만으로 자족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도 잘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도시국가(polis)⁹⁾이다.

도시국가는 여러 마을로 구성된 완전한 공동체이다(1252b27~28). 마을은 여러 가정으로 구성되고 가정은 가장과 여성, 아이, 노예로 구성되면, 이들이 도시국가의 구성원이다. 여러 마을로 구성된 도시국가는 마을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었기에, 초창기에는 왕이 지배하고 도시국가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왕의 지배를 받았다(1252b19~20). 촌장과 왕은 나이에서 우월하여 지배할 수 있었지만, 도시국가가 커지면서 왕 혼자 도시국가를 지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¹⁰⁾ 도시국가 안에 있는 가정은 자유인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동등한데, 서로 동등한 자유인이 점점 많아지고 왕만큼이나 잘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자 왕은 더 이상 혼자 지배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가장들도 도시국가의 지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정에서 가정의 지배를 받는 여성, 아이, 노예를 제쳐두면, 도시국가는 가장으로 구성된 공동체인데, 가정이 서로 동등한 자유인이면, 도시국가는 서로 동등한 자유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가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공동체로서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며 최고선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1252a4~6).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 본토에 수많은 도시국가가 있었고, 그리스 주변 지역에 도시국가 말고도 민족(ethnos), 제국, 종교 동맹, 부

9) 고대 그리스의 국가는 정치적인 주권, 예컨대 군대 보유, 동맹 체결, 전쟁 수행의 측면에서 국가의 성격을 갖고,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단일한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polis'를 '도시국가'로 번역한다.

10) 도시국가의 역사적 발전에 따른 정체의 변천에 관해서는 IV.1.1.에서 논의된다.

족 동맹, 지역 동맹 등이 있었다. 도시국가의 영토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와 비교하면 작고, 도시국가의 인구도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와 비교하면 적기 때문에, 영토의 크기와 인구의 수만 놓고 보면 제국이 도시국가보다 더 우월한 공동체이고, 도시국가보다 더 큰 영토와 더 많은 인구를 지니고 있는 여러 종류의 동맹도 도시국가보다 더 우월한 공동체로 보인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시국가를 가장 주도적인 공동체, 즉 최고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인간이 최고선에 도달하기 위해 만든 공동체인 도시국가에서만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 제국, 동맹 등의 다른 공동체에서는 최고선에 도달할 수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도시국가에서 도달하려는 최고선은 도대체 무엇인가? 최고선을 위해 도시국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도시국가의 최고 수립 목적이 최고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도시국가의 수립 목적을 논의한다.

1.2. 도시국가의 수립 목적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도시국가의 수립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수립 목적은 함께 사는 것(syzēn)이다. 본성상 정치적¹²⁾ 동물인 인간은 서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함께 사는 것을 욕구한다(1278b19~21). 두 번째 수립 목적은 잘 삶(zēn kalōs)이다. 각자가 잘 살도록 기여하는 한에서 공익이 사람들을 함께 모으면, 잘 삶은 공동체 전체와 각자에게 최고의 목적이다(1278b21~24). 세 번째 수립 목적은 삶이다. 사람들은 삶 자체를 위해 모여서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삶 자체에 어떤 고귀한(kalon) 것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은 삶에 어떤 기쁨과 자연적인 달콤함이 들어있다

11) 도시국가, 민족, 동맹 등의 공동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Ehrenberg(1991), pp. 17~193 참고.

12) ‘정치적(politikon)’이라는 말은 ‘도시국가를 형성하여 도시국가에서 살아야 하는’을 뜻한다. 정치학(politika), 정치적(politikos), 정치가(politikos), 도시국가(polis), 시민(politēs), 정체(politeia)는 우리말 번역어를 보면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모두가 동일한 어근을 지닌 ‘도시국가’와 관련된 말이다. ‘정치적’이라는 말은 ‘도시국가적’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용어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바뀌 쓰지 않는다.

고 여겨서 많은 괴로움을 견디며 삶에 매달린다(1278b24~30). 그는 도시 국가가 삶을 위해 생겨났지만, 잘 삶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1252b29~30), 잘 삶이 최고의 도시국가 수립 목적이다. 도시국가는 가정, 마을과 같은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인간에게 제공하고, 인간이 누군가에 의해 신체의 손상을 입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등의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더 나아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 다른 도시국가나 민족 등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준다. 침략을 막는 것 등은 마을 규모의 공동체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 동맹과 같은 큰 규모의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오직 도시국가에서만 인간은 잘 살 수 있어서 잘 삶을 위해 도시국가가 필요하다. 잘 삶은 ‘행복(eudaimonia)’으로 일컬어지는데,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선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¹³⁾ 1095a16~20).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 도시국가를 형성한다.¹⁴⁾ 인간은 도시국가 이외의 다른 공동체에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어서 도시국가를 갈망하며, 도시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 되는 자족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의 자족을 가능케 하는 도시국가는 완전한 공동체이고 최고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의 최종 목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가 본성상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말하는데(1252b30), 도시국가는 처음부터 존재해서 본성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최종 목적이라서 본성상 존재한다(1252b31~35). 남성과 여성 공동체와 주인과 노예 공동체 혹은 이들이 결합된 가정 공동체가 최초부터 있는 반면 도시국가가 가장 늦게 생겨서 맨 처음부터 있었던 공동체만 본성상 존재하고 도시국가는 본성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가 말하듯이 본성(자연)이 목적이어서 완성된 형태로 있는 것이 본성이라면(1252b32~33), 모든 공동체가 완성되었을 때 있는 도시국가가 여러 공동체의 본성이기에 도시국가가 본성상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¹⁵⁾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도

13) 앞으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NE로 약칭한다.

14) 인간이 도시국가에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III.2.2.1.에서 제시된다.

15) 도시국가가 본성상 존재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손병석(2019), pp. 24~53 참고.

시국가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본성상 도시국가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서 도시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한다. 그런데 도시국가에 사는 모든 인간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은 아니다. 도시국가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데, 지배자가 어떤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잘 살 수도 있고 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시국가의 지배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1.3. 도시국가의 지배

1.3.1. 세 가지 지배: 왕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 주인의 지배

각 공동체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데, 이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지배 형태는 달라진다. 도시국가는 여러 가정들로 구성되고, 가정은 세 가지 부분, 즉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이로 구성되기 때문에 (1253b1~7), 우선 가정의 세 가지 부분 각각에 있는 지배 형태를 살펴본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관계가 갖는 성격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관계가 갖는 성격과도 다르고,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관계가 갖는 성격과도 다르다. 이들의 관계에 따라 지배의 명칭이 다른데,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는 ‘주인의 지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politikē archē*)’,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는 ‘왕의 지배’라고 불린다 (1255b16~18, 1259a39~b1).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쉽게 이해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가 왕 또는 정치가라는 도시국가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 비유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인 ‘정치가의 지배’에 대해서는 번역어 이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배가 ‘주인의 지배’라고 불리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본성적으로 우월한 자가 본성적으로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로우면, 본성적으로 우월한 자유인 주인이 본

성적으로 열등한 비자유인 노예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배를 지배자의 이름을 따서 ‘주인의 지배’로 부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배가 ‘왕의 지배’라고 불리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아버지는 아이를 낳았다는 점과 아이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에서 아이보다 우월하다. 이런 점에서 아이보다 항상 우월한 아버지는 항상 아이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롭다고 말할 수 있다. 우월한 자가 항상 지배하고 열등한 자가 항상 지배받는다는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동일하지만, 지배받는 열등한 자가 달라서 두 관계는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배받는 노예는 비자유인인데 반해, 지배받는 아이는 아버지와 같은 혈통을 지닌 자유인이다. 따라서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는 자유인에 대한 자유인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배가 ‘왕의 지배’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이는 둘 다 자유인이지만, 성숙한 아버지와 달리 미성숙한 아이는 스스로 숙고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 숙고와 판단을 해야 하기에 아이는 아버지의 지배를 필요로 한다. 가정에서 항상 아이를 지배하는 아버지의 지위는 도시국가에서 항상 지배하는 왕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도시국가에서 왕은 비자유인인 노예를 비롯하여 자유인인 아이와 여성뿐만 아니라 자유인인 성인 남성도 지배한다. 가장의 지배를 받는 노예, 아이, 여성은 차치하고, 왕과 가장인 자유인 성인 남성의 관계만 놓고 보면, 왕과 가장은 둘 다 자유인이지만, 다른 가장보다도 나이가 많은 왕은 지배에 필요한 지혜와 연륜 등도 더 많아서 다른 가장을 위해 가장 잘 지배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왕은 죽을 때까지 항상 지배하는데, 이처럼 지배자가 자유인 피 지배자보다 우월하여 항상 지배한다는 점에서 유사해서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는 ‘왕의 지배’라고 불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배가 ‘정치가의 지배’라고 불리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아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유인 성인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본성상 이끌고

나가기에(hēgemonikos) 더 적합하기 때문에(1259b1~4) 남편은 아내를 지배한다. 자유인이 자유인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와 동일하지만, 전자의 관계가 후자의 관계보다 더 동등하다는 점에서 두 관계는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가 ‘정치가의 지배’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는 친애(philia)와 나이에서 아이보다 우월해서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1259b10~12), 남편은 아내보다 이 점에서 우월하지 않아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남편은 가치에 따라 지배하되 남편이 지배해야 하는 것만 지배하고, 아내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내에게 넘겨주는’ 관계로 이해하고, 남편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가치에 어긋난 일이라고 말한다(*NE* 1160b33~36). 가정에서 재화 획득은 남편의 일이고 재화 보존은 아내의 일이라면(1277b24~25), 남편이 가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하되 모든 사안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획득처럼 남편에게 어울리는 사안에서 지배해야 하고, 아내는 재화 보존처럼 아내에게 어울리는 사안에서 지배해야 한다. 이처럼 남편이 가정의 지배를 주도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보다 우월하지만, 가정에서 아내도 고유의 지배 영역을 지닌 채 지배에 참여해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배의 주도권을 지닌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자유인 성인인 남편과 아내 모두 지배에 참여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라고 불릴 수 있다. 정치가의 지배는 본성상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본성상 동등해서 지배의 교대가 이루어진다(1259b5~10). 비록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교대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들 각자는 더 좋은 가정을 만들고자 각자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안에서 지배하여 이들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¹⁶⁾ 이 때 말하는 ‘정치가’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더 좋은 도시국가를 만들고자 지배에 참여하는 ‘시민’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가의 지배’라는 번역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16)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남편이 아내를 귀족정의 방식으로 지배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Deslauriers(2015) 참고.

‘정치가의 지배’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politikē archē는 흔히 ‘정치적 지배’로 번역되는데,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아버지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왕처럼 지배하고, 남편은 정치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정치가처럼 지배하면, 지배의 주체를 드러내는 번역어 대신 지배의 성격을 드러내는 형용사형 번역어가 더 적절해 보이지만, 필자는 ‘왕의 지배’로 번역되는 basilikē archē와 ‘주인의 지배’로 번역되는 despotikē archē에서 지배자가 누구인지 드러나 있듯이, politikē archē는 이들 지배와 나란히 제시될 경우에 ‘정치가의 지배’로 번역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정치가』에서 지배에 관한 하나의 짧은 basilikē(왕의 짧은) 또는 politikē(정치가의 짧은) 또는 despotikē(주인의 짧은)라고 불리는데(258e~259d), basilikē, politikē, despotikē를 지닌 사람은 각각 왕, 정치가, 주인이라서, basilikē archē, despotikē archē와 대비될 때 politikē archē의 번역어는 ‘정치가의 지배’가 자연스럽다. 정치가의 지배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자유인들이 교대로 지배할 때 이루어지는데, 교대로 지배하는 동등한 자유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politikē archē는 ‘시민의 지배’로도 번역될 수 있다. 한국어로 보면 ‘정치가’는 ‘시민’과 거리가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리스어로 보면 politikos(정치가)와 polis(도시국가)와 politēs(시민)는 어근이 동일한 말로서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시민이 지배의 주체가 되는 지배는 ‘시민의 지배’ 또는 ‘정치가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가의 지배는 동등한 자유인 사이의 지배이므로, 지배받는 시민에 대한 지배하는 시민의 지배가 politikē archē인데, 이런 방식으로 지배하는 시민이 ‘정치가’이고, 이러한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인 셈이다. 최선 정체에서 좋은 사람의 덕과 훌륭한 시민의 덕을 모두 지닌 사람은 시민 모두가 아니라 정치가뿐인데(1278b3~5), II.2.3.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최선 정체에서 유덕자인 지배하는 시민이 두 가지 덕을 모두 가져서 지배하는 시민은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politikē archē에서 지배자는 왕, 주인과 대비되는 정치가일 수도 있고, 지배하는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정치가일 수도 있어서 politikē archē를 ‘정치가의 지배’로 번역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치가’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정치에 종사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여겨지지만, 정치가의 지배에서 말하는 ‘정치가’는 정치에 종사하는 전문 직업인이라기보다 시민 중에 자기 차례가 되어서 공직을 맡거나 심의,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politikē archē는 ‘정치적 지배’라는 번역어가 더 적절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정치가의 지배’라는 번역어를 쓴다.

다시 주인의 지배, 왕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면, 이들 지배는 가정에서만 아니라 도시국가에서도 이루어진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의 지배자와 도시국가의 지배자가 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해 입장이 다른데, 플라톤은 가정의 지배자인 주인과 도시국가의 지배자인 왕 또는 정치가는 피지배자의 수에서만 다르다고 생각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이 종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1252a7~10). 왕, 정치가가 지배하는 도시국가와 주인이 지배하는 가정은 질적으로 다른데, 가정에서 가장은 노예, 아내, 아이를 지배하는 반면, 도시국가에서 지배자는 노예, 아내, 아이도 지배하지만, 다른 가장도 지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의 지배자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이 가정의 지배자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보다 우월해서 도시국가의 지배자가 가정의 지배자보다 우월하다고 여긴다. 도시국가의 지배자는 왕 또는 정치가인데, 혼자서 통치하면 왕이고 교대로 지배하면 정치가로 여겨진다(1252a13~16). 모든 가장이 서로 동등하면, 특정한 가장만 항상 지배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동등한 가장 사이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왕은 항상 지배하는 사람인 반면 정치가는 공직을 맡아 지배에 참여할 때도 있고 공직에서 물러나 지배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이와 같이 교대로 지배하는 사람을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으면,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가장에 대한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II.1.1.에서 말했듯이 도시국가가 처음 생겼을 때처럼 최고 연장자가 왕이 되어 항상 지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항상 지배받는 경우에는 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결국 도시국가의 성인 남성 자유인 사이에 우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해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이들 모두가 동등하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

다고 말할 수 있다.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치가의 지배든 우월한 자유인과 열등한 자유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왕의 지배든 피지배자 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를 위한 지배이다. 아이, 아내에 대한 지배는 일차적으로 피지배자 혹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양자 모두를 위하고 부차적으로 지배자를 위하면(1278b37~1279a2), 아이와 아내를 지배하는 가장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가정의 피지배자 또는 가정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주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부차적으로 노예의 이익을 위하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1278b32~36)와 대비된다. 이를 통해 지배자가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은 지배 대상에 따라 다른데, 비자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인의 지배에서 일차적으로 사익이 추구되는 반면, 아이, 아내와 같은 자유인을 대상으로 하는 왕의 지배 또는 정치가의 지배에서 일차적으로 공익이 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국가가 시민들의 동등함과 닮음에 따라 세워지면, 시민들은 정치적인 공직을 교대로 맡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갑이 공직에 있었을 때 을의 이익을 고려한 것처럼 공직에 있는 을이 갑의 좋음을 고려해주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데 있다(1279a8~13). 이로부터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 일차적으로 공익¹⁷⁾이 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당대에 공금과 공직에서 나오는 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지배하고 싶은 자가 있었으며, 그러한 자는 사익을 위해 지배했다. 그는 그러한 자의 지배가 주인의 지배와 같다고 말한다(1279a13~21). 지배자가 사익을 추구할 때 지배받는 자유인은 지배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배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자유인 피지배자에게 주인의 지배는 부적합해서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1.3.2. 세 가지 지배의 구분

17) 공익이 도시국가 전체 차원에서 성립하는지 또는 개인 차원에서 성립하는지에 관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Miller(1995), pp. 191~224, 손병석(2019), p. 74 각주 121번 참고.

그러면 왕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 주인의 지배는 지배의 성격에 있어 어떻게 다른가? 앞서 논의했듯이, 왕의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는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는 지배인 반면, 주인의 지배는 지배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지배이다. 지배자는 비자유인을 지배할 때 일차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지만, 자유인을 지배할 때 일차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자유인인 노예를 지배하는 주인은 노예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로부터 이득을 취한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서 주인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주인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노예를 지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사익을 위해 노예를 지배한다. 이처럼 자유인은 비자유인을 지배할 때 사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자유인을 지배할 때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가장이 아내나 아이를 지배할 때 자신의 이익보다 지배받는 아내나 아이의 이익을 위하는데, 아내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가정에서 가장의 임무 중 하나이다. 가장은 아내와 아이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마련해줘야 하고 더 나아가 아내와 아이가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가정에서 지배자인 가장이 피지배자인 아내와 아이가 이러한 이익을 얻게끔 지배해야 하듯이, 도시국가에서도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이익 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지배해야 한다. 피지배자는 지배를 받음으로써 외국의 침입이나 누군가의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고, 생계의 안정을 통해 곤궁하지 않게 살고 더 많은 부를 지닐 수도 있으며, 덕 교육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경제적 이익, 신체와 재산의 안전, 더 나아가 행복 등이 피지배자 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누릴 수 있는 공익이다. 자유인 피지배자가 경제적 이익 등의 혜택을 일부라도 보게 하려는 지배는 공익을 추구하는 지배이고, 이러한 혜택을 지배자가 독점하려는 지배는 사익을 추구하는 지배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인은 지배를 받을 때 지배의 혜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지배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인의 지배가 자유인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에 지배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주인의 지배가 주로 이루어졌다.

왕의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는 지배자가 자유인을 지배할 때 공익을 추구하는 지배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 따라 두 지배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특정 지배자가 항상 지배하면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지배자가 교대되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항상 우월할 때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등해서 지배가 교대될 때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고 가장이 아내와 아이를 지배하듯이,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열등한 자가 지배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롭다. 가정에서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도시국가에서 가장 사이에 우열을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장은 기본적으로 자유인 성인 남성으로서 서로 동등하기 때문이다. 모든 가장이 서로 동등할 때 특정한 사람이 항상 지배를 하면 안 되므로 교대로 지배할 수밖에 없다. 동등한 자유인 성인 남성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적합하다. 그런데 가장인 자유인 성인 남성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거나 부유하거나 유덕하면 가장 사이에 우열이 있게 되며, 우월한 사람은 자기가 항상 지배하고 다른 사람은 항상 지배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우월함이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어떤 측면에서 우월한 가장은 자신이 항상 지배할 것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왕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Ⅲ.2.1.의 논의를 통해 밝혀지게 된다. 결국 자유인 성인 남성은 모두 동등하기에 이들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적합하지만, 덕, 부, 나이 등에서 우월한 자유인 성인 남성 중 일부의 경우에는 왕의 지배가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왕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 주인의 지배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데, 기본적인 형태의 세 가지 지배는 <표 1>처럼 정리될 수 있다.

	지배자/피지배자	지배	이익
왕의 지배	우월한 자유인/ 열등한 자유인	비교대 지배	공익
정치가의 지배	동등한 자유인/ 동등한 자유인	교대 지배	공익
주인의 지배	우월한 자유인/ 열등한 비자유인	비교대 지배	사익

<표 1> 세 가지 지배

자유인은 지배할 때뿐만 아니라 지배받을 때에도 지배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모두가 지배에 참여할 수 없다. 여성과 아이는 가장보다 열등해서 지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가장조차 지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국가에서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이면, 자유인이지만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시민에 관한 논의를 통해 어떤 자유인이 시민이 되어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2. 시민

2.1. 시민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탐구할 때, 도시국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맨 먼저 고찰할 일인데, 도시국가는 일종의 시민들 집합(plêthos)이기 때문에 시민을 탐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민주정에서 시민인 자가 과두정에서 시민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시민에 관한 논쟁이 종종 벌어진다. 따라서 누가 시민인지를 탐구해야 한다(1274b32~1275a5).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 누구인지를 말하기에 앞서 시민이 아니거나 조건이 붙는 시민이 누구인지를 말한다.

1. 시민이라는 호칭을 다른 방식으로 얻은 사람, 예컨대 명예시민(*poiētos politēs*)은 시민이 아니다(1275a5~6).
2. 어떤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반드시 시민은 아니다. 거주를 공유하는 거류외인(*metoikos*)과 노예는 시민에서 배제된다(1275a7~8).
3.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수 있을 만큼 법적인 사안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시민은 아니다. 계약 당사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고, 거류외인조차 후견인을 지정해서 불완전하게나마 이에 참여하기 때문이다(1275a8~14).
4. 아이와 노인은 조건적으로 시민이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시민명부에 등재되지 못하고,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시민의 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아이와 노인은 무조건적인 의미의 시민이 아니라, 아이는 ‘미성숙한’이라는 조건이 붙는 시민이고, 노인은 ‘전성기가 지난’이라는 조건이 붙는 시민이다(1275a14~17).

아리스토텔레스가 찾고 있는 시민은 시민이 아닌 사람 또는 조건이 붙는 시민이 아니라 조건이 붙지 않는 시민이다(1275a19).

명예시민, 거류외인, 노예, 아이, 노인 등이 시민이 아니거나 조건이 붙는 시민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 1. 명예시민은 특정 도시국가의 ‘시민’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지만, 실제로 그 도시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자기 모국의 시민이다. 2. 거류외인은 특정 도시국가에 거주하더라도, 본인이나 부모 등이 그곳에 거주하기 전에 살았던 도시국가의 시민이다. 3.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이 아닌 계약 당사자와 거류외인 등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수 있을 만큼 법적인 사안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계약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외국인은 오직 자기 모국의 시민이다. 4. 노예는 자유인보다, 아이는 성인보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데, 노예는 숙고하는 영혼의 부분을 완전히 갖고 있지 않고, 여성은 이 부분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은 주도하지 못하며, 아이는 이 부분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은 미성숙하다(1260a12~14). 그래서 노예, 여성, 아이는 자유인 성인 남성의 지배를 받

는데, 노예는 본성적으로 자유인보다 열등해서 시민이 될 수 없지만, 여성과 아이는 자유인이라는 점에서 자유인 성인 남성과 서로 동등하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시민인 사람이 아니라, 부모 모두가 시민인 사람(1275b22~23)”이 시민이라고 말해지는데, 이는 어머니인 여성이 시민임을 뜻한다. 하지만 자유인 여성은 남성보다 숙고하는 영혼의 부분을 열등하게 갖고 있어서 남정보다 열등하고 조건이 붙는 시민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 아이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 숙고하는 영혼의 부분이 완전해서 조건이 붙지 않는 시민이 되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는 숙고하는 영혼의 부분이 미성숙 상태로 있기에 성인보다 열등하고 조건이 붙는 시민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시민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은퇴 후에 성직을 맡는데(1329a31~33), 비록 숙고하는 영혼의 부분을 갖고 있지만 시민의 의무를 면제받은 노인은 정치 활동에 종사하지 않기에 더 이상 정치 활동과 관련하여 숙고하는 영혼의 부분을 발휘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노인은 조건이 붙는 시민으로 일컬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 아닌 사람 또는 조건이 붙는 시민이 아니라 조건이 붙지 않는 시민을 찾아서 이에 대한 정의(定義)를 시도하는데, 우선 시민을 “판결(krisis)과 공직(archē)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1275a22~23). 공직은 임기제 공직과 비임기제 공직으로 나뉘는데, 재판관과 민회 의원은 비임기제 공직이다(1275a26). 재판관과 민회 의원은 공직자가 아니어서 공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서 그는 재판관, 민회 의원처럼 최고로 주도하는 사람한테서 ‘공직’의 칭호를 박탈하는 것은 우습다고 말한다. 그는 시민의 정의를 위해 재판관과 민회 의원을 ‘비임기제 공직’으로 칭하자고 제안하고서 시민을 “비임기제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1275a26~33). 그가 시민의 정의를 “판결과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에서 “비임기제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임기제 공직은 같은 공직을 두 번 이상 역임할 수 없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역임할 수 있는데(1275a23~26), 공직보다 시민의 수가 더 많으면, 모든 시민은 공직을 동시에 맡을 수 없고 교대로 맡을 수밖에 없어서 시민 중 일부는 공직에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에 아테네의 시민은

18세나 20세 이상이면 민회위원이 될 수 있고, 30세 이상이면 배심원과 같은 재판관이 될 수 있듯이¹⁸⁾, 비임기제 공직은 공직 참여에 필요한 자격을 획득한 시민이 평생 맡을 수 있어서 모든 시민이 평생 비임기제 공직에 참여한다. 따라서 비임기제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을 시민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임기제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시민의 정의를 다시 수정한다. 이러한 시민은 민주정에서는 시민이지만, 다른 정체에서는 시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중의 모임(dēmos)도 없고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민회도 없으며 임시소집회의(syngklētos)만 있는 정체도 있고, 소송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이 소송을 판결하는 정체도 있다(1275b5~8). 일부 정체에서 재판관과 민회위원은 비임기제 공직이 아니라 임기제 공직이기 때문에(1275b13~15), 비임기제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이 시민이라는 정의는 모든 정체에서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그는 시민을 “심의하는 공직과¹⁹⁾ 판결하는 공직에 참여할 자격(exousia)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한다(1275b18~20). 임기제 공직자가 심의와 판결을 할 경우에 공직을 맡지 않아서 심의와 판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기제 공직을 현재 맡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맡았거나 미래에 맡을 예정인 사람도 시민으로 간주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종적으로 시민의 정의를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내린다고 볼 수 있다. 자국 출신의 자유인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시민’으로 불릴 수 있지만, 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건이 붙는 시민에 불과하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을 시민으로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인도 시민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가 말하는 시민이 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18) Hansen(1999), pp. 333, 336.

19) Dreizehnter는 ‘과’를 ‘또는(ē)’으로 읽어서 심의하는 공직이나 판결하는 공직 둘 중 하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시민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을 심의와 판결에 모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Spengel을 좇아서 ‘ē’ 대신 ‘kai(과)’로 읽는다.

2.2. 시민의 정의에 관한 문제

시민은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시민의 정의와 관련해서 네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 번째 문제는 관례적으로 부모 모두가 시민인 사람만이 시민이라면, 도시국가의 최초 거주민이나 창건자가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1275b22~34), 두 번째 문제는 정체 변화 이후에 시민이 된 사람이 시민인지에 대한 것이며(1275b34~1276a6), 세 번째 문제는 좋은(agathos) 사람의 덕과 훌륭한(spoudaios) 시민의 덕이 동일한지에 관한 것이고(1276b17~1277b32), 네 번째 문제는 수공업 기술자(banausos)가 시민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1277b33~1278a40).²⁰⁾ 네 가지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관례적으로 시민이 “부모 중 한 사람만 시민인 사람이 아니라, 부모 모두 시민인 사람”으로 정의된다고 말한다(1275b22~23). 페리클레스 이후에 아테네에서 부모가 모두 시민인 사람만 시민이 될 수 있었지만(『아테네 정체』, 26, 4), 이러한 시민의 정의는 도시국가의 최초 거주민이나 창건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데(1275b32~34), 이들의 부모는 다른 도시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국가의 최초 거주민이나 창건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시민의 정의는 제대로 된 시민의 정의라고 말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이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시민의 정의에 따라 정체에 참여했으면 시민이라고 말한다(1275b31~32). 결국 시민은 부모 모두가 시민인 사람이 아니라,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류외인과 외국인 등을 시민에서 배제하는데, 이들 중에 시민이 된 자가 실제로 있었다. 아테네에서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를 추방한 후에 많은 외국

20) Johnson(1984), p. 81.

인과 노예 거류외인(doulos metoikos)²¹⁾을 부족으로 받아들여 시민으로 만들었다(1275b35~37). 비록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의 정의를 내릴 때 거류외인과 외국인 등도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거류외인과 외국인 등이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면, 시민의 정의에 따라 이들도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시민이 된 거류외인이나 외국인이 시민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들이 ‘정당하게’ 시민인지 여부가 논쟁거리라고 말한다(1275b37~39). 이들은 시민의 정의에 부합하면 분명하게 시민이어서 시민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들이 ‘정당하게’ 시민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데, 이는 시민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시민으로 만드는 정체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거류외인, 외국인과 같은 자들이 정당하게 시민인지에 관한 문제는 도시국가의 행위에 관한 논쟁(1274b34~36)과 관련이 있다(1276a6~8). 도시국가의 정체가 바뀐 뒤에도 이전 정체의 행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관한 논쟁이 있는데, 예컨대 참주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참주정이 다른 정체로 바뀌면, 참주가 도시국가를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 참주가 더 이상 도시국가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후자를 주장하는 자들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힘에 의존하는 정체에서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1276a10~16). 이들이 볼 때, 이러한 정체의 지배자는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자체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바뀌면 계약은 무효이며, 지배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정체의 행위는 정당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도시국가의 행위 정당성은 정체에 달려있다. 거류외인과 같은 자들이 정당하게 시민이 되려면 이들을 시민으로 만든 도시국가의 행위가 정당해야 한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정체를 민주정으로 바꾼 다음에 이들을 시민으로 만들었는데, 만약 민주정이 공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힘에 의존하는 정체로 밝혀지면, 이들을 시민으로 만든 행위는 정당하지 않아서

21)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Newman(1887), 1권, p. 231 각주 1번 참고.

이들은 정당하게 시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이 정당하게 시민인지에 관한 문제는 이들을 시민으로 만든 정체가 공익을 위하는 정체인지 또는 사익을 위하는 정체인지 여부를 밝히는 문제와 관련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II.3.2.1.에서 논의한다.

2.3. 좋은 사람과 훌륭한 시민의 동일성 문제

시민의 정의에 관한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사람의 덕과 훌륭한 시민의 덕이 동일하다고 여겨져야 하는지 여부를 고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시민의 덕을 개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1276b16~20). 시민의 정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도중에 왜 시민의 덕, 더 나아가 사람의 덕을 살펴봐야 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동일한 사람이 민주정에서 시민이지만 다른 정체에서 시민이 아닐 수 있듯이, 시민의 범위는 정체마다 다른데, 시민이 갖춰야 하는 자격 요건도 정체마다 다르고, 정체를 위한 시민의 임무도 정체마다 다르며, 시민의 덕도 정체마다 다르다. 어떤 정체에서 정체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면 훌륭한 시민이 되지만, 같은 임무를 다른 정체에서 수행하면 훌륭한 시민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시민의 덕은 정체에 좌우된다. 훌륭한 시민을 이해하려면 이후에 논의할 정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훌륭한 시민이 정체마다 다르면, 어떤 정체에서 좋은 사람의 덕을 지닌 유덕자는 훌륭한 시민이 아닐 수 있는데, 덕을 지닌 좋은 사람일지라도 훌륭한 시민이 아니면 시민의 덕을 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의 덕과 훌륭한 시민의 덕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시민은 선원처럼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선원들은 각자 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선원들 각자의 덕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logos)는 각자마다 다르지만, 항해의 안전(sôtēria)이 선원 모두의 임무이기 때문에 선원 모두에게 적합한 공통된 정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은 각자 다르지만, 모든 시민에게 공동체, 즉 정체의 보존(sôtēria)이라는 임무가 있어서, 시민의 덕은 정체와 관련된다(1276b20~31). 그런데 정체가 여러 종류

라면, 정체가마다 시민의 덕이 달라서 정체의 종류만큼 시민의 덕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시민의 덕은 하나의 완전한 덕일 수 없다(1276b31~33). 반면에 좋은 사람은 하나의 완전한 덕을 갖는데(1276b33~34), 정체와 무관하게 실천적 지혜(phronēsis)를 비롯한 다른 모든 덕을 완전하게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훌륭한²²⁾ 사람이 지닌 덕을 획득하지 않고서도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다(1276b34~35). 좋은 사람의 덕은 하나인 반면, 훌륭한 시민의 덕은 정체의 종류만큼 있어서 두 가지 덕은 동일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 정체와 관련해서도 이와 동일한 논의에 이르고 말한다. 도시국가는 훌륭한 사람만으로 구성될 수 없어도, 각자는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민의 덕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은 다 똑같은 수가 없어서 시민의 덕과 좋은 사람의 덕은 하나의 동일한 덕이 될 수 없다. 게다가 훌륭한 시민의 덕은 모두가 가져야 하지만, 훌륭한 도시국가의 시민 모두가 좋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시민 모두가 좋은 사람의 덕을 가질 수 없어서 시민의 덕과 좋은 사람의 덕은 하나의 동일한 덕이 될 수 없다(1276b35~1277a5). 게다가 도시국가는 서로 다른 구성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의 덕은 하나일 수 없다(1277a5~11).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사람의 덕과 훌륭한 시민의 덕이 무조건 동일하지 않다고 말한다(1277a12~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가지 덕을 동일하게 지닌 사람을 찾는다(1277a13~14). 만약 좋은 지배자의 덕과 좋은 사람의 덕이 동일하지만, 피지배자도 시민이면, 어떤 시민의 덕은 사람의 덕과 동일할지라도 지배자의 덕과 시민의 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덕과 사람의 덕은 무조건 동일하지 않다(1277a20~23). 시민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면, 시민의 덕에는 지배자의 덕과 피지배자의 덕이 있다. 지배자의 덕과 사람

22) 지금 논의에서 ‘좋은(agathos)’과 ‘훌륭한(spoudaios)’은 서로 교환해서 쓰인다. Develin(1973, p. 77)은 ‘agathos’는 내재된 성질을 나타내고 ‘spoudaios’는 행위의 적합성을 나타내서, 전자는 보통 유덕한 사람과 관련되고 후자는 보통 유덕한 시민과 관련되는 것처럼 말한다. 이에 맞서 Keyt(2007, p. 220)는 아리스토텔레스가 3권 4장의 논의에서조차 ‘agathos’와 ‘spoudaios’를 바꿔 써서 1277b5, 13~14에서는 ‘좋은’ 시민을 말하고, 1276b35, 1277a14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Keyt의 주장대로 ‘agathos’와 ‘spoudaios’는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의 덕이 동일해도 지배자의 덕과 시민의 덕이 동일하지 않으면 시민의 덕과 사람의 덕은 동일하지 않은데, 이 때문에 두 가지 덕을 동일하게 지닌 사람은 찾을 수 없는가?

시민에게 어울리는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인데, II.1.3.1.에서 언급했듯이 정치가의 지배는 출생이 비슷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에 관한 지배이다. 기병대 지휘관 밑에서 복무해서 기병대 지휘관이 되는 것을 배우듯이, 지배자는 피지배자가 됨으로써 정치가의 지배를 배워야 한다(1277b7~10). 출생과 자유라는 측면에서 서로 동등한 시민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지배를 독점할 수 없고, 처음에 기병대 지휘관의 부하처럼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기병대 지휘관처럼 지배를 하는 방식으로 모든 시민이 교대로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시민은 지배하고 지배받을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럴 능력도 가져야 하며, 지배와 피지배 양 측면에서 자유인에 대한 지배를 아는 것이 시민의 덕이라고 말한다(1277b13~16).

지배자의 덕과 피지배자의 덕은 동일하지 않은데, 실천적 지혜를 제외한 나머지 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에게 공통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지배자의 고유한 덕은 실천적 지혜이고, 피지배자의 고유한 덕은 참된 의견이기 때문이다(1277b25~29). 지배자는 실천적 지혜를 포함한 모든 덕을 지니서 유덕자인 반면, 피지배자는 실천적 지혜를 제외한 모든 덕을 지닐 수 있어서 유덕자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실천적 지혜도 지니게 되어 유덕자가 될 예비 유덕자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배자는 유덕자인 반면 피지배자는 아직 유덕자가 아니라서, 훌륭한 지배자의 덕은 좋은 사람의 덕과 동일하지만, 훌륭한 피지배자의 덕은 좋은 사람의 덕과 동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훌륭한 지배자가 지배와 피지배 양 측면에서 시민의 덕을 지니면, 오직 그가 좋은 사람의 덕과 훌륭한 시민의 덕을 동시에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사람과 훌륭한 시민이 어떤 도시국가에서 동일하고 어떤 도시국가에서 다르다고 말하는데(1278b2~3), 최선 정체에서 지배자는 실천적 지혜를 포함한 모든 덕을 완전하게 갖고 있어서 좋은 사람의 덕과 훌륭한 시민의 덕을 갖는 반면, 최선 정체 이외의 정체

에서 좋은 사람의 덕을 결여해도 지배자가 될 수 있거나 좋은 사람의 덕을 지녀도 지배자가 될 수 없으면,²³⁾ 오직 최선 정체에서 좋은 사람과 훌륭한 시민이 동일하고, 최선 정체의 지배자가 좋은 사람이자 훌륭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2.4. 시민과 정체

시민의 정의에 관한 네 번째 문제는 공직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민인지 아니면 수공업 기술자도 시민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II.3.3.3.1.에서 상술할 네 번째 민주정이 생기기 전까지 수공업 기술자가 공직에 참여하지 못해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1277b1~3).²⁴⁾ 공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예컨대 수공업 기술자도 시민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지배와 피지배 양 측면에서 자유인에 대한 지배를 아는 것(1277b15~16)인 시민의 덕은 모든 시민에게 속할 수 없다. 수공업 기술자는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서(1277a39~b1) 삶의 필수적인 작업에 매여 있지만, 시민의 덕은 오직 삶의 필수적인 작업에서 해방된 사람에게만 있어서(1278a9~11) 수공업 기술자는 시민의 덕을 가질 수 없다. 수공업 기술자도 시민으로 간주되면, 시민의 덕을 갖지 못한 사람도 시민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반면에 수공업 기술자가 시민이 아니라면 그의 지위가 문제되는데, 수공업 기술자는 거류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기 때문이다(1277b33~39). 수공업 기술자는 시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류외인, 외국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후자는 타국 출신인 반면 전자는 자국 출신이어서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하면, 수공업 기술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수공업 기술자를 시민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Johnson의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공업 기술자가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공업 기술자를 일탈된 의미에서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23) 손병석(2019), p. 258.

24) Newman(1902), 3권, p. 173.

고, 두 번째는 수공업 기술자가 공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공업 기술자를 ‘지배받는 시민(1278a15~16)’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다.²⁵⁾ 공직이 덕과 가치에 따라 주어지는 귀족정에서 덕을 결여하는 수공업 기술자는 시민이 아니지만, 공직이 재산 등급(timēma)에 따라 주어지는 과두정에서 부유한 수공업 기술자는 시민이 될 수 있고, 민주정에서 수공업 기술자는 자유인인 한 시민이다(1278a17~24). 수공업 기술자는 삶의 필수적인 작업에 매여 있어서 지배와 피지배 양 측면에서 자유인에 대한 지배를 아는 것인 시민의 덕을 결여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시민은 될 수 없지만, 일탈된 정체인 민주정에서 수공업 기술자는 민회의원이나 재판관은 될 수 있기에 일탈된 정체에서 시민이 될 수 있는 수공업 기술자는 일탈된 의미에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수공업 기술자가 공직에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으로 간주되면, 수공업 기술자는 지배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오직 지배받는 시민일 수밖에 없다. Johnson은 공직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공업 기술자는 일탈된 의미의 시민은 아니지만, 외국인, 거류외인, 노예가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특권을 갖고 있어서 ‘지배받는 시민’이라고 말한다.²⁶⁾ 하지만 공직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공업 기술자는 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시민이 아니다.²⁷⁾ 수공업 기술자는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정체에서 민회의원이나 재판관이 될 수 있어서 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시민이 될 수 있지만, 공직에 참여할 수 없는 정체에서 ‘지배받는’이라는 조건이 붙는 시민은 될 수 있어도 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시민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공업 기술자가 시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정체마다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 귀족정의 기준(horos)은 덕이고, 과두정의 기준은 부이며, 민주정의 기준은 자유이다(1294a10~11). 그래서 귀족정에서 수공업 기술자와 임금 노동자(thēs)는 유덕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이 아니고, 과두정에서 부유한 수공업 기술자는 시민이 될 수 있지만 임금 노동자는

25) Johnson(1984), p. 85.

26) Johnson(1984), pp. 85~86.

27) Keyt(2007), p. 225.

시민이 될 수 없으며, 민주정에서 둘 다 시민이다(1278a15~25).

민주정에서 외국인도 시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은 인구가 부족할 때 발생하며, 인구가 충분해지면 부모 모두가 시민인 사람만이 시민이고, 부모가 노예이거나 어머니만 시민인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당한다(1278a27~34). 결국 정체마다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달라서 이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시민의 범위는 정체에 좌우된다. 시민의 덕을 결여해도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시민인 반면, 공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조건이 붙는 시민에 불과한 여성, 아이처럼 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시민이 아니다.

정체는 시민의 범위뿐만 아니라 도시국가의 정체성도 좌우한다. 예컨대 하나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하나의 도시국가가 아니듯이(1276a24~27), 동일 장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도시국가의 정체성은 형성되지 않는다. 정체가 달라지면 도시국가는 더 이상 동일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데, 이는 합창 가무단이 어떤 때는 희극 합창 가무단이 되고 어떤 때는 비극 합창 가무단이 될 때, 합창 가무단원은 동일해도 합창 가무단은 다른 것과 같다(1276b1~6). 이제부터 도시국가의 정체성과 시민의 범위를 좌우하는 정체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3. 정체

3.1. 정체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를 “공직들과 관련된, 특히 모든 사안을 주도하는(kyrios) 공직과 관련된 도시국가의 조직(taxis)”으로 정의한다(1278b8~10).²⁸⁾ 정체는 공직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정의될 수

28) 『정치학』에서 정체는 ‘도시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직(1274b38)’, ‘도시국가의 공직에 관한 조직(1289a15~16)’, ‘공직에 관한 조직(1290a7~8)’, ‘도시국가의 어떤 삶(1295a40~b1)’ 등으로 정의된다. Mulgan(1977, p. 56)은 정체에 두 가지 측면, 즉 윤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이 있는데, 제도적 측면에서 정체는 정치 제도의 구조 및 권

도 있고, 모든 사안을 주도하는 공직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의될 수도 있는데, 그는 특히 후자에 주목한다. 모든 곳에서 지배자 집단(politeuma)²⁹⁾이 도시국가를 주도하는데, 정체는 지배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주정에서 민중(dēmos)이 주도하고, 과두정에서 소수(oligoi)가 주도한다(1278b10~14). 지배자 집단은 모든 사안을 주도하는데, 모든 사안을 주도하는 집단은 정체마다 다르다. 예컨대 민주정을 주도하는 민중은 시민 전체일 수도 있고 빈자일 수도 있지만,³⁰⁾ 아리스토텔레스는 빈자를 민중이라 말한다.³¹⁾ 그 다음으로 소수는 부자나 유덕자로 일컬어지지만, 과두정을 주도하는 소수는 부자이다. 그러면 그가 지배자 집단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보기에 정체의 특징은 시민보다 지배자 집단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다. 예컨대 민주정에서 빈자와 부자 모두 시민인 반면, 지배자 집단은 빈자인데, 민주정의 특징은 빈자가 정체를 주도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러면 정체의 공직에 참여하는 시민이 누구인지보다 정체를 주도하는 지배자 집단이 무엇인지에 주목할 때 정체가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시민보다 지배자 집단에 주목해서 여러 종류의 정체를 분류하려 한다.

3.2. 3권의 정체 분류

3.2.1. 정체 분류의 기준

력 분배와 관련된 기술적(descriptive)인 개념인 반면, 윤리적 측면에서 정체는 공동체의 추구 목적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정체의 정의는 ‘도시국가의 어떤 삶’처럼 윤리적 측면에서 내려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제도적 측면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정치학』에서 정체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 측면에 맞춰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9) politeuma를 ‘정부(government)’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빈자와 부자 등 정체를 주도하는 집단이 ‘정부’라는 번역어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본고에서는 이를 ‘지배자 집단’으로 번역한다. Hansen(2013), p. 43.

30) 민주정 지지자가 말하는 민중은 시민 전체 또는 아테네 민중인 반면, 철학자나 민주정 비판자가 말하는 민중은 빈자나 군중이다. Hansen(1999), p. 334.

31) 예외적으로 스파르타 민중은 빈자로 한정되지 않는데, 스파르타 시민 중에 왕과 원로를 제외한 모든 시민이 스파르타 민중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3권 7장에서 정체 분류를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시국가를 지배하는 지배자 집단은 수적으로 일인 또는 소수 또는 다수라서(1279a25~28) 지배자 집단의 수가 정체 분류의 첫 번째 기준이고, 지배자 집단이 공익을 위해 지배하는 정체들은 올바른 정체인 반면 사익을 위해 지배하는 정체들은 일탈된 정체라서(1279a28~31) 지배자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이 정체 분류의 두 번째 기준이다. 우선 그가 지배자 집단을 일인, 소수, 다수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정체는 중요 공직을 구성하는 자의 수에 따라 일인, 소수, 다수의 지배로 나뉜다.³²⁾ 기원전 5세기에 핀다로스가 처음으로 지배를 참주의 지배, 현자들의 지배, 떠들썩한 군대(labros stratos)의 지배로 나누었는데,³³⁾ 이는 일인, 소수,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 헤로도토스도 정체를 세 가지, 즉 민주정(dēmos), 과두정, 일인정(monarchia)으로 나누었는데,³⁴⁾ 이 또한 다수, 소수, 일인의 지배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들을 따라 지배자의 수를 셋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그는 지배자의 수에 지배자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을 추가하여 정체를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후자가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플라톤은 『정치가』에서 정체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다. 지배자의 수에 따라 일인정과 소수의 지배와 다수의 지배가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둘로 나뉜다. 일인정은 왕정과 참주정으로, 소수의 지배는 귀족정과 과두정으로, 다수의 지배는 법을 지키는 민주정과 법을 어기는 민주정으로 나뉜다. 이에 덧붙여 올바른 정체가 일곱 번째 정체인데(302c~e), 왕의 지식(basilikē epistēmē)이나 정치가의 지식(politikē epistēmē)을 지닌 왕 또는 정치가가 지배하는 정체이다. 참된 왕이나 정치가는 왕의 지식이나 정치가의 지식을 갖고 지배해서 일곱 번째 정체가 가장 좋다. 나머지 여섯 가지 정체는 일곱 번째 정체를 모방하는데, 법을 지키는 정체는 이 정체를 잘 모방한 반면, 법을 어기는 정체는 이 정체를 제대로 모방하지 않는다(293d~e). 플라톤은 정체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네 가지, 첫 번째로 일인과 소수와 다수, 두 번째로 강제와 자발성, 세 번째로 가난과 부,

32) Hansen(1998), p. 81.

33) 핀다로스, 『튀티아 찬가』, 2의 86~88.

34) 헤로도토스, 『역사』, 3권 80~82.

네 번째로 법을 갖고 있음과 법이 없음을 제시하는데, 이 중에서 여섯 가지 정체를 분류하는 데 첫 번째 기준과 네 번째 기준이 사용된다(292a). 법을 지키는 정체는 일곱 번째 정체보다 안 좋지만 법을 어기는 정체보다 더 좋다. 결국 정체는 일곱 번째 정체, 왕정, 귀족정, 법을 지키는 민주정, 법을 어기는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 순으로 좋다(302e~303b).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의 정체 분류를 받아들여 정체를 분류했지만 일곱 번째 정체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플라톤과 달리 지배자가 왕의 지식이나 정치가의 지식을 갖고서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지배자의 수에서 플라톤을 따르면서도 법의 준수 여부라는 기준을 지배자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바꾸었는데, 지배자 집단이 법을 지키면서도 사익을 추구하는 정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⁵⁾ 그런데 두 가지 기준은 정말로 다른가? 플라톤은 이익(kerdos)이나 사적인 호의를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악이라고 말한다(300a). 법을 어기는 지배자가 추구하는 이익이 사익이라면, 플라톤이 말하는 사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사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지배자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을 정체 분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Ⅱ.1.3.1.에서 논의했듯이 노예를 지배하는 주인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반면, 아이와 아내를 지배하는 가정은 일차적으로 가정의 피지배 구성원 또는 가정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지배자는 노예와 같은 비자유인을 지배하는 경우에 사익을 추구하고, 아이, 아내와 같은 자유인을 지배하는 경우에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시민들의 동등함과 닮음에 따라 세워진 도시국가에서 시민들은 정치적인 공직을 교대로 맡아야 하는데, 이런 일은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에는 공금과 공직에서 생기는 이득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공직에 있

35)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정체이면서도 지배자가 법을 지키는 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 정체에 관해서는 Ⅱ.3.3.3.1.과 Ⅱ.3.3.3.2.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법을 지키는 이들 정체가 사익을 추구하는 정체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IV.2.2.에서 논의된다.

기를 원했다(1279a8~15). 지배자는 자유인 피지배자를 지배할 때 피지배자를 위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는 정체는 자연스러운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배자가 사익을 위해 항상 지배하려는 일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었는데, 자유인 피지배자를 지배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지배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정체는 부자연스러운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익을 고려하는 정체는 올바른 정체인 반면, 지배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정체는 잘못된 정체이자 올바른 정체에서 일탈된 정체라고 말하는데, 일탈된 정체는 주인이 지배하는 정체와 같은 반면, 도시국가는 자유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1279a17~21). 도시국가는 자유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배자는 자유인 피지배자를 위해 지배해야 하며, 공익이 추구되는 정체가 올바른 정체이다. 반면에 지배자가 지배받는 자유인을 마치 노예처럼 지배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는 잘못된 정체이고, 올바른 정체에서 일탈된 정체이다. 결국 지배자 집단이 공익을 추구하면 올바른 정체가 되고 사익을 추구하면 일탈된 정체가 되는데, 자연스러운 올바른 정체가 부자연스러운 일탈된 정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지배자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은 정체 분류의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3.2.2. 정체의 종류

지배자 집단의 수는 세 가지, 즉 일인, 소수, 다수³⁶⁾이고, 지배자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은 공익이나 사익이라서 두 가지 정체 분류의 기준을 조합하면 여섯 가지 정체가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정체들이 먼저 밝혀지면 일탈된 정체들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하고서(1279a23~25) 올바

36) 소수와 다수는 상대적인 의미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지배자 집단의 수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귀족정의 지배자 집단인 최선자는 최선자가 아닌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과두정의 지배자 집단인 부자는 민주정의 지배자 집단인 빈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중무장보병은 빈자보다 적지만 유덕자, 부자보다 많아서 다수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른 정체들을 먼저 제시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일인의 정체는 왕정, 공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정체는 귀족정, 공익을 추구하는 다수의 정체는 시민정(politeia)이다(1279a32~39). 왕정의 지배자 집단은 일인 지배자인 왕이고, 귀족정의 지배자 집단은 소수의 최선자(aristos)이다. 일인이나 소수는 덕에 있어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1279a39~b1) 왕과 최선자는 완전한 덕을 지닌 유덕자이다. 우선 왕은 자족적이고 모든 좋은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이익을 추구한다(NE 1160b3~6). 그 다음으로 귀족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정체인데, 최선자가 지배하거나 도시국가와 도시국가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의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1279a35~37). 귀족정은 덕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최선자로 구성된 정체인데, 최선자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사람이자 좋은 시민이다(1293b1~6). 최선자는 유덕자라서 덕을 발휘하며 지배하고, 도시국가와 시민에게 최선의 것을 실현하려 해서 왕처럼 피지배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처럼 왕과 최선자는 완전한 덕을 갖고서 공익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³⁷⁾ 그 다음으로 시민정의 지배자 집단은 방위자(propolemoun) 또는 무기 소유자인데(1279b2~4), 방위자는 자기 무기를 소유한 중무장보병이다. 중무장보병은 최선자보다 많아서 다수인데, 일인이나 소수와 달리 다수는 덕 전체에 있어 완벽하기가 어렵지만, 다수에게 가능한 완전한 군사적인 덕을 갖는다(1279a40~b2). 중무장보병은 군사적인 덕을 발휘하여 도시국가의 보존에 이바지하고 시민을 군사적으로 보호하여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민정³⁸⁾은 올바른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완전한 군사적인 덕을 갖는

37) 유덕자가 지배하는 왕정과 귀족정은 전통적인 왕정과 귀족정이 아니다. 전통적인 왕정에서 왕은 왕이 배출되는 가문 출신이고, 전통적인 귀족정에서 귀족은 상류층이 배출되는 가문 출신인데, 이들은 좋은 사람의 덕을 결여할 수 있는 반면,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제시되는 왕정과 귀족정의 지배자는 가문 덕분에 지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덕을 가져서 지배자가 되기 때문이다.

38) 아리스토텔레스는 NE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민정이라 부르는 정체를 금권정(timokratia)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만 재산 등급에 기초한 정체인 금권정(1160a33~35)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정의 지배자 집단인 중무장보병은 무기를 소유할 만큼 어느 정도 재산이 있지만, 말을 키울 만큼 부유하지는 않아서 빈자도 부자도 아닌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법률』에서 의도하는 정체가 민주정과 과두정의 중간인 시민정이며, 시민정은 중

시민정보다 지배자 집단이 완전한 덕을 갖는 왕정과 귀족정이 더 좋은데, 이들 정체는 3권 18장에서 최선 정체로 간주된다.

올바른 정체에 대한 논의에 이어 일탈된 정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시민정’이라는 번역어 문제를 잠시 논의한다. ‘시민정’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politeia는 흔히 ‘혼합정’ 또는 ‘제헌정’³⁹⁾ 등으로 번역된다. 혼합정이 오직 민주정과 과두정의 혼합만을 뜻한다면, ‘혼합정’이라는 번역어가 politeia의 번역어로 가장 합당하겠지만, 혼합정에는 민주정과 과두정이 혼합된 정체뿐만 아니라 민주정과 과두정과 귀족정이 혼합된 귀족정도 있어서 politeia를 ‘혼합정’으로 번역하면 혼합 귀족정은 귀족정이 아니라 politeia에 속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politeia는 ‘제헌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제헌정은 헌법이 있는 정체를 전제한다. 스파르타의 레트라와 같은 법은 헌법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스파르타 정체는 제헌정이라 말할 수 있지만, 민주정과 과두정이 혼합된 politeia만 헌법을 갖고 다른 정체는 헌법을 못 갖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politeia를 혼합정 또는 제헌정으로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시민정’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왕정(basileia)’이라는 이름은 왕(basileus)에서 유래하고 ‘참주정(tyrannis)’이라는 이름은 참주(tyrannos)에서 유래하듯이, politeia는 politēs(시민)에서 유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은 정체의 한 종류인 politeia에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정체에도 있기 때문에 ‘시민정’이라는 번역어는 정체의 한 종류인 politeia보다 모든 정체를 포괄하는 politeia의 번역어로 적합하지만, 후자에 대한 번역어로 이미 ‘정체’ 또는 ‘정치체제’가 널리 쓰여서 정체의 한 종류인 politeia를 ‘시민정’으로 번역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모든 자유인이 서로 동등한 시민이 되어 정체의 한 종류인 politeia에 참여하고 지배하면, 이 정체의 지배자는 이와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정체의 한 종류인 politeia의 번역어를 이러한 지배자의 이름을 따서 ‘시민정’이라 말할 수

무장보병으로 구성된다고 말함으로써(1265b26~29) 중무장보병을 빈자와 부자 사이에 있는 중산층으로 여긴다.

39) politeia를 천병희(2009)와 김재홍(2017)은 ‘혼합정’으로 번역하고, 이창우 외(2006)는 ‘제헌정’으로 번역한다.

있다. 이러한 시민정은 부자와 빈자 모두가 민중(dēmos)인 민주정과 다르지 않지만,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이유 때문에 『정치학』에서 이러한 민주정은 민주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자와 빈자가 시민으로 혼합된 시민정은 귀족과 평민 등의 계급이 서로 조화를 이룬 공화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필자는 ‘공화정’이라는 번역어가 고대 그리스보다 고대 로마를 더 많이 반영하는 번역어라고 판단해서 politeia를 ‘공화정’으로 번역하지 않는다.⁴⁰⁾

정체의 종류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정체 다음으로 일탈된 정체를 제시하는데,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왕정에서 일탈된 정체는 참주정이고, 귀족정에서 일탈된 정체는 과두정이며, 시민정에서 일탈된 정체는 민주정이다.

이익 \ 수	일인	소수	다수
공익	왕정	귀족정	시민정
사익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

<표 2> 3권의 정체 분류

다시 말해 지배자 일인의 이익을 위한 정체는 참주정이고, 부자의 이익을 위한 정체는 과두정이며, 빈자의 이익을 위한 정체는 민주정인데, 이들 정체는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다(1279b4~10). 참주정의 지배자 집단은 참주이고, 과두정의 지배자 집단은 부자이며, 민주정의 지배자 집단은 빈자인데, 귀족정에서 일탈된 정체인 과두정의 지배자 집단인 부자는 소수이고, 시민정에서 일탈된 정체인 민주정의 지배자 집단인 빈자는 다수이다. 결국 정체는 여섯 가지로 분류되고, 각 정체마다 지배자 집단이 별개로 있어서, 지배자 집단만 봐도 어떤 정체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체 분류의 두 가

40) 참고로 politeia를 박성우(2009)는 ‘다수차선정’으로 번역하고, 송유례(2012)와 神崎 繁 외(2018)는 ‘공화정’으로 번역하며, Höffe(2019)는 ‘Res publica’로 이해한다.

지 기준에 따라 정체를 분류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3.2.3. 정체 분류의 기준 문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의 정의(dihorismos)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1279b20). 정체 분류의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과두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정체인데, 민주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다수의 정체이다. 그런데 다수의 부자가 주도하는 정체를 민주정으로, 소수의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를 과두정으로 말한다면, 정체는 잘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1279b20~26), 부자가 주도하는 정체가 민주정이고,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가 과두정이면 이는 이상하기 때문이다. 그는 두 가지 정체 분류의 기준을 고수해서 생긴 결과, 즉 다수의 부자가 주도하는 정체가 민주정이고, 소수의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가 과두정임을 거부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배자 집단의 수라는 기준을 정체 분류의 실제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다.⁴¹⁾ 수에 상관없이 부자가 주도하는 정체는 과두정이고, 수에 상관없이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는 민주정인데, 과두정의 지배자 집단인 부자가 과두정을 주도하고, 민주정의 지배자 집단인 빈자가 민주정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체를 주도하는 지배자 집단이 정체를 결정하지, 지배자 집단의 수가 그 자체로 정체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소수가 과두정을 주도하고 다수가 민주정을 주도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1279b34~38). 소수가 부유하고, 모두가 자유를 공유하는데(1280a4~5), 부자도 빈자도 자유를 공유하면, 빈자는 다수이다. 지배자 집단의 수가 지배자 집단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결과물이면, 지배자 집단의 수라는 기준은 정체 분류의 실제 기준이 아니다. 이 기준이 민주정과 과두정 이외의 정체에서도 정체 분류의 실제 기준이 아닐

41) II.3.3.2.에서 논의되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정은 다수의 자유인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인데, 과두정은 소수의 출생이 좋은 부자가 주도하는 정체라서, 지배자 집단의 수도 엄밀하게 말하면 정체 분류의 기준이 된다. 민주정에서는 빈자가 다수일 때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 정체를 주도할 수 있어서 수가 중요하지만, 과두정에서는 부자가 소수여도 정체를 주도할 수 있어서 수가 문제되지 않는다.

수 있으면, 다수의 최선자가 주도하는 정체를 귀족정이라 말해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과 과두정이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 진정한 이유는 다수와 소수가 아니라 가난과 부이다. 부자의 수에 상관없이 부 때문에 지배하는 정체는 필연적으로 과두정인 반면, 빈자가 지배하는 정체는 필연적으로 민주정이다(1279b39~1280a3). 그런데 왜 민주정은 빈자가 ‘가난’ 때문에 지배하는 정체라고 말해지지 않는가? 가난은 부와 달리 추구 대상이 아니며, 빈자도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기를 열망해서 부를 추구한다. 빈자가 추구하는 부는 부자가 추구하는 부와 다른데, 부자는 부가 많을수록 더 많은 명예와 더 높은 공직을 누릴 수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부를 추구하지만, 빈자는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부를 추구한다.⁴²⁾ 빈자는 실제로는 부를 얻기 위해 지배하지만, 겉으로는 부가 아니라 자유를 내세우며 지배한다. 빈자는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민주정의 진짜 원인은 자유가 아니라 가난이다. 민주정의 진짜 원인이 자유였다면, 모든 시민이 자유를 공유하기 때문에(1280a5) 민주정의 지배자 집단은 빈자가 아니라 시민 전체여야 하는데, 빈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지배자 집단인 정체는 3권의 정체 분류에 없어서 자유는 민주정의 진짜 원인이 아니다. 빈자는 자유를 내세우며 지배하지만, 실제로는 가난을 이유로 지배자 집단을 형성하고서 부자와 대립한다. 가난과 부가 민주정과 과두정이 서로 다른 정체가 되는 진짜 이유라면, 지배자 집단의 수 때문이 아니라 지배자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정체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3.2.4. 시민의 정의와 정체 분류 사이의 문제

42) 부자는 부에서 동등하지 않으면 완전히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동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여(1280a22~24, 1301a31~35) 부에 비례해서 명예와 공직 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한다(1307a19~20). 반면에 빈자는 명예보다 이득을 더 갈망할 만큼(1318b16~17) 일차적으로 부를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부자와 달리 빈자는 동등한 몫을 갖는 것으로 만족한다(1307a17~18). 부자와 빈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에 대한 탐욕(pleonexia)을 지닌다(1297a11~13). 손병석(2019), pp. 274~275.

민주정과 과두정에서 지배자 집단의 수라는 기준이 정체 분류의 실제 기준은 아니지만, 빈자는 부수적으로 다수이고 부자는 부수적으로 소수라서 지배자 집단의 수와 지배자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이라는 기준을 조합하여 정체를 분류할 수 있다. 3권의 정체 분류가 논의되었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 즉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와 3권의 정체 분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룰 때가 되었다. Cooper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때때로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에 해당되는 시민의 범위보다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이라는 말을 쓴다고 말하는 Newman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민의 범위를 모든 ‘자국민 자유인 거주자(free, native-born residents)’로 확장한다. 3권 1장처럼 시민이 정의되면, 올바른 정체가 일탈된 정체와 다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왕정에서 심의와 판결을 오직 왕이 하는데, 왕이 시민의 공익을 추구하면, 왕정과 참주정은 구분되지 않는다. 왕정과 참주정에서 왕과 참주는 일인 시민인데, 이들은 지배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유일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귀족정과 과두정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들 정체가 서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민회의원, 재판관 이외의 시민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Cooper는 모든 ‘자국민 자유인 거주자’를 시민으로 여기지만, 수공업 기술자와 임금 노동자는 시민에서 제외한다.⁴³⁾ 시민의 범위가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보다 확장되면, 왕정과 참주정, 귀족정과 과두정은 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귀족정에서 수공업 기술자와 임금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므로 올바른 정체의 시민은 이들을 제외한 모든 ‘자국민 자유인 거주자’이다.

Keyt는 Cooper의 주장에 수긍하여 시민을 일등 시민(first-class citizen)과 이등 시민(second-class citizen)으로 나누고서 시민의 범위를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보다 확장한다. 일등 시민은 네 가지, 즉 완전한 시민(full citizen), 미성년 시민, 은퇴 시민, 여성 시민으로 나뉘는데, 가장인 완전한 시민이 미성년 시민, 은퇴 시민, 여성 시민을 돌보면, 완전한 시민

43) Cooper(1990), pp. 228~229.

의 이익은 시민 전체의 이익과 같다. 시민 전체의 이익이 도시국가의 공익인데, 완전한 시민이 또한 도시국가의 지배자이면, 완전한 시민은 공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익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올바른 정체와 일탈된 정체 사이의 구분은 사라진다. Keyt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등 시민을 제시한다. 예컨대 왕정에서 완전한 시민은 오직 왕이지만, 왕 이외에 시민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1285a25~27, 1311a7~8), 이들은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에 참여하지 않는 이등 시민이다. 그는 일등 시민과 이등 시민 모두의 이익을 공익으로 여기면 올바른 정체와 일탈된 정체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정체는 일등 시민과 이등 시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반면, 일탈된 정체는 일등 시민의 이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⁴⁴⁾

Morrison은 시민의 정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 분류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하면서 시민의 정의에 해당되는 시민의 범위가 지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국한되면 Cooper가 말한 문제, 즉 왕정과 참주정, 귀족정과 과두정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지배자와 시민 집단이 동일하면, 참주정과 과두정의 지배자는 한편으로 공익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⁴⁵⁾ 시민의 정의가 달라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Morrison은 시민마다 정도(degree)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여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와는 다른 시민의 정의를 제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philia)나 존재(on) 개념에 정도 차이가 있듯이,⁴⁶⁾ 시민에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공직에 참여하는 시민은 완전한 시민(full citizen)이고, 아이, 노인, 거류외인, 추방자, 시민권 박탈자는 불완전한 시민(partial citizen)이다. 완전한 시민은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에 참여하고, 불완전한 시민은 도시국가를 위한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데, 이런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노예는 시민이 아니다. 올바른 정체는 완전한 시민과 불완전한 시민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일탈

44) Keyt(1993), pp. 140~141.

45) Morrison(1999), pp. 144~145.

46) 한 종류의 친애와 존재가 최고의 것으로서 기준이 되고, 나머지 종류의 친애와 존재는 열등하다. Morrison(1999), p. 157. 세 가지 종류의 친애에 관해서는 NE 8권 3장을 참고하고, 네 가지 종류의 존재에 관해서는 『형이상학』 5권 7장을 참고.

된 정체는 완전한 시민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체와 일탈된 정체는 서로 구분된다. Morrison은 시민마다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시민의 정의를 수정하면, 올바른 정체와 일탈된 정체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어 3권의 정체 분류 문제도 해소된다고 주장한다.⁴⁷⁾

Riesbeck은 정체 분류와 시민의 정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 다음에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왕정과 귀족정에서 일인인 왕 또는 소수인 최선자가 최고 권위를 갖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⁴⁸⁾ 그는 Cooper의 입장을 발전시킨 Keyt와 Morrison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우선 그는 Keyt가 제안한 ‘이등 시민’을 거부한다. 수공업 기술자가 공직에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라면 이등 시민인데, Riesbeck은 수공업 기술자가 민주정처럼 공직에 참여해야 시민이지, 귀족정처럼 공직에 참여하지 못하면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등 시민은 없어서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⁴⁹⁾ 그 다음으로 Morrison의 주장을 반박한다. Morrison은 시민의 정도 차이를 말할 뿐 지배나 권위의 차이를 말하지 않고, 가장 높은 정도의 시민은 지배에 참여하지만 낮은 정도의 시민은 지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이에 대해 Riesbeck은 지배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시민인데, 시민은 다양한 정도의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Morrison은 거류외인이 불완전한 시민이라는 입장을 지지하지만, Riesbeck은 거류외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만큼 법적인 사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이 되기가 불충분해서 거류외인은 불완전한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⁵⁰⁾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직을 맡아서 지배에 참여할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공직들 사이에 권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배자 집단을 구성하는 가장 주도적인 공직을 맡을 자격은 없어도 덜 주도적인 공직을 맡을 자격을 지닌 시민은 존재한다.⁵¹⁾ 결국 그는 시민들 사이에 권위나 지배의 정도차가 있다고 주장하여 Keyt와 Morrison

47) Morrison(1999), pp. 156~161.

48) Riesbeck(2016a), pp. 180~182.

49) Riesbeck(2016a), pp. 193~194.

50) Riesbeck(2016a), pp. 223~225.

51) Riesbeck(2016a), pp. 212~213.

의 주장을 반박하고,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가 일관되게 적용되어 시민의 정의와 정체 분류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배자 집단이 공익을 추구하는 정체는 올바른 정체인 반면, 사익을 추구하는 정체는 일탈된 정체이다. 공익의 수혜자는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 여성 등 모든 자유인인 반면, 사익의 수혜자는 지배자 집단이다. 지배자 집단에 속하지 않아도 지배에 참여하는 시민이 있으면, 왕만 왕정의 시민인 것은 아니고, 최선자만 귀족정의 시민인 것도 아니다. 왕정에는 왕을 수호하는 시민들도 있고(1285a25~29), 왕이 많은 것을 감독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공직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기에(1287b8~9) 왕이 아닌 시민들이 지배자 집단에 속하지 않아도 공직자로서 지배에 참여한다.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1278a36)이 시민이라는 정의는 3권의 정체 분류와 충돌하지 않는다. 정체는 시민이 아니라 지배자 집단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지배자 집단에 속하지 않은 채 지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시민으로 있어도 3권의 정체 분류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이 시민이라는 정의는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데,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에 참여하는 시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왕정에서 왕이 아닌 사람은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에 참여할 수 없지만, 도시국가가 존재하기 위해 어느 정체든 필수 공직이 있어야 한다(1321b6~7). 필수 공직은 여러 개가 있어서 일인이 맡을 수 없기에 왕이 아니더라도 필수 공직을 맡을 수 있다. 결국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에 의해서는 시민이 아닌 사람이 필수 공직을 맡고 있어서 시민이라면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는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이 아니라 필수 공직과 같은 공직에 참여할 자격을 지닌 사람도 시민이라면, 시민의 정의는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Riesbeck은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이 시민이라는 정의가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서⁵²⁾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와 3권의 정체 분류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52) Riesbeck(2016a), p. 193.

말하지만,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이 시민이라는 정의는 3권 1장의 시민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시민의 정의가 수정되더라도 정체는 지배자 집단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수정된 시민의 정의와 3권의 정체 분류 사이에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3. 4~6권의 정체 분류

3.3.1. 4~6권의 정체 분류의 도입 배경

아리스토텔레스는 4~6권에서도 정체를 분류하는데 4권 2장에서 정체의 종류가 여섯 가지라고 말한다. 3권에서 왕정과 귀족정에 관해 이미 논의되어서,⁵³⁾ 모든 정체에 공통된 이름(politeia)을 갖는 시민정과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다(1289a26~38). 그런데 그는 4권 7장에서 정체의 종류가 다섯 가지, 즉 민주정, 과두정, 일인정(monarchia), 귀족정, 모든 정체에 공통된 이름으로 불리는 시민정이라고 말한다(1293a35~40). 그는 4권 2장에서 서로 다른 정체로 제시한 왕정과 참주정을 4권 7장에서 일인정으로 통합하여 정체의 종류 중 하나가 일인정이고 일인정의 종류에 왕정과 참주정이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일인정이 아니라 왕정과 참주정을 정체의 종류로 여긴다. 그가 정체의 변화의 기원과 일인정의 변화의 기원이 같다고 말할 때(1311a23~25) 정체는 일인정이 아닌 정체, 즉 민주정, 과두정, 귀족정, 시민정인 반면,

53) 귀족정에 관한 논의가 3권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3권에서 귀족정의 종류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왕정과 함께 귀족정도 논의되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귀족정에 관한 논의가 3권이 아니라 7, 8권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3권과 4권 사이에 단절이 없다고 보는 입장인 반면, 후자는 3권과 4권 사이에 단절이 있어서 7, 8권이 3권과 4권 사이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치학』의 권들 배열을 현재 전승된 것과 다르게 바꿔야 할 이유가 없고, 아리스토텔레스가 7, 8권의 최선 정체를 귀족정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귀족정에 관한 논의는 3권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귀족정에 관해서는 주로 3권 15~16장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인의 지배와 반대되는 다수의 지배는 실질적으로 일인보다 많은 소수인 유덕자의 지배인데다가 왕정과 대비되는 정체는 귀족정이기 때문이다. Lord(2013), p. 99. 각주 8번, Kraut(2002), pp. 427~428. 각주 1번 참고.

일인정은 왕정과 참주정인데, 일인정이 아닌 정체는 정체의 종류가 아니듯이, 일인정도 정체의 종류가 아니다. 그는 일인정을 정체의 종류로 여기지 않기에 정체의 종류는 실제로 여섯 가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람이 북풍과 남풍만 있듯이 정체가 민주정과 과두정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맞서고자 4~6권에서 정체 분류를 제시한다. 이들은 서풍은 일종의 북풍이고 동풍은 일종의 남풍이듯이 귀족정은 일종의 과두정이고, 시민정은 일종의 민주정이라고 여긴다(1290a13~19). 이들의 주장대로 민주정과 과두정만 정체의 종류라면, 귀족정과 시민정은 정체의 종류가 아닌데, 귀족정과 과두정은 소수가 지배하는 정체이고 시민정과 민주정은 다수가 지배하는 정체라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간주되고, 시민정은 민주정으로 간주된다. 정체가 민주정과 과두정만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지배자의 수를 기준으로 삼아 정체를 분류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대부분의 정체는 민주정 또는 과두정이어서(1296a22~23) 일인정인 왕정과 참주정이 언급되지 않은 채 정체의 종류가 말해진 것처럼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이 귀족정과 시민정을 무시한 것을 문제 삼는데, 이들은 지배자의 수를 정체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서 민주정과 과두정만 있다고 여기지만, II.3.2.1.에서 논의했듯이 정체를 분류할 때 지배자의 수뿐만 아니라 지배자가 추구하는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가 지배하는 정체 중에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정과 사익을 추구하는 민주정은 서로 다르고, 소수가 지배하는 정체 중에 공익을 추구하는 귀족정과 사익을 추구하는 과두정도 서로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익을 위한 정체는 올바른 정체이고 사익을 위한 정체는 일탈된 정체라고 말하는데(1279a28~31), 올바른 정체가 일탈된 정체보다 더 좋다고 여긴다. 왕정, 귀족정, 시민정은 올바른 정체인 반면,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은 일탈된 정체이다. 왕정과 귀족정이 최선 정체이고,⁵⁴⁾ 시민정이 그 다음으로 좋은 정체인 반면, 세 가지 일탈된 정체 중에 참주정이 가장 나쁘고, 과두정이 두 번째로 나쁘며, 민주정이 가장 덜 나쁘다(1289b2~11). 그러면 정체는 왕정과 귀족정>시민정>민주정>과두정>참주정 순으로 좋다. 따라서 귀족정과 시민정은 과

54) 엄밀하게 말하면 첫 번째이자 가장 신적인 정체인 왕정이 최선 정체이지만(1289a40), 느슨하게 말하면 최선자가 관리하는 왕정과 귀족정이 최선 정체이다(1288a32~37).

두정과 민주정의 한 종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두정과 민주정보다 더 좋은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두 가지의 정체가 잘 구성된 것인 반면 나머지 정체는 일탈된 것인데, 그 중 일부는 최선 정체에서 일탈했고 다른 일부는 잘 혼합된 정체⁵⁵⁾에서 일탈했으며, 조여지고 주인의 지배 같은 정체는 과두정이고 느슨하고 부드러운 정체는 민주정이라고 말한다(1290a24~29). 그가 말하는 잘 구성된 정체와 일탈된 정체는 각각 무슨 정체인가? 우선 잘 구성된 정체는 최선 정체이다. 잘 구성된 정체, 즉 최선 정체는 한두 가지의 정체인데, 한편으로 그것은 왕정과 귀족정이어서 두 가지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첫 번째이자 가장 신적인 정체인 왕정이어서(1289a40)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최선 정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왕정이지만, 왕정과 귀족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일탈된 정체는 어떤 정체에서 일탈한 것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최선 정체에서 일탈하고, 다른 하나는 잘 혼합된 정체에서 일탈한다. 최선 정체에서 일탈한 정체는 잘 혼합된 정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⁵⁶⁾이 가장 올바른 정체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말하는데(1293b25~26), 가장 올바른 정체는 최선 정체이고,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은 잘 혼합된 정체이다. 반면 잘 혼합된 정체에서 일탈한 정체는 민주정과 과두정이다.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에서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빈자나 부자가 정체를 주도하게 되어 정체는 빈자가 주도하는 민주정이나 부자가 주도하는 과두정으로 일탈하는데, 민주정과 과두정이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보다 열등하다. 그러면 귀족정과 시민정은 과두정과 민주정의 한 종류에 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족정과 시민정이 과두정과 민주정보

55) Immisch의 제안에 따라 'harmonias(선법)'를 삭제해서 읽는다. 바로 앞에서 선법이 논의된 데다가 '조여진', '느슨한'과 같은 말은 선법과 관련해서 쓰이기 때문에 '선법'이라는 말을 삭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일탈된 정체가 최선 정체에서 일탈된 것처럼, 다른 정체는 잘 혼합된 '정체'에서 일탈된 것이 논의에 더 어울린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Lord(2013), pp. 101~102. 각주 15번 참고.

56) II.3.3.3.3에서 논의되겠지만, 혼합 귀족정은 귀족정의 한 종류인데, 최선 정체인 귀족정과 같지 않다. 유덕자만 지배하는 정체는 최선 정체인 귀족정이고, 유덕자와 부자와 빈자 또는 유덕자와 빈자가 혼합해서 지배하는 정체는 혼합 귀족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혼합 귀족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후 논의에서 지배자가 혼합된 귀족정은 '혼합 귀족정'으로 호칭한다.

다 더 좋기 때문에, 정체가 민주정과 과두정만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주장은 반박된다고 말할 수 있다.

3.3.2. 4~6권의 정체 분류 기준

아리스토텔레스는 4~6권에서 여러 종류의 정체가 있는 이유와 정체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3권과 다르게 논의한다. 그는 모든 도시국가가 여러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종류의 정체가 있다고 말한다(1289b27~28). 도시국가의 구성원이 부자, 빈자, 중산층(mesos)이라면(1289b29~31), 도시국가의 부분은 세 부분인데, 많은 대목에서 중산층은 언급되지 않아서 도시국가의 부분은 부자와 빈자인 것처럼 논의된다. 그가 부자, 빈자와 별개로 중산층이 있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부자와 빈자 중 일부가 중산층이라고 여기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가 도시국가의 부분을 부자, 빈자, 중산층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부자, 빈자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자는 중무장을 할 수 있고 빈자는 중무장을 할 수 없으며, 민중(dēmos)에는 농부, 상인, 수공업 기술자 등이 있고 상류층(gnōrimos) 사이에 부와 재산의 양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1289b31~35). 그는 부자와 빈자가 도시국가의 부분이며, 민중과 상류층은 각각 몇 가지 부분을 갖는다고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부자와 상류층, 빈자와 민중은 동일하지 않다. 상류층은 부, 출생, 덕, 교육 등에서 우월하여(1291b28~30) 부자 중에 가문이 좋고 유덕한 사람이 상류층이고, 민중은 부자와 빈자를 포함한 시민 전체를 뜻할 수도 있고 오직 빈자를 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4~6권의 많은 대목에서 부자와 상류층, 빈자와 민중을 각각 바꿔 말하기 때문에, 4~6권에서 상류층을 부자로, 민중을 빈자로 봐도 무방하다. 부자와 빈자는 도시국가의 부분이면서 각각 몇 가지 부분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있어서 여러 종류의 정체가 있다고 말하는데(1290b23~24), 도시국가에는 아홉 가지 부분,

즉 1. 농부, 2. 수공업 기술자, 3. 상인, 4. 임금 노동자, 5. 전사, 7. 부자, 8. 공직자, 9. 심의하는 사람과 판결하는 사람이 있다(1290b37~1291a40).⁵⁷⁾ 동일한 사람이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질 수 있어서 전사이자 농부이자 기술자이자 심의하는 사람과 판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동시에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불가능해서, 부자와 빈자는 서로 반대되는 도시국가의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부자와 빈자 중 우월한 쪽을 따라 정체가 세워져서 과두정과 민주정이 있다고 여겨진다(1291b2~13).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종류의 민주정과 과두정도 있다고 말한다. 민중과 상류층에는 각각 몇 종류가 있는데, 민중에는 농부, 기술자, 상인, 수병과 무역종사자와 뱃사공과 어부, 막노동자, 극빈자, 부모 모두가 시민이 아닌 자유인⁵⁸⁾ 등이 있고, 상류층은 부, 좋은 출생, 덕, 교육 등에 따라 나뉜다(1291b17~30). 빈자와 부자에는 각각 몇 종류가 있는데, 빈자는 직업에 따라 나뉘고, 부자는 부의 정도에 따라 나뉜다. 엄밀히 말하면 덕, 좋은 출생, 교육의 정도가 반드시 부에 비례하지 않지만, 논의의 편의상 상류층은 부의 정도에 따라 나뉜다고 보면, 빈자는 직업뿐만 아니라 부의 정도에 따라서도 나뉘는데, 빈자의 부의 정도는 직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빈자 중에 농부가 가장 부유하고, 막노동자가 가장 가난하다. 빈자든 부자든 부의 정도에 따라 몇 종류로 나뉘는데, 어떤 종류의 빈자가 민주정을 주도하는지에 따라 민주정의 종류가 달라지고, 어떤 종류의 부자가 과두정을 주도하는지에 따라 과두정의 종류가 달라진다. 따라서 4~6권에서 민주정과 과두정, 더 나아가 민주정의 종류와 과두정의 종류의 분류 기준은 정체 주도자의 부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가 주도하는 정체를 무조건 민주정으로 여기면 안 되고, 소수가 주도하는 정체를 무조건 과두정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서(1290a30~33) 다수가 주도하지만 민주정이 아닌 정체와 소수가 주

57) 누락된 여섯 번째 부분은 성직자로 추정된다(1328b11~13, 22, 1329a27).

58) 부모 중 하나는 시민인 반면 다른 하나는 거류외인이나 노예인 사람을 말한다. 神崎 繁 외(2018), p. 205. 각주 20번. 네 번째 민주정에서 적법하지 않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시민인 사람도 시민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1319b9~10), 인구수가 충분해지면 부모 모두가 시민이 아닌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1278a32~34).

도하지만 과두정이 아닌 정체의 예를 제시한다. 전체 1,300명 중 부자 1,000명이 빈자 300명에게 공직을 나눠주지 않는 정체는 민주정으로 불리지 않고, 소수인 빈자가 더 강력해서 다수인 부자에게 공직을 나눠주지 않는 정체는 과두정으로 불리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인이 주도할 때 민주정이 있고, 부자가 주도할 때 과두정이 있다고 말해져야 한다(1290a33~b2). 그러면 민주정과 과두정의 구분은 정체의 주도자가 자유인인지 부자인지에 달려 있을 뿐, 다수인지 소수인지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민주정은 자유인이 주도하는 정체라고 말해지는데, 실제로 민주정은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이기 때문에 민주정을 주도하는 자유인은 빈자를 뜻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인과 부자 중 누가 주도하는지만으로 민주정과 과두정이 충분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수인 자유인⁵⁹⁾이 다수인 비자유인을 지배하는 정체를 민주정(dēmos)으로 여기면 안 되고, 다수인 부자가 지배하는 정체를 과두정⁶⁰⁾으로 여기면 안 되며, 오히려 다수의 자유인 빈자가 공직을 주도하는 정체는 민주정이고, 소수의 출생이 좋은 부자가 공직을 주도하는 정체는 과두정이다(1290b7~20). 정체 주도자가 빈자인 자유인일지라도 소수인 정체는 민주정이 아니고, 정체 주도자가 부자일지라도 다수인 정체는 과두정이 아니다. 정체의 주도자가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정체 주도자의 수도 민주정과 과두정을 규정하는 데 필요해서 ‘다수, 자유인, 빈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정체는 민주정이고, ‘소수, 출생이 좋은 자, 부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정체는 과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유인은 출생이 좋은 자와 대비되는 출생이

59)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수의 자유인이 다수의 비자유인을 지배하는 정체를 민주정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서 아폴로니아와 테라의 예를 드는데, 이곳에서 최초 식민지 정착민의 자손이자 출생이 좋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공직에 있었다(1290b11~14). 이곳에서 자유인은 출생이 좋은 사람이지만 빈자는 이러한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빈자인 자유인이 지배하는 정체를 민주정으로 여기면 안 되는 예로 아폴로니아와 테라의 정체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 자유인은 기본적으로 노예와 대비되는 자이지만, 이 대목과 1283a33~34에서 자유인은 출생이 좋은 사람을 뜻한다.

60) 원문은 민주정(dēmos)인데, 자유인이 지배하는 정체를 민주정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과 부자가 지배하는 정체를 과두정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서로 대비되므로, Bojesen의 제안에 따라 ‘과두정(oligarchia)’으로 읽는다.

나쁜 자를 뜻한다. 민주정은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이고 과두정은 부자가 주도하는 정체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정은 다수의 자유인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이고, 과두정은 소수의 출생이 좋은 부자가 주도하는 정체이다. 4~6권에서 민주정과 과두정의 분류 기준은 정체 주도자의 부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체 주도자의 부와 수라고 말할 수 있다.⁶¹⁾ 소수의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와 다수의 부자가 주도하는 정체는 각각 민주정과 과두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둘 다 민주정도 과두정도 아닌 다른 정체로 여겨져야 한다.⁶²⁾

정체는 민주정과 과두정만 있지 않다. 혼합 귀족정과 시민정은 혼합⁶³⁾을 통해 형성되는 정체인데, 부자와 빈자가 혼합된 정체는 시민정이고, 유덕자⁶⁴⁾와 부자와 빈자가 혼합된 정체는 혼합 귀족정이다(1294a22~25). 따라서 4~6권에서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의 분류 기준은 혼합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덕자가 혼합에 포함되면 혼합 귀족정이고, 포함되지 않으면 시민정이다. 그 다음으로 도시국가의 주요 부분인 빈자와 부자 모두 또는 일부가 지배하는 정체, 즉 민주정과 과두정,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이 4~6권에서 주로 논의되는 반면, 지배자가 빈자나 부자가 아니고 일인인 왕정과 참주정은 4~6권에서 부차적으로 논의된다. 왕은 공익을 추구하고 참주는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1310b40~1311a4), 4~6권에서 왕정과 참주정의 분류 기준은 3권의 정체 분류 기준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4~6권의 정체 분류 기준을 종합하면, 민주정과 과두정의 분류 기준은 정체 주

61) 과두정에서 부자의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민주정에서 빈자의 수는 매우 중요하다. 민주정에서 다수인 빈자는 다수결의 원리가 채택되는 민회나 법정을 주도하는데, 빈자가 소수이면 민회나 법정을 주도할 수 없다. Mulgan(1991), p. 317.

62) 소수의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와 다수의 부자가 주도하는 정체는 시민정 또는 혼합 귀족정으로 여겨진다. Hansen(2013), p. 16.

63) 혼합은 정체의 지배자, 예컨대 부자와 빈자가 결합되거나, 정체의 구분 지표(horos), 예컨대 덕, 부, 자유가 결합되거나, 정체, 예컨대 민주정과 과두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혼합을 통해 형성된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은 둘 이상의 정체의 성격을 지닌다.

64)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에 존재했던 스파르타 정체와 카르타고 정체는 혼합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혼합 귀족정의 혼합 요소 중 하나가 덕 또는 유덕자이다. 그런데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도시국가의 주요 부분은 경제적 차원에서 구분되는 빈자와 부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과 무관한 유덕자는 빈자, 부자와 이질적인 집단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덕자는 정체를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혼란에 빠뜨린다.

도자의 부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체 주도자의 부와 수이고, 혼합 귀족정과 시민정의 분류 기준은 혼합 주체이며, 왕정과 참주정의 분류 기준은 정체 주도자의 수와 정체 주도자가 추구하는 이익이다. 4~6권에서 정체 분류는 복잡해 보이지만, 우선 정체 주도자가 일인인지 여부, 그 다음으로 정체 주도자가 혼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두 가지 정체 분류의 차이와 관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정체 및 각 정체의 종류에 대한 논의를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

3.3.3. 각 정체의 종류

3.3.3.1. 민주정의 종류

아리스토텔레스는 4권 4장과 6장, 6권 4장에서 민주정의 종류를 제시한다. 4권 4장에서 다섯 가지 종류가 제시되는 반면, 4권 6장과 6권 4장에서 네 가지 종류가 제시된다. 4권 4장의 첫 번째 민주정은 4권 6장과 6권 4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반면, 4권 4장의 두 번째~다섯 번째 민주정은 4권 6장과 6권 4장의 첫 번째~네 번째 민주정이다. 명칭의 혼동을 막기 위해 4권 6장과 6권 4장의 첫 번째~네 번째 민주정은 첫 번째~네 번째 민주정으로 칭하고, 4권 4장의 첫 번째 민주정은 1.2.3.에서 언급한 대로 인용 부호를 붙인 ‘첫 번째 민주정’으로 칭한다. 먼저 ‘첫 번째 민주정’을 논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민주정’이 무엇보다도 동등함(ison)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등함이란 빈자와 부자 중 어느 쪽도 우월하지 않고, 어느 쪽도 주도하지 않으며, 둘 다 서로 닮은 것이다. 어떤 이들의 가정처럼, 자유와 동등함이 특히 민주정에 있으면, 모두가 최대한 동일한 방식으로 정체에 참여하여 자유와 동등함이 가장 잘 실현되겠지만, 민중은 다수이고 다수의 의견(to doxan tois pleiosin)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정체는 민주정일 수밖에 없다(1291b30~38). ‘첫 번째 민주정’에서 성인 남성 자유인은 부자든 빈자든 상관없이 정체에 참여하는데 자유인이라는

점에서 동등해서 정체에 동등하게 참여한다고 말해진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면 시민 사이에 교대 지배가 잘 이루어져서 ‘첫 번째 민주정’은 정치가의 지배가 잘 이루어진다고 여겨지는데, 다수의 의견이 정체를 주도하면 부자보다 다수인 빈자가 ‘첫 번째 민주정’을 주도하게 된다. 그래서 빈자가 주도하는 ‘첫 번째 민주정’은 민주정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와 빈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대립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회에 서 어떤 결의(psêphisma)가 채택되어야 하는데, 결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채택되므로 오직 다수인 빈자의 주장만이 결의로 채택될 뿐, 소수인 부자의 주장은 결의로 채택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는 정체에 참여하지만 정체를 주도하지 못한다. 결국 ‘첫 번째 민주정’은 빈자가 정체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민주정이지만, 이후에 논의될 네 번째 민주정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4권 6장과 6권 4장에서 ‘첫 번째 민주정’은 제시되지 않는데, 이는 네 번째 민주정과 ‘첫 번째 민주정’이 다르지 않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민주정’뿐만 아니라 네 번째 민주정에서도 모든 성인 남성 자유인은 정체에 참여할 수 있는데, 부자는 정체에 참여하지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채택되는 결의에 부자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 민주정과 ‘첫 번째 민주정’은 다른 정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민주정’이 네 번째 민주정이 아니라 첫 번째 민주정과 같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잠깐 검토가 필요하다. Papageorgion은 첫 번째 민주정을 ‘첫 번째 민주정’의 다른 말로 보고,⁶⁵⁾ Newman은 첫 번째 민주정이 ‘첫 번째 민주정’과 거의 같다고 여긴다.⁶⁶⁾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첫 번째 민주정은 ‘첫 번째 민주정’과 같지 않은데, ‘첫 번째 민주정’을 주도하는 빈자는 빈자 전체인 반면, 첫 번째 민주정을 주도하는 빈자는 농부 또는 유목민이기에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가 달라서 두 가지 민주정은 같지 않다. 오히려 ‘첫 번째 민주정’은 Simpson의 말처럼 네 번째 민주정과 동일한 것 같다.⁶⁷⁾ 만약 ‘첫 번째 민주정’이 네 번째 민주정과

65) Papageorgion(1990), p. 2.

66) Newman(1902), 4권, p. xxxvi.

동일한 정체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첫 번째 민주정’을 별도로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민주정’에 다른 종류의 민주정이 결여하는 요소, 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첫 번째 민주정’은 별도로 논의할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Mulgan은 ‘첫 번째 민주정’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진정한 민주정인데, 민주정에 긍정적인 요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민주정’을 민주정으로 부르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다.⁶⁸⁾ 민주정을 주도하는 민중은 『정치학』에서 빈자로 여겨지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에는 민중이 시민 전체로 여겨지기도 했다. 부자와 빈자를 망라한 시민 전체인 민중이 ‘첫 번째 민주정’을 주도하면 이 정체는 진정한 민주정이라고 말해질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6권 2장에서 시민 전체가 민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어도 시민 전체가 주도하는 민주정은 말하지 않는데, 그의 입장에서 민주정은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민주정’에서 모든 시민이 정체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도 다수인 빈자가 정체를 주도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첫 번째 민주정’은 빈자가 주도하는 민주정이어서 좋은 정체가 아니지만, 시민 전체가 이 정체를 주도하면 이 정체는 좋은 정체로 간주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민주정’ 다음으로 첫 번째 민주정이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첫 번째 민주정은 재산 등급(timēma)이 낮아도 공직이 부여되는 정체인데, 정체 참여에 필요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있지만, 이를 못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1291b39~41). 정체를 주도하는 농부와 적정 재산을 지닌 사람은 법에 따라 통치하는데,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지만 정체에 참여할 여가가 없어서 필요할 때만 민회를 열고 나머지 사안은 법에 위임하기 때문이다(1292b25~29).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민주정 중에서 첫 번째 민주정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데, 여러 종류의 민중 또는 빈자 중에 첫 번째 민주정을 주도하는 농부가 가장 좋기 때문이다(1318b6~10). 그가 여러 종류의 빈자 중에서 농부가 가장 좋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재산이 많지 않은 농부가 정체에 참여할 여가가 없어서 민회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데다가, 필수품이 없어서⁶⁹⁾

67) Simpson(1998), p. 306.

68) Mulgan(1991), pp. 318~319.

자기 일에만 분주하고 타인의 재산을 욕망하지 않는 데 있다. 공직에서 큰 이익(lēmna)이 생기지 않는 한 농부는 정치에 종사하고 공직자로 있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 이유로 다수가 명예보다 이득(kerdos)을 더 갈망한다는 것이 제시된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sēmeion)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란 다수가 부유해지거나 가난을 면하기 위해 자신이 하는 일을 제지당하거나 무엇인가를 빼앗기지 않는 한 참주정을 용인했고 과두정을 용인하며, 공직자 선출과 공직자 감사를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다수에게 충분한 명예가 된다는 것이다(1318b6~22).

첫 번째 민주정을 주도하는 농부가 이와 같이 필요할 때만 정체에 참여하고 나머지 사안은 정체에 참여할 여가가 있는 사람에게 위임한 결과, 첫 번째 민주정에서 모든 시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공직자를 감사하며 재판에 참여하지만, 최고 공직은 재산 등급이 높은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 맡는다(1318b28~32). 첫 번째 민주정에서 농부는 많은 재산이나 높은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공직자 선출, 공직자 감사, 재판 참여 등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많은 재산이나 높은 능력이 요구되는 최고 공직은 훌륭한 사람(epieikēs)과 상류층에게 위임한다. 이와 같이 통치되는 첫 번째 민주정은 잘 통치될 수밖에 없는데, 농부와 같은 민중은 지배받는 것을 원하고 훌륭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서 항상 최선자(beltistos)가 공직을 맡게 되고, 훌륭한 사람과 상류층은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cheirōn)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이 체제(taxis)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농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지배할 것이다(1318b32~38). 결국 첫 번째 민주정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지배하고, 다수인 농부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게 되는데(1319a1~4), 이 때문에 첫 번째 민주정이 가장 좋은 민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좋은 민중이 농부라고 말한 다음에 유목민이 그 다음으로 좋은 민중이라고 말한다(1319a19~20). 유목민이 농부 다음으로 좋은 민중이면, 유목민이 주도하는 민주정은 첫 번째 민주정이 아니라 두 번째 민주정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69) 'mē'를 지우지 않고 읽는다.

이 또한 첫 번째 민주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목이 많은 점에서 농사와 유사한(1319a20)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유목민은 군사 훈련을 잘 받았고 강인한 신체를 갖고 있으며 야영을 잘 할 수 있는데(1319a22~24), 이와 같이 군사적인 능력 측면에서 유목민은 다른 민중에 비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목민이 농부보다 열등한 민중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지만, 농부와 유목민이 나머지 민주정을 구성하는 다른 민중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한다(1319a24~26). 결국 농부와 유목민이 민중 중에 가장 좋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하는 첫 번째 민주정이 가장 좋은 민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민주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 민주정은 출생 문제가 없어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이 정체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참여하는 정체인데, 정체에 참여해도 수입이 생기지 않아서 법이 지배한다(1292b35~38). 두 번째 민주정에서 부모가 확실히 시민이어서 출생 문제가 없는 자유인은 모두 정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농부, 유목민 이외의 다른 빈자도 두 번째 민주정에서 정체에 참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민주정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많지 않아서 정체에 참여할 여가가 없는 사람은 정체에 참여하지 않고 일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며, 정체에 참여해도 참여 수당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를 지닌 사람만이 실제로 정체에 참여할 수 있다. 빈자가 두 번째 민주정을 주도하지만, 정체에 참여할 여가가 없는 빈자는 공직을 맡으려 하지 않고 첫 번째 민주정처럼 민회 참석과 같은 활동도 필요할 때만 하며 나머지 도시국가 사안은 정체에 참여할 여가가 있는 사람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두 번째 민주정도 첫 번째 민주정과 마찬가지로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배한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민주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세 번째 민주정은 모두가 시민인 한 공직에 참여하는 정체인데, 법이 지배한다(1292a2~4). 여가를 누릴 수 없는 자유인은 정체에 참여하지 못하며, 법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1292b38~41). 세 번째 민주정은 부모가 확실히 시민이 아니어도

본인이 시민이면 정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민주정과 다르지만,⁷⁰⁾ 그 밖의 경우에 두 가지 민주정은 거의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민주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네 번째 민주정은 법이 아니라 다수가 주도하는 정체인데, 민중 선동가(dēmagōgos) 때문에 법 대신에 결의가 주도해서 다수가 주도하게 된다. 다수인 민중은 집단 전체로서 주도해서 일인지배자(monarchos)가 되는데, 법에 의해 지배받지 않아서 주인이 지배하듯이 지배한다(1294a4~17). 네 번째 민주정에서도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법 대신에 다수의 결의가 주도하는 점에서 네 번째 민주정은 나머지 민주정과 다르다. 법은 보편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데 반해, 결의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된다. 결의의 채택은 민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결의는 개별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의를 채택할 수 있는 약점을 지닌다. 네 번째 민주정에서 다수인 빈자는 민중 선동가의 선동에 의해 결의를 통해 손쉽게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에 따라 지배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다수의 빈자가 주인처럼 되어서 네 번째 민주정은 참주정과 유사하다고 말한다(1292a15~18).

네 번째 민주정에서 다수의 빈자가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 번째~세 번째 민주정에서 빈자는 정체에 참여할 여가가 없어서 실제로 정체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반면, 네 번째 민주정에서 빈자는 정체에 참여할 여가를 확보해서 실제로 정체에 참여할 수 있는 데 있다.

70) 첫 번째 민주정에서 농부 또는 농부와 유목민만 정체에 참여할 수 있고, 이들보다 나쁜 빈자는 배제된다. 농부가 수공업 기술자에 추가될 때와 임금 노동자가 농부와 수공업 기술자에 추가될 때 민주정은 더 좋게 되거나 더 나쁘게 되는 것에서(1317a26~28) 수공업 기술자가 임금 노동자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상인과 수공업 기술자 중에 어느 쪽이 좋은지는 말해지지 않았다. 수공업 기술자와 임금 노동자가 우세하면 네 번째 민주정이 있게 되므로(1296b29~30) 네 번째 민주정은 모든 빈자를 포함한다. 수공업 기술자보다 좋지만 유목민보다 나쁜 빈자가 없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민주정 각각에 포함되는 빈자와 배척되는 빈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두 번째 민주정의 시민이 감사받을 필요가 없는 시민이고, 세 번째 민주정의 시민이 모든 시민 이라면, 네 번째 민주정에서 배척되지 않는 수공업 기술자와 임금 노동자는 감사받을 필요가 없을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민주정의 시민이 될 수 있다. 결국 4권 4, 6장에 제시된 두 번째와 세 번째 민주정의 시민과 4권 12장에 제시된 두 번째와 세 번째 민주정의 시민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빈자가 정체에 참여할 여가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번째 민주정이 도시국가에서 가장 나중에 생겨났다고 말하는데, 도시국가가 풍부한 수입을 지니게 되어 빈자도 수당을 받아 여가를 누릴 수 있으면 모두가 정체에 참여할 수 있다(1292b41~1293a6). 다수의 빈자는 정체 참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받게 되었을 때 정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생업에 매이지 않은 채 정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수의 빈자가 수당을 받아서 민회나 재판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자 결의나 재판이 다수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부자는 자기 재산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데, 민회나 재판에 자주 참석하면 이를 돌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종종 민회나 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법이 아니라 다수의 빈자가 정체를 주도하게 되었다(1293a7~10).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번째 민주정이 정체가 아니라는 비판이 합당하다고 여기는데, 법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 정체는 없기 때문이다. 법이 모든 보편적인⁷¹⁾ 사안을 지배해야 하고, 공직과 시민 집단(politeia)⁷²⁾이 개별적인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의도 보편적일 수 없기 때문에, 결의를 통해 모든 사안을 다루는 체제인 네 번째 민주정은 주된 의미에서 민주정이 아니다(1294a30~37). 이를 통해 네 번째 민주정은 한편으로는 일종의 민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법이 지배하지 않는 정체인 네 번째 과두정과 참주정도 한편으로 과두정과 참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민주정의 종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데, ‘첫 번째 민주정’을 제외한 네 가지 종류의 민주정은 <표 3>처럼 정리될 수 있다.

71) Richards의 제안에 따라 ‘보편적인(tōn katholou)’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읽는다. 법은 보편적인 사안을 주도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을 주도할 수 없기에 모든 사안을 지배한다고 말할 수 없다.

72) ‘politeia’는 일반적으로 정체나 시민정을 뜻하지만, 때때로 시민 집단(citizen body)을 뜻한다. 정체를 주도하는 시민 집단이 개별적인 사안을 결정할 수 있어서 ‘politeia’를 ‘시민 집단’으로 번역한다. Lord(2013), p. 106. 각주 29번 참고.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	지배
첫 번째 민주정	농부, 유목민	법의 지배
두 번째 민주정	감사받을 필요가 없는 빈자	법의 지배
세 번째 민주정	모든 빈자	법의 지배
네 번째 민주정	모든 빈자	인간의 지배

<표 3> 네 가지 종류의 민주정

네 가지 종류의 민주정은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 첫 번째 민주정에서 네 번째 민주정으로 갈수록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의 수와 종류가 많아진다. 첫 번째 민주정을 주도하는 농부와 유목민은 빈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고 부유한 반면, 네 번째 민주정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나쁘고 가난한 빈자가 정체를 주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빈자가 상대적으로 부유하면 탐욕을 덜 한다는 이유 등으로 더 좋다고 여기는 반면, 가난하면 탐욕을 더 많이 한다는 이유 등으로 더 나쁘다고 여긴다. 빈자가 지닌 부의 정도는 빈자의 좋고 나쁨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빈자가 주도하는 민주정의 좋고 나쁨도 좌우하게 된다.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가 좋을수록 정체가 좋으면, 민주정 중에서 첫 번째 민주정이 가장 좋고 네 번째 민주정이 가장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첫 번째~세 번째 민주정에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네 번째 민주정에서 다수인 빈자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세 번째 민주정에서 정체에 참여한 빈자에게 수당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자가 정체에 참여하기 힘들어서 빈자가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지 않고서 도시국가의 많은 사안을 위임하여 법에 따라 지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네 번째 민주정에서 정체에 참여한 빈자가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정체에 참여하기가 쉬워서 법에 따라 지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한다. IV부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겠지만,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정치가의 지배 또는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의 종류에 따라 추구되는

공익의 정도가 달라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도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3.3.3.2. 과두정의 종류

아리스토텔레스는 4권 5장과 6장, 6권 6장에서 과두정의 종류를 제시하는데, 과두정의 종류는 네 가지이다. 첫 번째 과두정은 다수인 빈자가 정체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높은 재산 등급을 가진 자가 참여할 수 있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정체인데(1292a39~41), 지배자 집단에 참여하는 자들의 수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법이 주도한다. 첫 번째 과두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여가를 누릴 만큼 재산이 많지도 않지만 도시국가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재산이 적지도 않아서 법이 지배하라고 요청한다(1293a12~20). 첫 번째 과두정에 부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재산이 아주 많지 않은 부자도 정체에 참여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자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부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특정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과두정은 법에 따라 지배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과두정에 오직 부자만 참여할 수 있고 빈자는 완전히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빈자도 정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과두정에서 높은 재산 등급을 지닌 자만 중요 공직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낮은 재산 등급을 지닌 자는 필수 공직에 참여할 수 있다(1320b22~25). 그는 첫 번째 과두정에서 다수의 민중 가운데 일정 수준의 재산 등급을 지닌 자를 정체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하는데(1320b25~27), 이를 통해 부자만이 중요 공직을 맡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빈자는 필수 공직을 맡음으로써 정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자가 정체를 주도하면서도 빈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과두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두정 중에서 가장 잘 혼합된 정체이고, 시민정에 가까이 있다고 말한다(1320b21~22).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과두정은 높은 재산 등급을 가진 사람을 공직자로

임명하고, 공직자 자신이 비어 있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정체이다(1292a41~b2). 첫 번째 과두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지닌 소수의 부자는 더 강력해서 더 많이 갖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과두정을 생기게 한다. 이들은 법 없이 지배할 만큼 강력하지 않아서 지배자 집단이 되는 자들을 선출하는 법을 제정한다(1293a21~26).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과두정은 소수의 부자가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될 때 발생하는데, 아들이 죽은 아버지를 계승하라는 법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한다(1292b4~5, 1293b26~30). 세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는 부자가 두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는 부자보다 더 부유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하지가 않아서 법에 따라 지배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두정은 법이 아니라 공직자 또는 인간이 지배하는 정체인데, 참주정, 네 번째 민주정과 유사하여 전제정(dynasteia)이라 불린다(1292b5~10). 네 번째 과두정은 부자가 아주 많은 재산과 친구를 갖게 될 때 발생한다(1293a30~31). 아주 많은 재산을 지닌 부자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지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번째 과두정을 최악의 과두정이라고 말한다(1320b32, 39). 이제 과두정의 종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데, 네 가지 종류의 과두정은 <표 4>처럼 정리될 수 있다.

	정체를 주도하는 부자	지배
첫 번째 과두정	많지 않은 재산을 지닌 부자	법의 지배
두 번째 과두정	더 많은 재산을 지닌 부자	법의 지배
세 번째 과두정	상당히 더 많은 재산을 지닌 부자	법의 지배
네 번째 과두정	아주 많은 재산을 지닌 부자	인간의 지배

<표 4> 네 가지 종류의 과두정

네 가지 종류의 과두정은 정체를 주도하는 부자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

데, 첫 번째 과두정에서 네 번째 과두정으로 갈수록 정체를 주도하는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반면 수는 더 적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는 부자가 더 좋고 네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는 부자가 더 나쁘다고 직접 말하지 않지만, 정체를 주도하는 부자의 재산이 많아질수록 정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지배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더 많아지는 점에서 부자가 부유할수록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부자가 지닌 부의 정도는 부자의 좋고 나쁨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부자가 주도하는 과두정의 좋고 나쁨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체를 주도하는 부자가 좋을수록 정체가 좋으면, 과두정 중에서 첫 번째 과두정이 가장 좋고 네 번째 과두정이 가장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첫 번째~세 번째 과두정에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네 번째 과두정에서 소수인 부자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세 번째 과두정에서 정체에 참여한 부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지 않고 법에 따라 지배하는 반면, 네 번째 과두정에서 정체에 참여한 부자는 매우 강력해서 법에 따라 지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한다. IV부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겠지만,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정치가의 지배 또는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정체를 주도하는 부자의 종류에 따라 추구되는 공익의 정도가 달라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도도 다르다고 밝혀질 것이다.

3.3.3.3. 귀족정의 종류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좋은 사람으로 구성된 정체가 아니라, 덕에 기초하여 무조건적으로 최선자로 구성된 정체가 귀족정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귀족정 이외의 다른 정체에서 좋은 시민은 자신의 정체와 관련해서만 좋은 반면, 오직 귀족정에서 동일한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면 동시에 좋은 시민이다(1293b1~7). 그는 3권에서 제시된 귀족정 이외에 다른 귀족정이 있다고 말하는데, 공직을 부에 기초할(ploutindên) 뿐만 아니라 덕에 기초해서도(aristindên) 선출하는 정체

또한 귀족정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덕을 공동의 관심사로 삼지 않는 정체에도 좋은 명성을 지니고 훌륭하다는 평판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서, 카르타고처럼 부, 덕, 민중을 고려하는 정체도 귀족정이고, 스파르타처럼 덕과 민중을 고려하는 정체도 귀족정이다. 3권에서 제시된 최선 정체인 귀족정 이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귀족정이 있고, 세 번째로 시민정 중에서 과두정으로 기울어진 귀족정도 있다(1293b7~21).

카르타고식 귀족정과 스파르타식 귀족정이 귀족정으로 불리는 이유와 과두정으로 기울어진 귀족정이 귀족정으로 불리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전자는 유덕자라는 좋은 명성을 지니고 훌륭하다는 평판을 지닌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귀족정으로 불리는 반면, 후자는 지배자 중에 유덕자가 없는 데도 귀족정으로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민주정과 과두정이 혼합된 정체 중에서 민주정으로 기울어진 정체는 시민정으로 불리고, 과두정으로 기울어진 정체는 귀족정으로 불리기 때문이다(1293b34~37). 하지만 이러한 통념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귀족정을 귀족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⁷³⁾ 그에게 민주정에 가깝든 과두정에 가깝든 민주정과 과두정이 혼합된 정체는 시민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1294a22~23).

3권에서 제시된 최선 정체인 귀족정은 카르타고식 귀족정, 스파르타식 귀족정과 다른데, 전자에서 유덕자만 지배하지만, 후자에서 유덕자와 빈자 또는 유덕자와 부자와 빈자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구분 지표(horos)는 덕이지만, 후자의 구분 지표는 덕과 자유 또는 덕과 부와 자유이다. 유덕자가 지배에 참여하고, 덕이 정체의 원리를 이룬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는 귀족정으로 불리지만, 최선 정체인 귀족정과 카르타고식 귀족정, 스파르타식 귀족정은 질적으로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1273a4~5, 1294b10~11 등에서 카르타고식 귀족정과 스파르타식 귀족정을 시민정과 같다고 여길 정도로 이러한 귀족정은 최선 정체인 귀족정보다 시민정에 더 가깝다. 지배자가 혼합된 이러한 귀족정을 편의상 ‘혼합 귀족정’으로 칭할 경우에 혼합 귀족정과 시민정은 혼합된 지배자에서 차이가 있지만, 혼합된 지배자가 지배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73)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귀족정을 1307a15~16에서 예외적으로 귀족정으로 여긴다.

3.3.3.4. 시민정의 구성 방식

아리스토텔레스는 4권에서 시민정을 과두정과 민주정의 혼합으로 정의한다(1293b33~34). 그는 시민정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를 말하는데, 그들은 민주정과 과두정이 혼합된 정체 중에서 민주정으로 쏠린 것만 시민정으로 부르고, 과두정으로 쏠린 것은 귀족정으로 부르기 때문이다(1293b34~37). 하지만 그는 민주정과 과두정이 혼합된 정체는 과두정으로 쏠려 있어도 귀족정이 아니라 시민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정과 과두정의 혼합은 오직 부자와 빈자, 부와 자유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1294a15~17), 부자와 빈자가 혼합된 정체를 시민정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1294a22~23). 반면에 그는 3권에서 제시된 최선 정체인 귀족정을 제외하면 자유와 부와 덕이 혼합된 정체를 무엇보다도 귀족정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1294a23~25). 따라서 유덕자 없이 부자와 빈자가 혼합된 정체는 시민정이고, 유덕자가 부자, 빈자와 함께 혼합된 정체는 혼합 귀족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부자와 빈자가 혼합된 시민정은 3권에서 제시된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시민정과 동일하지 않는데, 전자에서 빈자도 정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후자에서 자기 스스로 무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부자 또는 중산층만 정체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빈자는 정체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시민정은 3권의 시민정이 아니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혼합 기준(horos)에 따른 시민정의 발생을 말한다(1294a35~36). 첫 번째 기준은 민주정과 과두정의 입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1294a36~37), 두 번째 기준은 민주정과 과두정이 부과하는 것의 중간(meson)을 받아들이는 것이며(1294b2~3), 세 번째 기준은 민주정의 법이 부과하는 것 일부와 과두정의 법이 부과하는 것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1294b6~7). 첫 번째 기준의 예로 재판이 제시된다. 과두정에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부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재판에 참석한 빈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민주정에서 재판에 참석한 빈자에게 수당이 지급

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부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과두정의 입법과 민주정의 입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기준에 따른 혼합이다(1294a37~41). 두 번째 기준의 예로 재산 등급이 제시된다. 민주정에서 재산 등급이 없거나 매우 낮은 재산 등급을 가진 사람도 민회에 참석하지만, 과두정에서 높은 재산 등급을 가진 사람만 민회에 참석한다. 민주정과 과두정이 부과하는 것 중간의 재산 등급을 요구하는 것이 두 번째 기준에 따른 혼합이다(1294b3~6). 세 번째 기준의 예로 공직자 선출 방법과 재산 등급이 제시된다. 공직자를 추천으로 뽑는 것은 민주정의 법이 부과하고 선거로 뽑는 것은 과두정의 법이 부과하며, 공직자 선출 시 재산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민주정의 법이 부과하고 재산 등급을 요구하는 것은 과두정의 법이 부과한다. 각 정체에서 정체의 법이 부과하는 것을 하나씩 받아들이는 것, 예컨대 과두정에서 공직자를 선거로 뽑는 것을 받아들이고, 민주정에서 공직자 선출 시 재산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 번째 기준에 따른 혼합이다(1294b7~13).

혼합의 첫 번째 기준에서 민주정의 입법과 과두정의 입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재판의 경우에 두 가지 입법을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에 참석한 빈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지급되지 않으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부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이상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두 가지 입법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예컨대 민주정의 입법에서 재판에 참석한 빈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과두정의 입법에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부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두 가지 입법이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입법되면 빈자는 수당을 받기 위해 재판에 참석하고 부자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판에 참석해서 부자와 빈자 모두 재판에 참석한다.

그 다음으로 혼합의 두 번째 기준이 적용되면, 민주정과 과두정이 부과하는 것 중간의 재산 등급을 가진 사람만이 민회에 참석할 수 있다. 빈자보다 높고 부자보다 낮은 재산 등급을 가진 사람은 중산층이다. 두 번째 기준에 따라 혼합된 정체에서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중산층과 부자이다. 비록 빈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대신 중산층이 참석하여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체를 주도하지 못하게 견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합의 세 번째 기준은 첫 번째 기준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첫 번째 기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민주정과 과두정의 입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세 번째 기준은 정체의 법이 부과하는 것을 각 정체로부터 하나씩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컨대 공직자를 선거로 뽑는 것은 과두정의 법이 부과하는 것이고, 공직자 선출 시 재산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민주정의 법이 부과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혼합하면, 공직자가 선거로 뽑히는 측면에서 부자가 공직자가 되는 반면, 재산 등급이 요구되지 않는 측면에서 빈자도 공직자가 될 수 있다. 공직자 중 일부는 선거로 뽑히고 다른 일부는 재산 등급이 요구되지 않으면, 일부 공직은 오직 부자가 말지만, 다른 일부 공직은 빈자도 맡을 수 있다.

3.3.3.5. 참주정의 종류

참주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참주정은 전권을 지닌 일인지배자(monarchos)가 비그리스인을 지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참주정은 독재관이라 불린 일인지배자가 그리스인을 지배하는 것이며, 세 번째 참주정은 절대 왕정의 맞짱(antistrophos)으로서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참주정이다(1295a11~14, 17~19).

첫 번째 참주정과 두 번째 참주정은 두 번째 왕정 및 세 번째 왕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정체들은 법을 따른다는 점과 지배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을 일인이 지배한다는 점에서 왕정이지만, 일인지배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배한다는 점에서 참주정이다(1295a14~17). 첫 번째 참주정과 두 번째 왕정이 같고 두 번째 참주정과 세 번째 왕정이 같으면, 일부 왕정과 참주정은 서로 구분되지 않으며, 이들 정체는 왕정의 특징과 참주정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어서 왕정으로 규정될 수도 있고 참주정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참주정은 법에 따라 지배하지 않는 점에서 절대 왕정과 유사하지만, 절대 왕정의 왕은 공익을 추구하는 반면 참주는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정체는 반대된다. 세 번째 참주정의 참주는 일인지배자로서 감사는 받지 않고,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며, 참주의 지배를 자발적으로 견디려 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한다(1295a11~23). 참주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기반으로 법에 따라 지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여 자유인을 노예처럼 지배하고 극단적인 사익을 추구한다. 참주가 주인처럼 지배하는 세 번째 참주정에서 주인의 지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3.3.3.6. 왕정의 종류

민주정, 과두정, 귀족정, 참주정의 종류는 4권에서 제시되고 왕정의 종류는 3권에서 제시되는데, 논의될 왕정의 다섯 가지 종류 가운데 다섯 번째 왕정이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제시된 왕정에 적합하며, 나머지 종류의 왕정은 3권의 정체 분류가 아니라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다섯 종류의 왕정이 무엇인지를 각각 살펴본다.

첫 번째 왕정은 스파르타 왕정이다. 법을 가장 많이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왕은 모든 것을 주도하지 않고 국경 밖에서 전쟁 관련 사안과 신에 관한 사안을 주도한다. 이런 왕정은 전권을 지닌(*autokratorōn*) 종신 장군직과 같은데, 왕은 군사원정 중일 때를 제외하고 생사에 관한 사안을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285a3~10).

두 번째 왕정은 일부 비그리스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왕정과 같다. 참주정과 유사한 권력을 갖지만, 법을 따르고 세습적이다. 비그리스인들은 노예와 같은 성격을 지녀서 불평 없이 주인의 지배를 용인한다. 시민들은 자기 무기를 갖고서 자발적으로 왕을 수호하며, 왕은 시민들로 구성된 경비대를 갖는다(1285a16~29).

세 번째 왕정은 예전에 그리스인들 사이에 있었던 독재관직(*aisymnētēs*)으로 불렸던 것이다. 이것은 선출된 참주정으로, 세습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비그리스인들 왕정과 다르다. 이 왕정도 법을 따른다. 이것은 주인의 지배와 같다는 점에서 참주정의 성격을 갖지만, 선출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왕정의 성격을 갖는다(1285a30~b3).

네 번째 왕정은 영웅시대에 존재했는데,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습되며 법을 따른다. 정체를 세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술 또는 전쟁에 있어 은인이었거나 사람들을 함께 모았거나 사람들에게 땅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의 왕이 되었고, 왕위는 그의 후계자들에게 세습되었다. 왕은 전시의 지휘권과 사제가 요구되지 않는 종교적 제사를 주도하고, 소송사건을 판결하며, 도시국가의 국내 업무와 국외 업무를 관장한다. 나중에 왕이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포기하고, 일부 권한은 대중에 의해 박탈당해서, 왕은 종교적인 제사만 맡았거나 국경 밖에서 전쟁의 지휘권만 갖게 되었다(1285b3~19).

다섯 번째 왕정은 각 민족과 각 도시국가가 공공 사안을 주도하는 것처럼 일인이 모든 사안을 주도할 때 있다(1285b29~31). 이 왕정은 절대 왕정(pambasileia)으로 불린다(1287a8~9).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왕정은 왕 일인이 공익을 추구하는 정체이다. 두 왕이 지배하는 스파르타 왕정을 제외하면 왕 일인이 지배하는데, 다섯 가지 왕정의 왕이 공익을 추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술 또는 전쟁에 있어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졌거나 사람들에게 땅이 제공되어서 수립된 네 번째 왕정의 왕은 공익을 추구한다. 그 다음으로 아이, 아내, 가정에 대한 지배, 즉 가정 관리가 일차적으로 피지배자 혹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양자 모두를 위한다면(1278b37~40), 가정 관리에 상응하는 다섯 번째 왕정의 왕도 공익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파르타의 왕은 국경 밖에서 전쟁 관련 사안과 신에 관한 사안을 주도하는데, 이 사안은 도시국가 전체를 위한 사안이므로 첫 번째 왕정의 왕은 공익을 추구한다. 반면에 두 번째 왕정과 세 번째 왕정은 왕이 주인처럼 지배하는 측면에서 참주정의 성격을 갖지만, 피지배자가 왕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점에서 왕정의 성격을 갖는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는 일차적으로

주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1278b32~35), 이들 왕정의 왕은 사익을 추구하지만, 왕이 시민에게 맞서는 경비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경비대를 갖기 때문에, 이들 왕정의 왕은 공익을 추구한다. 결국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왕정의 왕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왕정의 왕은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왕정은 왕이 모든 사안을 주도하는 정체인데, 다섯 가지 왕정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왕정의 왕은 모든 사안을 주도하지 않는다. 우선 네 번째 왕정의 왕은 처음에는 전쟁, 종교에 관한 사안을 비롯하여 도시국가의 국내외 업무를 주도했지만, 나중에는 전쟁에 관한 사안이나 종교에 관한 사안만을 주도하게 되어서 왕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왕이 주도하지 못하는 사안을 대신 주도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왕정의 왕은 전쟁과 종교에 관한 사안만을 주도하기 때문에, 왕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다른 사안을 주도한다. 결국 왕정의 다섯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 왕정의 왕은 모든 사안을 주도하지 못하는 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왕정의 왕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이들 왕정은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제시된 왕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다섯 번째 왕정만이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제시된 왕정에 적합하고, 나머지 종류의 왕정은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3.3.4. 두 가지 정체 분류의 관계

3권의 정체 분류와 4~6권의 정체 분류는 네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여섯 가지 정체가 제시된 반면,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여섯 가지 정체뿐만 아니라 각 정체의 종류도 제시된다.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정체 분류 기준은 지배자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과 지배자 집단의 수인데, 전자는 공익과 사익이고, 후자는 일인, 소수, 다수이다. 두 가지 기준을 조합하면, 정체는 왕정, 귀족정, 시민정,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이다(1279a25~b6).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각 정체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다섯 가지 왕정의 종류에는 스파르타 왕정, 비그리스인 왕정, 독재관직 왕정, 영웅시대 왕정, 절대 왕정이 있고(1285b20~31), 세 가지 귀족정의 종류에는 최선 정체인 귀족정, 혼합 귀족정,⁷⁴⁾ 과두정으로 기울어진 귀족정이 있으며(1293b3~21), 네 가지 민주정의 종류에는 첫 번째~네 번째 민주정이 있고(1291b30~1292a37, 1292b25~1293a12, 1318b6~1319b32),⁷⁵⁾ 네 가지 과두정의 종류에는 첫 번째~네 번째 과두정이 있으며(1292a39~b10, 1293a12~34, 1320b18~1321a1), 세 가지 참주정의 종류에는 비그리스인 참주정, 독재관직 참주정, 엄밀한 의미의 참주정이 있다(1295a11~23). 4~6권의 정체 분류는 <표 5>처럼 정리될 수 있다.

절대왕정	최선정체*	최선 정체인 귀족정		
일인		소수 ←	혼합	→ 다수
스파르타 왕정/ 영웅시대 왕정	좋음 ↑	혼합 귀족정/시민정		
비그리스인 왕정(참주정)/ 독재관직 왕정(참주정)		첫 번째 과두정	첫 번째 민주정	
		두 번째 과두정	두 번째 민주정	
	↓	세 번째 과두정	세 번째 민주정	
엄밀한 의미의 참주정	나쁨	네 번째 과두정	네 번째 민주정	

<표 5> 4~6권의 정체 분류

* 3권의 정체 분류의 대상일 뿐, 4~6권의 정체 분류의 대상은 아님

74) 혼합 귀족정에는 카르타고처럼 유덕자, 빈자, 부자가 혼합된 귀족정과 스파르타처럼 유덕자, 빈자가 혼합된 귀족정이 있다(1293b14~18).

75) ‘첫 번째 민주정’을 민주정의 종류로 간주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II.3.3.3.1. 논의 참고.

둘째,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정체 주도 집단은 단일 집단인 반면,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단일 집단뿐만 아니라 혼합된 집단도 정체를 주도할 수 있다.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정체를 주도하는 지배자 집단은 모두 단일 집단이다. 왕정의 지배자 집단은 왕이고, 귀족정의 지배자 집단은 최선자이며, 시민정의 지배자 집단은 중무장보병이고, 민주정의 지배자 집단은 빈자이며, 과두정의 지배자 집단은 부자이고, 참주정의 지배자 집단은 참주이다.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단일 집단이 주도하는 정체도 있고, 혼합된 집단이 주도하는 정체도 있다. 네 가지 종류의 민주정과 과두정은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와 부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농부처럼 덜 가난한 빈자가 첫 번째 민주정을 주도하고, 임금 노동자처럼 매우 가난한 빈자가 네 번째 민주정을 주도하며, 덜 부유한 부자가 첫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고, 매우 부유한 부자가 네 번째 과두정을 주도한다(1291b39~40, 1292a40~b2, 1292b25~1293a34, 1296b24~34). 네 번째 민주정에서 빈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지만, 나머지 민주정에서 빈자는 심의와 재판을 주도하되 공직은 부자에게 맡긴다(1291b39~1292a37, 1292b25~1293a12, 1318b6~1319b32). 과두정에서 부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지만, 나머지 과두정에서 일부 빈자는 필수 공직을 맡을 수 있다(1292a39~b10, 1293a12~34, 1320b18~1321a1).⁷⁶⁾ 온건 민주정에서 빈자가 주로 주도하되 부자도 일부 주도하고, 온건 과두정에서 부자가 주도하되 빈자 일부도 정체에 참여해서,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에서 빈자와 부자는 어떤 식으로 혼합되어 있다. 시민정은 빈자와 부자가 혼합된 정체이며(1293b33~36), 귀족정은 오직 유덕자가 주도하면 최선 정체인 귀족정이고, 유덕자가 빈자, 부자와 혼합되면 혼합 귀족정이다(1293b3~18). 일인정의 경우에 스파르타 왕정과 영웅시대 왕정의 왕은 모든 사안이 아니라 일부 사안만 주도하며, 다른 공직자가 나머지 사안을 주도한다(1285a3~6, 1285b9~19). 비그리스인 왕정

76)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과두정에서 일부 빈자가 필수 공직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과두정에 덜 참여하는 빈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직을 제외한 다른 공직들을 동등하거나 우월하게 분배하는 것이 이로우면(1309a27~30) 이들 과두정에서 일부 빈자가 필수 공직을 맡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과 비그리스인 참주정 그리고 독재관직 왕정과 독재관직 참주정은 서로 겹친다. 지배자가 법에 따라 지배하고 피지배자가 자발적으로 지배받는다는 점에서 왕정인 반면, 지배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인처럼 지배한다는 점에서 참주정이다(1285a16~b3, 1295a11~17). 유덕자 왕이 주도하는 왕정은 절대 왕정이고(1285b33~37, 1286b3), 참주가 주도하는 참주정은 엄밀한 의미의 참주정이다(1295a18~20).

셋째,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최선 정체가 가장 좋은 반면,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차선 정체⁷⁷⁾가 가장 좋다.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지배자 집단이 공익을 추구하는 왕정, 귀족정, 시민정은 좋은 정체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은 나쁜 정체이다(1279a28~b10). 완전한 덕을 지닌 왕과 최선자가 주도하는 왕정과 귀족정이 가장 좋고,⁷⁸⁾ 완전한 군사적 덕을 지닌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시민정이 그 다음으로 좋다. 나쁜 정체 중에서 민주정이 가장 덜 나쁘고, 과두정이 그 다음으로 나쁘며, 참주정이 가장 나쁘다(1289a39~b5). 지배자 집단이 덕을 많이 가질수록 정체는 좋아서, 유덕자인 왕 또는 최선자가 주도하는 왕정과 귀족정이 최선 정체이다. 반면에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대부분의 정체가 도달할 수 있는 중산층 주도 정체, 즉 차선 정체가 가장 좋다(1295a25~1296b3). 상대적으로 나쁜 정체는 상대적으로 좋은 정체에서 일탈하기 때문에, 혼합 귀족정>시민정>민주정>과두정>참주정 순으로 좋다(1293b23~29). 혼합 귀족정과 시민정은 인접해 있어서 거의 똑같이 좋다(1295a33~34). 민주정과 과두정은 혼합 귀족정과 시민정에서 일탈된 정체라서 이들보다 나쁘지만 민주정이 과두정보다 더 좋은데, 중산층은 과두정보다 민주정에 더 많이 있는데다가 과두정은 빈자와 부자에 의해 내분이 일어날 수 있고 민주정은 부자에 의해서만 내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1296a13~14, 1302a8~13).

77)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차선 정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히려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를 ‘최선 정체’(1295a25, b35, 1296a7, b2 등)라고 말하지만, 3권에서 제시되는 최선 정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이를 편의상 ‘차선 정체’로 호칭한다.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는 최선 정체 다음으로 가장 선택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체(1289b15)이기 때문에 차선 정체로 호칭될 수 있다.

78) 엄밀하게 말하면 신적인 덕을 지닌 왕이 주도하는 왕정이 인간적인 덕을 지닌 최선자가 주도하는 귀족정보다 더 좋지만, 유덕자가 주도하는 정체라는 점에서 왕정과 귀족정 모두 가장 좋다.

민주정과 과두정의 경우에 첫 번째 민주정과 첫 번째 과두정이 가장 좋고, 네 번째 민주정과 네 번째 과두정이 가장 나쁘다(1319a4, 1319a40~b1, 1320b21, 1320b32). 네 번째 민주정과 네 번째 과두정이 더 나빠져서 생긴 엄밀한 의미의 참주정이 가장 나쁘다. 네 가지 종류의 민주정과 과두정은 시민정에 가까울수록 좋고, 참주정에 가까울수록 나쁘기 때문에, 혼합 귀족정과 시민정 다음으로 한편으로 첫 번째 민주정>두 번째 민주정>세 번째 민주정>네 번째 민주정, 다른 한편으로 첫 번째 과두정>두 번째 과두정>세 번째 과두정>네 번째 과두정 순으로 좋다. 그 다음으로 일인정의 경우에 절대 왕정을 제외하면 스파르타 왕정과 영웅시대 왕정이 좋고, 비그리스인 왕정(참주정)과 독재관직 왕정(참주정)은 왕정과 참주정의 성격이 반씩 있어서 절반쯤 좋으며, 엄밀한 의미의 참주정은 가장 나쁘다.

넷째, 3권의 정체 분류에서 각 정체는 다른 정체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반면,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정체들이 서로 구분되지 않거나 하나의 정체가 두 가지 이상의 정체로 규정될 수 있다.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정체마다 지배자 집단이 달라서, 각 정체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하나의 정체가 다른 정체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겹치기도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정체로 규정될 수 있다. 혼합 귀족정과 시민정은 유덕자의 혼합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만, 두 정체의 심의하는 부분의 구성 방식과 법정의 구성 방식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1298b5~11, 1301a13~15). 시민정과 첫 번째 민주정, 첫 번째 과두정은 빈자와 부자가 잘 혼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주도하는지에 따라 구분되지만, 민주정에서 심의하는 부분의 구성 방식과 시민정에서 심의하는 부분의 구성 방식이 유사하듯이(1298a19~24, b5~8) 첫 번째 민주정은 시민정과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빈자와 부자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은 혼합된 정체 뿐만 아니라 민주정이나 과두정으로 기울어진 혼합된 정체(1293b33~38)도 시민정이라면, 시민정은 첫 번째 민주정, 첫 번째 과두정 등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부와 같은 빈자가 주도하는 첫 번째 민주정은 빈자와 부자가 각각 일부 사안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혼합된 정체라서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정체가 잘 구분

되지 않거나 하나의 정체가 두 가지 이상의 정체로 규정될 수 있다.

두 가지 정체 분류는 좋은 정체의 기준이 달라서 서로 다른 것 같다.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정체는 지배자 집단이 덕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 반면,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정체는 지배자 사이에 혼합이 잘 이루어질수록 좋다.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지배자 집단이 완전한 덕을 지닌 왕정과 귀족정이 가장 좋고, 완전한 군사적 덕을 지닌 시민정이 그 다음으로 좋으며, 덕을 결여한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은 나쁘다. 지배자 집단이 지닌 덕의 정도가 정체의 좋음을 좌우한다. 반면에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지배자가 잘 혼합된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이 좋고, 지배자가 혼합되었지만 빈자나 부자가 우위에 있는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이 그 다음으로 좋으며, 지배자가 혼합되지 않은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은 나쁘다. 혼합에 참여하는 집단이 서로 대등하게 혼합할수록 정체에 쉽게 만족하여 정체가 안정되고 좋기 때문에, 지배자의 혼합 정도가 정체의 좋음을 좌우한다. 결국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정체는 지배자 집단이 덕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 반면,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정체는 지배자가 잘 혼합될수록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지배자의 혼합은 지배자의 덕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덕을 결여한 지배자가 혼합된 정체는 안정되고 좋을 수 있다. 시민정은 첫 번째 민주정과 첫 번째 과두정보다 안정되고 좋은 반면, 시민정을 주도하는 빈자와 부자는 첫 번째 민주정과 첫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는 빈자와 부자보다 나쁠 수 있다. 민주정에서 재판에 참석한 빈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과두정에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부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받아들여 시민정이 될 때 (1294a36~41), 네 번째 민주정에서만 재판에 참석한 빈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므로(1293a4~6) 혼합되는 빈자는 매우 가난한 나쁜 빈자라고 말할 수 있다. 나쁜 빈자가 혼합하여 주도하는 시민정이 좋은 빈자가 주도하는 첫 번째 민주정보다 좋으므로, 덕을 결여한 정체 주도 집단이 혼합되어도 정체는 안정되고 좋을 수 있다. 매우 가난한 나쁜 빈자와 매우 부유한 나쁜 부자가 혼합된 시민정에서 둘 다 정체의 지속을 바라는 시민정은 안정되고 오래 보존되어 좋을 수 있다.⁷⁹⁾

이와 같이 지배자의 덕과 무관하게 지배자의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지배자가 덕을 많이 가질수록 혼합 정체는 더 안정되어서 좋다고 말할 수 있다.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차선 정체가 가장 좋은데, 정체를 주도하는 중산층은 완전한 유덕자는 아니지만, 중무장보병(1279a40~b1)으로서 완전한 군사적 덕을 갖고, 적정 수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타인의 재산을 욕망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나 자유인다움을 지니며, 이성애 쉽게 복종하여 불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지닌다(1265a33~34, 1295b3~6, 29~30). 용기, 정의, 절제, 자유인다움 등의 덕을 지닌 중산층은 어느 정도 덕을 갖고 있어서 지배할 때 공익을 추구한다. 그 다음으로 민주정과 과두정의 종류는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와 부자가 좋을수록 좋다. 빈자 중에서 농부가 가장 좋고, 임금 노동자가 가장 나쁜데, 농부는 자기 일에 바쁘고 타인의 소유물을 욕구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절제와 자유인다움을 지니는 반면, 임금 노동자는 덕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기에(1318b9~14, 1319a26~28) 빈자 중에 농부가 가장 많은 덕을 갖고, 임금 노동자가 덕을 가장 많이 결여한다. 민주정 중에 농부가 주도하는 첫 번째 민주정이 가장 좋고, 수공업 기술자나 임금 노동자가 주도하는 네 번째 민주정이 가장 나빠서(1319a4, 40~b1) 빈자가 덕을 많이 가질수록 민주정의 종류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과두정의 경우도 민주정과 이와 마찬가지로, 민주정과 과두정은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나 부자가 덕이 많을수록 좋고, 덕을 많이 결여할수록 나쁘다. 결국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지배자가 덕을 결여해도 지배자가 혼합된 정체는 좋을 수 있지만, 대체로 지배자가 덕을 많이 가질수록 혼합 정체는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좋은 정체의 기준은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지배자의 덕이고,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지배자의 혼합인데, 지배자의 혼합은 지배자의 덕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지배자의 덕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배자의 혼합이 지배자의 덕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

79) 매우 가난한 나쁜 빈자와 매우 부유한 나쁜 부자는 혼합해서 정체를 주도할 때보다는 혼자 정체를 주도할 때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지닐 수 있어서 시민정의 지속을 바라지 않을 수 있지만, 법에 의해 두 집단이 혼합된 시민정에서 상대방에 의해 손해를 입지 않으면 시민정에 만족하고 시민정의 지속을 바랄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정체 분류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지배자의 혼합이 대체로 지배자의 덕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4~6권의 정체 분류는 3권의 정체 분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권의 정체 분류는 모든 종류의 정체를 분류하지만 최선 정체에 초점을 맞춘 반면, 4~6권의 정체 분류는 최선 정체 이외의 정체들을 상세하게 분류한 다음 민주정, 과두정보다 더 좋은 혼합 정체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혼합 정체는 덕을 결여한 지배자의 혼합을 통해 형성될 수 있지만, 대체로 혼합된 지배자의 덕에 비례하여 더 좋게 형성될 수 있다. 차선 정체는 중산층과 빈자, 부자가 정체에 만족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좋은 정체로 보이지만, 정체를 주도하는 중산층이 유덕자에 가까운 덕을 지닌 덕분에 빈자와 부자를 중재하여 차선 정체를 안정되고 좋은 정체로 만든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4~6권의 정체 분류는 3권의 정체 분류와 무관하게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자는 후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다시 말해 후자로부터 발전되고 개선되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3권의 정체 분류는 우선 여섯 가지 정체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그 다음으로 최선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서 최선 정체가 아닌 정체에 대한 논의를 상세히 하지 않는 반면, 4~6권의 정체 분류는 최선 정체가 아닌 정체에 대한 논의를 상세히 하고, 민주정과 과두정보다 더 좋은 혼합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말할 수 있다. 혼합 정체는 지배자의 덕과 무관하게 형성될 수 있어서 최선 정체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대체로 지배자가 덕을 많이 가질수록 혼합 정체는 더 안정되고 좋을 수 있어서 최선 정체의 영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혼합 정체가 최선 정체에 가까울수록 더 좋으면, 최선 정체는 혼합 정체의 본이 된다. 최선 정체는 그 자체로도 논의될 가치가 있고, 혼합 정체의 본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가치가 있는 반면, 최선 정체보다 덜 좋은 혼합 정체는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에 주로 있었던 민주정, 과두정보다 더 좋은 정체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Ⅲ부에서 하는데, 정치학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두 정체가 정치학의 두 가지 논의 주제임을 밝히고자 한다.

Ⅲ.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

1. 정치학의 과제와 두 가지 논의 주제

1.1. 정치학의 과제

아리스토텔레스는 4권 1장에서 여섯 가지 정치학의 과제를 제시한다. 1. 최선 정체는 무엇인가(1288b22~23)? 2. 어떤 종류의 정체가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적합한가(1288b24)? 3. 가정(hypothesis) 하에 있는 정체는 무엇인가(1288b28)? 4. 모든 도시국가에 가장 적합한 정체는 무엇인가(1288b34~35)?⁸⁰⁾ 5. 정체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1289a8)? 6. 가장 좋은 법과 각 정체에 적합한 법은 무엇인가(1289a12~13)? 이제 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첫 번째 과제에서 최선 정체는 외적인 것의 방해가 없을 때 가장 이상적인(kat' euchēn) 정체이다(1288b23~24). 외적인 것은 정체의 전제 조건인 인구, 영토, 종족 등을 말하는데, 이는 운에 좌우된다(1332a30). 최선 정체에 적합한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최선 정체는 수립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정체는 다른 추가적인 조건을 요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최선 정체이다.

두 번째 과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가 최선 정체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좋은 입법자와 참된 정치가는 무조건적인 최선 정체와 주어진 상황에서의(ek tōn hypokeimenōn) 최선 정체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1288b24~27). 일인과 소수는 덕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반면, 다수는 모든 덕에서 완벽하게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1279a39~b1), 일인과 소수가 지배할 때 무조건적인 최선 정체는 가능하지만, 다수가 지배할 때 무조건적인 최선 정체는 불가능하다.⁸¹⁾ 정체를 지배하는 사람마다 적합한 정체

80)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는 '모든' 도시국가에 가장 적합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지만, 다른 대목에서는 '대부분의' 도시국가에 가장 적합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는다(1289b16~17, 1295a25~31).

는 달라서, 최선 정체는 주어진 상황마다 다르다. 그래서 좋은 입법자와 참된 정치가는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최선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세 번째 과제에서 가정 하에 있는 정체는 주어진 정체인데, 이는 정체에 필요한 것을 갖추지 못한 최선 정체 또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 정체가 아니라, 열등한 정체를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체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고, 생겨난 후에 어떤 방식으로 매우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고 말한다(1288b28~33). 가정 하에 있는 정체, 주어진 정체는 무조건적인 최선 정체와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보다 열등한 정체인데, 민주정과 과두정이 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체가 가정 하에 있다는 것은 정체가 특정한 가치를 지닐 때 형성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자유를 지닌 정체는 민주정이고, 부를 지닌 정체는 과두정이다. 그리고 정체는 수립되는 것도 중요하고 오랫동안 보존되는 것도 중요해서 정치가는 정체를 수립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정체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네 번째 과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자들 대부분이 유용한 것의 측면에서 잘못을 범한다고 말한다. 최선 정체뿐만 아니라 가능한 정체⁸²⁾ 및 모든 도시국가에게 더 쉽고 공통된 정체도 탐구해야 하는데, 이들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절정에 이른 정체만을 추구하거나, 공통된 정체를 말하면서도 현존 정체를 배척하고 스파르타 정체⁸³⁾와 같은 정체를 찬양하기 때문이다. 현존 정체로부터 쉽게 설득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도입해야 하는데, 정체를 바로잡는 것은 처음부터 정체를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힘들기 때문이다(1288b35~1289a5).

81) 주 36에서 언급했듯이, 『정치학』에서 소수와 다수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기에 자유인 성인 남성 가운데 소수와 다수를 말할 수 있다.

82) 가능한 정체는 두 번째 과제에서 언급된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 세 번째 과제에서 언급된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 정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83) 스파르타 정체는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온갖 정체가 잘 혼합된 정체로 찬양받았는데, 과두정, 일인정, 민주정 또는 과두정, 일인정, 참주정, 민주정으로 구성된 정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1265b33~1266a1). III.1.2.에서 밝혀지겠지만, 모든 도시국가에게 더 쉽고 공통된 정체는 차선 정체, 즉 민주정과 과두정이 잘 혼합된 시민정인데, 이 정체는 스파르타 정체보다 더 적은 정체로 혼합되어서 현존 정체에 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정체가 개선되고 바로잡힘으로써 정체가 오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열등한 정체인 현존 정체는 정체의 개선을 위해 모든 도시국가에 공통되고 쉽게 성취될 수 있는 정체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선 정체처럼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절정에 이른 정체 또는 상대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스파르타 정체를 목표로 삼으면 이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체의 개선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정치가는 현존 정체가 보다 쉽게 개선되도록 모든 도시국가에 더 쉽고 공통된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 과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종류의 민주정과 과두정만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말한다(1289a8~10). 오히려 민주정과 과두정에 몇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 각각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이것들의 여러 결합 방식도 알아야 한다.

여섯 번째 과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에 맞게 정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에 맞게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체는 공직이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는지, 정체를 주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각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공직에 관한 도시국가의 조직인 반면, 법은 지배자가 그에 따라 지배하면서 법 위반자들을 제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의 종류와 수를 파악하는 것은 법 제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1289a13~22). 법은 공직의 종류와 선출 자격과 선출 방법을 정해 놓은 규칙인데,⁸⁴⁾ 정체의 성격이 법에 반영되어 있다. 법은 정체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므로,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조건적인 최선 정체,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 가정 하에 있는 정체 순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각각을 밝혀내는 것을 첫 번째~세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 같다. 그 다음으로 그는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유용성 차원에서 모든 정체가 쉽게 개선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네 번째 과제를 제시한 것 같고, 현존 정체가 민주정과 과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음을 보이기 위해 다섯 번째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법이 정체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이기

84) Simpson(1998), p. 289.

위해 여섯 번째 과제를 제시한 것 같다. 정치학의 과제는 여섯 가지이지만, 각 과제의 관계에 주목하면 정치학의 논의 주제는 두 가지, 즉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1.2. 정치학의 두 가지 논의 주제: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

정치학의 여섯 가지 과제는 모두 공통적으로 정체와 관련이 있다. 우선 여섯 번째 과제는 법과 관련이 있지만, 법은 정체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므로 정체와 관련이 있다. 정치학의 과제 해결을 위해 먼저 어떤 정체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이는 다섯 번째 과제와 관련이 있다. 어떤 정체가 있는지 밝혀지면, 정체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밝혀지는데, 이 문제는 3권의 정체 분류와 4~6권의 정체 분류를 통해 해결된다. 다섯 번째 과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첫 번째~네 번째 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 첫 번째 과제의 대상은 최선 정체이고, 두 번째 과제의 대상은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이며, 세 번째 과제의 대상은 열등한 정체이고, 네 번째 과제의 대상은 모든 도시국가에 가장 적합한 정체이다.

완전한 유덕자가 될 수 있는 일인이나 소수가 지배하는 정체는 최선 정체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유덕자가 될 수 없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체는 최선 정체가 될 수 없고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가 될 수 있다. 일인이나 소수인 지배자가 완전한 덕을 지닐 때 최선 정체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만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최선 정체가 가능하면 최선 정체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를 추구해야 한다.

열등한 정체는 앞서 말했듯이 ‘가정 하에 있는 정체’이자 ‘주어진 정체’이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최선 정체나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가 추구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수립되는 정체는 대부분 이보다 못한 열등한 정체이다. 정체의 기준이 부인 경우에 열등한 정체는 과두정이고, 자유인 경우에 열등한 정체는 민주정이다. 열등한 정체는 부자 또는 빈자 중 한 집

단만 지배하거나 한 집단이 우월하게 있는데, 한 집단만이 지배할 때 정체에 불만을 갖는 집단이 내분을 일으키기가 쉬워서 정체는 보존되기 어렵다. 정체가 오래 보존되려면 내분이 발생하기가 어려워야 하는데, 혼합된 지배자는 정체에 만족해서 내분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 오래 보존되는 정체가 그렇지 않은 정체보다 더 좋기 때문에, 열등한 정체는 지배자가 혼합된 정체가 되어 오래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수립된 열등한 현존 정체는 최선 정체가 되기 어려운데, 최선 정체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주어진 것이어서 입법자와 정치가가 이를 바꾸기 어려운데다가 유덕자가 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여가가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시민은 유덕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존 정체, 특히 오래 보존되기 어려운 정체는 개선되어 오래 보존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도시국가에게 더 쉽고 공통된 정체, 즉 모든 도시국가에 가장 적합한 정체가 도입되면 쉽게 개선될 수 있다. 이 정체의 도입을 통해 지배자가 혼합되지 않은 정체는 혼합 정체가 되어 더 오래 보존될 수 있다.

입법자와 정치가는 최선 정체가 가능하면 최선 정체를 추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를 추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이보다 못한 열등한 정체가 수립된다. 열등한 정체는 오래 보존되기 어려운 정체이기 때문에 개선되어 오래 보존되어야 한다. 정체의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려면 최선 정체나 스파르타 정체처럼 도달하기 어려운 정체가 아니라 모든 도시국가에 가장 적합한 정체를 도입하여 오래 보존될 수 있는 정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학의 첫 번째~네 번째 과제는 크게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네 번째 과제로 나뉜다. 두 번째 과제의 대상인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빈자가 우세한 상황에서 민주정이고, 부자가 우세한 상황에서 과두정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래 보존될 수 없는 민주정과 과두정은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가 될 수 없다. 빈자가 우세하든 부자가 우세하든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 정체는 오래 보존될 수 있는 정체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체는 지배자가 혼합된 정체로서 시민정 또는 혼합 귀족정이다. 정체의 구성원이 빈자와 부자인 경우 이 정체는 시민정이고, 구성원이 빈자와 부자와

유덕자인 경우 이 정체는 혼합 귀족정이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과제의 대상인 열등한 정체는 지배자가 혼합되지 않은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이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과제의 대상인 모든 도시국가에 가장 적합한 정체는 차선 정체⁸⁵⁾이다. 차선 정체는 모든 도시국가에게 더 쉽고 공통된 정체라서 열등한 현존 정체에 쉽게 도입될 수 있다. 열등한 현존 정체는 차선 정체에 가까워지면서 개선되어, 지배자가 혼합되지 않거나 잘 혼합되지 않은 열등한 현존 정체는 지배자가 잘 혼합된 혼합 정체가 되어 오래 보존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차선 정체에 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열등한 정체는 차선 정체를 목표로 삼아 혼합 정체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열등한 정체, 혼합 정체, 차선 정체는 이와 같이 긴밀한 관계에 있기에 두 번째~네 번째 과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⁸⁶⁾ 열등한 현실 정체는 차선 정체를 목표로 개선되어야 하며, 개선 결과 혼합 정체가 될 수 있다. 혼합 정체는 엄밀히 말하면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이지만,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도 혼합 정체로 간주될 수 있다. 게다가 차선 정체도 중산층의 주도 하에 빈자와 부자가 혼합해 있기 때문에 혼합 정체에 포함된다. 결국 정치학의 논의 주제이자 추구되어야 하는 정체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선 정체이고, 다른 하나는 혼합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1.3.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의 관계

최선 정체는 완전한 유덕자가 지배하는 정체이고, 차선 정체는 중산층의 주도 하에 빈자와 부자가 잘 혼합된 정체인데, 차선 정체를 주도하는 중산층이 완전한 유덕자가 되지 않는 한 차선 정체는 최선 정체가 될 수 없는

85) 주 77에서 간략히 언급된 차선 정체에 관한 논의는 III.3.1.에서 자세히 이루어진다.

86) 정치학의 네 가지 과제의 대상에 관한 필자의 입장은 Kraut(2002, p. 431)의 입장과 동일하다. Miller(2007a, pp. 15~16)의 입장은 필자의 입장과 어느 정도 유사한데, 그는 첫 번째 과제의 대상은 최선 정체, 두 번째 과제의 대상은 차선 정체, 세 번째 과제의 대상은 현실 정체로 여기는 반면, 네 번째 과제의 대상은 언급하지 않는다. 필자는 두 번째~네 번째 과제를 서로 연계해서 보는 반면, Miller는 두 번째 과제와 세 번째 과제를 분리해서 다룬다. 그는 차선 정체에서 만장일치의 원칙(maxim of unanimity)이 적용되는 반면, 현실 정체에서 우월함의 원칙(maxim of superiority)이 적용된다고 여긴다. Miller(1995b), p. 269, p. 285.

반면, 대부분의 정체는 지배자가 잘 혼합되면 차선 정체가 될 수 있다. 최선 정체를 제외한 나머지 정체는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의가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정, 과두정과 같은 정체는 차선 정체를 목표로 개선되면 오래 보존될 수 있고, 혼합 정체로 개선될 수 있다. 최선 정체를 제외한 나머지 정체의 경우에 논의 주제는 혼합 정체이다.

최선 정체가 되는 데 덕이 중요하고 혼합 정체가 되는 데 혼합이 중요한데, 덕과 무관하게 혼합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 정체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혼합 정체는 최선 정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논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정치학에서 으뜸가는 논의 주제는 최선 정체이고, 버금가는 논의 주제는 혼합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입법자와 정치가는 최우선적으로 최선 정체를 추구해야 하고, 최선 정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차선 정체를 목표로 삼아 혼합 정체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최선 정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선 정체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지배자가 잘 혼합되면 혼합 정체 가운데 가장 좋은 차선 정체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시민이 유덕자가 될 수 없는 한 차선 정체는 최선 정체가 될 수 없다. 덕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여가를 확보해야 유덕자가 될 수 있는데, 최선 정체 이외의 정체에서 모든 시민을 유덕자로 만드는 교육은 없고,⁸⁷⁾ 농업이나 상업 등에 종사해서 덕에 필요한 여가를 가질 수 없는 시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선 정체 이외의 정체는 최선 정체가 될 수 없다. 반면에 최선 정체 이외의 정체는 지배자의 혼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선 정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선 정체가 아니라 차선 정체가 정체 개선을 위한 목표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최선 정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선 정체 이외의 정체는 최선 정체가 될 수 없을지라도 최선 정체는 본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본’이라는 말은 플라톤이 했는데, 그는 『국가』에서 철인 통치자가 지배하는 최선 정체를 ‘본’(592b)이라 말하고, 『법

87) 스파르타만 도시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 내용은 시민이 덕 전체가 아니라 용기만을 갖는 것이었다(1334a40~b3, 1337a31~32).

를』에서도 본이 되는 최선 정체와 최대한 가깝게 차선 정체를 만들어서 법에 따라 지배되는 차선 정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739e). 최선 정체는 지배자의 기술에 따라 지배되고 차선 정체는 법에 따라 지배되는데, 차선 정체는 최선 정체의 모방에 불과하다(『정치가』, 293a~294a). 법에 따른 지배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약점을 지닌 반면, 지배자의 기술, 지식에 따른 지배는 개별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이로부터 법에 따라 지배되는 차선 정체는 최선 정체가 될 수 없지만, 법에 따른 지배를 최대한 지배자의 기술에 따른 지배와 가깝게 만들면 차선 정체는 최선 정체와 최대한 가깝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선 정체와 차선 정체의 관계가 『정치학』에서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덕자가 될 수 없는 지배자가 잘 혼합되면 차선 정체는 최선 정체가 될 수 없더라도 최선 정체와 최대한 가깝게 될 수 있다. 차선 정체를 주도하는 중산층은 덕 교육을 받지 않으면 완전한 유덕자가 될 수 없지만, 적당한 재산을 지닌 덕분에 유덕자에 가까운 덕을 지닐 수 있다. 차선 정체를 주도하는 중산층이 유덕자와 최대한 가까워지면 차선 정체는 최선 정체와 최대한 가깝게 될 수 있어서, 차선 정체는 최선 정체가 될 수 없더라도 최선 정체는 본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덕자를 제외하면 중산층이 가장 많은 덕을 지니고 중산층에 가까운 부자와 빈자가 그 다음으로 덕을 많이 갖는데, 부의 양에 따라 중산층과 부자, 빈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의 정도가 덕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완전한 덕을 갖기 위해서는 덕을 갖는 데 필요한 여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가 중요한 것 같다. 부가 덕을 좌우하면, 덕을 갖기 위해 적당한 부를 갖는 것으로 충분해서, 최선 정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덕을 갖는 데 부는 중요하지만, 적당한 부가 있다고 해서 덕이 저절로 생기지 않으며, 덕을 갖기 위해 덕 교육과 덕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최선 정체 이외의 정체에 유덕자를 만드는 덕 교육은 없지만, 타인을 상대로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욕망하지 않게 만들 정도로 덕을 갖게 하는 교육은 가능하고, 이 정도의 덕을 습관들이도록 강제하는 법도 가능하다. 이 정도의 덕을 교육받고 습관들이

자는 비록 유덕자가 될 수 없지만 유덕자에 가깝게 될 수 있다. 유덕자를 만드는 교육을 토대로 삼아 유덕자에 가까운 자를 만드는 교육이 있게 되면, 최선 정제 이외의 정제에서 이루어지는 덕 교육은 최선 정제에서 이루어지는 덕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덕 교육의 측면에서도 최선 정제는 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혼합 정제의 모든 지배자는 유덕자가 될 수 없더라도, 최선 정제가 본이 되는 덕분에, 최대한 유덕자에 가까워질 수 있고, 혼합 정제는 최선 정제에 최대한 가까워져서 좋고 안정되며 오래 보존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선 정제와 혼합 정제는 별도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데, 최선 정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선 정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제 Ⅲ.2.에서 최선 정제에 관해 논의하고, Ⅲ.3.에서 혼합 정제에 관해 논의한다. Ⅲ.2.의 주요 쟁점 사항은 3권의 최선 정제와 7권의 최선 정제가 동일한지, 7권의 최선 정제가 무슨 정제로 규정될 수 있는가이다.

2. 최선 정제

2.1. 3권의 최선 정제

2.1.1. 정제 주도의 정당성 문제

아리스토텔레스는 3권 10장에서 도시국가의 어느 부분이 정제를 주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⁸⁸⁾ 그는 정제 주도 후보로 다섯 가지, 즉 일인인 가장 좋은 사람(beltestos), 훌륭한 사람들(epieikēs), 다수

88) 도시국가에 유덕자, 빈자, 부자 등 자유인으로 구성된 여러 집단이 있는데, 정제를 정당하게 주도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나뉜다. 정제를 정당하게 주도할 수 있는 집단은 지배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지배받는 것이 합당하다. 정제를 정당하게 주도할 수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 서로 동등한 한에서 구성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정제를 정당하게 주도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후자의 경우에 두 집단 모두 자유인이지만 전자는 우월해서 지배할 자격이 있고 후자는 열등해서 지배받는 것이 합당하다.

(plēthos), 부자, 참주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들 모두 정제 주도를 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1281a11~13). 먼저 다수, 부자, 참주가 정제 주도를 요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제시된다. 빈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부자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은 불의한 일인데, 빈자는 부자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 주도권을 지닌 자에게 정당하게 여겨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불의이며, 다수가 소수의 재산을 나눠 가지면 도시국가를 파멸시키기 때문이다(1281a14~19). 다수인 빈자와 소수인 부자가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빈자가 정제를 주도하면 부자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는데, 이에 반발하는 부자에 의해 내분이 일어나서 도시국가는 파멸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빈자인 다수는 정당하게 정제 주도를 요구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빈자가 부자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 정의로우면 참주의 행위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수가 부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듯이 더 강력한 참주도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1281a21~24). 하지만 빈자가 부자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은 불의이기 때문에, 참주가 피지배자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불의라서 참주도 정당하게 정제 주도를 요구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소수인 부자가 다수의 재산을 강탈하고 몰수해서 나눠 갖는 것이 정의로우면, 앞서 말한 빈자나 참주의 행위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실제로는 모두 나쁘고 불의하다(1281a24~28). 따라서 부자도 정당하게 정제 주도를 요구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정제 주도를 요구하는 것 같지 않은 이유를 제시한다. 그는 가장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들이 각자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이들이 각자 누구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우선 일인인 지배자 집단은 왕 아니면 참주인데, 참주는 정제 주도 후보로 이미 제시되었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3권 7장에서 제시된 지배자 집단 가운데 남은 정제 주도 후보는 최선자와 중무장보병인데, 훌륭한 사람들이 카르타고나 스파르타와 같은 혼합 귀족정에 유덕자처럼 있으면, 훌륭한 사람들은 유덕자인 최선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정제 주도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훌륭한

사람들이 정체를 주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 공직에서 배제되어 명예가 없고, 가장 좋은 사람이 정체를 주도하면 명예가 없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1281a28~34). 정치적 공직에서 배제되어 명예가 없는 자들이 훌륭한 사람들 또는 가장 좋은 사람의 적이 되면, 도시국가는 적으로 가득 차게 되어(1281b30) 도시국가는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과 가장 좋은 사람은 정당하게 정체 주도를 요구할 수 없는 것 같다. 결국 정체 주도를 요구하는 다섯 가지 후보 모두에 문제가 있어서,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의 지배자 집단뿐만 아니라 왕정, 귀족정의 지배자 집단조차 정당하게 정체 주도를 요구할 수 없는 것 같다.⁸⁹⁾ 그러면 어느 지배자 집단도 정당하게 정체를 주도할 자격은 없다고 말해야 하는가? 만약 정당하게 정체를 주도할 자격을 지닌 지배자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은 어떤 집단인지 찾을 필요가 있다.

2.1.2. 유덕자의 정당한 정체 주도 및 부자와 빈자의 부당한 정체 주도

지배자 집단이 정당하게 정체 주도를 요구하려면 정체를 주도할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도시국가의 수립 목적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국가의 수립 목적 중에서 최고의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지배자 집단에 정체를 주도할 자격이 있는데, II.1.2.의 논의에서 최고의 도시국가 수립 목적은 잘 삶으로 밝혀졌다. 도시국가는 잘 삶 이외의 다른 목적, 예컨대 소유물을 위해 수립될 수는 있지만(1280a25~26), 본성적으로는 잘 삶을 위해 수립되어야 한다. 덕이 발휘될 때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삶을 위해 덕을 발휘할 수 있는 유덕자가 도시국가에 필요해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가 장소의 공동체도 아니고, 서로에게 불의를

89) 시민정의 지배자 집단인 중무장보병이 정체 주도를 요구하는 경우는 논의되지 않아서, 중무장보병이 정체 주도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

범하지 않으려는 공동체도 아니며, 거래를 위한 공동체도 아니라고 주장한다(1280b29~31). 우선 메가라인의 도시국가와 코린토스인의 도시국가는 하나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영토가 한 곳으로 통합되어도 하나의 도시국가로 되지 않는다(1280b13~15). 그 다음으로 서로에게 불의를 범하지 않는 것만을 신경쓰는 도시국가는 참된 도시국가가 아닌데, 참된 도시국가는 정치적인 덕과 악덕에 주의를 기울여서 시민들을 좋고 정의로운 자들로 만들기 때문이다(1280b1~12). 마지막으로 거래를 위해 도시국가가 수립되면, 조약을 맺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도시국가의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국가마다 관련 공직자가 따로 있어서 이들은 하나의 도시국가의 시민이 되지 않는다(1280a35~b1).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장소를 공유하는 것과 서로에게 불의를 범하지 않는 것과 거래를 하는 것은 도시국가의 존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들만으로 도시국가는 성립하지 않는다(1280b31~33). 게다가 도시국가에는 혼인관계, 형제단(phatria), 제의, 공동 삶을 위한 오락(diagōgai tou syzēn)처럼 공동 삶을 위한 것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잘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1280b36~40).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듯이 도시국가의 목적은 잘 살이기 때문에, 이에 최고로 기여한 사람이, 자유와 가문(genos)에서 동등하거나 우월하지만 정치적인 덕에서 동등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부에서 우월하지만 덕에서 열등한 사람보다 도시국가에서 더 많은 몫을 갖는다(1281a4~8). 도시국가가 잘 사는 데 덕이 최고로 기여하기 때문에, 자유인, 부자 등이 아니라 유덕자가 정체를 주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도시국가에 가장 많이 기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자 아울로스 연주의 예를 든다. 누군가 사람들이 특정 좋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서 차이가 없이 서로 닮았다면 그 좋은 우열에 따라 공직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는 이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말한다. 이 주장이 참이면, 얼굴이나 키와 같은 좋음에서 우월한 사람이 정치적인 정의에 관한 몫을 더 많이 가져야 하지만(1282b23~30), 아울로스 연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좋은 아울로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부유하거나 출생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연주를 잘 하

는 사람인데, 부와 좋은 출생은 연주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282b31~1283a3). 좋은 연주자는 연주자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연주를 잘 하므로, 좋은 연주에 기여하는 것은 연주자의 기능 발휘, 즉 연주자의 덕이다. 아울로스 연주자의 경우처럼, 덕을 지닌 유덕자가 높은 공직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당하게 정체 주도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유덕자와 달리, 빈자와 부자는 부당하게 정체 주도를 요구한다. 민주정의 지배자 집단인 빈자는 민주정을 지지하고, 과두정의 지배자 집단인 부자는 과두정을 지지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민주정 지지자와 과두정 지지자는 정의(dikaion)를 어느 정도만 붙잡고 있을 뿐, 주된 의미의 정의는 말하지 않는다(1280a9~11). 이들은 정의를 어느 정도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정의를 말한다고 여기는데, 과두정 지지자는 부에서 동등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정 지지자는 자유에서 동등하면 전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한다(1280a21~25). 이처럼 빈자와 부자는 어느 정도는 정당하게 정체 주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정당하게 정체 주도를 요구할 수 없다. 빈자는 자유인은 모두 동등하므로 모든 자유인은 동등한 공직에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부자는 부가 많을수록 더 우월하므로 부유할수록 더 높은 공직에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유덕자가 도시국가에 가장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자유인인 유덕자가 같은 자유인인 비유덕자 또는 부자보다 더 높은 공직에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빈자와 부자는 잘 삶이라는 도시국가의 수립 목적을 간과해서 부당하게 정체 주도를 요구한다.

2.1.3. 집단을 이룬 다수의 정체 주도 한계

아리스토텔레스는 3권 11장에서 집단을 이룬 다수가 도시국가를 주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논의하는데, 다수(plêthos)가 소수의 최선자(aristos)보다 더 많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tis)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해결될 수 있고 아마도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고 말한다(1281a40~42). 소수의 최선자가 유덕자라면, 다수는 유덕자가 아니다. 유덕자가 도시국가를 주도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면, 다수인 비유덕자가 소수인 유덕자보다 도시국가를 더 많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주장을 완전히 인정하지도 않고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 각자가 훌륭하지(spoudaios) 않아도 함께 모이면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을 수 있는데, 각자로서가 아니라 전체 집합으로서 그렇다고 말한다. 이는 다수가 지불한 식사가 한 사람의 비용으로 제공된 식사보다 더 좋은 것과 같다(1281a42~b3). 그 다음으로 다수 각자는 덕과 실천적 지혜의 부분만을 갖지만, 함께 모인 다수는 많은 발과 손과 감각을 가진 한 사람처럼 되듯이 성격과 사유에 있어서도 한 사람처럼 될 수 있다(1281b4~7). 그 다음으로 다수는 시가 작품과 시인의 작품을 더 잘 판단하는데, 각자는 각 부분을 판단하는 반면 모두는 모든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이다(1281b7~10). 마지막으로 흠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따로따로 보면, 예컨대 사람의 눈은 그려진 눈보다 더 아름답지만, 흠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로 함께 모여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그려진 것이 실제 대상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해지는 것처럼 훌륭한 자들은 다수 각자보다 더 뛰어나다(1281b10~15). 그는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네 가지 비유를 제시한다. 각각의 비유에서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수가 지불한 식사가 한 사람의 비용으로 제공된 식사보다 더 좋은지를 따져본다. 다수가 지불한 식사가 한 사람의 비용으로 제공된 식사보다 더 좋다면, 그 이유는 전자의 식사가 더 다양하다거나 더 비싼 데 있다.⁹⁰⁾ 다수가 지불한 식사는 potluck(symporēta deipna)⁹¹⁾인데, 다수 각자는 저마다 음식을 가져오므로 다수가 지불한 식사는 다양한 음식들로

90) 다수가 지불한 식사가 더 다양한 이유는 Wilson(2011, p. 264), Ober(2013, pp. 110~111) 등이 제시하고, 다수가 지불한 식사가 더 비싼 이유는 Cammack(2013, pp. 182~190), Lane(2013, pp. 254~259) 등이 제시한다.

91) 다수가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나눠 먹는 식사.

구성된다. 다수 각자가 좋은 음식을 서로 겹치지 않게 가져오면 다수 각자가 가져온 음식들로 구성된 식사가 일인이 만든 식사보다 더 좋다. 게다가 비싼 식사일수록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식사든 비싼 식사든 이러한 식사는 좋은 식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하거나 비싼 식사를 제공하는 다수의 식사가 일인의 식사보다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식사가 다양하거나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식사는 아니다. 식사를 구성하는 음식의 다양함과 식사의 비싼 가격, 즉 식사의 양적인 측면도 좋은 식사가 되는 데 중요하지만, 식사의 질적인 측면, 예컨대 식사의 재료나 음식의 조화, 식사자의 입맛에 맞는 요리 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⁹²⁾ 결국 다수가 지불한 식사가 일인의 비용으로 제공된 식사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둘째, 집단을 이룬 다수가 많은 발과 손과 감각을 가진 한 사람처럼 되듯이 성격과 사유에 있어서도 한 사람처럼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 다수 각자는 덕과 실천적 지혜의 부분만을 갖기 때문에 덕과 실천적 지혜를 완전하게 갖고 있는 소수의 최선자보다 좋지 않지만, 다수가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한 사람처럼 되는데, 한 사람처럼 된 집단이 많은 발과 손과 감각을 갖게 되듯이, 다수 각자가 지닌 덕과 실천적 지혜를 한데 합쳐서 갖게 된다. 많은 발과 손을 지닌 사람이 두 개의 발과 손을 지닌 사람보다 더 좋듯이, 각자가 지닌 덕과 실천적 지혜를 모두 합쳐서 갖고 있는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으며, 성격과 사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수 각자가 갖고 있는 덕, 실천적 지혜, 성격, 사유가 집단을 이루었을 때 모두 합쳐질 수 있으면, 집단을 이룬 다수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총합이 소수의 최선자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 각자가 오직 덕의 일부를 가질지라도 덕을 갖지 않는 부분에서는 평범하다.⁹³⁾ 대부분의 다수가 덕의 일부인 용기만 갖고 다른 덕을 갖지 않으면, 집단을 이룬 다수는 용기를 제외한 다른 덕에서 유덕하지 않다. 덕의 일부를 골고루 갖고 있는 다수 각자

92) 다수가 지불한 식사가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좋다는 주장의 문제는 Bobonich(2015) p. 150 참고.

93) Bobonich(2015), pp. 151~152.

가 집단을 이루어서 모든 덕을 다 갖지 않는 한,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셋째, 집단을 이룬 다수가 시가 작품과 시인의 작품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 집단을 이룬 다수가 더 잘 판단하는 이유로 각자는 각 부분을 판단하지만 모두가 모든 부분을 판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테네에서 매해 제비뽑기를 통해 선출된 다수의 평가단원이 함께 모여서 최고의 희극 작가와 비극 작가 세 명씩을 뽑았는데, 이것이 집단을 이룬 다수가 판단을 잘 한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⁹⁴⁾ 비극을 평가하기 위해 모인 다수 중 어떤 이는 비극의 내용을 판단하고 어떤 이는 비극의 형식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다수 각자가 비극의 각 부분을 골고루 판단하면 집단 전체는 비극의 모든 부분을 잘 판단할 수 있다. 비극을 평가하려면 비극의 구성 요소도 평가해야 하고 비극을 종합적으로도 평가해야 하는데, 평가할 요소가 많을수록 일인이나 소수보다 집단을 이룬 다수가 평가를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 각자의 좋은 개별 판단이 어떻게 다수 집단의 훌륭한 전체 판단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가 밝혀져야 집단을 이룬 다수가 판단을 잘 한다고 말할 수 있다.⁹⁵⁾ Waldron(2005)은 공동의 숙고 과정이 확장된 결과, 다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공유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Ober(2013)는 다수가 확장된 숙고를 통해 전문가가 내세우는 이유를 파악하게 되고, 다수가 전문가 자체를 인정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판단을 수용한다고 주장한다.⁹⁶⁾ Bobonich는 Waldron의 주장에 대해 다수가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어서 좋음을 잘못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Ober의 주장에 대해 다수의 결합 있는 성격은 다수가 전문가의 판단을 수용하도록 만들지 못하며, 평범한 교육을 받은 다수는 전문가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⁹⁷⁾ Bobonich의 주장처럼 다수 각자의 좋은 개별 판단이 다수

94) Ober(2013), p. 111.

95) Bobonich(2015), p. 152.

96) Bobonich(2015), pp. 153, 155.

97) Bobonich(2015), pp. 154~156.

집단의 훌륭한 전체 판단으로 결합되기 어려우면,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넷째, 흩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따로따로 보면, 예컨대 사람의 눈이 그려진 눈보다 더 아름답지만, 흩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로 함께 모여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그려진 것이 실제 대상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해지듯이 훌륭한 자들은 다수 각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해지는데,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 위해 제시된 이 비유를 통해 그와 같이 말하기는 어렵다. 이 비유가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흩어져 분리되어 있는 기술적으로 그려진 것이 다수 각자를 뜻하고, 하나로 함께 모인 기술적으로 그려진 것이 집단을 이룬 다수를 뜻하며, 실제 대상이 최선자를 뜻해야 하는데, 이 비유에서 하나로 함께 모인 기술적으로 그려진 것은 훌륭한 자, 즉 최선자로 말해지고, 실제 대상은 다수 각자로 말해지기 때문에, 이 비유는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⁹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처럼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네 가지 비유를 제시했지만, 네 가지 비유를 통해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는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잘 뒷받침하지 못하는 네 가지 비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Winthrop(1978b), MacKenzie(1989), Lindsay(1992) 등 일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집단을 이룬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손병석(1999b, 2001), Bobonich(2015) 등 다수는 그가 이를 인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에서 이유가 밝혀지듯이 집단을 이룬 다수는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좋기가 어려울지라도 소수의 최선자와 혼합하여 도시국가와 정체를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다수가 소수의 최선자보다 더

98) Simpson은 이 비유도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최선자가 다수 각자보다 좋지만 집단을 이룬 다수보다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하는데,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것 같다. Simpson(1998), p. 167.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만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민중 및 모든 다수의 경우에 집단을 이룬 다수가 훌륭한 소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짐승과 같은 다수는 우월할 수 없고(1281b15~20),⁹⁹⁾ 일부 다수는 짐승과 큰 차이가 없어도, 짐승과 같지 않은 다수는 집단을 이루면 훌륭한 소수보다 우월할 수 있다(1281b20~21). 집단을 이룬 다수가 훌륭한 소수보다 우월할 수 있다고 말하려면, 앞서 제시된 네 가지 비유 외에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도시국가의 어느 부분이 정체를 주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및 이와 연관된 문제인 자유인과 시민 다수가 무엇을 주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1282b21~24). 부자도 아니고 덕의 자격도 없는 시민 다수가 매우 중요한 공직(megistē archē)에 참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데, 불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불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282b24~28). 하지만 시민 다수에게 공직이 부여되지 않고, 시민 다수가 공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다수가 공직에서 배제되고 가난하면, 도시국가는 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282b28~30).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시민 다수가 심의와 판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술론과 다른 입법자들은 시민 다수에게 공직자 선출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는 허용하되 시민 다수가 지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는데, 함께 모이면 충분한 지각을 갖는 시민 다수는 더 좋은 사람과 혼합되면 도시국가를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1281b31~36). 시민 다수가 심의와 판결에 참여하면, 시민 다수가 매우 중요한 공직에서 배제되어도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심의하는 공직과 판결하는 공직도 공직이므로, 심의와 판결에 참여하는 시민 다수는 공직에 참여한다. 술론과 다른 입법자들이 시민 다수에게 허용한 공직자 선출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는 심의 및 판결에 관한 것인데, 공직자 선출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는 심의의 임무이고(1298a6~7), 법정 중 하나가 감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1300b19~20). 더 좋은 사람이 매우 중요한 공직을 맡고, 시민 다수가 심

99) 짐승과 유사한 사람으로 노예가 있고(1254b24), 노예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막노동자(chernēs)와 수공업 기술자 등이 있지만(1277a37~b1), 자유인인 한 이들은 노예, 짐승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의와 판결에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사람과 시민 다수가 혼합되면 도시국가 가는 이롭게 되며, 이러한 도시국가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IV.3.3.에서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다수가 공직자를 감사하고 선출할 자격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의술을 올바르게 행했는지를 판단하는 일과 의술을 시행하고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 모두 의사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의사가 의사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듯이, 공직자도 공직자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1281b38~1282a3). 공직자가 아닌 다수는 공직자를 감사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뿐만 아니라 의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의술을 올바르게 행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시된다(1282a3~5). 다수가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와 같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의술 교육을 받은 사람과 같다면 공직자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서 공직자를 감사할 수 있다.¹⁰⁰⁾ 그 다음으로 측량가를 선출하는 것은 측량술에 능통한 사람의 일이듯이 올바르게 선출하는 일도 전문가의 일이라서(1282a7~9) 공직에 대해 문외한인 다수는 공직자를 선출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한데, 첫 번째 반론은 다수가 지나치게 노예적이지 않으면 함께 모였을 때 전문가보다 판단을 더 잘 하거나 최소한 전문가 못지않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1282a15~17), 두 번째 반론은 비기술자가 기술의 결과물을 알고 있으면 제작자가 유일한 판단자도 아니고, 가장 좋은 판단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집의 제작자만 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집의 사용자가 집을 더 잘 판단한다(1282a17~21). 두 가지 반론이 옳으면, 다수는 공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어서, 다수는 공직자를 감사하고 선출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열등한 자들은 훌륭한 자들보다 더 중요한 사안을 주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직자 선출과 감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민회

100) 의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의술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다수는 공직에 관한 교육을 받아서 공직자에 관해 판단할 수 있으면, 다수가 받을 수 있는 공직에 관한 교육, 즉 정치에 관한 교육은 정치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거나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전문 교육이 아니라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에서 프로타고라스가 말하는 교양 교육에 해당되는 시민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가 공직자 선출과 감사를 주도하는 정체에서 민중이 이런 일을 한다(1282a24~29). 재산 등급이 낮고 임의의 나이에 있는 사람이 민회에 참여하고 심의하며 판결을 내리는 반면, 재산 등급이 높은 사람이 재무관과 장군이 되고 매우 중요한 공직을 맡는다(1282a29~32). 다수는 매우 중요한 공직을 맡지 않아도 공직자 선출과 감사를 할 수 있고 심의와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열등한 다수 각자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공직자 선출, 감사, 심의, 판결을 주도하는 것은 이상하며, 매우 중요한 사안은 열등한 자가 아니라 훌륭한 자가 주도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여기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배자는 재판관, 평의회 의원, 민회 의원이 아니라 법정, 평의회, 민회인데, 민회, 평의회, 법정은 다수로 구성되므로, 다수가 더 중요한 사안을 주도하는 것이 정당하다(1282a32~39). 게다가 법정, 평의회, 민회의 구성원, 즉 재판관, 평의회 의원, 민회 의원의 재산 총액(timēma)은 중요 공직자의 재산 총액보다 더 많다(1282a39~41). 이로써 열등한 자들이 훌륭한 자들보다 더 중요한 사안을 주도할 수 없다는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누군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해결책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집단을 이룬 다수가 공직자를 선출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수가 민회, 법정, 평의회의 구성원이 되어 심의와 판결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집단을 이룬 다수가 훌륭한 소수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 집단을 이룬 다수가 공직자를 선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집단을 이룬 다수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누가 공직을 맡는 것이 적절하고 공직자가 공직을 잘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이는 집의 사용자가 집에 대해 잘 모르지만 집을 사용하여 집의 제작자보다 집에 대해 더 잘 판단하듯이 집단을 이룬 다수가 공직에 대해 잘 모르지만 공직자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공직자보다 공직에 관한 사안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Bobonich의 말처럼 정치적 영역에서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는데, 법을 제정

하고 도시국가의 수립 목적에 맞게 통치하는 지배자는 정치적 결정의 올바른 사용이나 목적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정치학을 알아야 하는 반면, 피지배자는 이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¹⁰¹⁾ 이처럼 제작자-사용자 유비는 집단을 이룬 다수가 훌륭한 소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집단을 이룬 다수가 훌륭한 소수보다 판단을 더 잘하기 때문에 집단을 이룬 다수가 공직자를 선출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다음으로 그는 다수가 민회나 법정의 구성원으로서 심의와 판결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도 집단을 이룬 다수가 훌륭한 소수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은 것 같다. 집단을 이룬 다수가 훌륭한 소수보다 판단을 더 잘 하면, 정당하게 심의와 판결을 주도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집단을 이룬 다수가 시가 작품과 시인의 작품을 더 잘 판단한다고 말해져도 다수 각자의 좋은 개별 판단이 다수 집단의 훌륭한 전체 판단으로 결합되기 어려우면, 집단을 이룬 다수가 훌륭한 소수보다 판단을 더 잘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집단을 이룬 다수가 훌륭한 소수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솔론이 다수에게 공직자 선출과 감사를 허용했던 이유, 즉 다수가 도시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도록 공직에 참여하여 도시국가가 오래 보존될 필요성 때문에 심의와 판결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가 심의와 판결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주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집단을 이룬 다수가 훌륭한 소수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집단을 이룬 다수는 심의와 판결을 주도할 만큼 어느 정도 판단을 잘 할 수 있지만, 훌륭한 소수보다 심의와 판결을 더 잘 한다고 말할 수 없는 데, 심의와 판결은 실천적 지혜가 있을 때 가장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적 지혜는 크게 개인에 관한 것과 도시국가에 관한 것으로 나뉘고, 도시국가에 관한 것은 가정경제, 입법, 정치적 실천적 지혜로 나뉘며, 정치적 실천적 지혜는 심의적인 실천적 지혜와 사법적인 실천적 지혜로 나뉜다(*NE* 1141b29~33). 심의적인 실천적 지혜와 사법적인 실천적 지혜가 발

101) Bobonich(2015), pp. 157~158.

취되면, 심의와 판결을 잘 할 수 있다. 지배자만 갖는 덕인 실천적 지혜를 유덕자인 지배자가 완전하게 지니면, 심의와 판결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유덕자가 이를 주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지만 유덕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가 공직에서 배제되고 가난해서 도시국가에 적대적인 경우에는 다수가 도시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도록 다수가 일종의 공직인 심의와 판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유덕자가 다수와 혼합해서 지배할 경우에 다수는 심의와 판결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게 되지만, 개인적인 덕과 능력을 요하는 매우 중요한 공직은 맡을 수 없다. 집단을 이룬 다수는 유덕자만큼 심의와 판결을 잘 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잘 할 수 있는데, 다수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synesis)은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갖게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NE* 1143a9~10, 1143b7). 결국 집단을 이룬 다수는 유덕자만큼 심의와 판결을 잘 할 수 없지만, 이해력이 있어서 심의와 판결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주도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집단을 이룬 다수는 심의와 판결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은 주도할 수 있어도, 다수 각자는 훌륭한 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직이 다루는 사안은 주도할 수 없다. 집단을 이룬 다수는 민회나 법정처럼 집단적으로 심의나 판결을 하는 곳의 구성원은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덕과 능력의 발휘 또는 부를 요하는 매우 중요한 공직, 예컨대 회계관직과 장군직을 맡을 수 없다(1282a31~32, 1318b27~32). 다수는 집단을 이루면 심의와 판결을 주도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공직자의 사안을 주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단을 이룬 다수의 정체 주도 요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¹⁰²⁾

102) 집단을 이룬 다수가 심의와 판결을 주도하는 정체는 무슨 정체인지 물을 수 있다. 집단을 이룬 다수가 심의와 판결을 주도하는 정체의 대표적인 사례로 솔론의 정체를 들 수 있는데, 솔론은 아테네 시민 중 가난한 계층인 네 번째 계층에게 공직자 선출과 감사 권한을 부여한 반면 공직은 허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세 번째 계층은 차등적으로 공직을 맡을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층은 기병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계층은 중무장보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솔론의 정체에서 다수인 네 번째 계층은 중무장보병이 아니라 빈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3권 11장에서 논의되는 집단을 이룬 다수가 훌륭한 소수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정체를 Mulgan(1977), Coby(1988), Bookman(1992), Gottlieb(1995), Miller(1995), Simpson(1998), Cammack(2013), Bobonich(2015), Riesbeck(2016b) 등은 집단을 이룬 다수가 중무장보병이라서 시민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Keyt(1991a), 손병석(1999b), Swanson(2013) 등은 집단을 이룬

2.1.4. 법의 정체 주도 한계

앞서 3권 10장에서 도시국가의 어느 부분이 정체를 주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가장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 다수, 부자, 참주 모두 정당하게 정체를 주도할 수 없어 보였고(1281a11~34), 더욱이 인간은 영혼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갖기 때문에 인간이 정체를 주도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해질 수 있다(1281a34~36). 감정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정체를 주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정체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것은 법이다. 따라서 법이 정당하게 정체를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제정된 법이 주도해야 하지만, 법이 모든 것에 관해 보편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엄밀하게 말할 수 없는 사안에 한해서 지배자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82b1~6).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의 지배¹⁰³⁾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는 최선자의 지배와 최선의 법의 지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이로운지에 대한 논의(1286a7~8)를 통해 드러난다. 우선 일인 최선자인 왕의 지배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법이 오직 보편적인 것만을 말할 뿐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고 여긴다. 이들의 주장처럼 법이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명령을 내리지 못해서¹⁰⁴⁾ 개별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법의 지배는 최선이 아니고 오히려 이 문제를 해

다수가 빈자라서 민주정이라고 주장한다. 집단을 이룬 다수가 빈자인 정체는 민주정인데, 집단을 이룬 다수가 심의와 판결을 주도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공직자의 사안을 주도할 수 없는 정체를 민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3권의 정체 분류에서 모두 지배자 집단이 모든 사안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정체는 민주정이라고 말해질 수 없다. 그러면 이 정체는 3권의 정체 분류가 아니라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무슨 정체인지 말해질 수 있는데, 이는 4~6권의 정체 분류가 3권의 정체 분류로부터 개선되고 발전되어 나왔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판단된다.

103) 법의 지배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Yack(1993), pp. 175~208 참고.

104) NE 5권 10장에서 개별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법을 보완하기 위해 ‘근원적 공정성(epieikeia)’이 필요하다고 말해진다.

결할 수 있는 왕의 지배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의 지배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지배자에게 보편적인 원칙(ho logos ho katholou)이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pathētikon)가 붙어 있지 않은 것, 즉 법이 인간 영혼보다 더 좋다고 말한다(1286a16~20). 감정을 지닌 인간은 보편적인 원칙을 결여하고 감정에 좌우되는 반면, 법은 보편적인 원칙을 지니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서 법의 지배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법의 지배에는 이와 같은 장단점이 있다.

법의 지배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가 갖는 몇 가지 장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첫 번째로 도시국가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곳에서 일인이 주도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법의 지배가 더 좋다. 본성상 많은 사람에게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이 정의로운데, 이와 같은 교대 지배를 보장하는 것은 법이라서, 이 경우에 일인의 지배보다 법의 지배가 더 선택할 가치가 있다(1287a10~20). 두 번째로 법은 지배자들을 교육시킨 후에 그들이 가장 정의로운 의견(gnōmē)에 따라 나머지 사안들을 판단하고 처리하게 만들기 때문에(1287a23~27) 법의 지배가 더 좋다. 세 번째로 의사가 아플 때 감정의 영향을 받아 자신에 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서 다른 의사를 부르듯이, 사람들은 중립적인 것(meson)인 법을 추구하기 때문에(1287a41~b5) 법의 지배가 더 좋다. 다른 의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픈 의사를 치료하듯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법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용된다. 결국 법의 지배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장점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어서 인간의 지배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해 법이 가장 잘 지배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논쟁하지 않지만, 법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에 관해 최선의 법과 최선자 중 어느 쪽이 지배하는 것이 더 선택할 가치가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데, 법의 지배를 지지하는 자들은 인간이 이런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는 인간이 일인이 아닌 다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287b17~25). 법은 보편적인 원칙에 관한 사안은 주도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관한 사안은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지배를 지지하는 자들조차 개별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인간의 주도를 인정한다. 다만 다수가 일인보다 판단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이들은 일인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지배를 주장한다. 결국 법은 보편적인 규정에 관한 사안은 주도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관한 사안은 주도할 수 없어서 정체 주도에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정체에 맞게 제정되어야 해서, 정체가 올바르면 법도 정의롭고, 정체가 일탈되면 법도 정의롭지 않다(1282b8~13). 정체를 반영해서 제정되어야 하는 법에 정체의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지배자 집단이 정체를 주도하므로, 지배자 집단의 특성이 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공익을 추구하는 지배자 집단이 주도하는 정체의 법은 정의로운 반면, 사익을 추구하는 지배자 집단이 주도하는 정체의 법은 정의롭지 않다. 따라서 법은 개별적인 상황에 관한 사안을 주도하지 못하는 점뿐만 아니라 정체와 지배자 집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도 법은 정체를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2.1.5. 왕의 조건적으로 정당한 정체 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인인 왕이 모든 사안을 주도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따져서(1286a1~2) 왕이 정당하게 정체를 주도할 수 있는지를 밝히려 한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개별적인 것에 관한 판단은 법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해야 하는데, 최선자 일인과 모든 사람 중에서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1286a24~25).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 각자는 최선자보다 판단하는 데 덜 기여하지만, 다수가 기여한 잔치가 일인이 기여한 것보다 더 나은 것처럼, 군중(ochlos)은 일인보다 많은 사안을 더 잘 판단한다고 말한다(1286a27~31). 게다가 다수는 소수보다 덜 타락하는데, 일인은 화와 같은 감정에 압도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만, 모두가 한꺼번에 화를 내고 잘못을 저지르는 어렵기 때문이다(1286a32~35). 따라서 다수의 지배가 일인의 지배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일인인 왕이 모든 사안을 주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으로 다수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는 어렵지만, 다수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시민이면, 좋은 사람인 다수가 일인의 지배자보다 덜 타락한다. 다수는 내분을 겪는 반면 일인은 내분에서 자유롭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반론은 다수가 훌륭한 영혼을 지닐 경우 반박된다(1286a36~b3). 인간은 감정을 지니고 있어서 감정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영혼 안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감정과 이를 제지하려는 이성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고 감정에 압도되면 타락하게 되는데, 덕을 지닌 사람은 덕을 발휘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유덕자 일인은 다수의 비유덕자보다 더 좋지만, 다수의 유덕자¹⁰⁵⁾가 유덕자 일인보다 더 좋으면, 유덕자 일인인 왕이 모든 사안을 주도하면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가 좋은 사람인 일인보다 더 많은 사람(pleiōn)의 지배가 귀족정이고, 일인의 지배가 왕정이면, 일인보다 더 많은 많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한, 귀족정이 왕정보다 도시국가를 위해 선택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286b3~7). 유덕자가 일인보다 많은 경우에 귀족정은 왕정보다 더 좋다. 사람들은 초창기에 왕의 지배를 받았는데, 덕에서 매우 두드러진 사람이 드물게 발견된 데다가 무엇보다도 도시국가가 작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혜택을 베푸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 다수(polloi)¹⁰⁶⁾가 덕의 측면에서 서로 닮게 되자 더 이상 왕을 용납하지 않고 공통의 것을 찾아서 정체(politeia)¹⁰⁷⁾를 세웠다(1286b8~13). 도시국가의 첫 번째 정체는 왕정이고 왕의 지배가 정당했지만, 덕의 측면에서 서로 닮

105) 다수는 덕에서 두드러질 수 없어서 빈자만큼 많은 사람이 유덕자가 될 수 없어서 다수의 유덕자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유덕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수는 일인보다 더 많은 수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6) 귀족정을 세운 다수는 빈자만큼 다수가 아니라 일인보다 더 많은 소수를 뜻한다고 봐야 한다.

107) politeia는 정체 또는 시민정을 뜻할 수 있는데, 이 대목에서 보통 '시민정'으로 번역된다. 이 정체가 시민정이면, 시민정에서 과두정으로 바뀌는 과정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과두정은 소수가 사익을 추구하는 정체이자 귀족정에서 일탈된 정체이기 때문이다. 시민정에서 과두정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1307a25), 귀족정에서 과두정으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귀족정이 왕정보다 더 선택될 가치가 있어서 왕정이 다른 정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왕정 다음으로 귀족정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왕정 다음의 정체는 귀족정이지만, politeia를 '귀족정'으로 번역할 수 없어서 '정체'로 번역한다.

은 유덕자가 많아지자 왕의 지배는 용납되지 않고 여러 유덕자가 왕 대신 지배해서 왕정은 귀족정으로 바뀌었다.

왕 혼자 유덕자인 경우에는 왕정이 정당하지만, 여러 유덕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족정이 정당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1287b36~37). 닮고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이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에(1288a1~2) 왕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왕이 모든 것을 주도해도 된다(1288a5~6). 결국 여러 유덕자가 있으면 최선 정체는 귀족정이지만, 일인 지배자만 유덕자이거나 일인 지배자가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덕을 가질 경우에 최선 정체는 왕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람의 덕과 정치적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덕을 지니고 있는 한 사람 또는 한 사람보다 많지만 도시국가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도시국가의 부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사람이 덕과 정치적 능력에서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것을 누리도록 요구받으면 불의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인간들 사이에서 신과 같은데(1284a3~11), 다른 모든 사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대우가 아니라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두드러진 덕을 지닌 이러한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러한 사람에게 기꺼이 복종하고, 이러한 사람이 도시국가의 종신왕이 되어야 한다(1284b28~34, 1288a28~29).

이러한 사람만 유덕자이고 다른 사람은 유덕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덕을 지니고 있기에 혼자 지배하면서 정체를 주도하는 것이 정당하다. 도시국가 초창기에 도시국가를 수립한 왕은 혼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덕을 지닌 유덕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시국가에 유덕자가 많아지면, 아무리 왕이 유덕할지라도 다른 유덕자에 비해 우월한 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덕자와 동등한 덕을 갖게

되어 혼자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게 된다. 여러 유덕자가 있을 때조차 왕이 혼자 지배하려면 다른 유덕자보다 훨씬 우월한 덕을 가져야 한다. 다른 유덕자가 인간 수준의 덕을 가질 때, 왕이 신적 수준의 덕을 가지면 왕은 다른 유덕자보다 훨씬 우월한 덕을 갖기 때문에 혼자 지배하면서 정체를 주도해도 정당하다. 결국 왕이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덕을 가질 경우에만 정체를 주도하는 것이 정당한데, 다른 사람이 유덕자가 아닌 경우에는 왕 혼자 유덕자여야 하고, 여러 유덕자가 있는 경우에는 왕이 신적 수준의 덕을 가진 유덕자여야 한다.

2.1.6. 3권의 최선 정체 규정: 왕정과 귀족정

3권 7장의 정체 분류에 따르면 올바른 정체는 왕정, 귀족정, 시민정인데, 이 중에서 최선 정체는 최선자가 관리하는(oikonomeō) 정체이다. 최선 정체 안에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덕을 지닌 일인 또는 가문 또는 다수가 있고, 가장 선택할 만한 삶을 위해 지배할 수 있는 자들과 지배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1288a32~37). 최선자는 유덕자이고, 최선자가 관리하는 정체가 최선 정체라면, 최선 정체는 유덕자가 지배하는 왕정과 귀족정이다. 최선자는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덕을 지닌 유덕자인데, 다수는 덕 전체에 있어 완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1279a40~b1), 실제로 최선자는 일인이나 소수이다. 이 대목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덕을 지닌다고 말해지는 다수는 일인보다 많은 소수를 뜻한다. 따라서 최선자 일인이 관리하는 정체는 왕정이고, 최선자 소수가 관리하는 정체는 귀족정이다. 3권 4~5장의 논의를 통해 사람의 덕은 최선의 도시국가의 시민의 덕과 동일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방식과 수단은 왕정이나 귀족정인 도시국가를 만드는 방식 및 수단과 동일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과 습관은 정치가¹⁰⁸⁾ 또는 왕을 만드는 교육 및 습관과 동일하다(1288a37~b2). 좋은 사람의 덕과 훌륭한 시민의 덕을 동일

108) 1278b3에서 정치가는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공적 업무를 돌보는 자라서 정치가에 왕도 포함되지만, 이 대목에서 정치가는 왕과 구분된다.

하게 갖는 사람은 최선 정체의 지배자이다. 최선 정체의 지배자는 왕 또는 정치가라고 말해지는데, 최선 정체는 왕정 또는 귀족정이므로, 왕은 왕정의 지배자이고, 정치가는 귀족정의 지배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최선 정체가 왕정과 귀족정인 것은 오직 하나의 정체만이 본성상 어디에서나 최선 정체(*NE* 1135a5)라는 말과 모순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정과 귀족정을 최선 정체라고 말하면서도 왕정을 가장 신적이고 으뜸가는 정체(1289a40) 또는 가장 좋은(*beltistos*) 정체(*NE* 1160a35~36)라고 말한다. 그는 최선 정체에 관해 모순된 말을 하는가? 그는 최선 정체를 엄밀한 의미에서 말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 말할 때도 있다. 그는 최선 정체를 엄밀한 의미에서 왕정으로 여기지만, 왕정과 귀족정을 최선 정체로 여기기도 한다. 그는 항상 동일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더 좋지만, 모든 사람이 본성상 동등하고 지배를 공유하는 것이 정의로운 경우에는 교대로 지배하거나 지배받아야 한다고 말한다(1261a38~b4). 항상 동일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동등한 사람이 교대로 지배하는 것보다 더 좋으면, 항상 왕이 지배하는 왕정이 유덕자가 교대로 지배하는 귀족정보다 더 좋다. 항상 왕이 지배하려면 왕은 피지배자보다 우월한 덕을 가져야 하는데, 왕 이외에 다른 유덕자도 있으면 왕은 피지배자보다 우월한 덕을 못 갖게 된다. 왕이 인간 수준의 덕을 뛰어넘어 신적 수준의 덕을 지닐 때 왕은 피지배자보다 우월한 덕을 갖는다. 반면에 유덕자는 인간 수준의 덕을 지녀도 귀족정에서 교대로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신적 수준의 덕을 지닌 왕이 있는 왕정이 인간 수준의 덕을 지닌 유덕자가 있는 귀족정보다 더 좋기 때문에, 최선 정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왕정이다. 하지만 인간 수준의 덕을 지닌 유덕자가 지배하든 신적 수준의 덕을 지닌 유덕자가 지배하든 유덕자가 지배하는 정체는 최선 정체이다. 일인인 유덕자가 관리하는 정체는 왕정인 반면, 소수인 유덕자가 관리하는 정체는 귀족정이기 때문에, 최선 정체는 왕정과 귀족정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 정체를 엄밀한 의미로 말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선 정체를 왕정 또는 왕정과 귀족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7권에서 최선 정체에 관해 상세하게 말하지만,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가 동일한 정체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

생한다. 7권의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정체는 어떤 정체로 규정되는지, 더 나아가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본다.¹⁰⁹⁾

2.2. 7권의 최선 정체

2.2.1. 최선 정체의 목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 정체에 관한 탐구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면, 최선 정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1323a14~17). 그는 먼저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공동으로 가장 바람직한 삶이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삶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한다(1323a19~21). 인간이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삶과 관련된 좋음을 가져야 하는데, 좋음은 외적인 좋음, 신체의 좋음, 영혼의 좋음으로 구분된다(1323a25~26). 이 모든 good을 축복받은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논쟁하지 않지만(1323a26~27), good의 양과 상대적인 우월함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람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1323a35). 사람들은 덕은 어느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반면, 부, 재산, 권력 등을 무한히 늘리는 것을 추구한다(1323a36~38). 사람들은 영혼의 좋음인 덕이 외적인 good에 의해 획득되고 보존된다고 생각한다(1323a40~41).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적인 good이 덕에 의해 획득되고 보존되며, 더 나아가

109) 3권 끝에서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안되기 때문에, 4권에서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4~6권에서 여러 종류의 현실 정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 다음에 비로소 7권에서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7권에서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는 4~6권의 논의와 무관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는 현실 정체에 관한 논의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4~6권에서 논의되는 혼합 정체, 특히 시민정이 『정치학』에서 직접 말해지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7권의 최선 정체가 될 수 있으면, 7권의 최선 정체에 관한 논의를 위해 4~6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시민정과 7권의 최선 정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말해질 것이다.

행복한 삶은 외적인 좋음을 과도하게 갖지만 성격과 사유에서 부족한 사람보다는 성격과 사유를 극도로 잘 갖고 외적인 좋음을 절제해서 지닌 사람에게 더 많이 있다고 주장한다(1323a41~b6). 사람들은 외적인 좋음이 가장 바람직한 삶, 행복한 삶을 좌우한다는 입장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같은 영혼의 좋음이 이를 좌우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논의를(logos)에 기초해서 고찰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쉽게 알아본다고 주장한다. 외적인 좋음은 도구처럼 한계가 있고, 과도한 외적인 좋음은 소유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주지 않지만, 영혼의 좋음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1323b6~11). 게다가 영혼이 재산이나 신체보다 더 명예로운 것이면, 영혼의 최선의 상태(diathesis)가 재산이나 신체의 최선의 상태보다 더 좋다. 또한 재산이나 신체는 본성상 영혼을 위해 바람직하지, 영혼이 이것들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1323b16~21). 그래서 그는 각자가 덕, 실천적 지혜, 이에 알맞은 행위를 가지는 만큼 각자 행복을 지닌다는 데 동의하자고 말한다(1323b21~23). 이로써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밝혀졌는데, 이것은 덕을 소유하고 이를 발휘하는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도시국가가 최선의 도시국가이자 고귀하게 행위하는 도시국가라고 말한다. 덕과 실천적 지혜 없이는 사람의 고귀한 행위도 없고, 도시국가의 고귀한 행위도 없다. 도시국가의 용기, 정의, 실천적 지혜는 정의롭고 실천적 지혜가 있고 절제 있는 사람 각자가 나눠 갖는 용기, 정의, 실천적 지혜와 동일한 힘, 모습을 지닌다(1323b30~36). 덕이 있어야만 개인도 행복할 수 있고 도시국가도 행복할 수 있는데, 도시국가의 덕과 개인의 덕이 동일한 힘과 모습을 지니므로, 두 가지 덕은 동일하다. 덕을 소유하고 이를 발휘하는 삶이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삶인데, 도시국가의 덕과 개인의 덕이 동일하므로,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삶은 동시에 도시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최선의 삶과 도시국가의 최선의 삶은 외적인 좋음을 충분히 갖춰서 덕에 따른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유덕한 삶이라고 주장한다(1323b40~1324a2).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삶과 도시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삶은 동일한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덕을 가져야 하고, 덕의 발휘를 위해 외적인 좋음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외적인 좋음은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데, 외적인 good을 덕보다 우선시하면 안 되지만, 덕의 발휘를 위해서는 외적인 good을 갖춰야 하므로 외적인 good을 경시해서도 안 된다. 외적인 good을 충분히 갖춘 유덕한 삶이 최선의 삶,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면, 이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정체가 최선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가 가능한 한 최선의 삶을 위해 닮은 사람으로 구성된 공동체인데, 최선의 것은 행복이고, 행복은 덕의 활동(energeia)이자 완전한 사용이라고 말한다(1328a35~38, 1332a9). 도시국가는 구성원이 가능한 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구성된 것인데, 구성원이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행복한 삶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덕을 소유하고서 이를 발휘하고 활동시켜서 완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도시국가의 구성원이 유덕한 삶, 행복한 삶을 삶의 목표로 갖는다면, 최선의 도시국가, 최선 정체도 행복한 삶을 목표로 갖는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과제인데, 최선 정체에서 도시국가가 가장 잘 다스려지게 되고, 도시국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체에서 도시국가가 가장 잘 다스려지게 되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1332a3~7). 결국 도시국가의 구성원이 행복하게 사는 정체가 최선 정체인데, 덕이 완전하게 발휘되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므로, 최선 정체의 구성원은 유덕자라고 말할 수 있다.¹¹⁰⁾

2.2.2. 최선 정체의 전제 조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으로(kat' euchēn) 수립될 도시국가의 전제 조건(hypothesis)을 논의하는데, 최선 정체는 적절한 자원 없이 생겨날 수

110) 젊은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지는데(ME 1142 a11~13), 실천적 지혜를 갖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최선 정체의 구성원 가운데 청년은 장차 완전한 덕을 갖게 될 예비 유덕자이고, 장년이 실천적 지혜를 포함한 모든 덕을 완전하게 갖는 유덕자이다.

없기 때문이다. 시민의 수와 영토는 이상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1325b35~40).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도시국가가 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주민이 많은 도시국가가 큰 도시국가는 아니다. 도시국가의 크기는 거주민의 수가 아니라 거주민의 능력, 도시국가의 임무 완수와 관련된다(1326a8~14). 지나치게 인구가 적은 도시국가는 자족적이지 않은 반면, 지나치게 인구가 많은 도시국가는 생필품은 자족할지언정 정체를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시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최초의 도시국가는 잘 살기 위해 자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로 구성되며, 더 많은 수로 구성된 도시국가는 이보다 큰 도시국가일 수 있지만, 도시국가가 무한히 커지는 것은 불가능하다(1326b2~11).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도시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서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에 관해 판결하고 가치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인과 거류외인이 정체에 참여하기가 쉬워서, 도시국가가 커지는 데 한계가 있다(1326b11~21). 삶의 자족을 위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최대의 수가 도시국가가 커질 수 있는 한계이다(1326b23~24).¹¹¹⁾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주민이 자유롭게 절제 있게 여가를 즐기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영토가 커야 한다고 말한다(1326b30~32). 영토는 적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반면, 거주민은 나가기 쉽게 구획되어야 하고, 용이한 방어를 위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도시국가가 이상적으로 위치하려면, 바다 및 영토와 관련해서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1326b40~1327a5).

바다에 인접해 있는 것이 좋은 질서를 지닌 도시국가에게 이로운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외국인의 거주를 허용하는 일과 인구가 많아지

111)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 정체의 정확한 인구수를 말하지 않는데, Chuska는 최선 정체의 시민수가 10~5,000명이지만 1,000명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세한 논의는 Chuska(2000) pp. 70~75 참고. Chuska는 최선 정체의 시민수가 1,000명보다 많은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플라톤의 『국가』에서 무기 소유자인 수호자가 최소 1,000명인 것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런데 유덕자인 최선 정체의 시민이 1,000명 이상인 것은 유덕자가 100명도 안 되는 것(1302a1~2), 유덕자가 다수일 수 없는 것(1279a39~b1)과 모순되어 보인다. 유덕자가 현실 정체에서는 100명 이하의 소수로 있는 반면, 7권의 최선 정체에서 1,000명 이상 있을 수 있으면, 7권의 최선 정체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실현되어야 하는 이상적인 정체이자 유덕자인 시민을 기존과 다르게 양성해내는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7권의 최선 정체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체라면, 앞서 제기된 모순은 해소될 수 있다.

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전과 풍요로운 생필품을 위해 도시국가와 영토가 바다에 인접해 있는 것이 더 좋다(1327a11~20). 그리고 해군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최선인데, 도시국가의 생활 방식을 고려해서 해군력의 수와 크기를 정해야 한다(1327a40~b4).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 정체의 인구, 영토, 바다에 인접함, 해군력에 관한 논의에 이어 시민이 본성상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높은 평가를 받는 그리스인의 도시국가와 민족별로 나누어진 거주지 전체를 살펴보면 이는 잘 파악될 수 있다(1327b19~23). 우선 그는 그리스인과 유럽 민족, 아시아 민족을 대비한다. 유럽 민족은 기개는 가득차 있지만 지성과 기술을 결여해서 계속 자유를 누리지만 정치 조직을 결여하고 이웃을 지배할 수 없다. 아시아 민족은 지성과 기술을 겸비한 영혼을 갖고 있지만 기개가 없어서 계속 지배받고 노예노릇을 한다. 반면에 그리스 종족(genos)은 유럽 민족과 아시아 민족의 본성을 공유하여 기개와 지성을 지닌 결과, 계속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가장 잘 다스릴 수 있으며 단일한 정체를 갖게 되면 다른 모든 민족을 지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는 그리스 민족들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한다. 어떤 그리스 민족은 둘 중 한 쪽 본성만 갖는 반면, 다른 그리스 민족에게 두 가지 능력은 잘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1327b23~36). 모든 그리스 민족이 아니라 일부 그리스 민족이 기개와 지성을 갖는다. 입법자에 의해 덕으로 쉽게 인도되려면, 본성적으로 지성과 기개를 가져야 한다(1327b36~38). 결국 시민은 본성상 지성과 기개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결국 최선 정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수의 인구, 적정크기의 영토, 바다에 인접해 있음, 적정한 해군력, 본성상 지성과 기개를 지닌 시민을 전제 조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어떤 좋음은 이미 있어야 하고, 어떤 좋음은 입법자가 마련해야 하는데(1332a28~29), 적정수의 인구, 적정크기의 영토 등 최선 정체의 전제 조건은 입법자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야 한다. 이미 있어야 하는 좋음을 운이 통제하기 때문에(1332a30), 최선 정체의 전제 조건은 운에 달려 있다. 최선 정체가 전제 조건을 갖는 것은 운의 산물(ergon)이지만, 도시국가가 훌륭해지는 것은 운이 아니라

앎과 합리적 선택의 산물이다(1332a31~32). 정체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서 도시국가는 훌륭하므로(1332a33~34), 입법자는 시민을 훌륭한 자, 즉 유덕자로 만들어야 한다.

2.2.3. 최선 정체의 시민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과 도시국가의 부분을 구분한다(1328a23~25). 그는 도시국가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자들 모두가 최선 정체의 시민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이들 중 일부가 최선 정체의 시민이자 도시국가의 부분이다. 도시국가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도시국가에 있어야 하는 일(ergon)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는 여섯 가지, 즉 1. 음식, 2. 기술, 3. 무기, 4. 부, 5. 제의(祭儀), 6. 서로 간에 이로운 것과 정의로운 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행하는 사람은 1. 농부, 2. 기술자, 3. 전사, 4. 부자, 5. 성직자, 6. 필요한 것¹¹²⁾과 이로운 것의 판단자이다(1328b2~23).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 정체에서 도시국가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덕을 결여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앞서 말했기 때문에, 어떤 가정(hypothesis) 하에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을 지닌 가장 잘 다스려지는 도시국가에서 시민은 수공업자의 삶도 상인의 삶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수공업 기술자와 상인의 삶은 비천하고 덕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시민이 될 사람은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덕의 창출(genesis)과 정치적 행위를 위해서는 여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1328b33~1329a2). 최선 정체의 시민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행복은 덕이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시민은 덕을 지녀야 한다. 덕을 지닐 수 없는 사람은 최선 정체의 시민이 될 수 없다. 앞서 제시된 도시국가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자와 농부는 시민이 될 수 없다. 기술자는 비천한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덕을 결여할 수밖에 없다. 농부는 농

112) 필요한 것과 이로운 것의 판단자는 이로운 것과 정의로운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므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것'을 의미한다.

사가 비천한 일은 아니지만, 농사에 전념하면 덕을 갖거나 정치적 행위를 위해 필요한 여가를 갖지 못한다. 여가가 확보되어야 덕을 가질 수 있고 정치적 행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가 없는 농부는 덕을 결여한다. 기술자와 농부는 도시국가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덕이 없어서 최선 정체의 시민이 아니다.¹¹³⁾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에 군사적인 부분과 이로운 것에 관해 심의하고 정의로운 것에 관해 판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도시국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동일한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각기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는 이 두 부분이 한편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하되, 다른 한편으로 각기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을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군사적 임무는 힘을 필요로 하고, 심의하고 판결하는 임무는 실천적 지혜를 필요로 해서 두 임무의 전성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임무는 각기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하지만, 폭력을 강제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피지배자로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임무는 동일한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한다(1329a2~11). 결국 남은 것은 두 임무를 동일한 사람에게 부여하되, 동시에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neōteros)은 힘을 갖고, 장년(presbyteros)은 실천적 지혜를 갖기 때문에, 군사적 임무를 청년에게 부여하고, 심의하고 판결하는 임무는 장년에게 부여하는 것이 이롭고 정의롭다(1329a13~17). 도시국가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사람 중에서 전사 및 필요한 것과 이로운 것의 판단자가 도시국가의 부분이자 시민이다. 동일한 사람이 군사적 임무와 심의하고 판결하는 임무를 모두 맡되, 청년일 때는 군사적 임무를 맡고, 장년일 때는 심의하고 판결하는 임무를 맡는다. 장년은 실천적 지혜를 갖는 반면 청년은 이를 결여하는데, 실천적 지혜

113) Taylor(1995, p. 250)는 최선 정체에서 무임승차하는 엘리트인 시민이 비시민을 착취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체계적인 부정의로 특징지어지는 최선 정체를 비판한다. 도시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농사, 장사 등의 일을 자유인이 하면 Taylor의 비판이 옳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은 노예 또는 비그리스인인 비자유인이 행하기 때문에 그의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 주인이 노예를 지배할 때 일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듯이(1278b34~36), 자유인 시민은 비자유인을 지배할 때 일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를 제외한 나머지 덕이 최선 정체에서 청년과 장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으면(1277b26~27), 장년은 실천적 덕을 포함한 모든 덕을 갖는 반면, 청년은 실천적 지혜를 제외한 나머지 덕을 갖는다. 최선 정체의 시민은 유덕자인데, 엄밀히 말해 시민은 완전한 덕을 지닌 장년이니, 실천적 지혜를 결여한 청년은 아니다. 청년은 완전한 유덕자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되어 실천적 지혜를 갖게 되면 완전한 유덕자가 되기 때문에, 청년은 예비 유덕자로서 시민이다. 청년과 장년 사이에 세대 간에 걸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는 최선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도 청년과 장년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충분한 부가 시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청년과 장년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수공업 기술자도 덕의 장인을 제외한 다른 어떤 집단(genos)도 도시국가에 참여하지 않고, 농부는 노예이거나 비그리스인 변방예속인(perioikoi)일 수밖에 없다(1329a17~26). 그는 풍부한 부가 시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시민이 아닌 사람이 풍부한 부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은 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도시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시민 전체를 염두에 두고서 도시국가가 행복하다고 말해져야 한다(1329a22~24). 시민 일부가 아니라 시민 전체가 행복할 때 도시국가가 행복하므로, 행복한 도시국가에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덕을 지닌다.¹¹⁴⁾ 덕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어서 도시국가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덕을 갖지 못하는 수공업 기술자 등은 시민이 아니며 풍부한 부를 지녀서는 안 된다. 게다가 농부가 노예이거나 비그리스인 변방예속인이면, 노예와 비그리스인은 자유인과 그리스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 노예 또는 비그리스인 변방예속인으로 이루어진 농부도 시민이 아니며 풍부한 부를 지녀서는 안 된다. 결국 청년과 장년으로 이루어진

114) 엄밀히 말해 행복한 도시국가에서 모든 시민이 동시에 행복하지도 않고 덕을 지니지도 않는다. 시민은 청년과 장년으로 구성되는데, 장년은 유덕자라서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반면, 청년은 실천적 지혜를 결여해서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한 도시국가에서 모든 시민이 동시에 완전하게 행복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덕을 지니지도 않지만, 청년인 시민이 장년이 되어 실천적 지혜를 갖게 되면 유덕자가 되기 때문에 각 시민은 장년이 되고나서야 완전한 덕을 지니게 되어 완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

시민이 풍부한 부와 재산을 가져야 하며 이를 지닌 시민이 부자이다. 도시국가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부자인데, 부자는 시민인 청년과 장년으로 이루어진다.

성직자 집단이 남았는데, 농부도 수공업 기술자도 성직자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 집단(politikon)은 무기 소유 집단과 심의 집단으로 나뉘는데, 나이로 인해 은퇴한 사람들이 신에게 봉사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성직은 이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1329a27~34). 농부, 수공업 기술자와 같은 비시민은 성직자가 될 수 없고, 은퇴한 시민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다. 결국 도시국가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여섯 가지인데, 이 중에서 시민이 되는 것이 도시국가의 부분이다. 농부와 기술자는 시민이 될 수 없어서 도시국가의 부분이 아닌 반면, 전사 및 필요한 것과 이로운 것의 판단자는 시민으로서 도시국가의 부분이다. 성직자는 도시국가의 부분은 아니지만 전직 시민으로 구성되고, 부자는 시민인 청년과 장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시국가의 부분이나 다름없다.

2.2.4. 7권의 최선 정제 규정: 귀족정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정치 공동체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성되는데,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탐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과 영웅처럼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능가해서 훨씬 우월한 신체와 영혼을 지니면, 동일한 사람이 항상 지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항상 지배받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피지배자보다 훨씬 우월한 왕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하게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1332b12~27). 동일한 사람이 항상 지배하거나 지배받는 정제는 모두가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정제보다 더 좋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최선 정제이다. 피지배자보다 훨씬 우월한 신체와 영혼을 지닌 지배자는 신이나 영웅과 같은 왕인데, 이러한 왕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실제로도 피지배자보다 훨씬 우월한 왕은 없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항상 지배하는 정

체, 즉 왕이 주도하는 왕정은 없는 대신, 모두가 동등하게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정체가 있다. 이 정체는 정체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나서 규정될 수 있다. 7권의 최선 정체의 시민은 군사적인 업무를 맡은 청년과 심의와 판결 업무를 맡은 장년으로 나뉘는데, 동일한 사람이 청년일 때 전사로서 지배받다가 장년이 되면 필요한 것과 이로운 것의 판단자로서 지배하고 노년이 되면 은퇴한다. 이처럼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유덕자와 예비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유덕자가 될 수 없는 자유인은 없기 때문에 우월한 자유인과 열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왕의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실천적 지혜를 지닌 유덕자가 이를 결여한 예비 유덕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유덕자와 예비 유덕자 사이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람이 항상 지배하거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지배하는데다가, 유덕자와 예비 유덕자는 장년일 때 완전한 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동등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유덕자와 예비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정체의 주도자가 왕이 아닌 유덕자라는 점에서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¹¹⁵⁾ 아리스토텔레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왕정을 최선 정체로 여기지만, 최선 정체인 왕정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7권의 최선 정체는 왕정이 아니다. 7권의 최선 정체는 실현 가능한 정체인데, 지배자 집단이 유덕자인 정체라서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¹¹⁶⁾

2.2.5.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의 관계

115) 뒤이어 III.2.2.5.에서 논의하겠지만,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동일하지 않은데, 후자의 정체에서 소수의 유덕자가 지배하는 반면 전자의 정체에서 다수의 유덕자가 지배해서, 7권의 최선 정체는 시민정으로 규정되거나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제시된 여섯 가지 정체 중 어느 정체로도 규정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II.3.2.3.에서 논의했듯이, 지배자 집단이 정체 분류의 실제 기준이면, 유덕자가 주도하는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116) 손병석(2018)은 7권의 최선 정체를 귀족정으로 규정하는데, 이 정체는 전통적인 귀족정과 다른 '자연적 귀족정'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적 귀족정'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pp. 147~167 참고.

아리스토텔레스는 3권에서 최선 정체를 왕정과 귀족정으로 규정한 반면, 7권에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귀족정으로 규정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는 최선 정체를 일관성 없이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가? Chuska는 최선 정체는 귀족정이지만 신과 같은 왕이 존재하면 왕정이라 주장하고, 신과 같은 왕이 존재하면 최선 정체는 왕정이지만 그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최선 정체는 차선적으로 귀족정이라는 Vander Waerdt(1985a), Newell(1991) 등의 주장에 동의한다.¹¹⁷⁾ 최선 정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과 같은 왕이 지배하는 왕정이지만, 신과 같은 왕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선 정체인 왕정은 실현될 수 없다. 귀족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최선 정체는 아니지만, 유덕자가 지배한다는 점에서 최선 정체가 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3권에서 최선 정체의 실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유덕자가 지배하는 정체를 최선 정체로 여겨서 최선 정체를 왕정과 귀족정이라 말하고, 7권에서 최선 정체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선 정체를 귀족정으로 규정한 것 같다.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는 실현 가능성 여부에서만 차이가 나는가?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으로 규정되는 7권의 최선 정체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는 지배자 집단이 유덕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유덕자는 성인이 되자마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를 결여하는 청년일 때 지배받다가 실천적 지혜를 갖게 되는 장년이 되면 지배하고 노년이 되면 지배에서 물러난다. 청년인 예비 유덕자와 장년인 유덕자 사이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짐으로써 귀족정인 최선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는 유덕자와 예비 유덕자 이외에 농업이나 상업 등에 종사하여 덕을 지닐 수 없는 자유인이 존재하는 반면, 7권의 최선 정체에는 유덕자와 예비 유덕자 이외의 다른 자유인은 없다. 전자의 정체에서 예비 유덕자를 포함한 유덕자는 덕을 지닐 수 없는 자유인보다 우월해서 이들 사이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덕을 지닐 수 없는 자유인이 없는 후자의 정체에서 왕의 지배는 이루어지지

117) Chuska(2000), p. 174, p. 340 각주 12번.

않는다. 이처럼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서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는 동일하지 않다. 자유인 가운데 유덕자가 존재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자유인은 덕이 없는 부자나 빈자이기 때문에, 소수의 유덕자와 다수의 비유덕자 자유인이 공존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최선 정체는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이다. 모든 자유인이 유덕자가 될 수 있어서 비유덕자 자유인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최선 정체는 7권의 최선 정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7권의 최선 정체도 실현 가능한 정체이지만,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 비해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서 특수한 종류의 최선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국가가 존립하려면 농업, 상업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고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국가에서 다수의 자유인이 이러한 직업에 종사했다. 반면에 스파르타에서 비자유인이 이러한 직업에 종사한 덕분에 자유인은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신에 여가를 확보하여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스파르타의 자유인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서 덕을 가질 수 있는 여가가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7권 14~15장에서 비판하듯이, 도시국가 차원에서 유덕자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군사적 덕만 갖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만약 스파르타 자유인을 상대로 군사적 덕 대신에 완전한 덕을 갖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덕 교육 덕분에 스파르타 자유인이 유덕자가 될 수 있으면, 스파르타 정체는 7권의 최선 정체가 될 수 있다. 스파르타 자유인은 ‘닮은 사람(homoioi)’이라 불리는데, 이는 스파르타 정체가 동등한 자유인으로 구성된 정체임을 뜻한다. 생계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유인은 덕을 가질 수 있는 여가를 갖고 있는데, 덕을 교육받고 습관 들여서 유덕자가 될 수 있다. 자유인을 유덕자로 만들 수 있는 교과가 확립되어서 도시국가의 주도 하에 교육이 이루어진 결과, 동등한 모든 스파르타 자유인이 유덕자가 될 수 있으면, 유덕자가 될 수 없는 자유인이 존재하지 않고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스파르타 정체는 7권의 최선 정체가 될 수 있다.¹¹⁸⁾ 스파르타 정체가 7권의 최선

118) 모든 자유인이 시민으로서 교대 지배를 하여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가 시민정인데, 모든 자유인이 유덕자가 될 수 있으면 유덕자인 자유인이 시민으로 있는 시

정체가 될 수 있으면,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 비해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실현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2.6. 7권의 최선 정체를 귀족정으로 규정하지 않는 입장의 문제

필자의 해석에 따르면,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이 아니라 시민정 또는 민주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제시된 정체들 중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지 검토해보자. 먼저 7권의 최선 정체가 시민정이라는 주장부터 살펴본다. 7권의 최선 정체에서 모든 시민은 정체에 참여하거나 장차 참여하게 된다. 모든 시민은 다수인데, 다수가 공익을 위해 지배하는 정체는 시민정이기 때문에(1279a37~39), 7권의 최선 정체는 시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인이나 소수는 덕에 있어 두드러질 수 있는 반면 다수는 덕 전체에 있어 완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1279a39~b1), 다수가 지배하는 시민정은 7권의 최선 정체가 될 수 없다. 7권의 최선 정체는 한편으로 시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정이 아니다. 그래서 7권의 최선 정체가 시민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최선 정체를 ‘일종의 유덕한 시민정’¹¹⁹⁾, ‘유덕한 다수를 지닌 특별한 형태의 시민정’이나 ‘이상적 시민정’¹²⁰⁾이라고 말한다.

7권의 최선 정체는 다수가 공익을 위해 지배하는 정체이기 때문에 시민정인가? Kahn은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일인의 지배가 배제되어서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 아니면 시민정인데, 일부 시민만 지배할 자격이 있으면 귀족정이고, 모든 시민 또는 대부분의 시민이 지배할 자격이 있으면 시민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좋은 사람인 모든 시민이 지배하면 지배자는 다수라서 7권의 최선 정체를 ‘시민정’으로 부르는 것이

민정은 귀족정으로 규정되는 7권의 최선 정체가 될 수 있어서, 7권의 최선 정체는 지배자가 유덕자인 시민정으로도 말해질 수 있다.

119) Rowe(2000), p. 386.

120) Kahn(1990), p. 377, p. 380.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한다.¹²¹⁾ 민주정에서 시민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유인이 어느 정체에서나 시민이라고 말해질 수 있으면, 그의 말처럼 자유인 중에서 소수의 유덕자가 지배하는 정체는 귀족정인 반면, 예비 유덕자를 포함한 모든 유덕자가 지배하는 7권의 최선 정체는 시민정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정체마다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이 다르면, 이를 충족한 사람만이 시민으로서 지배에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귀족정의 자격 요건은 덕이기 때문에, 덕을 지닐 수 있어야 귀족정의 시민이 될 수 있고, 덕을 지닐 수 없는 자유인은 덕을 결여한 수공업 기술자처럼 귀족정의 시민이 아니다. 귀족정에서 덕을 지닌 모든 시민이 지배에 참여하고, 과두정에서 부유한 모든 시민이 지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어느 정체든 정체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시민이 지배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이 다수인 7권의 최선 정체를 시민정으로 부르는 Kahn의 주장과 달리, 7권의 최선 정체가 시민정이 아닌 정체일지라도 모든 시민이 지배에 참여하는 이 정체의 시민은 다수이므로 7권의 최선 정체를 시민정으로 단언할 수 없다.

Rowe는 7권의 최선 정체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체인 반면, 3권의 귀족정은 소수가 지배하는 정체이기 때문에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이 아니라 일종의 유덕한 시민정이라고 주장한다. 3권의 귀족정은 일인의 지배가 소수의 지배로 대체된 일종의 왕정이다.¹²²⁾ 3권의 귀족정은 소수의 지배자가 왕처럼 지배를 독점하는 정체이다. 소수가 지배를 독점하는 정체는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와 다르다. 3권의 귀족정은 소수가 지배를 독점하는 반면, 7권의 최선 정체는 다수인 모든 시민이 교대로 지배한다. 다수가 지배하는 정체는 시민정이므로, 7권의 최선 정체는 시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7권의 최선 정체에서 다수가 지배한다고 말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3권의 귀족정에서 소수의 유덕자가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유덕자는 유덕자가 될 수 없는 자유인에 비해 소수이고, 또한 좋은 사람과 출생이 좋은 사람은 어느 도시국가든 백 명이 안 된다고 말해질 만큼(1302a1~2)

121) Kahn(1990), p. 376.

122) Rowe(2000), p. 375, p. 377, p. 386.

소수이다. 그러면 유덕자가 7권의 최선 정체를 지배할 때에도 소수가 지배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7권의 최선 정체의 정확한 인구수를 말하지 않아서, 7권의 최선 정체의 유덕자가 소수인지 다수인지 말할 수 없다. 삶의 자족을 위해 충분한 수의 시민들 집합으로 말해지는 도시국가(1275b20~21)는 인구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으면 안 되고, 잘 살기 위해 자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1326b2~9). 7권의 최선 정체의 시민은 도시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임무와 심의하고 판결하는 임무를 맡은 청년과 장년이다. 도시국가의 자족을 위해 군사적인 임무를 맡은 청년은 도시국가를 잘 수호해야 한다. 전사인 청년이 얼마만큼 있어야 도시국가가 수호될 수 있는가? 플라톤은 도시국가에 최소한 천 명 이상의 무기 소유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국가』, 423a). 7권의 최선 정체의 시민이 플라톤의 말처럼 천 명 이상 있어야 한다면, 7권의 최선 정체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체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지배자의 수라는 측면에서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없는데, II.3.2.3.에서 논의했듯이 정체 분류의 실제 기준은 지배자 집단의 수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자 집단이다. 지배자 집단이 유덕자인 정체는 귀족정이다. 7권의 최선 정체의 지배자 집단은 3권의 귀족정과 마찬가지로 유덕자이기 때문에, 지배자 집단이 동일해서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7권의 최선 정체는 Rowe가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유덕한 시민정’이라기보다 ‘특별한 종류의 귀족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¹²³⁾ 7권의 최선 정체를 규정하는 데 유덕한 지배자가 ‘다수’라는 측면보다 다수의 지배자가 ‘덕’을 갖는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Kraut는 다수가 지배하는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이 아니며, 7권의 최선 정체는 3권에 제시된 정체들 중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3권에 제시된 정체를 전통적인 정체로 간주한다. 전통적으로 유

123) 각주 118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자유인이 시민인 시민정에서 모든 시민이 유덕자가 되면 시민정은 7권의 최선 정체가 될 수 있어서 7권의 최선 정체는 ‘일종의 유덕한 시민정’으로 말해질 수 있는데, 다수의 시민이 지배하는 측면보다 모든 자유인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이 정체는 일종의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덕자는 소수에 불과해서, 3권에 제시된 정체 중에 소수의 유덕자로만 구성된 정체는 없으며, 소수의 유덕자와 다수의 비유덕자로 구성된 귀족정은 유덕자가 비유덕자를 지배하는 정체이다. 그는 귀족정은 왕정과 함께 3권에서 최선 정체이지만, 왕정과 귀족정 모두 개선될 여지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최선 정체인 반면, 7권의 최선 정체는 왕정과 귀족정보다 더 좋은 정체라서, 7권의 최선 정체가 3권에 제시된 정체들 중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²⁴⁾ 그가 주장하듯이, 귀족정은 소수의 유덕자가 지배를 독점하고서 다수의 비유덕자를 지배하는 정체인 반면에, 7권의 최선 정체는 다수의 유덕자가 교대로 지배하는 정체라서 귀족정과 7권의 최선 정체는 다르다. 그런데 7권의 최선 정체는 3권의 귀족정보다 더 좋은 정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7권의 최선 정체에 대한 정체 규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지배자 집단이 정체 분류의 실제 기준이기 때문에, 두 정체는 동일하지 않아도 지배자 집단이 동일하면 동일한 정체로 규정될 수 있다. 3권의 귀족정과 7권의 최선 정체 모두 지배자 집단은 유덕자이기 때문에,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Kraut의 주장처럼 7권의 최선 정체는 3권의 귀족정보다 더 좋지만, 두 정체 모두 유덕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7권의 최선 정체도 귀족정으로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최선 정체가 시민정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학자들도 있는데, Bluhm(1962), Johnson(1990) 등은 4권 11장에 제시된 정체가 시민정이며 최선 정체라고 주장한다. Bluhm은 최선 정체가 동등하고 동년배인 유덕하고 부유한 다수로 구성되는데, 이 정체는 4권 11장의 시민정이며, 시민정의 구성원인 중산층은 도덕적으로 유덕한 삶을 살아서 최선 정체의 시민과 유사하게 산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 시민정은 최선 정체라고 말해진다(1296b2).¹²⁵⁾ Johnson은 왕정과 귀족정은 성취하기 어렵지만, 시민정은 많은 도시국가가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7권의 최선 정체는 성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시민정과 최선 정체의 유덕자는 다수라는 점에서 7권의 최선 정체는 4권 11장의 시민정이라고 주장한다.¹²⁶⁾ 그런데

124) Kraut(2002), pp. 359~361, 366, 412, 420.

125) Bluhm(1962), pp. 747, 750.

4권 11장의 시민정과 7권의 최선 정체가 유사할지라도 4권 11장의 시민정이 최선 정체는 아니다. 시민정의 지배자 집단은 중산층인데, 중산층은 유덕자가 아니다. 중산층이 매우 부유한 자와 매우 가난한 자에 비해 중용 상태에 있어서 이성애 매우 잘 복종하기 때문에 유덕자로 보이지만, 재산을 중용 있게 갖는다고 해서 실천적 지혜를 비롯한 덕을 반드시 갖지 않는데, 유덕자가 되는 데 필요한 덕 교육과 습관을 결여해도 중산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권 11장의 시민정의 지배자 집단인 중산층은 유덕자가 아닌 반면, 7권의 최선 정체의 지배자 집단은 유덕자라서 두 가지 정체는 다르다. 게다가 4권 1295a25, b35, 1296a7, b2에서 언급되는 최선 정체는 7권의 최선 정체가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국가와 정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 정체라서 차선 정체이다. 그리고 4권 11장의 시민정과 7권의 최선 정체 모두 성취할 수 있는 정체라는 점에서 유사한데, 전자는 대부분의 도시국가와 정체가 성취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최선 정체의 전제 조건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최선 정체의 시민이 유덕자여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정체에 요구되는 성취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4권 11장의 시민정은 최선 정체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최선 정체가 민주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Keyt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때때로 자유라는 민주정의 기준을 내세워서 민주정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된 민주정은 빈자가 지배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정이 아니라 자유인 부자와 자유인 빈자가 함께 지배하는 ‘평등주의’ 민주정이라고 말한다. ‘평등주의’ 민주정에서 자유인은 부자와 빈자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시민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정은 일탈된 정체가 아니라 올바른 정체일 것이다. Susemihl과 Hicks(1894)가 말하듯이 7권의 최선 정체는 ‘평등주의’ 민주정으로 보인다.¹²⁷⁾ ‘평등주의’ 민주정은 1291b30~39에서 제시되는 ‘첫 번째 민주정’과 유사해 보이지만 다르다. 전자는 공익을 추구하는 반면, 후자는 사익을 추구한다. ‘첫 번째 민주정’에서 모든 시민은 동등하지만 다수인 빈자가 정체를 주도하고 지배에 다수인 빈자의 의사가 반영될 뿐 부

126) Johnson(1990), pp. 160, 163, 166.

127) Keyt(1993), p. 151, 각주 31번.

자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 ‘첫 번째 민주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정체라서 일탈된 정체인 반면, ‘평등주의’ 민주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체라서 올바른 정체이다. 하지만 『정치학』에서 ‘평등주의’ 민주정은 민주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서 민주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평등주의’ 민주정이 최선 정체일지라도 최선 정체는 민주정이 아니다. 그런데 ‘평등주의’ 민주정은 최선 정체인가? 최선 정체의 지배자 집단은 유덕자이고, ‘평등주의’ 민주정의 지배자 집단은 자유인이다. 그런데 유덕자는 완전한 덕을 지닌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인과 유덕자는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평등주의’ 민주정은 최선 정체가 아니다.

Bates는 최선 정체가 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된 민주정이라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법이 지배하되, 법이 잘 지배할 수 없는 경우에 다수의 지배를 통해 도달된 다수의 숙고가 법의 결함을 보완한다. 그 근거로 잘 판단하는 능력을 지닌 다수의 지배가 소수의 지배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과 법의 지배가 사람의 지배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제시된다.¹²⁸⁾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잘 지배할 수 없는 개별적인 사안을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데, 다수가 일인보다 더 잘 판단하므로 다수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86a24~31). 이는 Bates의 주장을 뒷받침할지라도, 최선 정체가 민주정이라는 그의 주장은 뒷받침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잘 지배할 수 없는 개별적인 사안을 왕 일인보다는 일인보다 많은 좋은 사람, 유덕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86a36~b3). 이런 사안을 열등한 다수가 아니라 유덕자가 판단해야 한다면, Bates가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수의 지배가 공존하는 정체는 민주정이 아니며, 최선 정체는 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된 민주정이 아니다. 그 다음으로 3권 11장의 논의에서 집단을 이룬 다수는 소수의 유덕자보다 더 좋을 수 있다. Bates는 열등한 다수가 소수의 유덕자보다 더 잘 지배하는 정체를 민주정으로 여긴다. 민주정은 일탈된 정체이기예(1279b4~6) 최선 정체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정이 결함이 없는 정체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주정이 다른 모든 정체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3권 11장에서 논의된 집단을 이룬 다수

128) Bates(2003), pp. 2, 4, 212.

의 지배가 우위에 있다는 것과 *NE*에서 민주정이 일탈된 정체(1160b19~20)가 아니라 최선 정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민주정은 금권정에서 타락한 정체가 아니라 금권정에서 변화된 정체인데, 어느 정도 재산을 요하는 금권정은 과두정과 유사해서 최악의 정체인 반면, 민주정은 가장 덜 나쁜 정체이기에 최선 정체라는 것이다.¹²⁹⁾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NE*에서 민주정을 금권정에서 일탈된 정체로 여기고, 민주정은 일탈된 정체 중에서만 가장 덜 나쁜 정체로 여기기 때문에, 민주정이 최선 정체라는 Bates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3권 11장에서 집단을 이룬 다수의 지배가 소수의 유덕자의 지배보다 더 좋다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III.2.1.3.에서 논의했듯이, 집단을 이룬 다수가 심의와 판결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주도하는 것은 인정되어도 소수의 유덕자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집단을 이룬 다수의 지배가 소수의 유덕자의 지배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그의 주장과 달리 민주정은 최선 정체가 아니다.

Ober는 최선 정체가 귀족정의 성격을 갖는 민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연적인 도시국가의 목적이 최선 정체인데, 자연적인 도시국가의 정체는 최초에 최선 정체였다가 이후에 일탈된 정체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정체 변화 과정을 통해 최후에 최선 정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3권 15장에 제시된 정체 변화는 왕정에서 시작하여 시민정, 과두정, 참주정을 거쳐 민주정에서 끝나는데, 민주정은 일탈된 정체이기 때문에 민주정은 자연적인 도시국가의 목적이 아니다. 정체 변화 과정에서 누락된 귀족정이 자연적인 도시국가의 목적, 최선 정체로 보이지만, 귀족정은 소수의 매우 뛰어난 유덕자가 지배하는 반면, 최선 정체는 다수의 유덕자가 지배해서, 최선 정체는 지배자가 유덕하다는 귀족정의 성격과 모든 시민이 참여한다는 민주정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그는 최선 정체를 매우 특수한 종류의 민주정으로 결론 내린다.¹³⁰⁾ 그는 최선 정체의 지배자가 유덕자라는 점에서 최선 정체가 귀족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선 정체의 ‘모든’ 시민이 정체에 참여하기 때문에 최선 정체를 특수한 민주정으로

129) Bates(2003), pp. 113, 123, 154~162.

130) Ober(2015), pp. 227~237.

규정한다. 그는 최선 정체의 시민이 덕을 지닌 측면보다 모든 시민이 지배에 참여하는 측면에 주목해서 최선 정체를 특수한 ‘민주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시민이 덕을 지니거나 지니게 된다는 데 주목해서 최선 정체를 특수한 ‘귀족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배자 집단의 수가 아니라 지배자 집단이 정체 규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결국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동일하지 않지만, 둘 다 유덕자가 지배하는 정체이기 때문에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지배자의 수는 정체 분류의 실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7권의 최선 정체의 지배자가 다수라는 점에 주목해서 이 정체를 시민정 또는 민주정으로 규정하는 입장은 7권의 최선 정체를 잘못 규정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3. 혼합 정체

3.1. 차선 정체

3.1.1. 차선 정체: 중산층이 주도하고 가장 잘 보존되는 정체

아리스토텔레스는 4~6권에서 현실 정체에 관해 논의하는데, III.1.1.에서 언급했듯이 유용성의 측면을 고려한다. 그리하여 무조건적인 최선 정체와 최선의 삶 대신에 대부분의 도시국가와 대부분의 사람에게 최선 정체와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러한 최선 정체와 최선의 삶은 보통 사람(idiôtēs)을 뛰어넘는 덕과도 관련되지 않고 본성도 요구하고 운에 의존하는 자원도 요구하는 교육과도 관련되지 않으며 이상 정체와도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삶과 관련되고 대부분의 도시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정체와 관련된다(1295a25~31). 이러한 최선 정

체는 Ⅲ.2.에서 논의된 최선 정체와 다른 정체이다. Ⅲ.2.에서 논의된 최선 정체의 시민은 유덕자 또는 예비유덕자인데, 유덕자가 되려면 자유인의 본성을 지녀야 할뿐만 아니라 덕 교육에 필요한 여가를 확보해야 한다. 유덕자와 예비유덕자로 구성된 최선 정체가 실현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국가에서 최선 정체의 실현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도시국가는 Ⅲ.2.2.2.에서 밝혀진 최선 정체의 전제 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덕 교육에 필요한 여가를 모든 시민이 갖지 못한다. 농업, 수공업, 상업과 같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은 덕 교육에 필요한 여가를 가질 수 없어서 유덕자가 될 수 없다. 전제 조건도 갖춰져 있고 모든 시민이 유덕자이거나 예비 유덕자인 최선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최선 정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도시국가에서 가능한 최선 정체, 즉 차선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차선 정체가 무슨 정체인지를 규정하기에 앞서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정체는 일종의 삶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이 덕에 따라 방해받지 않는 삶이고, 덕이 중용(mesotēs)이면, 각자가 성취할 수 있는 중용을 지닌 삶이 최선의 삶인데, 이 삶은 도시국가와 정체에 적용된다(1295a35~b1). 중용을 지닌 삶이 최선의 삶이면, 중용을 지닌 정체가 최선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체는 어떻게 중용을 지닐 수 있는가? 모든 도시국가에 매우 부유한 자, 매우 가난한 자, 중산층이 있는데, 중용은 최선의 것으로 동의되기 때문에, 운에 달린 것(eutychēma)을 중용 있게 소유하는 것도 최선의 것이다(1295b1~5). 매우 부유한 자, 매우 가난한 자, 중산층은 갖고 있는 부에 따라 다른데, 부는 운에 달린 것 중 하나이다. 그래서 부를 중용 있게 소유하는 중산층이 셋 중에 최선이어서 중산층으로 구성된 정체는 중용을 지닌 최선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운에 달린 것을 중용 있게 소유하는 것이 이성에게 가장 잘 복종하는 반면, 과도하게 아름다운 것, 과도하게 강한 것, 과도하게 잘 태어난 것, 과도하게 부유한 것 또는 반대로 과도하게 가난한 것, 과도하게 약한 것, 지나치게 명예가 없는 것은 이성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자하고 큰 악을 저지르는 반면, 후자에 해당하는

는 사람은 적의를 품고 작은 악을 저지르는데, 불의한 행위는 방자나 적의 때문에 일어난다(1295b5~11). 그의 말에 따라, 중산층은 이성에게 가장 잘 복종하여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반면, 매우 부유한 자와 매우 가난한 자는 이성을 따르지 않은 채 불의를 저지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중산층으로 구성된 정체는 좋은 반면, 매우 부유한 자나 매우 가난한 자로 구성된 정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용에 따른 삶은 최선의 삶이고 중용을 지닌 정체가 최선 정체라면, 중산층으로 구성된 정체가 최선 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정체는 중용을 지닌 정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한적인 의미에서 중용을 지닌다. 이 정체는 부처럼 운에 달린 것의 측면에서 중용을 지니지만, 덕의 측면에서 중용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중산층이 유덕자라면 덕의 측면에서 중용이 있지만, 덕 교육을 받지 않은 중산층은 완전한 덕을 갖지 않아서 유덕자라고 말할 수 없다.¹³¹⁾ 따라서 유덕자가 아닌 중산층으로 구성된 정체는 최선 정체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대부분의 도시국가에서 가능한 최선 정체, 즉 차선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우 부유한 자와 매우 가난한 자가 불의를 저지르기 쉬운 성격적인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국가의 구성원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한다. 매우 부유한 자처럼 우월한 자는 지배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지배받을 줄도 모르는 반면, 매우 가난한 자처럼 열등한 자는 너무 하찮아서, 후자는 지배할 줄은 모른 채 노예의 방식으로 지배받을 줄만 알고, 전자는 지배받을 줄은 모른 채 주인의 방식으로 지배할 줄만 안다. 그래서 매우 부유한 자와 매우 가난한 자로 구성된 도시국가는 노예와 주인, 시기하는 자와 경멸하는 자로 구성되어, 친애와 정치 공동체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1295b13~24). 이처럼 서로 시기하고 경멸해서 내분이 일어나기

131) 중산층은 중무장보병으로서 완전한 덕이 아니라 완전한 군사적인 덕, 즉 용기를 갖고 있으며, 이성에게 쉽게 복종하여 불의를 저지르지 않아서 정의를 갖고, 자신의 재산에 만족해서 자유인다운이나 절제를 갖는다. 중산층은 용기, 정의, 절제, 자유인다운 등의 덕을 갖지만, 유덕자처럼 완전한 덕을 갖지 않는데, 완전한 덕을 가지려면 덕을 갖는 데 필요한 습관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덕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이러한 덕을 시민적 용기(ME 1116a17)처럼 갖지만, 이러한 덕은 완전한 덕에 가까이 있을 뿐이라서 중산층은 유덕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쉬운 도시국가는 제대로 된 도시국가가 아니고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도시국가에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도시국가는 가능한 한 동등하고 닮은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중산층이다(1295b25~27). 매우 부유한 자가 주인처럼 지배하고 매우 가난한 자가 노예처럼 지배받는 도시국가에서는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지배는 자유인으로 구성된 도시국가에 적합한 지배가 아니다. 반대로 동등하고 닮은 자유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배가 도시국가에 적합한 지배인데, 이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이며, 동등하고 닮은 자유인인 중산층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산층으로 구성된 정체가 차선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으로 구성된 정체, 다시 말해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가 차선 정체인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 번째 이유로 시민 중에 중산층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중산층은 타인의 재산을 욕망하지도 않고, 타인도 중산층의 재산을 욕망하지 않는데다가 중산층은 음모를 저지르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중산층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산다(1295b28~33). 그는 이러한 중산층이 다수라서 매우 부유한 자와 매우 가난한 자 양자보다 더 강하거나 둘 중 하나보다 더 강하게 있는 도시국가가 잘 통치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중산층은 어느 한쪽에 추가되면 반대쪽이 우월해지지 않게 한다(1295b34~39).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가 내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든다. 중산층이 다수인 곳에서 시민들¹³²⁾의 내분과 대립은 가장 적게 나타나는데, 큰 도시국가는 중산층이 다수라서 내분에서 보다 자유로운 반면, 작은 도시국가는 모두가 둘로 나누어지기 쉬워서 중산층이 남아 있지 않고 거의 모두가 부유하거나 가난하다(1296a7~13). 게다가 중산층 덕분에 과두정보다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민주정조차도 중산층 없이 빈자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불운한 일을 겪어서 빨리 붕괴된다(1296a13~18). 이 때문에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가 차선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132) Dreizehnter(1970)는 ‘politeiōn(정체들)’으로 읽었는데, 정체에 대한 내분과 대립보다 시민들의 내분과 대립이 내용상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Immisch, Susemihl의 제안에 따라 ‘politōn’으로 읽는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에는 대부분의 정체에서 중산층이 소수였기 때문에 부자든 빈자든 우월해지면 중산층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정체를 과두정 또는 민주정으로 만들어서,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는 생기지 않았거나 몇몇 곳에서만 생겨났다(1296a22~38). 그의 당대에 아테네는 자기의 영향 하에 있는 도시국가의 정체를 민주정으로 바꾸려 했고 스파르타는 자기의 영향 하에 있는 도시국가의 정체를 과두정으로 바꾸려 해서 그의 당대의 정체 대부분은 민주정 아니면 과두정이었는데, 이 정체에서 시민들은 동등함을 원하지 않고 지배하기를 추구하거나 정복당해서 지배받는 것을 견디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1296a40~b2).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 즉 차선 정체에서 빈자나 부자 모두 자유인인 한 서로 동등하기에 모두가 서로 동등한 자유인으로서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민주정이나 과두정에서 빈자와 부자 둘 중 한 쪽이 항상 지배하고 다른 쪽이 항상 지배받기에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는 내분에서 자유롭고 안정된 반면,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는 내분이 일어나기 쉽고 불안하기 때문에, 전자는 좋고 후자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는 차선 정체에 가까울수록 좋고 멀수록 나쁘다고 말한다(1296b7~9).¹³³⁾

3.1.2. 차선 정체의 규정: 시민정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이 주도하는 차선 정체가 무슨 정체인지 직접 말하지 않지만, 이 정체는 3권의 정체 분류에서 제시되는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정체는 시민정인데, 중무장보병은 기병보다 덜 부유하고, 경무장보병, 수병보다 더 부유해서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는 시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¹³⁴⁾ 그리고 중산층이 주도하는 차선 정체는 4~6권의 정체 분류에서 제

133)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논변의 약점에 관해서는 Miller(1995), pp.267~268 참고.

134) 차선 정체와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정체는 엄밀히 말하면 동일하지 않은데, 빈자는 차선 정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정체에서 참여할 수 없기

시되는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시민정은 민주정과 과두정이 혼합된 정체인데, 민주정과 과두정이 부과하는 것의 중간을 받아들여서 혼합되면 시민정이 된다(1294b2~3). 민주정은 정체 참여를 위해 낮은 재산 등급을 요구하거나 재산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과두정은 이를 위해 높은 재산 등급을 요구한다. 민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높지만 과두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낮은 재산 등급이 정체 참여를 위해 요구되면, 중산층이 정체를 주도하게 되는데,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는 시민정이다.¹³⁵⁾ 결국 차선 정체는 3권의 정체 분류에 따라서도, 4~6권의 정체 분류에 따라서도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¹³⁶⁾

3.2. 혼합 정체의 정체 보존

3.2.1. 정체 변화의 문제와 원인

최선 정체를 제외한 정체 중에서 정체 보존이 가장 잘 되는 정체가 차선 정체인데, 차선 정체에 가까울수록 정체는 좋고, 이로부터 멀수록 정체는 나쁘다(1296b7~9). 차선 정체에 가까울수록 정체 보존이 잘 되고, 멀수록 정체 보존이 잘 안 되는데, 정체 보존이 잘 되는 혼합 정체가 상대적으로 좋고 그렇지 않은 정체가 상대적으로 나쁘면, 정체 변화를 피하는 방법과 정체 보존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아서 정체를 가능한 한 잘 보존시킬

때문이다.

135) 시민정으로 규정된 차선 정체는 4~6권의 시민정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4~6권의 시민정은 4권 9장에 제시된 세 가지 혼합 기준에 따라 민주정과 과두정이 형성된 정체인데, 민주정과 과두정이 부과하는 것의 중간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혼합되면 중산층이 정체를 주도하지만, 민주정과 과두정의 입법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혼합 기준과 민주정의 법이 부과하는 것 일부와 과두정의 법이 부과하는 것 일부를 받아들이는 세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혼합되면 부자와 빈자가 함께 정체를 주도하거나 각자가 정체의 일부를 주도한다. 따라서 두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형성된 시민정만 차선 정체와 동일할 수 있는데, 빈자는 차선 정체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형성된 시민정에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정체는 엄밀히 말하면 동일하지 않다.

136) 중산층이 주도하는 차선 정체가 최선 정체로 규정될 수 없는 이유는 III.2.2.6.에서 제시되었다. 손병석(2019), pp.360~365 참고.

필요가 있다. 정체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체가 변하는 이유 또는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5권 1~7장에 걸쳐 정체 변화에 관한 논의가 길게 이루어진다.

정체의 변화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모든 이들이 정의와 비례적 동등함에 동의하지만 이에 대해 잘못을 저질러서 많은 정체가 생겨난 데 있다. 민주정 지지자는 자신이 동등하다는 이유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동등하게 가질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유에서 동등하면 무조건 동등하다는 생각에서 민주정이 생겨난 반면, 과두정 지지자는 자신이 동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자신이 더 많이 가질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부에서 동등하지 않으면 무조건 동등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과두정이 생겨났다. 민주정, 과두정은 어느 정도 정의를 가질지라도, 단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정체이다(1301a25~36). 무조건 동등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덕에서 두드러진 사람이다(1301a40~b1). 유덕자는 덕을 결여한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 합당하다. 부자는 유덕자만큼 우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잘못 생각하고, 빈자는 덕에 있어 유덕자보다 열등하고 부에 있어 부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모든 자유인이 무조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잘못 생각한다. 그런데 빈자와 부자는 동등함에 대해 이와 같이 잘못 생각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정(hypolēsis)에 따라 정체에 참여하지 못하면 내분(stasis)을 일으킨다(1301a37~39). 다시 말해 빈자가 동등한 몫을 갖지 못하거나, 부자가 동등하지 않은 몫, 즉 우월한 몫을 갖지 못하면 내분이 일어난다.

빈자가 생각하는 동등함과 부자가 생각하는 동등함은 다른데, 동등함에는 수적인 동등함과 가치에 따른 동등함이 있다(1301b29~30). 빈자는 수적으로 동등한 것을 동등하다고 여기는 반면, 부자는 부에 비례하여 동등함이 있다고 여긴다. 빈자 입장에서 모든 자유인은 동등하기 때문에 자유인 각자는 수적으로 동등하지만, 부자 입장에서 같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등하고, 부의 양에 비례해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 내분이 일어나면, 빈자는 수적인 동등함에 따라 민주정을 세우고, 부자는 가치에 따른 동등

함에 따라 과두정을 세우려 하는데, 빈자와 부자가 다수라서 정체는 주로 민주정 아니면 과두정이다. 자유와 부는 다수에게 있지만,¹³⁷⁾ 좋은 출생과 덕은 소수에게 있기 때문이다(1301b39~1302a1).

아리스토텔레스는 내분 또는 정체 변화¹³⁸⁾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방식은 정체를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동일한 정체를 유지하되 정체를 수중에 넣기를 원하거나, 정체를 더 강하게 또는 더 약하게 만들거나, 정체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다(1301b6~19). 정체를 다른 정체로 바꾸기 위해 내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따라 내분의 방식이 달라진다. 내분을 통해 민주정에서 과두정으로 바뀌거나 과두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뀌면 첫 번째 방식을 통해 정체가 바뀐다(1301b8~10). 두 번째 방식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내분을 통해 정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내분을 통해 정체를 더 강하게 또는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경우인데, 예컨대 첫 번째 민주정이 네 번째 민주정으로 바뀌거나 네 번째 민주정이 첫 번째 민주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내분을 통해 정체의 일부를 바꾸기 위한 경우인데, 예컨대 스파르타에서 왕정이나 감독관직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1301b12~22).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체의 부분적 변화 등도 내분 또는 정체 변화로 여긴다. 이후의 논의를 통해 살펴봐야 하는데, 그가 모든 종류의 내분 또는 정체 변화를 부정적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이 중 일부는 긍정적으로 여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체 변화는 정체 보존과 반대되는데, 전자라면 정체 변화가 없을 때 정체 보존이 이루어지는 반면, 후자라면 정체 변화가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정체 보존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정체일수록 정체는 불안정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 즉 시민정이 민주정, 과두정보다 안정된 정체이고, 민주정이 과두정보다 안정된 정체라고 말한다. 과두정에서

137) 부자는 빈자에 비해 소수지만, 100명도 안 되는 유덕자에 비해 다수이다(1302a1~2).

138) 엄밀하게 말하면 내분과 정체 변화는 동일하지 않은데, 내분이 없어도 사소함에 의해 정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1303a20~21).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분이 일어나서 정체가 변하고, 내분으로 인한 정체 변화는 정체 보존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내분과 정체 변화를 엄밀하지 않게 바꿔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두정 지지자에 대한 내분과 민중에 대한 내분이 발생하는 반면, 민주정에서 과두정 지지자에 대한 내분만 발생하며, 중산층 정체는 소수의 정체보다 민중의 정체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1302a8~15). 정체의 안정은 내분의 발생 가능성과 반비례해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수록 나쁜 정체이다. 내분에서 자유로운 정체가 좋으면, 내분으로 인한 정체 변화는 나쁜 것이자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체 보존을 위해 내분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내분의 원인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5권 2~7장에서 정체 변화의 일반적 원인과 각 정체의 개별적 변화 원인을 논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 변화의 원인과 기원은 한편으로 일곱 가지, 즉 이득, 명예, 오만, 두려움, 우월함, 경멸, 비례에 어긋나는 증가이고, 다른 한편으로 열한 가지, 즉 이 일곱 가지에 더하여 선거운동, 소홀함, 사소함, 다툼, 지 앎이라고 말한다(1302a34~b5).¹³⁹⁾ 먼저 말해진 일곱 가지 원인은 내분과 관련되어 있다. 공직자가 오만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할 때,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그리고 공직자에게 권한을 준 정체에 대해 내분을 일으킨다(1302b6~9). 사람들은 자기는 불명예를 당하는데 다른 사람이 명예를 누리는 것을 보면 내분을 일으킨다(1302b10~12). 누군가 도시국가와 지배자 집단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지니면, 그는 일인정이나 전제정(dynasteia)을 발생시키므로 사람들은 그의 우월함 때문에 내분을 일으킨다(1302b15~18).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불의를 당할 것 같은 사람은 불의를 당하지 않으려고 내분을 일으킨다(1302b21~23). 사람들은 경멸 때문에 내분을 일으킨다. 예컨대 과두정에서는 정체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가 자기가 정체에 참여하는 자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내분을 일으키고, 민주정에서는 부자가 무질서와 무정부상태(anarchia)를 경멸해서 내분을 일으킨다(1302b25~29). 정체의 변화는

139) 아리스토텔레스는 일곱 가지 원인과 네 가지 원인이 서로 다른 방식이라고 말할 뿐, 어떻게 다른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일곱 가지 원인은 내분을 통한 정체 변화의 원인이고, 네 가지 원인은 내분 없는 정체 변화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두 가지의 차이가 쉽게 설명되는데, 네 가지 원인 중 마지막 원인인 다툼, 지 앎은 내분을 통한 정체 변화의 원인이라서(1303a25) 두 가지의 차이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Mulgan(1977), pp. 123~124 참고.

비례에 어긋나는 증가 때문에도 발생한다. 예컨대 민주정과 시민정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빈자가 늘어나면 정체가 변한다(1302b33~1303a2). 그 다음으로 추가로 말해진 네 가지 원인 중에서 내분과 관련된 것은 다툼이 없음인데, 부족이나 영토의 차이로 인해 내분이 일어난다(1303a25~b12). 나머지 원인인 선거운동, 소홀함, 사소함은 내분과 관련이 없다(1303a13~25). 정체는 내분 없이도 변할 수 있지만, 주로 내분에 의해 정체가 바뀐다. 내분은 도시국가의 부족이나 영토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지배자가 오만하거나 이득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지닐 때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상대로 내분을 일으키고, 지배자가 우월할 때 권력을 장악하고자 내분을 일으키며, 피지배자가 지배자에 의해 불의를 당할까봐 두려워할 때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상대로 내분을 일으키고,¹⁴⁰⁾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경멸할 때 지배자를 상대로 내분을 일으키며, 도시국가의 지배받는 특정 집단의 수가 증가되면 내분을 일으킨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데다가 현재 정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분을 일으키는데, 피지배자는 내분을 일으켜서 지배자를 쫓아내는 대신에 자기가 지배하는 것을 원하고, 지배자는 내분을 일으켜서 지배를 독점하기를 원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혼합되지 않고 지배자가 지배를 계속하려할 때 내분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체 변화의 원인에는 일반적인 것 말고도 각 정체에 고유한 원인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의 변화를 세 가지, 즉 민주정이 과두정으로 바뀌는 것과 민주정이 참주정으로 바뀌는 것과 첫 번째 민주정이 네 번째 민주정으로 바뀌는 것으로 정리한다(1304b20~1305a29). 첫 번째로 민주정은 주로 민중선동가의 방종 때문에 바뀌는데, 민중선동가는 때로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사적으로 악의적인 소송을 벌여서 그들을 단결시키고 때로는 공적으로 다수를 선동하기 때문이다(1304b20~24). 민중선동가에 의해 위협을 당하는 부자가 단합하고 내분을 일으켜서 민주정을 과두정으로 바꾸게 된다. 두 번째로 민주정은 옛날에 동일한 사람이 민중

140)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내분을 일으킬 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지배자인지 피지배자인지는 불분명하다.

선동가와 장군이 되었을 때 참주정으로 변했는데, 옛날에 거의 대부분의 참주가 민중선동가로부터 생겼기 때문이다(1305a7~10). 세 번째로 조상 전래의 민주정¹⁴¹⁾에서 최신 민주정¹⁴²⁾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공직에 재산 등급이 요구되지 않고 민중이 공직을 뽑는 곳에서, 공직을 열망하는 사람은 민중을 선동하여 민중이 법을 주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1305a28~32).

그 다음으로 과두정의 변화는 세 가지, 즉 외부로부터 바뀌는 것과 내부로부터 바뀌는 것과 우연에 의해 바뀌는 것으로 말해진다(1305a37~1306b14). 첫 번째로 과두정은 외부로부터 바뀌는데, 과두정 지배자가 다수에게 불의를 저지를 때 과두정이 바뀌는 경우, 공직자가 극소수일 때 공직자가 아닌 부자가 과두정을 전복하는 경우, 상류층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을 때 민중이 상류층을 공격하여 승리한 경우, 민중이 소수에 의해 지배받는 데 격분해서 과두정을 바꾼 경우가 있다(1305a37~b22). 과두정은 정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체 외부에 있는 사람, 즉 피지배자에 의해 바뀔 수 있는데, 피지배자는 다수인 민중 또는 빈자일 수도 있고 부자 중에 공직에서 배제된 부자일 수도 있다. 내분을 일으킨 피지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두정은 민주정이나 다른 정체로 바뀐다. 두 번째로 과두정은 내부로부터 바뀌는데, 일부 과두정 지배자가 경쟁심 때문에 민중선동가가 되는 경우, 과두정 지배자가 방종하게 살아서 재산을 탕진한 경우, 과두정 안에 또 다른 과두정이 만들어지는 경우, 전시에 과두정 지배자가 민중을 불신해서 용병을 쓰도록 강제되거나 평시에 과두정 지배자들이 서로를 불신해서 수호를 맡긴 중립적인 공직자가 양 쪽을 주도하는 경우, 과두정의 구성원 사이에 결혼이나 소송과 관련하여 내분이 발생한 경우, 너무나 주인의 지배와 같은 과두정에 분노한 정체 성원이 과두정을 전복한 경우가 있다(1305b22~1306b5). 과두정은 정체에 참여하는 사람, 즉 지배자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는데, 주로 일부 지배자가 권력을 장악하려 할 때 지배자 사이에서 내분이 발생한다. 일부 지배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

141) 아테네에서 솔론의 정체가 조상 전래의 민주정으로 일컬어진다. 솔론의 정체는 민주정, 시민정 등의 정체로 규정될 수 있는데, 민주정인 한 첫 번째 민주정이다.

142) 최신 민주정은 가장 늦게 생긴 민주정인 네 번째 민주정이다(1292b41~1293a1).

공하면 과두정은 네 번째 과두정이나 참주정으로 바뀌고, 이에 실패하면 누가 정체를 주도하는지에 따라 정체가 달라진다. 세 번째로 과두정은 우연에 의해 바뀌는데, 소수가 과두정에서 공직에 참여하지만 평화나 행운 때문에 번영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모든 공직에 참여할 만큼 재산을 갖게 되어 과두정은 바뀐다(1306b6~14). 이러한 과두정의 변화는 내분에 의해 생기지 않고 우연에 의해 생긴다.

그 다음으로 귀족정의 변화는 네 가지, 즉 소수가 공직에 참여하는 것, 정체가 좋지 않게 혼합되는 것, 상류층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귀족정이 조금씩 붕괴되면서 알아차릴 수 없게 바뀌는 것으로 말해진다(1306b22~1307b1). 첫 번째로 귀족정에서 소수가 공직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분이 발생하는데, 덕에서 지배자와 동등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덕에 있어 열등하지 않은 대단한 자들이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불명예를 당하는 경우, 용감한 자가 공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이는 매우 가난하고 어떤 이는 부유한 경우, 대단하지만 훨씬 더 대단해질 수 있는 자가 혼자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1306b22~1307a3).¹⁴³⁾ 지배자와 맞먹는 덕이나 용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지배자에 의해 불명예를 당한 사람이 불만을 품으면 내분을 일으켜서 귀족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시민정과 귀족정은 주로 정체에 있는 정의(dikaion)에서 일탈하기 때문에 전복되는데, 민주정과 과두정의 안 좋은 혼합에서 시민정의 일탈이 시작하고, 민주정, 과두정, 덕의 안 좋은 혼합에서 귀족정의 일탈이 시작하며, 시민정과 귀족정은 부자나 빈자가 자기의 힘을 증가시킨 쪽으로 혹은 그 반대쪽으로 바뀐다(1307a5~23).¹⁴⁴⁾ 귀족정과 시민정은 잘 혼합되지 않으면 정체가 바뀌는데, 빈자의 힘이 커지면 민주정이 되거나

143) 이 대목에서 말하는 귀족정이 엄밀한 의미의 귀족정인지 아니면 혼합 귀족정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어떤 이는 매우 가난하고 어떤 이는 매우 부유해서 내분이 발생한 귀족정은 엄밀한 의미의 귀족정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제시되는 귀족정의 사례는 스파르타와 카르타고의 사례인데, 이들 정체는 혼합 귀족정이기때(1293b14~18) 이 대목에서 말하는 귀족정은 혼합 귀족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44)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대목에서 민주정과 과두정이 혼합된 정체가 과두정으로 쏠리면 귀족정으로 여기고 민주정으로 쏠리면 시민정으로 여기는데, 이는 II.3.3.1.에서 그가 반박한 입장이다.

빈자에 맞서는 부자에 의해 과두정이 되고, 부자의 힘이 커지면 과두정이 되거나 부자에 맞서는 빈자에 의해 민주정이 된다. 세 번째로 모든 귀족정은 과두정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상류층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 동맹을 맺을 수 있어서 귀족정은 바뀔 수 있다(1307a34~38).¹⁴⁵⁾ 네 번째로 귀족정은 조금씩 붕괴되면서 알아차릴 수 없게 바뀌기도 한다(1307a40~b1).¹⁴⁶⁾¹⁴⁷⁾

3.2.2. 정체 개선이 포함된 정체 보존

지금까지 정체를 보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일반적인 정체 변화의 원인과 각 정체의 변화 원인을 살펴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 원인을 알아서 무엇이 정체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되면 무엇이 정체 보존을 가져오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체 변화는 정체 보존과 반대되기 때문이다(1307b27~30). 정체의 보존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하기에 앞서, 정체 보존의 의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정체 보존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모두가 정체 유지를 원하는 것(1270b21~26, 1294b36~40, 1320a14~17)이고, 다른 하나는 다수가 정체 유지를 원하는 것(1296b14~16, 1297b4~6, 1309b15~18, 1320b26~28)이다. 그는 정체가 장차 보존되려면 도시국가의 모든 부분이 정체가 존재하기를 원하고 동일한 제도가 유지되기를 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왕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훌륭하디 훌륭한 사람(kalos kagathos)은 덕에 대한 보상인 원로원 때문

145) 상류층이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것은 귀족정에 고유한 변화 원인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과두정에 고유한 변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46) 이 원인은 귀족정에 고유한 변화 원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체의 변화 원인 중 하나이다(1303a20~25).

147) 『정치학』에서 일인정인 왕정과 참주정의 변화도 논의되는데, 일인정이 아닌 정체와 일인정의 변화의 기원은 동일하다(1311a23~25). 참주정은 외부 요인이나 내부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데, 참주정과 반대되는 정체가 더 강하면 외부 요인에 의해 붕괴되고(1312a39~b1), 참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내분을 일으키면 내부 요인에 의해 붕괴된다(1312b9~10). 반면에 왕정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는 거의 붕괴되지 않고 내부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데, 왕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내분을 일으키거나 참주정의 방식으로 지배하려 할 때 붕괴된다(1312b38~1313a2).

에, 민중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임명되는 감독관직 때문에 이를 원한다고 말한다(1270b21~26). 스파르타에서 왕과 원로와 감독관이 정체를 주도하는데, 왕의 가문 출신은 왕이 될 수 있고, 덕을 지닌 훌륭한 사람은 원로가 될 수 있으며, 스파르타의 시민인 민중은 감독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왕, 훌륭한 사람, 민중 모두 정체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체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으로 그는 잘 혼합된 정체는 외적인 요인¹⁴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의해서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에 의해서’는 다수가 그 정체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의 어떤 부분도 다른 정체를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1294b36~40). 예컨대 다수인 빈자는 민주정을 원해서 다수는 나쁜 정체를 원할 수 있지만, 빈자와 부자 모두는 나쁜 정체를 원할 수 없다. 잘 혼합된 정체는 모두가 원할 때 보존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시민이 정체에 호의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주도권을 지닌 사람을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1320a14~17). 그가 민주정, 특히 네 번째 민주정의 보존 방법을 제시하면서 하는 이런 말은 모든 시민이 정체에 호의를 갖고서 정체를 원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도권을 지닌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않은 채 정체를 원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대목에서 정체 보존은 모두가 정체의 유지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이제 네 대목에서 정체 보존은 다수가 정체의 유지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정체에 관해 동일한 것, 즉 정체의 유지를 원하는 도시국가의 부분이 이를 원하지 않는 부분보다 더 강해야만 한다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다(1296b14~16). 그 다음으로 그는 정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다수가 되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재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찰하고, 이 만큼의 양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한다(1297b4~6). 그는 정체가 오직 무기소유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1297b1~2), 이에 따르면 무기를 소유할 만큼 재산을 지닌 사람은 정체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

148) 외적인 요인에 의해 정체가 보존된 사례로는 카르타고에서 일부 민중을 다른 도시국가로 내보내고 부유하게 만든 결과 내분을 피하고 정체가 안정된 것을 들 수 있다(1273b18~21).

체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편으로 정체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정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정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빈자는 누군가에 의해 무례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 한, 공직에 참여하지 않아도 조용히 있기를 원해서(1297b6~8)¹⁴⁹⁾ 정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그는 정체를 원하는 다수가 그렇지 않은 다수보다 더 강력하도록 신경 쓰는 것이 정체를 보존한다고 말한다(1309b15~18). 마지막으로 그는 정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강하게 될 많은 수의 민중을 재산등급을 통해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하는데(1320b26~28), 이는 첫 번째 과두정에서 정체 보존을 위해 취해야 하는 방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 보존을 크게 두 가지, 즉 모두가 정체의 유지를 원하는 것과 다수가 정체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는 정체 보존에 관한 생각이 대목에 따라 바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정체 보존이 두 단계로 작동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정체의 유지를 원할 때 정체 보존은 강하게 작동하는 반면, 다수가 정체의 유지를 원할 때 정체 보존은 약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모두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정체에서 내분은 일어나기 어려운 반면, 다수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정체에서 정체의 유지를 원하지 않는 소수는 내분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다수가 소수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정체 보존을 위해서는 모두가 정체의 유지를 원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이를 원해야 한다. 정체의 유지를 원하는 자는 주로 정체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자인데, 빈자처럼 정체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를 문제삼지 않는 자는 정체의 유지를 원할 수 있다. 도시국가를 구성하는 빈자든 부자든 또는 유덕자를 비롯한 다른 자든 이들 모두나 다수가 정체의 유지를 원할 때 정체는

149) 다수인 빈자는 공직에서 배제된 것에 많이 분개하지 않지만, 공직자가 공금을 훔친다고 생각하면 분개하고서 명예와 이득을 나눠 갖지 못한 것을 두고 고통스러워한다(1308b34~38). 그리고 다수인 빈자는 공직에서 큰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공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데, 명예보다 이득을 더 욕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인 빈자는 누군가에 의해 일하는 것을 제지당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한, 참주정과 과두정조차 용인한다(1318b14~20).

보존된다. 빈자와 부자가 혼합되거나 모든 빈자가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일부 빈자 또는 중산층과 부자가 혼합되면 도시국가의 모두 또는 다수가 정체의 유지를 원하게 된다. 따라서 정체 보존을 위해 빈자와 부자 등이 혼합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다수의 빈자가 주도하는 민주정에서 다수가 정체 유지를 원하지만 민주정은 나쁜 정체라서 다수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정체가 무조건 정체 보존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빈자와 부자 등이 혼합된 경우에 다수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정체는 정체 보존이 잘 된다. 정체 보존은 정체의 유지를 모두가 원하느냐 다수가 원하느냐에 따라 두 단계로 작동하는데, 빈자와 부자 등의 혼합이 전제된다.

입법자와 정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체의 수립이 아니라 정체의 보존이다. 정체를 며칠 동안 유지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에게 어렵지 않다. 입법자는 무엇이 정체를 보존하고 파괴시키는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정체의 파괴 요소에 주의하고 정체의 보존 요소를 최대한 포괄하는 법을 제정해서 정체의 안정을 확보해야 하고, 도시국가가 최대한 민주정적으로 또는 과두정적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가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는 것이 민주정적인 것 또는 과두정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1319b33~1320a4). 여기에서 도시국가가 최대한 민주정적으로 지배되는 것은 정체가 네 번째 민주정임을 뜻하고, 도시국가가 최대한 과두정적으로 지배되는 것은 정체가 네 번째 과두정임을 뜻한다. 민주정이든 과두정이든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려면, 민주정은 네 번째 민주정이 아니라 온건 민주정이어야 하고, 과두정은 네 번째 과두정이 아니라 온건 과두정이어야 하는데, 정체를 빈자가 주도하든 부자가 주도하든 빈자와 부자는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어야 한다.¹⁵⁰⁾ 온건 민주정이나 온건 과두정은 네 번째 민주정이나 네 번째 과두정보다 오래 지속되지만, 이들 정체에서 정

150)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두정과 민주정이 잘 혼합된 정체에서 일탈된 정체라고 말함으로써(1290a24~29) 과두정과 민주정을 혼합이 붕괴되었을 때 나오는 정체로 여기며, 민주정이든 과두정이든 중용에서 일탈하여 극단적으로 민주정이 되거나 과두정이 되면 결국 정체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1309b18~1310a2) 민주정과 과두정의 혼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정체의 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인데, 이는 과두정이나 민주정을 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두정의 방식으로 또는 민주정의 방식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310a12~22).

체를 주도하는 빈자나 부자가 우위에 있어서 이들이 혼합을 거부하고 혼자 지배하려는 경우에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 빈자나 부자 둘 중 어느 한 쪽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둘 다 동등한 상태에서 혼합이 이루어지면 내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적어질 것이다. 온건 민주당 또는 온건 과두정보다 시민정이 내분 가능성은 적고 안정되며 더 오래 보존된다. 시민정 내에 중산층이 많아져서 정체를 주도하면, 정체는 차선 정체가 되어 최선 정체를 제외한 정체들 중에 가장 오래 보존된다. 민주당과 과두정이 오래 보존되려면, 네 번째 민주당이나 네 번째 과두정이 아니라 온건 민주당이나 온건 과두정으로 있어야 하고, 이들 정체보다 더 오래 보존되려면 시민정이 되어야 하며, 도달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오래 보존되려면 최종적으로 차선 정체가 되어야 한다.

혼합이 잘 이루어질수록 정체가 잘 보존되면, 정체 보존은 정체 변화와 무조건 반대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서 Ⅲ.3.2.1.에서 정체 변화가 전혀 없을 때 정체 보존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정체 변화가 있어도 정체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묻고 나서, 내분이 있을 때 정체 보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스토텔레스가 5권에서 내분과 정체 변화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내분 없이 정체가 변하는 경우에 두 가지의 의미는 달라서, 내분 없이 이루어지는 정체 변화 중에 정체 보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이나 과두정이 오래 보존되려면 온건 민주당이나 온건 과두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네 번째 민주당이나 네 번째 과두정에서 온건 민주당이나 온건 과두정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 또는 과두정이 다른 정체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과두정의 강도가 급진적인 것에서 온건한 것으로 약해지는데, 네 번째 민주당이나 네 번째 과두정보다 온건 민주당이나 온건 과두정이 더 좋기 때문에, 정체는 개선된다. 내분 없이 정체 내에서 정체의 강도가 약해져서 정체가 개선되어 바뀌게 되면 정체는 더 오래 보존된다. 이처럼 정체 보존에는 정체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정체를 다른 정체로 바꾸지 않은 채 정체의 강도 약화를 통해 정체 보존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체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는다. 정체가 바뀌면 법도 정체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법의 개정이 정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정체를 바꾼 자들이 권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바뀌기 이전의 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1292b20~21). 예컨대 민주정이 과두정으로 바뀌었을 때, 부자가 정체를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의 법이 여전히 구속력을 지니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 혼란에 빠지고, 지배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게다가 법에 잘 복종하는 정체가 그렇지 않은 정체보다 더 좋은데, 법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법에 복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1269a20~22). 바뀐 법이 더 좋을지라도 법을 바꾸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고, 법이 자주 바뀌거나 급작스럽게 바뀌지 않으려면 정체 변화가 자주 일어나거나 정체가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체의 강도가 약해지는 방식으로 정체가 변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의 강도 약화를 통한 정체 보존은 인정하면서도 정체가 다른 정체로 바뀌는 것을 통한 정체 보존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는 재산 자격 기준의 변동에 따라 정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달라져서 정체가 바뀌는 것을 말할 때(1306b6~14) 우연에 의해 정체가 변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정체가 변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는 정체가 다른 정체로 바뀔 때 정체 보존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차선 정체가 대부분의 정체가 도달할 수 있는 정체라면, 민주정과 과두정조차 차선 정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최선 정체를 제외하고 정체 보존이 가장 잘 되는 정체는 차선 정체이며, 차선 정체에 가까울수록 정체 보존이 잘 된다.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은 시민정에 가까이 있는데, 빈자와 부자 사이에 혼합이 잘 되면 시민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온건 민주정이나 온건 과두정이다. 빈자와 부자 사이에 혼합이 잘 이루어지면, 온건 민주정이나 온건 과두정은 큰 변화 없이 시민정이 될 수 있다. 시민정 중에서 중산층이 주도하면 차선 정체가 되는데, 정체가 갑작스럽게 개선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개선되면,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은 시민정으로 바뀔 수 있고, 최종적으로 차선 정체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가 다른 정체로 바뀔 때 정체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이 시민정으로 바

필 때 정체 보존이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체 보존은 정체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정체가 오래 유지되도록 정체가 개선되는 것을 포함한다. 결국 정체 개선이 포함된 정체 보존은 주로 정체의 강도 약화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정체가 다른 정체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2.3. 정체의 보존 방법

아리스토텔레스가 5권 8~9장에서 제시하는 열일곱 가지의 정체 보존 방법은 <표 6>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잘 혼합된 정체에서 위법 행위에 신경 쓰기(1307b30~32)
2	다수를 기만하는 장치 믿지 않기(1307b40~1308a1)
3	정체 지속을 위해 공직자가 정체 바깥에 있는 사람과 지배자 집단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기(1308a3~7)
4	정체 보존을 위해 파괴 요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때로는 이와 가까이 있게 하기(1308a24~26)
5	상류층의 경쟁과 내분은 법을 통해 방지하고, 경쟁 바깥에 있는 사람이 경쟁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1308a31~33)
6	공동체의 재산 총액을 과거의 총액과 대비하여 살펴보기(1308a38~39)
7	모든 정체에서 누군가가 적절한 비율을 넘어서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하고, 그에게 단기간에 큰 명예를 주기보다 장기간에 작은 명예를 주기(1308b10~14)
8	개인적인 삶으로 인해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여 정체에 손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을 감시하는 공직 도입(1308b20~24)
9	도시국가의 번영하는 부분 경계(1308b24~25)

10	공직이 이득을 가져오지 않도록 법과 여타의 관리방책(oikonomia) 마련(1308b31~33)
11	민주정에서 부자를 아끼고, 부자의 재산과 수입이 재분배되지 않게 하기(1309a14~16)
12	과두정에서 빈자에게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공직을 빈자에게 분배하기(1309a20~22)
13	중요 공직을 맡게 될 사람은 정체에 대한 친애, 공직 업무에 대한 매우 큰 능력, 정체와 관련된 덕과 정의를 갖기(1309a33~37)
14	정체 보존을 위해 정체에 이로운 법 규정 및 정체를 원하는 자가 원하지 않는 자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기(1309b14~18)
15	일탈된 정체에서 간과되는 중간적인 것 간과하지 않기(1309b18~19)
16	민주정에서 민중선동가는 부자를 위해 말하고, 과두정에서 과두정 지배자는 민중을 위해 말한다고 여겨지기(1310a3~6)
17	정체 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소홀히 되고 있는 정체에 맞는 교육 받기(1310a12~14)

<표 6> 열일곱 가지의 정체 보존 방법

열일곱 가지의 정체 보존 방법 중에 모든 정체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특정 정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정체 보존은 주로 민주정이나 과두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주정과 과두정의 보존 방법이 무엇이고 크게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정과 과두정의 보존 방법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것(5, 7, 8, 9)이고, 두 번째 부류는 정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을 고려하는 것(2, 3, 10, 11, 12, 16)이며, 세 번째 부류는 온건 민주정이나 온건 과두정으로의 변화와 관련된 것(14, 15, 17)으로 말할 수

있다.¹⁵¹⁾ 민주정과 과두정은 이러한 세 부류의 보존 방법을 통해 보다 오래 보존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정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이 정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정체의 혼합과 관련되어 있다. 빈자와 부자가 서로 동등하게 혼합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혼합되면, 민주정과 과두정은 보다 오래 보존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과 과두정에서 정체에 덜 참여하는 사람, 즉 민주정에서 부자에게 그리고 과두정에서 빈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직을 제외한 다른 공직에서 동등함이나 우선권을 주는 반면, 가장 중요한 관직은 정체 내부에 있는 사람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1309a27~32). 그가 말하듯이, 민주정에서 빈자가 그리고 과두정에서 부자가 가장 중요한 공직을 맡아서 정체를 주도하는 반면, 민주정에서 부자가 그리고 과두정에서 빈자가 가장 중요한 공직을 제외한 다른 공직에 참여하여 빈자와 부자가 서로 동등하게 참여하지 않아도 서로 어느 정도 혼합되면 민주정과 과두정은 보다 오래 보존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열일곱 가지 정체의 보존 방법 이외에도 민주정과 과두정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한다. 우선 그는 민주정과 과두정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정체의 심의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민주정에서 모든 시민이 모든 사안을 심의하고 (1298a9~10), 과두정에서 일부 시민이 모든 사안을 심의하는데 (1298a34~35), 그는 네 번째 민주정에서 심의를 더 잘 하기 위해서는 과두정 법정에서 행해지는 것(참석해야 하는 사람이 불참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하는 것이 이롭다고 말한다. 빈자와 부자가 함께 하는 심의가 더 좋기 때문에, 과두정의 관행이 민주정에 도입되어야 하며, 개선된 심의 방식은 심의하는 자가 도시국가의 각 부분으로부터 동수로 뽑히는 것 또는

151) 민주정과 과두정의 보존 방법 중에서 6을 제외한 나머지 보존 방법은 정체의 혼합과 관련이 있지만, 6은 우연에 의한 정체 변화를 주의하라는 정체의 보존 방법에 불과하다. 6이 정체의 혼합을 위한 정체의 보존 방법이라면, 중산층이 정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산 자격 기준을 강화하거나 약화시켜서 정체를 시민정이 되게 만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겠지만, 그는 도시국가의 재산 총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에 비례하여 재산 자격 기준을 강화하거나 약화시켜서 정체가 변하지 않게 하라고 말한다 (1308b1~10). 그는 정체 보존을 주로 정체의 혼합과 관련시키지만, 6처럼 정체의 혼합과 무관하게 정체 보존을 말하기도 한다.

민주정 지지자 모두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 수만금의 민주정 지지자에게만 수당을 주거나 초과자를 추첨으로 배제하는 것이다(1298b13~26). 이처럼 동수의 부자와 빈자가 심의를 함께 하면, 부자는 심의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빈자와 부자가 혼합해서 심의를 하면 네 번째 민주정은 온건 민주정, 더 나아가 시민정이 될 수 있고, 정체는 오래 보존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과두정에서 심의가 개선되려면, 다수 중에서 추가 인원을 뽑거나 예비 위원회나 법률 수호자라는 공직 위원회를 세운 뒤 공직 위원회가 예비로 심의한 것만 심의할 필요가 있고, 또한 민중은 제안된 것에만 가결하고 이에 반대되는 것에 부결하지 못하거나 모두가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공직자만 심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1298b26~34). 과두정에서 빈자가 심의에 참여하면 심의를 더 잘 할 수 있지만, 빈자가 부자와 동등하게 심의에 참여하면 빈자의 의사가 심의에 반영되기 때문에, 빈자는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만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빈자가 이와 같이 심의에 참여하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자의 의사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서 어느 정도 부자를 견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빈자와 부자가 혼합해서 심의를 하면 과두정은 온건 과두정이 될 수 있고, 정체는 오래 보존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의 방법 이외에도 민주정과 과두정의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데, 우선 민주정, 특히 네 번째 민주정의 보존 방안을 살펴본다. 우선 그는 민중의 환심을 사려고 많은 재산을 몰수하려는 민중선동가의 행위에 맞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벌금이 공공재산이나 국고에 귀속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몰수된 재산이 신에게 바쳐지면 민중은 이로 부터 취할 것이 없어서 유죄판결을 덜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고자는 습관적으로 상류층을 고소하기 때문에 무고자를 큰 벌금으로 제지해서 공적 소송이 덜 일어나게 해야 한다(1320a4~14).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민주정에서 세입이 부족하면 상류층에게 적대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세입이 부족하면 민회와 법정은 적게 열려야 한다(1320a17~24). 네 번째 민주정에서 민회나 법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당이 주어지는데, 도시 국가의 세입이 부족하면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돈을 부자 또는 상류층

의 재산 물수를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부자의 반발과 내분을 야기한다. 이를 피하려면 수당 지급에 필요한 돈을 줄여야 해서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민회와 법정의 개회일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민중이 지나치게 가난하면 민주정이 형편없기 때문에, 민중이 지나치게 가난해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1320a33~35). 농부처럼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빈자가 주도하는 민주정은 상대적으로 좋지만, 지나치게 가난한 빈자가 주도하는 민주정은 나쁘기 때문에, 민주정이 나쁘지 않으려면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가 덜 가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과두정의 보존 방안과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먼저 과두정에서 다수가 지배자 집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1321a26~27). 과두정이 오래 보존되려면, 지배자 집단에 부자만 있으면 안 되고 빈자도 일부 있어야 하는데, 과두정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수의 빈자면 충분하다. 그 다음으로 그는 과두정에서 최고 공직에 공공봉사(leitourgia)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의 목적은 민중이 자발적으로 최고 공직에 참여하지 않고, 공직자가 공직을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른다는 이유로 민중이 공직자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1321a31~35). 결국 이러한 보존 방안을 통해 네 번째 민주정은 온건 민주정이 되고, 과두정은 온건 과두정이 되어 정체 보존이 잘 될 수 있다.¹⁵²⁾

아리스토텔레스는 입법자가 항상 중산층을 정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1296b34~36). 민주정과 과두정에서 정체 안에 중산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체의 보존에 관한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중산층이 포함된 민주정과 과두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반면, 중산층이 배제된 채 빈자 또는 부자만 주도하는 민주정과 과두정은 불안정하다. 빈자와 부자의 신뢰를 받으며 이들의 중재자인(1297a5~6) 중산층이 지배에 참여하면 중산층의 중재 하에 빈자와 부자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중산층이 참여하지

152)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번째 과두정의 보존을 위해 매우 많은 경계와 좋은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1320b39~1321a3), 이는 과두정을 온건 과두정으로 만드는 보존 방안과 반대된다. 네 번째 과두정은 좋은 질서를 확보하고 지배자가 매우 많은 경계를 할 경우에는 유지될 수 있지만, 조금만 잘못 되어도 정체가 쉽게 붕괴될 수 있기에 이는 확고한 보존 방안이 아니다. 네 번째 과두정은 이러한 보존 방안보다 혼합을 통해 더 잘 보존될 수 있다.

않는 민주정과 과두정은 정체를 주도하지 못하는 부자와 빈자에 의해 정체가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정과 과두정이 중산층을 포함해서 네 번째 민주정이나 네 번째 과두정이 아니라 온건 민주정 또는 온건 과두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정체 보존이 잘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의 수가 부자와 빈자의 수보다 더 많거나 둘 중 하나보다 더 많은 곳에서 안정된 정체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부자와 빈자가 서로 협력하여 중산층에 맞서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자와 빈자는 서로를 불신해서 교대로 지배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중산층의 중재를 받는다(1296b38~1297a6). 중산층의 수가 부자와 빈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거나 적어도 둘 중 하나보다 많을 때, 정체는 온건 민주정이나 온건 과두정이 아니라 시민정이 되는데, 시민정에서 중산층은 부자와 빈자를 중재하여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내분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처럼 시민정은 온건 민주정이나 온건 과두정보다 더 안정된 정체라서 정체가 잘 보존될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정체의 안정은 좋은 혼합에서 비롯된다(1297a6~7).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중과 부자의 혼합을 방해하는 민중 또는 부자를 기만하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말한 다음에, 민중과 부자가 혼합된 시민정이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민중을 기만하는 장치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민회, 공직, 법정, 무기소유, 신체단련과 관련된다. 1. 모두가 민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민회에 불참한 부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되거나 훨씬 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2. 일정 수준의 재산 등급을 가진 사람은 공직을 거부하는 맹세를 할 수 없지만, 빈자는 할 수 있다. 3. 법정에 불참한 부자는 벌금을 내거나 많은 벌금을 내지만, 빈자는 벌금을 면제받거나 적은 벌금을 낸다. 4. 빈자는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부자는 무기를 소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5. 신체단련을 하지 않으면 빈자는 벌금을 내지 않지만, 부자는 벌금을 낸다. 이는 과두정에서 시행되는 기만 장치이다(1297a14~35). 민주정에서 시행되는 기만 장치는 이와 반대된다. 빈자는 민회나 법정에 참석하면 수당을 받지만, 부자는 참석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1297a35~38). 과두정에서 민중을 기만하는 장치

를 사용하면 부자만 지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빈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에 분노하여 내분을 일으킬 수 있고, 민주정에서 부자를 기만하는 장치를 사용하면 빈자만 지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부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에 분노하여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 민중이나 부자를 기만하지 않고 둘을 잘 혼합하려면, 민주정과 과두정의 요소를 합쳐서 빈자는 참석 시 수당을 받고, 부자는 불참 시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 이러한 혼합을 통해 빈자와 부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고(1297a38~b1), 정체는 민주정이나 과두정이 아닌 시민정이 된다. 빈자는 수당을 받기 위해 민회나 법정에 참석하고 부자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참석하면, 빈자와 부자 모두 지배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빈자는 다수이고 부자는 소수인데, 빈자와 부자가 서로 대립하면, 민회나 법정에서 다수인 빈자의 의사대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판결이 내려질 뿐, 소수인 부자는 민회나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의 의사가 민회나 법정에 반영될 수 있으려면, 부자와 빈자가 동등할 수 있어야 한다. 빈자와 부자는 어떻게 동등할 수 있는가? 빈자와 부자는 서로 다른 재산을 지니지만, 빈자 전체의 재산과 부자 전체의 재산이 동일하면 집단적으로 빈자와 부자는 동등할 수 있다. 예컨대 부자가 10명이고 빈자가 20명인데, 부자 10명의 재산 총합과 빈자 20명의 재산 총합이 같으면, 부자 10명과 빈자 20명은 서로 동등하다. 개인적으로 보면 부자 1명이 빈자 1명보다 2배의 재산을 지녀서 부자 개인과 빈자 개인은 서로 동등하지 않지만, 집단적으로 보면 동일한 재산 총합을 지닌 부자 집단과 빈자 집단은 서로 동등하다. 이와 같이 빈자와 부자의 의사가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시민정은 빈자와 부자 모두 정체에 만족할 수 있어서 정체 보존이 잘 될 수 있다.

빈자와 부자는 동일한 재산 총합을 지니면 집단적으로는 동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빈자가 인정하는 동등함과 부자가 인정하는 동등함이 다르다. 빈자는 수적인 동등함을 인정하고 부자는 가치에 따른 동등함을 인정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둘 중 하나의 동등함에 따라 세워진 정체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한다(1302a2~5). 수적인 동등함에

따라 수립된 민주정은 부유한데도 우월한 몫을 갖지 못한 데 불만을 품은 부자가 내분을 일으킬 수 있고, 가치에 따른 동등함에 따라 수립된 과두정은 동등한데도 동등한 몫을 갖지 못한 데 불만을 품은 빈자가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빈자와 부자가 혼합되어서 한편으로 수적인 동등함에 따라 빈자가 정체에 참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가치에 따른 동등함에 따라 부자가 정체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정체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우에 따라 수적인 동등함과 가치에 따른 동등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1302a7~8).¹⁵³⁾ 심의하는 부분이든 공직이든 법정이든 일부는 수적인 동등함에 따라 구성되고 일부는 가치에 따른 동등함에 따라 구성된 시민정은 빈자와 부자 모두 만족해서 정체 보존이 잘 될 수 있다. 결국 혼합을 통해 정체 보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네 번째 민주정과 네 번째 과두정은 빈자와 부자의 혼합을 통해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시민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이 주도하는 시민정으로 개선되면 차선 정체가 되어 최선 정체를 제외한 정체 중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잘 보존된다.¹⁵⁴⁾

153) 플라톤은 차선 정체에서 수적인 동등함과 가치에 따른 동등함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법률』, 757a~e).

154)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주로 민주정과 과두정에 초점을 맞추고서 정체의 보존을 논의하지만, 일인정인 왕정과 참주정의 보존에 관한 논의도 5권 11장에서 한다. 왕 혼자 주도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와 함께 주도하는 왕정은 여전히 왕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 반면, 참주정은 참주 혼자 정체를 주도할 때 참주정으로 규정된다. 왕정은 다른 공직자와의 혼합을 통해 정체가 보존되는 반면, 참주는 한편으로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참주의 권력을 지녀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왕 노릇을 잘 하거나 잘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서(1314a36~40) 참주정 같기도 하고 왕정 같기도 할 때 참주정은 보존된다. 우선 왕정은 더 많은 적도를 가져서 보존된다. 왕이 덜 주도할수록, 왕의 지배는 더 오랫동안 온전하게 유지되는데, 왕은 덜 주인처럼 되고, 피지배자에 의해 시샘을 덜 받기 때문이다(1313a18~23). 왕정은 왕이 주도하는 사안이 적을 수록 더 오래 유지된다. 반면에 참주정은 정반대인 두 가지 방식으로 보존되는데, 하나는 참주가 참주처럼 지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주가 왕처럼 지배하는 것이다. 우선 참주가 참주처럼 지배하는 것은 피지배자의 생각의 폭을 좁히는 것, 피지배자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 피지배자가 행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1314a14~1314a23). 이는 피지배자가 참주에게 내분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장치인데, 피지배자의 생각의 폭이 좁아지면 피지배자는 참주에게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피지배자가 서로를 불신하면 피지배자가 참주에게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치지 못하게 되며, 피지배자가 행위 할 수 없으면 피지배자가 참주에게 맞설 생각을 해도 실제로 참주를 상대로 내분을 일으킬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참주가 왕처럼 지배하는 것은 참주

더 나아가 정체 보존을 위해서는 지배자가 혼합되어야 하는데, 혼합된 집단이 덕을 많이 지닐수록 정체는 더 오래 보존될 수 있다. 유덕자를 제외하면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덕을 지니고 있고, 빈자와 부자는 중산층에 가까울수록 덕을 많이 지니는 반면 중산층으로부터 멀수록 덕을 적게 지닌다. 좋은 빈자나 부자가 주도하는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이 나쁜 빈자나 부자가 주도하는 네 번째 민주정과 네 번째 과두정보다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덕을 지닌 집단이 혼합되면 정체가 더 오래 보존될 수 있다. 중산층, 빈자, 부자는 완전한 유덕자가 아니라서 완전한 덕을 갖기는 어렵지만 유덕자에 가깝게 덕을 지닐 필요가 있다. 덕은 습관들이고 교육받아서 지닐 수 있는데(1310a16~17, 1337a19~21), 최선 정체가 아닌 정체에서 유덕자를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정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면(1310a14), 과두정 지배자는 과두정에 맞게, 민주정 지배자는 민주정에 맞게 지배할 수 있어서(1310a19~22) 과두정과 민주정은 오래 유지되고 안정될 수 있다. 지배자가 덕을 습관들이고 교육받아서 가능한 한 많은 덕을 지닐 수 있으면, 정체는 안정되고 좋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덕을 지니려면 덕을 습관들이고 교육받는 데 필요한 여가가 있어야 하

가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왕 노릇을 잘 하거나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1314a38~40). 이는 참주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고, 피지배자를 적대시하지 않으며, 피지배자를 잘 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관련된다. 참주는 피지배자에게 참주가 아니라 가정 관리인과 왕으로, 명령자가 아니라 감독자로 보아야 하고, 과도한 삶이 아니라 적절한 삶을 추구해야 하며, 상류층의 환심을 사고 대중에게 아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참주의 지배는 더 고귀해지고 부러움을 살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지속되고, 참주의 성품은 덕을 향해 있거나 반쯤 좋고, 사악한 것이 아니라 반쯤 사악하다(1315a41~b10). 참주정의 첫 번째 보존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지하는 참주정의 보존 방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주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피지배자인 빈자와 부자를 적으로 만들어서 이들의 내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빈자와 부자가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내분을 일으킬 수 없도록 의도하지만, 실패하면 매우 큰 저항과 내분을 야기한다. 역사적으로 참주정은 일부를 제외하면 단기간만 유지되었다(1315b11~39). 피지배자가 참주의 지배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주정은 단명할 수밖에 없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참주정의 오랜 보존을 위해 참주정의 두 번째 보존 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암시한다. 참주가 왕처럼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면 참주는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피지배자의 반발을 덜 사며, 내분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만큼 참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참주정을 잘 보존하는 참주일지라도 완전하게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참주정의 오랜 보존에는 한계가 있지만, 두 번째 보존 방식을 사용하는 참주정이 그렇지 않은 참주정보다 정체 보존은 잘 될 것이다.

는데, 빈자는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가를 결여한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덕을 습관들이거나 교육받지 않으며 가사를 돕거나 직업에 종사한다(1323a5~6). 반면에 부자는 이러한 여가를 갖지만, 덕을 갖는 데 이러한 여가를 쓰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의 대부분 도시국가에서 가장은 사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교과를 아이에게 가르쳤다(1337a24~26). 부자는 부를 얻거나 부로써 명예를 얻는 데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덕 교육을 소홀히 한다. 스파르타만 도시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지만, 시민이 용기를 갖도록 교육시켰을 뿐, 덕 전체를 갖도록 교육시키지 않았다(1334a40~b3, 1337a31~32). 빈자는 덕을 습관들이고 교육받을 여가가 없어서 덕을 지닐 수 없고, 부자는 덕 교육을 소홀히 해서 덕을 지니지 않는다. 빈자가 덕을 가지려면 여가가 생길만큼 부를 가져야 하고, 부자가 덕을 가지려면 도시국가가 주도해서 덕을 습관들이고 교육시켜야 한다. 하지만 빈자가 부유해져서 덕을 갖는 데 필요한 여가를 확보해도 곧바로 덕을 갖지 못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덕을 습관들이고 교육받아야 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성, 습관, 이성을 통해 좋고 훌륭해지는데, 본성은 타고나지만 습관과 이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성에 따라 살면 본성과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1332a38~b8). 이성과 관련된 추론과 헤아림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므로(1334b24~25)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고 이성에 따라 사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덕을 습관들이고 교육받아서 덕을 갖게 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혼합된 집단이 어느 정도 덕을 가져서 정체가 오래 보존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빈자는 덕을 습관들이고 교육받을 여가를 지닐 만큼 부유해져야 하고, 부자는 도시국가의 주도 하에 덕을 습관들이고 교육받아야 하며, 어렸을 때부터 덕을 습관들이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을 요한다. 그래서 덕은 장기간에 걸쳐 정체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정체 보존이 잘 되는 정체와 잘 안 되는 정체에서 이루어지는 지배는

서로 다른데, 정체 보존이 잘 되는 정체, 즉 혼합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정체 보존이 잘 안 되는 정체에서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의 정체 대부분은 민주정 아니면 과두정이어서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에서 지배자는 사익을 추구하고 피지배자는 정체 유지를 원하지 않아서 내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체 보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체 보존이 잘 되고 좋은 정체, 즉 혼합 정체가 되려면 주인의 지배를 벗어나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정치가의 지배가 정체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IV부에서 논의한다.

IV.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

1.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1.1. 정체의 변천에 따른 지배의 변화

앞서 언급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3권 15장에서 정체의 변천사를 제시한다. 도시국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왕이 지배했는데, 덕에서 매우 두드러진 사람이 드물게 발견되고 작은 도시국가에서 왕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덕의 측면에서 왕과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은 왕이 지배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귀족정¹⁵⁵⁾을 세웠다. 이후에 그들이 더 나빠져서 공금으로 부유해지자 부를 명예로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두정이 생겼다. 과두정은 참주정으로 바뀌었고, 참주정은 민주정으로 바뀌었는데, 소수의 수중에 부가 집중됨으로써 강력해진 다수가 반란을 일으켜서 민주정을 세웠기 때문이다(1286b8~20). 그의 말대로 정체는 왕정→귀족정→과두정→참주정→민주정의 순서로 바뀌었다.

도시국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정체는 왕정이었다. 도시국가가 수립되기 전에 사람들은 여러 가정으로 구성된 마을에서 살았는데, 마을을 최고 연장자가 지배했다. 이후에 여러 마을로 구성된 도시국가가 발생했는데, 최고 연장자가 마을을 지배하듯이 왕이 도시국가를 지배했다(1252b15~28). 왕은 나이가 많다는 점과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 점에서 피지배자보다 우월해서, 왕은 죽을 때까지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지배를 받았다. 이처럼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우월해서 왕의 지배가 이루어졌다. 이후에 왕과 비슷한 덕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자 왕의 지배는 용납되지 않았다. 왕이 피지배자보다 우월하면 왕의 지배는 자연스럽지만, 왕이 자신과 비슷한 덕을 가진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항상 지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덕에 있어 왕과 동등한 이들은 왕

155) 왕정 다음에 귀족정이 수립되었다고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 107 참고.

혼자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서 더 이상 왕 혼자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직접 지배했다. 유덕자가 혼자 지배하면 왕정이고, 일인보다 많은 소수가 지배하면 귀족정이기 때문에(1279a32~35), 정체는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바뀌었다. 왕정에서 왕이 지배하고 나머지 사람이 지배받는 반면에, 귀족정에서 소수의 유덕자가 지배하고 나머지 사람이 지배받는데, 덕을 지닌 자가 덕을 결여한 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왕정에서 지배자가 항상 지배하고 피지배자가 항상 지배받듯이, 귀족정에서도 지배자가 항상 지배하고 피지배자가 항상 지배받는다. 점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는 왕정과 귀족정에서 동일하다. 그래서 귀족정¹⁵⁶⁾에서도 우월한 사람이 항상 지배하고 열등한 사람이 항상 지배받는 왕의 지배¹⁵⁷⁾가 이루어졌다.

귀족정의 지배자인 유덕자가 더 나빠지고¹⁵⁸⁾ 공금으로 부유해지자 부를 명예로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바뀌었다. 과두정에서 부자가 지배하고, 빈자가 지배받는다. 부자는 부를 명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부를 갖고자 하여 부는 점점 소수에게 집중되다가 결국 일인에게 집중되는데, 최대한 많은 부를 지닌 일인은 권력을 장악한 다음, 참주로서 지배하여 과두정은 참주정으로 바뀌었다. 참주정에서 일인인 참주가 지배하고, 참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은 부자든 빈자든 상관없이 참주의 지배를 받았다. 빈자인 다수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강력해졌는데, 참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민주정을 세웠다. 민주정에서 빈자는 지배하고, 부자는 지배받는다. 그런데 과두정, 참주정, 민주정은 일탈되고 나쁜 정체이며, 공익을 위한 정체가 아니라 지배

156)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귀족정은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귀족정과 다르다. 전자는 전통적인 귀족정인 반면, 후자는 최선 정체인 귀족정이다.

157) 왕의 지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일인인 왕이 항상 지배하는 것을 뜻하지만, 넓게 말하면 우월한 사람이 항상 열등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가정에서 성인인 아버지가 미성년인 아이를 지배하는 것도 왕의 지배이듯이(1259a39~b1), 도시국가에서 우월한 유덕자가 열등한 비유덕자를 지배하는 것도 왕의 지배이다.

158) *NE*에서 도시국가에 속하는 것들을 가치에 맞지 않게 배분하는 지배자의 악덕 때문에 귀족정이 과두정으로 바뀐다고 말해지는데(1260b12~13), 덕 대신에 부를 추구해서 더 나빠진 유덕자는 완전한 유덕자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덕에 근거하여 공직자를 선출하다가 부에 근거하여 공직자를 선출해서 귀족정에서 과두정으로 일탈한 카르타고 정체에서 일어났다(1273a21~b1).

자의 이익을 위한 정체이다(1279b4~10). 과두정에서 지배자인 부자가, 참주정에서 지배자인 참주가, 민주정에서 지배자인 빈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배한다. 이러한 지배는 앞서 말한 왕의 지배와 대비되는데,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지배자가 공익을 위해 지배하기 때문이다(1279a33~35). 과두정, 참주정, 민주정에서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는 것은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예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데, 주인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예를 지배하고, 부수적으로 노예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기 때문이다(1278b34~36). 주인은 자유인이고 노예는 비자유인인데, 자유인이 비자유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를 지배하고 노예는 주인의 지배를 받는다. 영혼과 신체 사이에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열등한 신체가 우월한 영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로운 것처럼(1254b4~8), 열등한 노예는 우월한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로우며, 우월한 자유인이 열등한 비자유인을 지배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이롭다. 반면에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는 과두정, 참주정, 민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인의 지배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은데, 자유인이 자유인을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정체에 노예와 같은 지배받는 비자유인도 있지만, 지배받는 자유인도 있다. 비자유인과 달리 자유인에게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당대에 있었던 정체는 대부분 민주정이나 과두정이었다. 도시국가에서 서로 대립하는 빈자와 부자 중에 한 쪽이 우세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체를 세웠기 때문이다(1296a22~27). 참주정은 민주정이나 과두정이 극단에 치달을 때 발생하는데(1296a2~3), 민주정에서 빈자를 조종하는 민중선동가도 참주가 되기를 희망하고, 과두정을 주도하는 전제정 주의자(dynastēs)도 참주가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1308a22~23). 그는 자기 당대에 왕정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반면 참주정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다가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월등하게 우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도 왕의 지배를 자발적으로 견디려 하지 않아서 왕정은 생길 수 없지만, 참주는 기만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피지배자

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1313a3~16). 그의 당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정체는 민주정이나 과두정이고, 몇몇 참주정도 있었는데, 이들 정체에서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졌다. 이는 도시국가 초창기에 정체가 왕정이나 귀족정이었을 때 왕의 지배가 이루어진 것과 대비된다.

1.2. 주인의 지배에서 정치가의 지배로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¹⁵⁹)에서 자유인 피지배자는 어떤 손해를 입게 되는가? 민주정에서 모든 자유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부자와 빈자 모두 지배에 참여하지만, 부자와 빈자 모두가 아니라 빈자가 민주정을 주도한다. 법이 아니라 결의가 정체를 주도하는데(1292a23~24), 결의는 민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채택된다. 민주정에서 부자는 소수이고 빈자는 다수라서 다수인 빈자의 의견이 결의로 채택되고, 소수인 부자의 의견은 무시된다. 민회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판결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민주정에서 부자는 정체에 참여하지만 그의 의사가 심의나 재판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는 형식적으로 정체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체에 참여하지 못한다. 부자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돌보느라 민회나 법정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회나 법정이 자주 열리게 되면 재산을 돌보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다수의 빈자는 민회와 법정에 참석하여 정체를 쉽게 주도한다(1293a7~10). 민주정에서 민중선동가는 빈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도록 빈자를 설득하고 빈자의 의견을 주도해서 빈자를 선동하며(1292a25~28), 빈자를 부추겨서 부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하거나 부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게 만들고, 빈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자의 재산을 재분배하거나 부자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중상무고를 한다(1304b22~23, 35~38, 1305a3~7). 민중선동가의 선동대로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민회에서 결의가 채택되면, 부자는 중상무고를 당하여 유죄

159)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은 모든 종류의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이 아니라, 각 정체의 극단적인 종류인 네 번째 민주정, 네 번째 과두정, 세 번째 참주정을 말한다.

판결이나 채택된 결의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방당한다. 민주정에서 이런 일이 부자에게 항상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민주정에서 부자는 민회와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재산 몰수와 추방 등을 당할 수 있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부자가 민회와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어도 자신의 재산을 계속 돌보고 유지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은 부를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자는 자기가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회와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어서 결의나 판결에 의해 언제든지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거나 살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민회, 법정에 참석하거나 공직을 맡는 자에게 수당을 주는 민주정에서 수당을 줄 돈이 부족하면 수당 지급을 위해 부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부자의 재산이 몰수되기 때문에(1320a17~22), 민주정이 지속되는 한 부자는 언제든지 부를 빼앗기거나 몰수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과두정에서 부자는 지배하고 빈자는 지배받는데, 빈자는 명예보다 이득을 더 욕망하기 때문에, 공직으로부터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면 공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즐긴다. 과거에 빈자는 일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거나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과두정과 참주정조차 견뎌냈다(1318b14~20). 빈자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가난을 면하거나 부유해지는 것이어서, 빈자는 더 많은 부를 갖는 것을 정체에 참여하거나 공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일을 방해받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는 한 지배받는 것을 용인하지만, 손해를 보면 지배받는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빈자는 공직자가 공공 재산을 훔친다고 생각하면 이에 분개하고, 명예를 공유하지 못한 것과 이득을 공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1308b36~38). 공직을 맡은 부자가 공직에서 이익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익을 추구하는 지배자인 부자에 의해 빈자는 지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부자가 이익을 보는 만큼 손해를 본다. 게다가 과두정에서 부자는 공직뿐만 아니라 심의와 재판도 독점하기에 심의와 재판은 부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부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심의하고 재판하면, 빈자는 지배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손해를 보게 되는데, 부자

의 심의와 재판에 의해 빈자는 재산을 빼앗기고 몰수당할 수 있다(1281a25~26).

참주정에서 참주를 제외한 부자와 빈자는 지배받는데, 참주는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배한다. 자유인은 참주의 지배를 자발적으로 견디려하지 않기 때문에, 참주는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지배한다(1295a20~23). 참주는 돈에 지나치게 탐욕을 부려서(1311a5~6) 최대한 많은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며, 부자의 부를 빼앗기 위해 부자를 추방하고 파멸시키려 하고(1311a15~18), 부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몇 년 내에 모든 재산이 세금으로 다 바쳐지게 한다(1313b26~28). 그 다음으로 참주는 빈자를 불신해서 빈자의 무기¹⁶⁰)를 빼앗고 빈자를 나쁘게 대하며 도시 바깥으로 내쫓아서 흩어져 살게 하고(1311a12~14), 피지배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빈자가 일상적인 일에 사로잡혀 음모를 꾸밀 여가가 없게 만든다(1313b18~21). 부자는 참주에 의해 재산을 빼앗기거나 추방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고, 빈자는 참주에 의해 계속 가난하게 살게 되고, 불의를 당해도 이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계속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에서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지배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지배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 주인의 지배를 받는 자유인은 손해를 입기 때문에 지배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내분을 일으켜서 정체를 바꾸려 한다. Ⅲ.3.2.에서 논의했듯이, 내분에서 자유로운 정체는 안정되고 좋은 반면, 내분이 일어나기 쉬운 정체는 불안정하고 나쁘기 때문에 정체는 내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내분이 일어나기 쉬운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아울러 이들 정체에서 이루어지는 주인의 지배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어떤 지배가 추구될 수 있는가? 우선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왕의 지배가 추구될 수 있다. 지배자의 이익이 추구되는 주인의 지배와 달리 왕의 지배에서는 공익이 추구된다. 왕

160) 무기를 빼앗길 수 있는 빈자는 스스로 무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무장보병, 즉 중산층이 갖고 있는 만큼의 부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어서, 농부와 같은 빈자는 빈자로도 규정될 수 있고 중산층으로도 규정될 수 있다.

의 지배는 열등한 자유인에 대한 우월한 자유인의 지배이고, 정치가의 지배는 자유인의 공동체인 도시국가(1279a21)에서 서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 대한 지배이다. 도시국가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서로 동등한 자유인 중 일부는 지배하고 일부는 지배받아야 하는데, 동일한 사람이 항상 지배하거나 항상 지배받는 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들은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교대 지배가 이루어질 때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피지배자였다가 지배자가 된 사람은 지배자였다가 피지배자가 된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1279a9~13),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이익 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므로, 정치가의 지배에서 공익이 추구된다. 따라서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왕의 지배나 정치가의 지배가 추구되어야 하는데, 서로 동등한 자유인으로 구성된 도시국가에서 서로 동등한 자유인에 대한 지배인 정치가의 지배가 추구될 수 있다.

2. 정치가의 지배 조건

2.1. 교대 지배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 즉 교대 지배, 법의 지배, 다수의 지배, 공익 추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선 각각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 번째로 정치가의 지배는 교대 지배를 필요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의 지배가 대부분의 경우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교대로 지배할 때 이루어진다고 여긴다(1259b4~5). 서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도시국가에서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서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는 없다. 서로 동등한 자유인으로 도시국가가 구성된 경우에도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자유인은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가의 지배는 동등한 자유인이 동등한 자유인을 지배할 때 이루어지는데,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정치가의 지배는 교대 지배를 필요로 한다.

교대 지배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이루어지는데, 민주정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여겨진다. 민주정에서 모든 자유인은 시민이기에 가장 많은 자유인이 지배에 참여하는데, 공직의 수가 시민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항상 공직을 맡을 수는 없고 공직을 교대로 맡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교대 지배는 민주정의 원리인 자유의 특징 중 하나이자 민주정의 제도 중 하나로 제시된다(1317b2~3, 20). 일정 기간마다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면, 시민은 여러 차례 지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교대 지배는 이와 다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기병대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병대 지휘관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지배받은 후에 지배할 수 있다(1277b8~11). 기병대 지휘관이 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병대 지휘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물러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처음에 지배받다가 나중에 지배하고 어느 시점에 은퇴하는 방식으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천적 지혜를 결여한 청년은 지배받고 실천적 지혜를 지녀서 유덕한 장년은 지배하며 노년이 되면 은퇴하게 되는데, 이처럼 교대 지배는 세대 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교대 지배의 방식에는 두 가지, 즉 일정 기간마다 이루어지는 방식과 세대 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다.

세대 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가 일정 기간마다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보다 더 좋아서 정치가의 지배를 더 좋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대 지배는 기본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등함을 전제하는데,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자유를 지닌 점에서 또는 적당한 부를 지닌 점에서 동등하면 일정 기간마다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가 이루어진다. 동등한 자유인 또는 적당한 부를 지닌 동등한 중산층은 유덕자가 아닌 한에서 완전한 덕을 지니지 않는다. 완전한 덕을 지니지 않은 지배자도 공익을 추구하여 피지

배자가 공익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지만, 완전한 덕을 지닌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할 때 피지배자는 더 많은 공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은 실천적 지혜를 결여해서 완전한 덕을 지니지 못하지만, 장년이 되면 실천적 지혜를 갖게 되어 완전한 덕을 지니게 된다. 실천적 지혜의 측면에서 장년은 지배하고 청년은 지배받는데, 동일한 사람이 청년일 때 지배받다가 장년이 되면 지배하고 노년이 되면 지배에서 물러나므로 세대 간에 걸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진다. 청년과 장년은 실천적 지혜의 유무에서 차이가 나지만, 장차 유덕자가 되는 청년은 완전한 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년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피지배자가 더 많은 공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유덕자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 즉 세대 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가 일정 기간마다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보다 더 좋고, 나아가 후자보다 전자가 이루어질 때 정치가의 지배도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¹⁶¹⁾

이처럼 교대 지배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내를 지배하는 남편의 지배를 정치가의 지배라고 말하는데(1259a40~b1),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한 자유인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이의 지배가 정치가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남성이 여정보

161)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공동체에서 동일한 사람이 항상 지배하는 것이 더 좋지만, 모두가 본성상 동등해서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교대로 지배해야 한다고 말한다(1261a34~b4). 그의 말에 따르면,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우월해서 항상 지배할 때 이루어지는 왕의 지배가 최선이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등해서 교대로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치가의 지배가 차선이다. 이는 신과 영웅처럼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훨씬 우월하면 그가 항상 지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대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다(1332b12~27). 신적 수준의 덕을 지닌 지배자가 인간적 수준의 덕을 지닌 지배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덕을 지니기 때문에, 전자가 지배할 때 이루어지는 왕의 지배가 최선이고, 후자가 지배할 때 이루어지는 정치가의 지배가 차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가의 지배는 교대 지배를 필요로 하는데, 일정 기간마다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등함만을 전제하는 반면, 세대 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는 장년과 청년의 동등함뿐만 아니라 장년과 청년의 우열도 전제한다. 후자의 경우에 항상 동일한 사람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월한 유덕자인 장년이 열등한 예비 유덕자인 청년을 지배하면서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대 지배에는 우월한 자유인이 열등한 자유인을 지배하는 왕의 지배의 요소가 들어있다. 앞서 말해진 것처럼 왕의 지배가 정치가의 지배보다 더 좋으면, 왕의 지배의 요소를 갖고 있는 세대 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가 그렇지 않은 교대 지배, 즉 일정 기간마다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다 본성상 이끌고 나가기에 더 적합해서(1259b1~2) 남편이 항상 아내를 지배한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가 정치가의 지배라면,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빈자가 지배에 참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에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배받는 빈자도 지배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등한 자유인이지만, 생계 때문에 지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빈자는 손해를 입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지배받는다. 빈자는 지배받지만 지배자와 동등하며, 지배에 참여해도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면 지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교대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대 지배가 필요하지만, 지배자와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배받는 빈자의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지배받는 빈자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지배에 참여하여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가의 지배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2.2. 법의 지배

두 번째로 정치가의 지배는 법의 지배를 필요로 한다. Ⅲ.2.1.4.에서 논의된 법의 지배는 인간의 지배와 대비되는데, 지배자가 법에 따라 지배하는 것이 법의 지배이고, 지배자가 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지배하는 것이 인간의 지배이다. 법의 지배와 인간의 지배 가운데 더 이로운 것에 따른 지배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자의 지배와 최선의 법의 지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로운지를 논의했다(1286a1~9). 법의 지배를 옹호하는 입장과 인간의 지배를 옹호하는 입장이 있는데, 후자는 법의 약점을 내세워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전자는 인간 지배자의

약점을 내세워서 법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법이 보편적인 것만을 말할 뿐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법의 약점이다(1286a9~11). 개별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배자는 이에 대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가 법에 기술되어 있지 않으면 법은 이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배가 더 좋다. 반면에 감정적인 요소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이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데, 감정적인 요소가 법에 붙어 있지 않지만 인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1286a17~20) 법의 지배가 더 좋다. 감정적인 요소는 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 판단하게 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할 수 있다(1286a33~35). 이처럼 인간의 지배를 옹호하는 입장도 일리가 있고, 법의 지배를 옹호하는 입장도 일리가 있어서 법의 지배와 인간의 지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로운지를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법의 지배를 옹호하는 입장은 법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법이 주도하고, 법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 예컨대 입법이 불가능해서 심의가 요구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인간의 판단을 인정하되 법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의 판단자가 일인이 아니라 다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의 판단을 주도하는 공직자는 법에 의해 교육을 받으면 잘 판단하게 되는데, 판단자가 많을수록 잘 판단하기 때문이다(1287b15~29). 이런 입장의 주장이 옳으면, 법의 지배는 법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보편적인 것에 관해 법에 따라 지배하고, 법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개별적인 상황에 관해 법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에 따라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법의 지배는 보편적인 것과 관련해서 인간의 지배와 대비되고, 개별적인 상황에 관한 판단에서 다수의 지배를 뒷받침하여 일인의 지배와 대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3권 15~16장에서 법의 지배와 인간의 지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로운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일인인 왕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예외인 경우도 인정한다. 그는 비슷하고 동등한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국가에서 일인, 즉 왕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이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하면서도(1288a1~5)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덕을 지닌 사람이 영원한 왕으로서 지배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에게 기꺼이 복종하고 지배받는 것을 예외로 인정한다(1284b28~34). 도시국가의 구성원이 비슷하고 동등할 경우에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이 정의롭다(1287a10~18). 교대 지배는 제도이자 법이기 때문에(1287a18),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 교대 지배가 이루어진다. 교대 지배와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 서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적합한 지배인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덕을 지닌 사람은 인간들 중에 신과 같은 사람인데, 그가 열등한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1284a9~11). 그는 영원한 왕으로서 혼자 지배하는 것이 적합하고, 법에 따라 지배하지 않으며, 출생과 능력에서 동등한 사람에 대해 있어야 하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1284a12~15), 자신의 바람(1287a10)에 따라 지배한다. 왕의 독점 지배와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 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도시국가의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등하면 교대 지배, 정치가의 지배,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과 같은 왕처럼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덕을 지닌 사람이 지배하면 영구 지배, 왕의 지배,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⁶²⁾

162)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왕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에도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다섯 종류의 왕정 가운데 첫 번째~네 번째 왕정에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 왕정에서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왕정의 종류에 따라 정치가의 지배나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왕정인 스파르타 왕정에서 왕은 모든 것을 주도하지 않고 전쟁과 신에 관한 사안만 주도하며(1285a4~7), 왕이 주도하지 않는 사안을 원로나 감독관이 주도한다. 첫 번째 왕정에서 왕이 지배하는 측면에서는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왕과 다른 공직자가 사안을 나누어서 주도하는 측면에서는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은 원로가 될 수 있고, 민중은 감독관이 될 수 있는 스파르타에서 모든 시민이 지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왕정인 영웅시대 왕정에서 도시국가를 최초로 세운 왕은 많은 사안을 주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권한을 일부 포기하거나 대중에 의해 일부 권한을 박탈당해서 종교적인 제사 또는 국경 밖의 전쟁의 지휘권만 주도하게 되었다(1285b3~19). 네 번째 왕정에서도 왕이 모든 사안을 주도하지 않고, 왕과 다른 공직자가 사안을 나누어서 주도하기에, 첫 번째 왕정처럼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면서도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왕정은 왕정이면서 동시에 참주정이다. 두 번째 왕정은 첫 번째 참주정이고, 세 번째 왕정은 두 번째 참주정인데, 법에 따라 지배가 이루어지고 피지배자가 왕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측면에서는 왕정이고, 일인 지배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인처럼 지배하는 측면에서는 참주정이다

인간의 지배는 왕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법이 지배하는 온건 민주정, 온건 과두정과 달리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네 번째 민주정, 네 번째 과두정, 참주정¹⁶³)에서 인간이 지배하기 때문이다(1292a2, 5~7, b6~7, 26~27, 37~38, 40~41, 1293a9~10, 16~17, 25~26, 28~30, 32~33, 1295a20~23). IV.1.2.에서 말했듯이, 지배자가 자유인 피지배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 정체에서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우선 네 번째 민주정에서 결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법이 지배하지 않으며, 다수인 빈자가 주도해서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민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결의로 채택되는데, 빈자가 다수라서 빈자의 의견이 결의로 채택된다. 빈자가 결의를 채택할 때 민중선동가는 빈자의 의견을 주도하고 자기 말에 따르게끔 빈자를 설득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1292a4~28). 그 다음으로 네 번째 과두정에서 법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가 주도해서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이 정체의 지배자는 법 없이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서 법에 따라 지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지배한다. 그 다음으로 참주정에서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참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배를 자발적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한다(1295a20~23). 이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비그리스인 참주정, 독재관직 참주정에서 피지배자가 자발적으로 참주의 지배를 받는 것과 대비되며(1295a16~17), 이로부

(1285a16~b3, 1295a14~17).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왕정에서 왕이 지배해서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참주가 지배해서 주인의 지배도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왕정에서 서로 반대되는 법의 지배와 인간의 지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상해 보인다. 두 번째 왕정의 피지배자는 비희랍인인데(1285a17~18), 비희랍인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희랍인에게 주인의 지배가 적합하고, 세 번째 왕정의 피지배자는 희랍인이지만, 도시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출된 독재관이 구애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지배할 수 있도록 피지배자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독재관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일시적으로 비자유인처럼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유인이 아닌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주인의 지배가 적합하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왕정에서 주인의 지배,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법의 지배는 주로 서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두 번째 왕정에서 법에 따라 왕이 되거나 세 번째 왕정에서 법에 따라 독재관이 임명되어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독재관에 있는 식으로 이들 왕정에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왕정에서 법의 지배와 인간의 지배는 문제없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163) 엄밀히 말하면 세 번째 참주정인데, 편의상 인용 부호를 붙여 ‘참주정’으로 호칭한다.

터 참주정에서 법의 지배가 아니라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네 번째 민주정, 네 번째 과두정, 참주정에서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주인의 지배로 귀결되는 인간의 지배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도시국가의 구성원이 서로 동등할 때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우선 유덕자가 될 수 있는 동등한 사람으로 구성된 7 권의 최선 정체에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에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들 정체에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지배자가 혼합된 정체인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에서 혼합은 제도를 통해 보장되는데, 법은 일종의 제도¹⁶⁴)라서(1287a18, 1326a29~30) 혼합은 법을 통해 보장된다. II.3.3.3.4.에서 논의했듯이, 시민정을 형성하는 세 가지 혼합 기준은 민주정의 법과 과두정의 법으로부터 나오는데, 두 가지 법의 혼합을 통해 시민정의 법이 형성되면 이 법에 따라 빈자와 부자가 혼합된다.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면 빈자와 부자는 제정된 법에 맞게 정체에 참여할 수 있는데, 빈자와 부자는 법에 명시된 대로 정체에 참여할 뿐 사익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공직을 자기 뜻대로 맡을 수 없어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배자가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지배하면 혼자 지배하기 위해 지배자의 혼합을 거부하게 되고, 지배자가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가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우선 온건 민주정에서 법이 지배하는데(1291b39~1292a3, 1292b25~27, 35~41), 온건 민주정을 주도하는 빈자는 일을 하는 한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공직에 참여할 여가를 결여해서 필요한 경우에

164) 법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려 하지 않으면, 교대 지배를 보장하는 제도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Yack(1993), p. 177.

만 민회를 소집하고 공직자가 맡는 사안은 법에 맡기기 때문에 (1292b27~29), 온건 민주정에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빈자와 부자가 도시국가의 사안을 나눠 맡아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온건 과두정에서 지배자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 수 때문에 법이 지배한다(1292a39~b5, 1293a12~30). 첫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는 부자는 신경 쓰지 않고 여가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도시국가의 부양을 받을 만큼 재산을 적게 갖고 있지도 않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첫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는 부자는 자기가 아니라 법이 지배할 것을 요구한다(1293a17~20). 두 번째, 세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는 부자도 첫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는 부자보다 수는 적지만 법이 지배할 것을 요구해서 이 과두정에서도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온건 과두정에서 일부 빈자는 필수 공직을 맡을 수 있기에,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온건 과두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에서도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의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지면, 정치가의 지배가 아니라 왕의 지배 또는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정치가의 지배를 위해 법의 지배가 필요한데, 보편적인 원칙과 관련해서는 법을 따라야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인간의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의 지배는 다수의 지배를 필요로 해서 법의 지배와 다수의 지배가 함께 이루어져야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정체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므로 (1289a13~14) 정체의 특성이 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지배자가 정체의 특성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배자의 특성이 법에 반영된다. 그러면 지배자가 좋을수록 법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유덕자가 지배하는 정체의 법이 가장 좋고, 유덕자에 가까운 중산층 또는 빈자와 부자가 잘 혼합해서 지배하는 정체의 법이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상대적으로 나쁜 빈자나 나쁜 부자가 주도하는 정체, 즉 온건 민주정 또는 온건 과두정의 법은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이 좋을수록 정치가의 지배가 잘 이루어지면, 지배

자가 법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배자가 좋을수록 정치가의 지배가 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정치가의 지배를 위해 법의 지배가 필요한데, 법의 지배는 다수의 지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지배자의 특성이 법에 반영되기에 궁극적으로 지배자가 누구인지가 정치가의 지배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2.3. 다수의 지배

세 번째로 정치가의 지배는 집단의 지배를 필요로 한다. 앞서 말했듯이, 법은 보편적인 규정에 관한 사안은 주도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관한 사안은 주도할 수 없어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황과 관련된 심의나 재판을 일인과 다수 중 누가 해야 하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일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일인이 판단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일인은 신과 같은 사람으로서 보편적인 규정에 관해서도 법에 따라 지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인의 지배는 법의 지배와 무관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다수의 판단은 개별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보편적인 규정에 관해서는 법의 지배에 따르기 때문에 다수의 지배는 법의 지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지배가 법의 지배와 함께 이루어질 때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수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치가의 지배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네 번째 민주정에서 모든 자유인이 민회와 법정에 참석하기에 다수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민회와 법정에 참석한 자유인 중 빈자가 부자보다 더 많아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빈자의 의사대로 지배가 이루어진다. 다수인 빈자는 법에 따라 지배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배하기 때문에 법의 지배가 아니라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져서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려면 법의 지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지배는 법의 지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배자의 특성이 법에 반영된 것처럼 다수의 성격도 지배자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수를 이루는 지배자가 좋을수록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Ⅲ.2.1.3.에서 실천적 지혜를 지닌 유덕자가 이에 대한 판단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집단을 이룬 다수는 유덕자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수를 이루는 지배자가 유덕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배자의 혼합이 잘 이루어질수록 이에 대한 판단이 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권 14장에서 예컨대 민주정과 과두정의 심의 방식을 제시하고 나서 이의 개선 방식을 제시하는데, 이는 민주정과 과두정의 심의 방식의 혼합이다. 빈자와 부자가 잘 혼합되어야 심의, 더 나아가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정치가의 지배를 위해 다수의 지배가 필요한데, 다수의 지배는 법의 지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다수의 성격이 지배자에 좌우되기에 궁극적으로 지배자가 누구인지가 정치가의 지배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2.4. 공익 추구

네 번째로 정치가의 지배는 공익 추구를 필요로 한다. 주인이 노예를 지배할 때처럼 비자유인을 지배하는 자유인은 일차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지만, 가장이 아이와 아내를 지배할 때처럼 자유인을 지배하는 자유인은 일차적으로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이 추구되는 지배에는 왕의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가 있는데,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는 왕의 지배이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라고 말해진다(1259a39~b1). 가장이 아내와 아이보다 우월해서 항상 지배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지배는 열등한 자에 대한 우월한 자의 지배, 즉 왕의 지배라고 말해질 수 있지만, 성인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성인인 아버지와 미성년인 아이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가 정치가의 지배라고 말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왕의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 모두 공익이 추

구되는 지배이지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의 측면에서 열등한 자에 대한 우월한 자의 지배는 왕의 지배이고, 동등한 자에 대한 동등한 자의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다. 동등한 자유인은 서로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질 때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빈자와 같은 일부 자유인이 지배에 참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다른 동등한 자유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경우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의 지배가 아니라 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해야 하는가?

생계 때문에 지배에 참여하기를 주저할 정도로 부유하지 않은데 지배에 참여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지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생계 활동에 종사한다. 빈자는 아무리 참여가 보장되어 있어도 참여 수당을 받지 못하면 지배에 참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배받는데, 지배자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빈자는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지배받지만, 손해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자발적으로 지배받으려 하지 않는다. 빈자는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여 공익의 혜택을 받을 때 자발적으로 지배받지, 지배자가 사익을 추구하면 더 이상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배받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빈자가 지배에 참여하지 않아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여 빈자가 자발적으로 지배받으면, 공익이 추구되면서 동등한 자유인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공익이 추구되는 한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배에 참여하지 않는 피지배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지배받는데, 이 때 성취되는 공익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경우에도 공익이 성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익은 정체에 불만을 갖지 않고 만족해도 성취될 수 있다. 공익은 덕과 무관하게 성취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덕이 발휘되어 성취될 수 있다. Ⅲ.2.1.2.에서 논의했듯이 덕은 도

시국가의 최고 수립 목적인 잘 삶에 도달하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데, II.3.2.2.에서 논의했듯이 지배자 집단이 덕을 더 많이 가진 정체에서 더 많은 공익이 성취될 수 있다. 시민정처럼 중무장보병이 군사적 덕을 발휘할 수 있는 정체보다 왕정과 귀족정처럼 유덕자가 완전한 덕을 발휘할 수 있는 정체에서 더 많은 공익이 성취될 수 있다. 결국 공익은 덕과 무관하게 성취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덕에 좌우되기 때문에, 지배자의 혼합을 통해 공익이 추구되어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덕의 발휘를 통해 공익이 추구되어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덕과 무관하게 이익, 안전 등을 위해 공익이 추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행복, 잘 삶을 위해 공익이 추구되는 것이 중요하다. 덕이 발휘될 때 행복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덕자가 지배하지 않아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배자가 유덕자가 가까울수록 정치가의 지배는 더 잘 이루어지며, 유덕자가 지배할 때 정치가의 지배는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유덕자가 지배하는 경우에 동등한 유덕자 사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덕한 신과 같은 왕이 피지배자보다 우월해서 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월한 자유인이 열등한 자유인을 지배하면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동등한 자유인이 동등한 자유인을 지배하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2.5. 네 가지 조건과 정치가의 지배의 관계

지금까지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조건, 즉 교대 지배, 법의 지배, 다수의 지배, 공익 추구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이제부터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를 살펴본다. 동등한 자유인이 동등한 자유인을 지배할 때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동등한 자유인은 서로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이 합당하기에 교대 지배가 정치가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빈자처럼 지배자와

동등한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지배받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치가의 지배를 위해 반드시 교대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다음으로 정치가의 지배를 위해 법의 지배와 다수의 지배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조건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인 원칙에 관해서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면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배자가 누구인지가 법과 다수가 무엇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정치가의 지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배자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다. 그 다음으로 정치가의 지배를 위해 공익 추구가 필요한데, 피지배자가 경제적 이익이나 안전 등을 가지도록 공익이 추구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살고 행복해지도록 공익이 추구될 수 있다. 지배자가 덕을 결여해도 공익은 추구될 수 있지만, 유덕자가 지배할 때 가장 많은 공익이 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자가 유덕하지 않아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배자가 유덕해야 정치가의 지배는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가의 지배는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배자가 유덕자에 가까울수록 더 잘 이루어지기에, 정치가의 지배에 필요한 네 가지 조건 중에서 공익 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배자가 유덕자에 가까울수록 지배할 때 더 많은 공익을 추구하는데, 지배자가 유덕자에 가까워서 더 좋을수록 법도 더 좋고 다수도 더 좋아서 법의 지배와 다수의 지배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유덕자의 지배가 정치가의 지배는 아닌데,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우월한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가 아니라 왕의 지배이기 때문이다. 유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등할 때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 동등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배가 정치가의 지배이기 때문에, 정치가의 지배에 교대 지배가 요구되지만, 앞서 말했듯이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 교대 지배는 오직 예외적으로만 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 교대 지배도 이루어져야 한다. 빈자처럼 지배자와 동등한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지배받는 일은 빈자가 지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계 때문에 지배에 참여하기가 곤란해서 일어났다. 빈자가 생계에 얽매이지 않고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자발적으로 지배만 받지 않고 지배에 참여하여 교대로 지배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교대 지배를 통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빈자의 경우처럼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대 지배 없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법의 지배와 다수의 지배가 함께 이루어지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지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가의 지배에서 공익 추구가 가장 중요하며,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교대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치가의 지배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공익 추구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교대 지배 없이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

3.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

3.1.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민주정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우선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교대 지배는 전형적으로 민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겨진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민주정의 시민은 동등한 자유인이어서, 동등한 자유인으로 구성된 민주정에서 교

대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등한 자유인으로 구성된 민주정을 ‘첫 번째 민주정’(1291b30)¹⁶⁵⁾이라고 부른다. 이 민주정에서 부자와 빈자는 자유인인 한에서 서로 동등하기에, 동등한 부자와 빈자 사이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빈자가 다수이고 다수의 의견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정체는 민주정이다(1291b37~38).

다수의 빈자가 주도해도 ‘첫 번째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민주정’에서 부자는 시민이기에 공직을 맡을 수 있고 민회와 법정에 참석할 수 있지만, 다수의 빈자가 정체를 주도하는 한, 민회와 법정에서 다수인 빈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의가 채택되고 판결이 이루어질 뿐, 소수인 부자의 의견은 결의와 판결에 반영되지 않는다. 도시국가의 주요 부분인 부자와 빈자는 서로 구분되고 반대되는 부분이기에(1291b8~11) 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빈자의 의견과 부자의 의견은 서로 다르기 십상이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내려지기에 다수인 빈자의 의사만 반영될 뿐 소수인 부자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아서, 지배는 빈자와 부자 모두를 위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빈자를 위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민주정’에서 정체에 참여하는 부자는 자신의 의견이 지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반면, 심의와 재판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빈자만이 지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첫 번째 민주정’에서 부자는 형식적으로는 빈자와 함께 지배하고 지배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하지 못하고,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지배한다. 결국 실질적으로 빈자의 사익이 추구되는 ‘첫 번째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아니라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정의 종류 중에 동등한 자유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첫 번째 민주정’은 좋은 민주정으로 여겨지는 반면, 빈자가 민중선동가의 선동을 받아 주도하고 부자가 정체 참여를 꺼리게 되는 네 번째 민주정은 나쁜 민주정으로 여겨진다. 두 가지 정체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빈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지배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체는 다르지 않다고 말할

165) II.3.3.3.1.에서 논의했듯이, ‘첫 번째 민주정’은 첫 번째 민주정과 다르다.

수 있다. 네 번째 민주정에 있는 제도, 즉 민회가 모든 사안이나 매우 중요한 사안을 주도하는 제도와 공직자, 민회의원, 배심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1293a4~6, 1299b38~1300a3, 1317b28~38) 덕분에 빈자는 정체를 주도할 수 있다. 민회가 평의회를 무시하고서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때 빈자는 민중선동가의 선동을 받아 심의하여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결의를 채택한다. 그 다음으로 빈자는 공직을 맡든 민회나 법정에 참석하든 수당을 받으면 생계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체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자기 뜻대로 공직을 수행하고 심의와 재판을 한다. ‘첫 번째 민주정’에서도 모든 자유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려면 정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공직자, 민회의원, 배심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통해 모든 자유인은 정체 참여에 필요한 여가를 확보할 수 있어서, 네 번째 민주정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민주정’에도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곳에서 평의회는 권력을 빼앗기고 민회가 모든 사안이나 매우 중요한 사안을 주도하게 되므로(1317b28~32), 민회가 모든 사안이나 매우 중요한 사안을 주도하는 제도 또한 ‘첫 번째 민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민주정’에서도 빈자는 이러한 제도 덕분에 정체를 주도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지배한다. 따라서 ‘첫 번째 민주정’과 네 번째 민주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¹⁶⁶⁾ 이들 정체에서 동등한 자유인인 부자와 빈자 모두 형식적으로 정체에 참여하지만, 다수의 빈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심의와 판결을 해서 부자는 실질적으로 정체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빈자가 자신을 위해 지배하는 민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가 아니라 주인의 지배이다.

다수인 빈자가 주도하는 ‘첫 번째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동등한 모든 자유인이 교대로 지배할 때 빈자가 주도하지 않으면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 동등한 빈자와 부자가 교대 지배

166) II.3.3.3.1.에서 논의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민주정’을 4권 4장에서 민주정의 종류로 제시했다가, 4권 6장과 6권 4장에서 이를 민주정의 종류로 제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민주정’과 네 번째 민주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해 II.3.3.3.1. 참고.

하는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자유인마다 갖고 있는 부의 양이 달라서 자유인 중 일부는 빈자이고 다른 일부는 부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시국가에 빈자와 부자 모두 있을 수밖에 없다. 빈자와 부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려면, 다수인 빈자가 자신만을 위해 지배하지 않고 부자를 위해서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빈자도 부자도 상대방을 대립 집단이 아니라 도시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중(dēmos)은 빈자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빈자와 부자를 아우르는 시민 전체를 뜻하는 경우도 있는데,¹⁶⁷⁾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민중을 빈자라고 말하는 반면, 아테네 민주정 지지자는 민중을 시민 전체라고 말한다.¹⁶⁸⁾ 빈자와 부자를 아우르는 시민 전체인 민중이 주도하는 정체에서 자유인인 빈자와 부자는 교대로 지배하고 서로를 위해 지배해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민중이 주도하는 정체가 민주정이면, 시민 전체인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정은 『정치학』에서 민주정으로 규정되지 않는데, 『정치학』에서 민주정은 시민 전체가 아니라 빈자가 주도하는 정체로 규정되기 때문이다.¹⁶⁹⁾ 『정치학』에서 모든 자유인이 동등하게 교대로 지배하는 민주정은 ‘첫 번째 민주정’으로 여겨지지만, 이 정체는 부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빈자가 주도하는 네 번째 민주정이며,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첫 번째 민주정’으로 대표되는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3.2.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최선 정체

정치학의 논의 주제는 최선 정체와 혼합 정체인데, 우선 최선 정체에서

167) Hansen(1999), p. 334.

168) Hansen(1999), p. 125.

169) 부자와 빈자 모두를 아우르는 시민 전체가 주도하는 정체는 3권의 정체 분류에 따라 규정될 수 없는데, 3권의 정체 분류 중에 지배자 집단이 시민 전체인 정체는 없기 때문이다. 부자와 빈자가 혼합된 이 정체는 4~6권의 정체 분류에 따라 시민정으로 규정된다.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Ⅲ.2.1.6.에서 3권의 최선 정체는 왕정과 귀족정으로 밝혀졌고, Ⅲ.2.2.4.에서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으로 규정되었는데, 우선 3권의 최선 정체 가운데 하나인 왕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배는 왕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다. 왕정에서 지배자인 왕은 피지배자보다 우월해야 하므로, 왕 말고도 덕에 있어 왕과 동등한 사람이 있을 때 왕 혼자 지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왕이 신과 같은 자(1284a10)인 경우에 신적 수준에서 유덕한 왕은 인간 수준에서 유덕한 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신과 같은 왕이 항상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항상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신과 같은 왕이 지배하는 정체가 3권의 최선 정체인 왕정이지만, 신과 같은 왕은 쉽게 찾아질 수도 없고 이러한 왕은 실제로 있지 않다고 말해지기 때문에(1332b23~25) 왕정은 실현 불가능하다. 결국 왕정인 최선 정체에서 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정체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신과 같은 왕에 의한 왕의 지배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다음으로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서 이루어지는 지배를 살펴본다. 이 정체에서 유덕자가 시민이지만, 유덕자가 될 수 없어서 시민이 아닌 자유인도 있다. 이 정체의 지배는 시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배와 시민과 비시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배로 나뉜다. 우선 시민 사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의 덕과 훌륭한 시민의 덕을 동일하게 지닌 사람은 최선 정체의 시민 중 지배자인데(1278b2~5), 시민의 덕은 지배뿐만 아니라 피지배에 대한 앎과 능력에 관계된다(1277b13~16). 처음에 장군 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장군이 되는 것처럼, 시민은 처음에 지배받고 나중에 지배함으로써 시민의 덕을 갖게 된다(1277b8~11). 지배하는 시민과 지배받는 시민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일정 기간을 주기로 교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지배받고 나중에 지배하는 방식으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최선 정체에서 성인이 된 모든 시민은 처음부터 유덕자가 될 수 없는데, 완전한 덕을 갖는 데 필요한 실천적 지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천적 지혜를 지닐 수 없는 청년은 장년이 되어 실천적

지혜를 갖게 될 예비 유덕자에 불과하며, 실천적 지혜를 지닌 유덕자인 장년보다 열등하기에 장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청년이 장년이 되어 실천적 지혜를 갖게 되면 유덕자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노년이 되면 지배에서 물러나 성직을 맡는다. 이와 같이 시민 사이에서 세대 간에 걸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공익을 추구하는 유덕자가 지배해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으로 시민과 비시민 사이에서 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시민은 예비 유덕자를 포함한 유덕자로서 우월한 자유인이고, 비시민은 덕을 결여해서 열등한 자유인이다. 우월한 자유인은 항상 지배하고 열등한 자유인은 항상 지배받는데, 유덕자는 덕을 발휘하여 피지배자 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는 시민과 비시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왕의 지배와 시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가의 지배가 공존하는 정체인데, 유덕자가 될 수 있는 소수의 시민 사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모든 자유인 사이에서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이루어지는 지배를 살펴본다. 7권의 최선 정체의 시민은 노년을 제외하면 청년과 장년인데, 전사이자 완전한 덕을 갖지 못한 청년은 지배받고, 심의와 재판을 맡고 완전한 덕을 지닌 장년은 지배하다가 노년이 되면 은퇴한다(1329a2~17, 1332b35~38). 동일한 사람이 청년일 때 지배받고, 장년일 때 지배하며, 노년일 때 지배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세대 간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진다. 예비 유덕자인 청년과 유덕자인 장년은 실천적 지혜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동일한 사람이 처음에 청년이 되고 나중에 장년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 유덕자가 된다는 점에서 청년과 장년은 동등하며, 동등한 청년과 장년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7권의 최선 정체의 시민은 유덕자와 예비 유덕자이고 이들 사이에 교대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서 시민 사이에 교대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덕을 지닐 수 있는 시민 사이에 세대 간에 걸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고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7권의 최선 정체에 유덕자가 될 수 없는 자유인은 없기 때문에, 모든 자유인 사이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달리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왕의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7권의 최선 정체에서 농업, 상업과 같은 일에 노예나 비희랍인이 종사할 뿐 자유인은 종사하지 않는다. 농부는 덕을 갖거나 정치 활동에 필요한 여가를 결여하고, 상인이거나 수공업 기술자는 덕에 반대되는 천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1328b37~1329a2), 이들은 덕을 가질 수 없어서 7권의 최선 정체의 시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도시국가의 존립을 위해 농부, 상인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덕을 지닐 수 없는 비자유인인 노예나 비그리스인이 농업이나 상업 등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7권의 최선 정체에서 모든 자유인은 덕을 갖고 있거나 덕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인 사이에 왕의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정치가의 지배만 이루어진다. 결국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7권의 최선 정체는 유덕자가 지배자 집단이기 때문에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동일하지 않다. 모든 자유인이 유덕자가 될 수 있지 않고, 소수만 유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자유인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유덕자가 비유덕자보다 우월해서 유덕자가 항상 지배하고 비유덕자가 항상 지배받는 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유인 중 일부가 생업에 종사해서 덕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유덕자 사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자유인 사이에서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처럼 정치가의 지배는 최선 정체에서 시민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덕을 지닐 수 있는 시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가의 지배가 모든 자유인 사이에서 가능하려면, 모든 자유인이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덕을 지닐 수 있는 여가를 확보하여 덕을 교육받고 습관들여서 유덕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7권의 최선 정체처럼 생업에 종사하는 자유인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자유인이 덕을 갖는 데 필요한 여가와 교육 등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야 비로소 최선 정체에서 완전한 정치가의 지배가 가능하다. 결국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유덕자 사이에서 세대 간의 교대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7권의 최선 정체로 이어져서 이 정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가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 핵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3.3.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혼합 정체

최선 정체 다음으로 혼합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정을 비롯한 여러 혼합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혼합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혼합 정체 중에 차선 정체가 있는데, 차선 정체는 4권 11장에 제시된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이다. 차선 정체에 관해서는 III.3.1.에서 논의했는데, 차선 정체를 주도하는 중산층은 빈자와 부자¹⁷⁰⁾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중재자(1297a5)가 되어서 이들을 정체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내분을 방지한다.¹⁷¹⁾ 부자와 빈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을 내쫓으려는 음모를 서로 간에 꾸밀 수가 없고(1296b40~1297a2),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대로 지배하는 것을 견딜 수 없지만(1297a4~5), 부자와 빈자의 신뢰를 받는 중산층의 중재 하에 이들 사이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¹⁷²⁾ 우월한 중산층은

170) 중산층이 있을 때 빈자와 부자는 매우 가난한 자와 매우 부유한 자를 뜻한다.

171) 중산층은 중간적인 재산을 소유해서 이성애 가장 잘 복종하기 때문에(1295b3~6), 지나치게 많이 갖거나 지나치게 적게 가져서 이성애 따르지 않은 채 악행을 저지르기 쉬운 자들(1295b6~11)과 달리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며, 적당한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빈자가 욕망하는 것처럼 남의 재산을 욕망하지도 않고, 빈자가 부자의 재산을 욕망하는 것처럼 타인이 중산층의 재산을 욕망하지도 않는다(1295b29~32). 이처럼 중산층은 적당한 재산을 지닌 결과 유덕자와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되어서 공익을 추구하고 빈자와 부자 모두를 정체에 참여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적당한 재산을 갖자마자 유덕자와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중산층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습관을 들여야만 유덕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공동의 정체’ 또는 ‘동등한 정체’(1296a30)를 세울 수 있어서, 중산층, 빈자, 부자 모두 동등하게 정체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차선 정체에서 서로 동등한 자유인인 중산층, 빈자, 부자는 중산층의 중재 하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고, 이들 모두가 정체 유지를 원하는 차선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차선 정체는 Ⅲ.3.1.2.에서 시민정으로 규정되었는데, 시민정에는 차선 정체뿐만 아니라 3권 7장에서 제시된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정체도 있다.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정체에서 자신의 무기를 장만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민인 반면, 그럴 수 없는 빈자는 시민이 아니다. 이 정체에서 시민인 중무장보병과 기병은 서로 동등하며,¹⁷²⁾ 군사적 덕을 지닌 이들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중무장보병은 중산층이고 기병은 부자인데, 시민인 중산층 및 부자와 비시민인 빈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아니라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V.2.4.에서 논의했듯이, 동등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고 피지배자가 자발적으로 지배받으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시민정에서 빈자는 중산층과 부자의 지배를 받지만, 자유인인 한 이들은 서로 동등하다. 중산층과 부자는 완전한 군사적 덕을 발휘하여 다른 도시 국가의 침략을 막고 다른 도시국가나 외부 세력에 의해 조국이 정복당하지 않게 하여 피지배자가 자유를 잃거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혜택을 피지배자에게 준다. 이들은 빈자보다 우월해서 지배하지 않고, 빈자는 지배의 혜택에 만족해서 자발적으로 지배자에게 복종한다. 결국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시민정에서 시민인 중산층과 부자 사이에서만 아니라, 이들 시민과 비시민인 빈자 사이에서도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부자와 빈자 또는 과두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정체도 시민정인데

172) 혼합 정체에서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는 최선 정체에서 이루어지는 교대 지배와 다르다. 후자에서 세대 간에 지배가 교대되는 반면, 전자에서 1년과 같은 일정 기간 주기로 지배가 교대된다.

173) NE에서 중산층이 주도하는 시민정은 금권정으로 일컬어지는데, 금권정에서 일정 재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동등하다(1160b18~19).

(1293b34, 1294a22~23), 시민정을 구성하는 세 가지 혼합 기준(horos)에 관해서는 II.3.3.3.4.에서 논의되었다. 세 가지의 혼합 기준에 따라 형성된 시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두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형성된 시민정부에서 살펴본다. 두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민주정과 과두정이 부과하는 것의 중간을 받아들여 혼합되면 (1294b3~6), 부자보다 재산 등급이 낮지만 빈자보다 재산 등급이 높은 중산층이 민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중산층과 부자는 시민이지만 빈자는 시민이 아니다. 이러한 시민정은 중산층과 부자가 시민이지만 빈자는 시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시민정과 유사하다.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할 때 중산층과 부자만 정체에 참여하고 빈자는 정체에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빈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오만하게 대하지 않고 재산을 빼앗지 않으면, 공직에 참여하지 않아도 조용히 있기를 원하고(1297b6~8), 공직에서 배제되어도 많이 분개하지 않으며 누군가 사적인 일을 위해 여가를 즐기도록 허용하면 이를 즐거워하며(1308b34~36), 명예보다 이익을 더 욕망하기 때문에(1318b16~17),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면 공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 하지만 공직자가 공금을 훔친다고 생각하면 이에 분개하고, 공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이득을 나눠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1308b36~38). 빈자는 공직에 참여하지 못해서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반면, 공익을 추구하는 지배자의 지배를 받아서 지배의 혜택을 누리고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한, 지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배받는다. 결국 두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형성된 시민정에서 시민인 중산층 및 부자와 비시민인 빈자가 동등한 자유인인데,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고 지배받는 빈자가 지배의 혜택에 만족하여 자발적으로 지배받는 한, 이들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첫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형성된 시민정을 살펴본다. 첫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민주정과 과두정의 입법을 받아들여 혼합되면 (1294a37~41), 민주정의 법에 따라 재판에 참석한 빈자에게 수당을 주고,

과두정의 법에 따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부자에게 벌금을 부과해서, 빈자는 수당을 받기 위해 재판에 참석하고 부자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판에 참석하여 빈자와 부자 모두 재판에 참석하게 된다. 민주정의 법이 시행되면 빈자의 의사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과두정의 법이 시행되면 부자의 의사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혼합을 통해 빈자와 부자 모두 재판에 참석하면 빈자나 부자의 의사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빈자와 부자 모두가 참여하는 재판뿐만 아니라 심의에서도 어느 한 쪽의 이익만 추구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빈자가 다수이고 부자가 소수인 상황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동등하면 공익은 추구되기 어렵다. 심의와 재판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서 다수인 빈자의 의사만 심의와 재판에 반영되면, 오직 빈자를 위해 재판과 심의는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재판과 심의가 빈자와 부자 모두를 위해 이루어지려면, 부자와 빈자가 수적으로 동등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재산 총합이 같은 집단은 동등할 수 있는데, 예컨대 부자 10명의 재산 총합과 빈자 20명의 재산 총합이 같으면, 부자 10명과 빈자 20명은 집단적으로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자와 빈자가 집단적으로 동등한 상태에서 심의와 재판이 이루어지면, 빈자의 의사대로 심의와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의와 재판에 빈자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고 부자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어서 부자가 심의와 재판에 불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빈자와 부자 모두를 위해 이루어지는 심의와 재판에서 공익이 추구된다. 결국 첫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형성된 시민정에서 부자와 빈자 모두 심의와 재판에 참석하는데, 부자와 빈자가 집단적으로 동등하면, 심의와 재판은 모두를 위해 이루어지며,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형성된 시민정을 살펴본다. 세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각 정체에서 정체의 법이 부과하는 것을 하나씩 받아들여서, 예컨대 과두정에서 공직자를 선거로 뽑는 것을 받아들이고, 민주정에서 공직자 선출 시 재산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서 혼합되면(1294b7~13), 두 가지 법이 부과한 것 모두에 따라 공직자가 될 수도 있고, 일부는 과두정의 법이 부과한 것에 따라 공직자가 되고 일부는

민주정의 법이 부과한 것에 따라 공직자가 될 수도 있다. 4권 15장에서 공직 임명 방식이 말해지는데, 모든 시민이 동시에 임명하지 않고 모든 시민 또는 일부 시민 중에서 임명하거나, 일부 공직은 모든 시민 중에서 일부 공직은 일부 시민 중에서 임명되는 것이 시민정의 공직 임명 방식이다(1300a34~38). 이러한 시민정에서 일부 공직은 모든 시민 중에서 공직자가 임명되는 민주정의 공직 임명 방식에 따라 임명되고, 다른 일부 공직은 일부 시민 중에서 공직자가 임명되는 과주정의 공직 임명 방식에 따라 임명된다. 공직 임명뿐만 아니라 심의와 재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컨대 심의되는 사안인 전쟁, 평화, 동맹체결, 동맹해제, 법, 사형, 추방, 재산몰수, 공직자의 선출, 감사(1298a3~7) 가운데 모든 시민이 전쟁, 평화, 감사를 주도하고, 공직자가 나머지 사안을 주도하는 것은 시민정의 심의 방식이다(1298b5~7).¹⁷⁴⁾ 모든 시민이 주도하는 사안은 민주정의 심의 방식이 취해지고, 공직자가 주도하는 사안은 과주정의 심의 방식이 취해지는데, 전자는 빈자가 주도하고 후자는 부자가 주도하므로, 빈자와 부자가 맡는 사안은 각자 다르더라도 이들 모두는 심의에 참여한다. 결국 빈자가 주도하는 사안에서 빈자가 서로 교대로 지배하거나 함께 지배하고, 부자가 주도하는 사안에서 부자가 서로 교대로 지배하거나 함께 지배하며, 서로 동등한 빈자와 부자가 정체의 사안을 동등하게 나눠 맡아서 정체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고 공익을 추구하면 세 번째 혼합 기준에 따라 형성된 시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가의 지배가 이처럼 혼합 정체인 시민정에서 이루어지면, 혼합 정체인 귀족정에서도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I.3.3.3.3.에서 논의된 혼합 귀족정은 유덕자, 빈자, 부자 혹은 유덕자, 빈자가 혼합된 정체이다. 혼합 귀족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유덕자 집단과 빈자 집단과 부자 집단이 동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덕을 지닌 유덕자는 덕을 결여한 부자, 빈자보다 우월하고 무조건 동등하지 않은 자로 간주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면(1301a40~b1), 유덕자가 항상 지배하고 부자와 빈자는 항상 지배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유

174) 이러한 시민정의 심의 방식은 민주정의 두 번째 심의 방식(1298a20~24)과 유사한데, 이는 시민정과 민주정이 중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덕자가 신과 같은 왕처럼 피지배자보다 월등하게 우월하면 항상 지배하는 것이 옳지만, 유덕자가 피지배자보다 월등하게 우월하지 않고 부자와 빈자에 비해 소수이면, 현실적으로 부자와 빈자는 유덕자가 항상 지배하고 자신은 항상 지배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도 지배에 참여하려 한다.¹⁷⁵⁾ 유덕자는 부자, 빈자보다 질적으로 우월하고, 부자, 빈자는 유덕자보다 양적으로 우월해서 유덕자 집단은 부자 집단, 빈자 집단과 동등할 수 있다. 그러면 동등한 부자 집단과 빈자 집단이 혼합된 시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듯이, 동등한 유덕자 집단, 부자 집단, 빈자 집단이 혼합된 귀족정에서도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유덕자 집단과 빈자 집단이 동등하게 혼합된 귀족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3권 11장에서 제시된다. 다수는 소수의 유덕자보다 개인적으로 좋지 않아도, 다수가 집단을 이루면 소수의 유덕자보다 더 좋을 수 있는데(1281a42~b2), 여기서 다수는 III.2.1.3.의 논의를 통해 빈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수의 빈자는 덕을 결여해서 매우 중요한 공직을 맡을 수 없지만, 집단을 이루면 심의와 재판을 맡을 수 있다. 다수의 빈자가 더 좋은 사람과 혼합되면 도시국가는 이롭게 되는데(1281b34~36), 여기서 더 좋은 사람이 빈자보다 덕에 있어 우월한 유덕자를 뜻하면, 빈자는 심의와 재판을 맡고, 유덕자는 매우 중요한 공직을 맡을 수 있다.¹⁷⁶⁾ 공직은 항상 유덕자에게 있고, 빈자는 유덕자가 공직을 맡는 데 동의해서 유덕자

175) 유덕자, 부자, 빈자 혹은 유덕자, 빈자가 혼합된 정체에서 유덕자가 우월한 자유인이고 부자, 빈자는 열등한 자유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들 사이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현실 정체에서 기껏해야 백 명도 안 될 만큼 부자와 빈자에 비해 소수인 유덕자는 혼자 지배하기가 어려운데, 부자와 빈자가 유덕자를 상대로 내분을 일으킬 때 다수인 이들은 소수인 유덕자를 내쫓은 다음에 정체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덕자가 내분의 위험 없이 지배를 하려면, 부자와 빈자도 정체에 참여시켜서 내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176)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대목에서 다수의 빈자와 소수의 유덕자가 혼합된 정체를 말하고 있는데, 1281b21 이하에서 빈자를 유덕자, 부자와 대비해서, 유덕자와 부자를 같은 부류로 놓는 것 같다. 이러한 혼합 정체는 술론의 정체와 유사한데, 술론의 정체에서 부자는 공직을 맡고 빈자는 심의와 재판에 참여한다. 술론의 정체에서 공직은 부자가 맡고 유덕자가 맡지 않지만, 이러한 혼합 정체와 술론의 정체가 유사하면, 유덕자와 부자는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다. 1318b27 이하에서 첫 번째 민주정에 관한 논의에서도 부자와 유덕자는 같은 부류로 간주된다. 그는 부자와 유덕자를 구분하지만, 경우에 따라 둘을 같은 부류로 간주해서 논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를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통치는 잘 이루어진다. 게다가 유덕자는 열등한 빈자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아서 이런 제도에 만족하고, 빈자의 감사에 의해 유덕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정의롭게 지배하며, 빈자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는다(1318b32~1319a4).¹⁷⁷⁾ 결국 빈자가 심의와 재판을 맡고 유덕자가 공직을 맡는 혼합 귀족정에서 빈자와 유덕자 모두 각자의 사안을 맡는데, 모두가 이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공직을 수행하고 심의와 재판을 하기 때문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¹⁷⁸⁾

마지막으로 정치가의 지배는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뿐만 아니라,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은 각각 민주정과 과두정이지만, 빈자와 부자가 혼합된 측면에서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빈자와 부자가 잘 혼합된 정체뿐만 아니라 빈자와 부자가 혼합되었지만 빈자로 쏠리거나 부자로 쏠린 정체도 시민정이기 때문이다(1293b34~37, 1294a22~23).

우선 온건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 번째 민주정에서 정체에 참여하는 빈자는 농부와 유목민인데, 농부는 농사에 종사하여 공직을 맡을 여가가 없어서 필요할 때만 민회나 법정에 참석하고, 공직자가 맡는 사안은 여가를 지닌 부자에게 맡긴다(1292b25~30). 유목민도 농부와 마찬가지로, 농부와 같은 빈자가 심의와 재판을 주도하고 부자가 공직자가 맡는 사안을 주도하는 첫 번째 민주정은 빈자가 정체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민주정으로 규정되지만, 부자도 지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빈자는 공직을 맡는

177) 1318b32~1319a4의 논의는 혼합 귀족정이 아니라 첫 번째 민주정에 관한 논의이지만, 주 176에서 언급했듯이, 부자가 유덕자와 같은 부류로 간주되면, 이 정체는 부자와 빈자가 혼합된 시민정 또는 유덕자와 빈자가 혼합된 귀족정으로도 규정될 수 있다.

178) 유덕자 집단, 빈자 집단, 부자 집단이 동등하게 혼합된 귀족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논의해야 하는데, 세 집단이 동등하게 혼합된 정체는 『정치학』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 176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 귀족정을 논의할 때, 유덕자와 부자를 같은 부류로 간주하여 유덕자와 부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덕자, 부자, 빈자가 혼합된 귀족정인 카르타고 정체에서 유덕자 집단, 빈자 집단, 부자 집단은 동등하게 혼합되어 있지 않은데, 카르타고에서 민중은 왕과 원로가 서로 동의하지 않은 사안을 주도할 만큼(1273a6~12) 정체를 주도하여 부자, 유덕자에 비해 정체를 덜 주도한다.

부자를 감사하고 부자는 빈자의 감사 때문에 지배를 잘 하게 되면, 첫 번째 민주정은 빈자와 부자 모두에게 이로움을 준다(1318b27~1319a2). 민회나 법정에 참석하는 빈자 사이에서도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고 공직을 맡는 부자 사이에서도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지배가 이에 참여하는 빈자와 부자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농부와 유목민보다 가난한 빈자는 지배에서 배제되지만, 지배에 참여하는 자보다 열등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지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빈자는 항상 지배받더라도,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재산을 빼앗거나 생계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손해를 피지배자에게 끼치지 않는 한, 피지배자는 지배만 받는 것을 문제삼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지배받는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가 서로 동등한 자유인인데, 지배자가 공직을 추구하고 피지배자가 자발적으로 지배받는 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민주정의 시민은 감사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고, 세 번째 민주정의 시민은 모든 자유인인데(1292a1~4, b35~41), 두 번째와 세 번째 민주정에서 농부보다 가난한 빈자도 시민으로서 지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민주정에서 모든 빈자가 심의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지라도 여가가 있는 사람만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으면, 첫 번째 민주정처럼 빈자는 심의와 재판을 주도하고, 부자는 공직자가 맡는 사안을 주도한다. 빈자는 모두를 위해 심의와 재판을 하고, 부자는 모두를 위해 공직을 맡아 지배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민주정에서도 교대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온건 민주정은 빈자와 부자가 잘 혼합된 정체가 아니라서 정치가의 지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빈자 중에 첫 번째 민주정을 주도하는 농부가 가장 좋은데(1318b8~10), 농부는 어느 정도 재산을 지니서 중산층에 가까우며, 어느 정도 재산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하지 않기에 사익을 덜 추구하고, 정체에 만족하여 정체 유지를 원하기 쉽다. 이런 이유에서 온건 민주정 중에 첫 번째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에 매우 가난한 빈자는 재산이 별로 없

어서 부를 갖는 데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하기 쉬워서 (1295b30~32) 가급적 사익을 추구하고, 부자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려 해서 온건 민주정 중에 세 번째 민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온건 과두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는 부자는 상대적으로 많아서 참주처럼 지배하지 않는다(1293a12~17). 첫 번째 과두정에서 공직은 필수 공직과 중요 공직으로 나뉘는데, 부자가 중요 공직을 맡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빈자는 필수 공직을 맡을 수 있으며(1320b22~28), 상대적으로 가난한 빈자는 정체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지배자보다 열등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지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가 서로 동등한 자유인인데, 피지배자가 손해를 보지 않아서 지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배받는 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과두정에서 일부 빈자는 필수 공직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해진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과두정에서 이에 관해 분명하게 말해지지 않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두정에 덜 참여하는 빈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직을 제외한 다른 공직들을 동등하거나 우월하게 분배하는 것이 이롭다고 말하기 때문에(1309a27~30), 두 번째와 세 번째 과두정에서도 일부 빈자가 필수 공직을 맡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과두정에서도 정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빈자가 지배자보다 열등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지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온건 과두정은 빈자와 부자가 잘 혼합된 정체가 아니라서 정치가의 지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부자 중에 첫 번째 과두정을 주도하는 부자가 가장 좋은데, 중산층에 가까운 부자는 어느 정도 부유하기에 더 많은 부를 얻는 데 신경을 덜 쓰고 정체에 만족해서 정체 유지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에서 온건 과두정 중에 첫 번째 과두정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에 부를 많이 지닌 부자일수록

더 많은 부를 갖고 싶어 해서(1307a19~20) 가급적 사익을 추구하고, 빈자
및 덜 부유한 부자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려 해서 온건 과두정 중에 세
번째 과두정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혼합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혼합이 잘 이루어진 차선 정체를 비롯한 시민정과
혼합 귀족정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온건 민주정과 온건
과두정에서도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정치가의
지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혼합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동
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빈자가 지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조
차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고 피지배자인 빈자가 자발적으로 지배받으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V. 결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정치학』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최선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선 정체와 현실 정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의 쟁점은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가 동일한 정체인지 여부이고, 두 번째 문제의 쟁점은 현실 정체에 대한 논의가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후자에서 파생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인데, ‘정치가의 지배’ 개념을 통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선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가 주도적인 지배의 측면에서 동일한 정체는 아니지만, 지배자인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귀족정’이라는 동일한 정체로 규정되어 최고의 공익이 추구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 다음으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현실 정체, 즉 혼합 정체에 대한 논의는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최선 정체는 혼합 정체의 ‘본’이 된다고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는 이름은 같아도 구체적인 정체의 내용이 달라 보여서 최선 정체에 관해 일관성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 3권의 최선 정체는 왕정과 귀족정인데, 신처럼 유덕한 왕 또는 소수의 유덕자가 다수의 비유덕자를 지배하는 정체인 반면, 7권의 최선 정체는 다수의 유덕자가 지배하는 정체이다. 유덕자와 비유덕자 사이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3권의 최선 정체와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는 주도적인 지배의 측면에서 동일한 정체가 아니다. 하지만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서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체 분류의 실제 기준이 지배자 집단이면,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마찬가지로 지배자 집단인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는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귀족정으로 규정된 정체에서 유덕자는 정치가의 지배의 핵심인 공익 추구의 측면에서 최고의 공익을 추구한다. 결국 주도적인 지배의 측면에서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3권의 최선 정체와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는 동일하지 않지만, 지배자 집단인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와 7권의 최선 정체는 동일한 정체로 규정될 수 있고, 유덕자는 정치가의 지배의 핵심인 공익을 최고로 추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현실 정체에 대한 논의가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와 무관한지 아니면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지가 문제였다.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정, 과두정과 같은 현실 정체는 나쁜 정체라서, 이보다 좋은 정체, 즉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혼합 정체로 개선되는 것이 현실 정체가 당면한 과제이다. 한 집단만 지배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혼합된 집단이 지배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체 개선을 위해 지배에 참여하는 집단의 혼합이 필요하다. 우선 집단의 혼합은 덕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혼합된 집단이 경제적 이익 또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 등을 가져다주기 위해 지배하면, 혼합된 지배자가 덕을 결여해도 정체의 구성원이 이에 만족하는 정체는 안정되고 좋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합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덕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치가의 지배는 더 많은 공익이 추구될 때 더 잘 이루어지므로, 궁극적으로 정치가의 지배는 덕에 좌우된다. 최고의 공익은 인간이 행복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인데, 이는 덕이 발휘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정치가의 지배는 유덕자가 지배하는 최선 정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비유덕자가 지배하는 여러 혼합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최선 정체만큼 잘 이루어질 수 없지만, 혼합된 집단이 유덕자에 가까울수록 정치가의 지배는 최선 정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근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덕자가 지배해서 정치가의 지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최선 정체는 혼합 정체의 본이 되어, 혼합 정체의 지배자가 최대한 유덕자와 가까워지게 하여 혼합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최대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결

국 정치가의 지배가 덕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혼합 정체에 대한 논의는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치가의 지배는 덕에 좌우되기에 혼합 정체에 대한 논의는 ‘본’이 되는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도시국가가 서로 동등한 자유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라면, 서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유인 피지배자 또는 모든 자유인의 이익을 추구하여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민주정’에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정체를 주도하는 다수의 빈자는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익이 추구될 때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인이 지배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빈자와 부자가 혼합되면 모든 자유인이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공익이 추구되어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면 이들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가의 지배는 빈자와 부자가 혼합된 시민정과 같은 정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등을 보장받기 위해 도시국가를 수립했지만,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덕을 발휘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도시국가의 모든 자유인이 유덕자일 때 행복한 도시국가가 있게 된다. 유덕자가 되려면 덕을 교육받고 습관들여야 하는데, 성인이 되면 실천적 지혜를 제외한 나머지 덕은 지닐 수 있지만 실천적 지혜는 장년이 되어서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도시국가의 자유인 중 장년이 유덕자인 반면 청년은 나중에 유덕자가 될 수 있는 예비 유덕자이다. 유덕자인 장년이 예비 유덕자인 청년보다 우월해서 장년이 지배하고 청년이 지배받는데, 동일한 사람이 항상 지배하거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청년일 때 지배받고 장년일 때 지배하다가 노년이 되어 지배에서 물러난다. 그리하여 세대 간에 걸쳐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고, 유덕자가 지배할

때 덕을 발휘해서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도시국가의 모든 자유인이 유덕자 또는 예비 유덕자일 때 정치가의 지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정치가의 지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정체는 7권의 최선 정체이다.

7권의 최선 정체는 유덕자가 지배자 집단으로 있어서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 정체는 귀족정으로 규정되는 3권의 최선 정체와 동일하지 않다. 7권의 최선 정체에는 유덕자가 될 수 없는 자유인이 없는 반면,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는 유덕자가 될 수 없는 자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서 지배자인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배자인 유덕자와 피지배자인 비유덕자 사이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도시국가의 자유인 가운데 유덕자는 소수만 있을 수 있고, 다수의 자유인은 농업, 상업 등의 생업에 종사해서 덕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유덕자가 될 수 없다. 소수의 유덕자와 다수의 자유인 비유덕자가 있는 상황에서 유덕자가 비유덕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유인 비유덕자가 유덕자의 지배를 받는 한 완전한 정치가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7권의 최선 정체처럼 정치가의 지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생계에 종사하여 덕을 지닐 수 없는 자유인이 없어야 한다.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배자인 유덕자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 한 가지 계기라고 말할 수 있다.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유덕자가 지배하고 예비 유덕자가 지배받지만, 예비 유덕자도 나이가 들면 유덕자가 되기 때문에 유덕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덕자와 예비 유덕자는 동등하다. 동등한 자유인에 대한 동등한 자유인의 지배가 정치가의 지배이기 때문에, 동등한 자유인인 유덕자와 예비 유덕자 사이에서 교대 지배가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잘 이루어진다. 스파르타의 자유인은 모두 ‘젊은 사람’으로서 동등한데, 생계에 종사하지 않고 군사 훈련을 받아서 군사적 덕을 지닌다.

이 점에서 7권의 최선 정체와 스파르타 정체는 다르지만, 7권의 최선 정체처럼 스파르타 정체에서도 동등한 자유인에 대한 동등한 자유인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모든 자유인이 군사적 덕을 갖는 스파르타 정체에서 완전한 덕에 관한 교육과 습관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자유인이 유덕자가 될 수 있으면, 스파르타 정체는 7권의 최선 정체가 될 수 있다. 자유인이 완전한 덕이 아니라 군사적 덕을 갖는 한 정치가의 지배가 더 잘 이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7권의 최선 정체처럼 정치가의 지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모든 자유인이 유덕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스파르타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7권의 최선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 또 다른 계기라고 말할 수 있다.

7권의 최선 정체는 한편으로 유덕자가 지배하는 정체이고, 다른 한편으로 서로 동등한 사람이 지배하는 정체로서 정치가의 지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정체이다. 귀족정인 3권의 최선 정체처럼 유덕자가 지배하면 비유덕자가 항상 지배받는 한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스파르타 정체처럼 유덕하지 않은 서로 동등한 사람이 지배하면 정치가의 지배가 더 잘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7권의 최선 정체가 이루어지려면, 유덕자가 될 수 있는 서로 동등한 사람이 지배해야 하고, 유덕자가 될 수 없는 자유인은 없어야 한다. 7권의 최선 정체의 자유인인 시민은 모두 완전한 덕을 지닐 수 있어서 서로 동등하다. 7권의 최선 정체는 유덕자가 주도하는 정체이기 때문에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 정체의 유덕자가 동등한 자유인 시민이라면, 이 정체는 동등한 자유인 시민이 주도하는 정체라고 말해질 수 있다. 동등한 자유인 시민이 주도하는 정체가 시민정이라면, 7권의 최선 정체는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 시민정은 『정치학』에서 제시된 시민정과 다르다. 빈자와 부자가 혼합된 시민정에서 동등한 자유인인 빈자와 부자가 시민으로서 지배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민정을 주도하는 시민은 주로 빈자와 부자라서 서로 동등하지만 덕을 결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7권의 최선 정체의 시민은 서로 동등할 뿐만 아니라 덕을 지니고 있거나 지닐 수 있기 때문에 7권의 최선 정체를 주도하는 시민과

『정치학』에서 제시된 시민정을 주도하는 시민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7권의 최선 정체는 『정치학』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의미의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시국가는 서로 동등한 자유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말할 때, 궁극적으로 그가 염두에 둔 도시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은 7권의 최선 정체처럼 서로 동등한 자유인으로서 덕을 지닐 수 있는 자로 보인다. 이러한 시민이 주도하는 정체가 새로운 의미의 ‘시민정’이고, 이 정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의 시민에는 ‘덕’의 계기와 ‘동등’의 계기가 함께 들어있어서, 새로운 의미의 ‘시민정’에는 유덕자가 지배하는 정체인 ‘귀족정’의 계기와 유덕하지 않은 동등한 자가 혼합해서 지배하는 정체인 ‘시민정’의 계기가 함께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7권의 최선 정체가 새로운 의미의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으면, 이 시민정은 『정치학』에서 제시된 시민정의 ‘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 시민정은 중무장보병이나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3권) 또는 빈자와 부자가 혼합된 정체(4권)라고 말해지는데, 시민은 서로 동등하지만 완전한 덕을 갖지 않는다. 시민정은 덕과 무관하게 빈자, 부자와 같은 동등한 자유인의 혼합을 통해 형성될 수 있지만, 중산층이 주도하는 시민정에 가까울수록 시민정은 더 좋다. 중산층은 완전한 덕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유덕자에 가깝게 덕을 지녀서, 시민정을 주도하는 시민이 중산층에 가까워질수록 시민정은 더 좋다. 따라서 시민정은 덕과 무관하게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덕에 좌우되며, 새로운 의미의 ‘시민정’인 7권의 최선 정체는 『정치학』에서 제시된 시민정의 ‘본’이 될 수 있다. 정치가의 지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새로운 의미의 ‘시민정’에 가까울수록 시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7권의 최선 정체와 같은 새로운 의미의 ‘시민정’에서 시민은 서로 동등하고 유덕할 수 있는 자유인인데, 시민은 서로 동등하기에 교대로 지배하고, 덕을 지닌 시민이 지배해서 공익이 추구된다. 비유덕자는 경제적 이익,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같은 공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유덕자는 잘 삶과 행복이라는 최고선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유덕한 시민이 지배

하는 이 ‘시민정’에서 정치가의 지배는 가장 잘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왕, 참주처럼 정체를 주도하는 자의 이름을 따서 왕정, 참주정 등을 말하는데,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정체를 중무장보병 주도 정체 또는 금권정이 아니라 politeia라고 말함으로써 여섯 가지 정체를 포괄하는 정체(politeia)와 동일한 말을 사용했다. politeia는 정체를 주도하는 자와 관련해서 시민과 관계되는데, 시민이 교대로 지배할 경우에 지배하는 시민이 정치가라면, 정치가의 지배는 시민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다. 각 정체마다 시민은 다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서로 동등한 자유인으로 구성된 도시국가의 시민은 교대로 지배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는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정체 또는 빈자와 부자가 혼합된 정체를 교대로 지배하면서도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이 지배하는 정체인 politeia라고 말한 것 같다. 하지만 그는 politeia를 오직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정체 또는 빈자와 부자가 혼합된 정체에 한정하지 않은 채 『정치학』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민이 교대로 지배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정체로 확장하고 싶어서,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정체 또는 빈자와 부자가 혼합된 정체를 특정 지배자에 국한되지 않는 politeia로 명명하여 7권의 최선 정체와 같은 정체도 politeia로 규정될 수 있기를 의도한 것 같다. 7권의 최선 정체는 유덕자가 주도하기에 귀족정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유덕자가 될 수 있는 서로 동등한 시민이 주도하기에 politeia, 즉 시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덕’의 계기와 ‘동등’의 계기가 시민에게 함께 들어 있어서 정치가의 지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7권의 최선 정체와 같은 시민정이 진정한 시민정인 반면, 시민이 동등해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중무장보병이 주도하는 시민정 또는 빈자와 부자가 혼합된 시민정은 이로부터 파생된 시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치학』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좋은 정체를 찾기 위해서도 ‘정치가의 지배’뿐만 아니라 ‘시민정’에 지금보다 더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원전, 번역, 주석서

(1) 아리스토텔레스

Apostle, H. G., and L. P. Gerson (1986), *Aristotle's Politics*, Grinnell: The Peripatetic Press.

Aquinas, T. (2007), *Commentary on Aristotle's Politics*, Trans. R. J. Regan,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Barker, E. (1946), *The Politics of Aristot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rker, E. (1995), *Aristotle, Politics*, Revised by R. F. Stalle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ywater, T. (1894), *Aristotelis Ethica Nicomach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reizehnter, A. (1970), *Aristoteles' Politik*,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Everson, S. (1996), *Aristotle, The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of Ath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nyon, F. G. (1920), *Aristotelis Atheniensium Respubl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eyt, D. (1999), *Aristotle Politics: Books V and V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raut, R. (1997), *Aristotle Politics: Books VII and VI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ord, C. (2013), *Aristotle's Politics*, 2nd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wman, W. L. (1887~1902), *The Politics of Aristotle*, 4 vols,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eve, C. D. C. (1998), *Aristotle Politic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 Robinson, R. (1995), *Aristotle Politics: Books III and I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s, W. D. (1957), *Aristotelis Polit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hodes, P. J. (1992), *A Commentary of the Aristotelian Athenaion polite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hodes, P. J. (2002), *The Athenian Constitution*, London: Penguin.
- Saunders, T. J. (1995), *Aristotle Politics: Books I and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ütrumpf, E. (1991~2005), *Aristoteles Politik*, 4 vols, Berlin: Akademie Verlag.
- Simpson, P. L. P. (1997), *The Politics of Aristotle*,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Simpson, P. L. P. (1998), *A Philosophical Commentary on the Politics of Aristotle*,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Sinclair, T. A., and T. J. Saunders (1981), *Aristotle: The Politics*, London: Penguin.
- Susemihl, F., and R. D. Hicks (1894), *The Politics of Aristotle: A Revised Text. Books I~V(I~III, VII~VIII)*, New York: MacMillan.
- Walzer, R. R., and J. M. Mingay (1991), *Aristotelis Ethica Eudem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山本光雄 訳 (1969), 『アリストテレス全集 15: 政治学・経済学』, 東京: 岩波書店.
- 神崎 繁, 相澤康隆, 瀬口昌久 訳 (2018), 『アリストテレス全集 17: 政治

学·家政論』, 東京: 岩波書店.

김재홍 옮김 (2017), 『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길.

송유레 옮김 (2012), 『에우데모스 윤리학』, 파주: 한길사.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옮김 (2006),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
북스.

천병희 옮김 (2009), 『정치학』, 고양: 도서출판 숲.

(2) 플라톤

Burnet, J. (1922), *Platonis opera*, vol. 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uke, E. A., W. F. Hicken, W. S. M. Nicoll, D. B. Robinson, and J.
C. G. Strachan (1995), *Platonis opera*,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lings, S. R. (2003), *Platonis Respublic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김남두 외 옮김 (2018), 『플라톤의 법률 1, 2』, 파주: 나남.

김태경 옮김 (2000), 『정치가』, 파주: 한길사.

박종현 옮김 (1997), 『플라톤의 국가·정체』, 서울: 서광사.

박종현 옮김 (2009), 『플라톤의 법률』, 파주: 서광사.

(3) 기타

크세노폰 외, 최자영, 최혜영 옮김 (2002), 『고대 그리스정치사 사료: 아테
네·스파르타·테바이 정치제도』, 서울: 신서원.

플루타르코스, 천병희 옮김 (2006),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그리스를 만든
영웅들』, 고양: 도서출판 숲.

헤로도토스, 김봉철 옮김 (2016), 『역사』, 서울: 도서출판 길.

2. 사전류

- Liddell, H. G., and R. Scott (1996), *A Greek-English Lexicon*, Rev. H. S. Jones. 9th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ntanari, F. (2015),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Leiden: Brill.

3. 논문 모음집

- Anagnostopoulos, G. (ed.) (2009), *Companion to Aristotle*, Oxford: Wiley-Blackwell.
- Barnes, J. (ed.) (1977), *Articles on Aristotle*, vol. 2, London: Duckworth.
- Barnes, J. (ed.) (1995), *The Cambridge Companion to Aristot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douris, K. I. (ed.) (1995), *Aristotelian Political Philosophy*, 2 vols., Athens: International Center for Greek Philosophy and Culture.
- Deslauriers, M., and P. Destrée (eds.) (2013), *The Cambridge Companion to Aristotle'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son, L. P. (ed.) (1999), *Aristotle: Critical Assessments*, vol. 4, New York: Routledge.
- Goodman, L. E., and R. B. Talisse (eds.) (2007), *Aristotle's Politics Toda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öffe, O. (ed.) (2001), *Aristoteles Politik*, Berlin: Akademie-Verlag.
- Keyt, D., and F. D. Miller, Jr. (eds.) (1991), *A Companion to Aristotle's Politics*, Oxford: Blackwell.
- Lockwood, T., and T. Samaras (eds.) (2015), *Aristotle's Politics: A*

- Critical Gu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rd, C., and D. K. O'Connor (eds.) (1991), *Essays on the Foundation of Aristotelian Political Sci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aut, R., and S. Skultety (eds.) (2005), *Aristotle's Politics: Critical Essays*,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Patzig, G. (ed.) (1990), *Aristoteles' Politik: Akten des XI. Symposium Aristotelicum*,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 Rowe, C., and M. Schofield (eds.) (2000), *The Cambridge History of Greek and Roma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연구서와 연구논문

- Adkins, A. W. (1991), "The Connection between Aristotle's *Ethics* and *Politics*", in Keyt and Miller (eds.), pp. 75~93.
- Alexander, L. A. (2000), "The Best Regimes of Aristotle's *Politics*",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21, pp. 189~216.
- Ambler, W. H. (1985), "Aristotle's Understanding of the Naturalness of the City", *Review of Politics* 47, pp. 163~185.
- Annas, J. (1999), "Aristotle on Human Nature and Political Virtue", in Gerson (ed.), pp. 48~66.
- Atack, C. (2015), "Aristotle's *Pambasileia* and the Metaphysics of Monarchy", *Polis* 32, pp. 297~320.
- Balot, R. (2001a), "Aristotle's Critique of Phaleas: Justice, Equality, and Pleonexia", *Hermes* 120, pp. 32~44.
- Balot, R. K. (2001b), *Greed and Injustice in Classical Athens*,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lot, R. K. (2006), *Greek Political Thought*, Oxford: Blackwell.
- Balot, R. (2015), "The Mixed Regime in Aristotle's *Politics*", in Lockwood and Samaras (eds.), pp. 103~122.
- Barker, E. (1906), *The Political Thought of Plato and Aristotl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Barnes, J. (1990), "Aristotle and Political Liberty", in Patzig (ed.), pp. 250~263.
- Bartlett, R. C. (1994), "The Realism of 'Classical' Political Science: an Introduction to Aristotle's Best Regim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pp. 381~402.
- Bartlett, R. C. (1995), "Aristotle's Science of the Best Regim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pp. 152~160.
- Bates, C. A. (2003), *Aristotle's Best Regime: Kingship,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Biondi, C-A. (2007), "Aristotle on the Mixed Constitution and its Relevance for American Political Thought",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4, pp. 176~198.
- Bluhm, E. (1962), "The Place of 'Polity' in Aristotle's Theory of the Ideal State", *Journal of Politics* 24, pp. 743~753.
- Bobonich, C. (2015), "Aristotle, Political Decision Making, and the Many", in Lockwood and Samaras (eds.), pp. 142~162.
- Bodéüs, R. (1991), "Law and the Regime in Aristotle", in Lord and O'Connor (eds.), pp. 234~248.
- Bodéüs, R. (1993), *The Political Dimensions of Aristotle's Ethics* (원제: *Le philosophie et la cité*, 1982), Trans. J. E. Garret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oesche, R. (1993), "Aristotle's Science of Tyranny", *History of*

- Political Thought* 14, pp. 1~25.
- Bookman, J. T. (1992), "The Wisdom of the Many: an Analysis of the Arguments of *Books III and IV* of Aristotle's *Politics*",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3, pp. 1~12.
- Bordes, J. (2000), 『폴리테이아』 (원제: *Politeia: Dans la Pensée Grecque Jusqu'à Aristote*, 1982), 나정원 옮김, 서울: 아르케.
- Bradley, A. C. (1991), "Aristotle's Conception of the State", in Keyt and Miller (eds.), pp. 13~56.
- Buckler, S. (1991), "Moral Weakness and Citizenship in Aristotle", *Polis* 10, pp. 65~94.
- Buekenhout, B. (2016), "Kingly versus Political Rule in Aristotle's *Politics*", *apeiron* 49(4), pp. 515~537.
- Burns, T. (2003), "Aristotle", in D. Boucher and P. Kelly (eds.), *Political Thinkers from Socrates to the Pres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73~91.
- Cammack, D. (2013), "Aristotle on the Virtue of the Multitude", *Political Theory* 41, pp. 175~202.
- Chambers, M. (1961), "Aristotle's 'Forms of Democracy'",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92, pp. 20~36.
- Chan, J. (1992), "Does Aristotle's Political Theory Rest on a 'Blunder'?",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3, pp. 189~202.
- Cherry, K. (2009), "The Problem of Polity: Political Participation in Aristotle's Best Regime", *Journal of Politics* 71, pp. 1406~1421.
- Cherry, K., and E. A. Goerner (2006), "Does Aristotle's Polis Exist 'By Natur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27, pp. 563~585.
- Chuska, J. (2000), *Aristotle's Best Regime: A Reading of Aristotle's Politics VII. 1~10*,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Coby, P. (1986), "Aristotle's Four Conceptions of Politic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9, pp. 480~503.
- Coby, P. (1988), "Aristotle's Three Cities and the Problem of Faction", *Journal of Politics* 50, pp. 896~919.
- Collins, S. (2006), *Aristotle and the Rediscovery of Citizen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per, J. M. (1990), "Political Animals and Civic Friendship", in Patzig (ed.), pp. 221~242.
- Cooper, J. M. (1996), "Political Rights in Aristotle's *Politics*", *Review of Metaphysics* 49, pp. 859~872.
- Creed, J. L. (1989), "Aristotle's Middle Constitution", *Polis* 8, pp. 8~27.
- Croix, De Ste. (1981), *The Class Struggle in the Ancient Greek World: from the Archaic Age to the Arab Conquest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urren, R. (2000), *Aristotle on the Necessity of Public Education*,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Davis, M. (1996), *The Politics of Philosophy: A Commentary on Aristotle's Politics*,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Defourny, M. (1977), "The Aim of the State: Peace", in Barnes (ed.), pp. 195~201.
- De Laix, R. (1974), "Aristotle's Conception of the Spartan Constitu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12, pp. 21~30.
- Depew, D. (1991), "Politics, Music, and Contemplation in Aristotle's Ideal State", in Keyt and Miller (eds.), pp. 346~380.
- Deslauriers, M. (2013), "Political Unity and Inequality", in Deslauriers and Destrée (eds.), pp. 117~143.

- Deslauriers, M. (2015), "Political Rule over Women in *Politics I*", in Lockwood and Samaras (eds.), pp. 46~65.
- Destrée, P. (2013), "Education, Leisure, and Politics", in Deslauriers and Destrée (eds.), pp. 301~323.
- Destrée, P. (2015), "Aristotle on Improving Imperfect Cities", in Lockwood and Samaras (eds.), pp. 204~223.
- Develin, R. (1973), "The Good Man and the Good Citizen in Aristotle's *Politics*", *Phronesis* 18, pp. 71~79.
- Dietz, M. (2012), "Between Polis and Empire: Aristotle's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 pp. 275~293.
- Duvall T. and R. Doston (1998),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udaimonia in Aristotle's *Politics*",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9, pp. 21~34.
- Ehrenberg, V. (1991), 『그리스 국가』 (원제: *The Greek State*, 1960), 김진경 옮김, 서울: 민음사.
- Everson, S. (1999), "Aristotle on the Foundations of the State", in Gerson (ed.), pp. 67~82.
- Ewbank, M. (2005), "Politeia as Focal Reference in Aristotle's Taxonomy of Regimes", *Review of Metaphysics* 58, pp. 815~841.
- Forrest, W. G. (2001), 『그리스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 (원제: *The Emergence of Greek Democracy, 800~400 BC*, 1966), 김봉철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 Fortenbaugh, W. W. (1991), "Aristotle on Prior and Posterior, Correct and Mistaken Constitutions", in Keyt and Miller (eds.), pp. 226~237.
- Frank, J. (1998), "Democracy and Distribution: Aristotle on Just Desert", *Political Theory* 26, pp. 784~802.
- Frank, J. (2005), *A Democracy of Distinction: Aristotle and the*

- Work of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ank, J. (2007), "Aristotle on Constitutionalism and the Rule of Law",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8, pp. 37~50
- Frank, J. (2015), "On logos and politics in Aristotle", in Lockwood and Samaras (eds.), pp. 9~26.
- Frede, D. (2005), "Citizenship in Aristotle's Politics", in Kraut and Skultety (eds.), pp. 167~184.
- Frede, D. (2013), "The political character of Aristotle's ethics", in Deslauriers and Destrée (eds.), pp. 14~37.
- Fritz, K., and E. Kapp (1977), "The Development of Aristotle's Political Philosophy and the Concept of Nature", in Barnes (ed.), pp. 113~134.
- Garrett, J. E. (1993), "The Moral Status of 'the Many' in Aristotle",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31, pp. 171~189.
- Garver, E. (2005), "Factions and the Paradox of Aristotelian Practical Science", *Polis* 22, pp. 181~205.
- Garver, E. (2011), *Aristotle's Politics: Living Well and Living Togeth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rsten, B. (2013), "Deliberating and acting together", in Deslauriers and Destrée (eds.), pp. 324~349.
- Goerner, E. A. (1983), "Letter and Spirit: the Political Ethics of the Rule of Law Versus the Political Ethics of the Role of the Virtuous", *Review of Politics* 45, pp. 553~575.
- Gottlieb, P. (1995), "Aristotle, the Unity of the Virtues and Democracy", in Boudouris (ed.) vol.1, pp. 61~66.
- Hahn, D. E. (2009), "The Mixed Constitution in Greek Thought", in R. Balot (ed.), *A Companion to Greek and Roman Political Thought*, Oxford: Blackwell, pp. 178~198.

- Hansen, M. H. (1998), "Types of Constitution", in H. H. Hansen (ed.), *Polis and City-State*, Copenhagen: Det Kongelige Danske Videnskabernes Selskab, pp. 80~86.
- Hansen, M. H. (1999), *The Athenian Democracy in the age of Demosthenes: Structure, Principles, and Ideology*, London: Bristol Classical Press.
- Hansen, M. H. (2013), *Reflections on Aristotle's Politics*, Copenhagen: Museum Tusculanum Press.
- Hatzistavrou, A. (2013), "Faction", in Deslauriers and Destrée (eds.), pp. 275~300.
- Höffe, O. (2019), 『우리 시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원제: *Aristoteles*, 1999), 주광순 옮김, 서울: 시와 진실.
- Horn, C. (2013), "Law, governance, and political obligation", in Deslauriers and Destrée (eds.), pp. 223~246.
- Irrera, E. (2010), "Being a Good Ruler in a Deviant Community: Aristotle's Account of the Polity", *Polis* 27, pp. 58~79.
- Irwin, T. H. (1985), "Moral Science and Political Theory in Aristotle",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6, pp. 150~168.
- Irwin, T. (1990), "The Good of Political Activity", in Patzig (ed.), pp. 73~99.
- Jaeger, W. (1948), *Aristotle: Fundamentals of the History of his Development*, 2nded. (원제: *Aristoteles: Grundlegung einer Geschichte seiner Entwicklung*, 1921), Trans. R. Robin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son, C. (1984), "Who is Aristotle's citizen?", *Phronesis* 29, pp. 73~90.
- Johnson, C. N. (1988), "Aristotle's Polity: Mixed or Middle Constitutio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9, pp. 189~209.
- Johnson, C. N. (1990), *Aristotle's Theory of the State*, London:

Macmillan.

- Johnson, C. N. (2015), *Philosophy and Politics in Aristotle's 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ahn, C. (1990), "The Normative Structure of Aristotle's *Politics*", in Patzig (ed.), pp. 369~384.
- Kelsen, H. (1977), "Aristotle and Hellenic-Macedonian Policy", in Barnes (ed.), pp. 170~194.
- Keyt, D. (1991a), "Aristotle's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in Keyt and Miller (eds.), pp. 238~278.
- Keyt, D. (1991b), "Three Basic Theorems in Aristotle's *Politics*", in Keyt and Miller (eds.), pp. 118~141.
- Keyt, D. (1993), "Aristotle and Anarchism", *Reason Papers* 18, pp. 133~152.
- Keyt, D. (2007), "The Good Man and the Upright Citizen in Aristotle's *Ethics* and *Politics*",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4, pp. 220~240.
- Khan, C-A. (2005), "Aristotle, Citizenship, and the Common Advantage", *Polis* 22, pp. 1~23.
- Klonoski, R. (1996), "Homonia in Aristotle's *Ethics* and *Politics*",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7, pp. 313~325.
- Kraut, R. (1999), "Are there Natural Rights in Aristotle?", in Gerson (ed.), pp. 31~47.
- Kraut, R. (2001), "Aristotle's Critique of False Utopias", in Höffe (ed.), pp. 59~73.
- Kraut, R. (2002), *Aristotle: Politic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ut, R. (2007), "Nature in Aristotle's *Ethics* and *Politics*",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4, pp. 153~175.
- Kronman, A. (1979), "Aristotle's Idea of Political Fraternity",

-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24, pp. 114~138.
- Kullmann, W. (1991), "Man as a Political Animal in Aristotle", in Keyt and Miller (eds.), pp. 94~117.
- Lane, M. (2013), "Claims to Rule: the Case of the Multitude", in Deslauriers and Destrée (eds.), pp. 247~274.
- Lawrence, G. (1993), "Aristotle and the Ideal Life", *The Philosophical Review* 102, pp. 1~34.
- Levin, M. (1999), "Aristotle On Natural Subordination", in Gerson (ed.), pp. 131~146.
- Leyden, W. (1967), "Aristotle and the Concept of Law", *Philosophy* 43, pp. 1~19.
- Liddel, P. (2007), *Civic Obligation and Individual Liberty in Ancient Athe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indsay, T. K. (1991), "The 'God-Like Man' versus the 'Best Laws': Politics and Religion in Aristotle's *Politics*", *Review of Politics* 53, pp. 488~509.
- Lindsay, T. K. (1992a), "Aristotle's Qualified Defense of Democracy through 'Political Mixing'", *Journal of Politics* 54, pp. 101~119.
- Lindsay, T. K. (1992b), "Liberty, Equality, Power: Aristotle's Critique of the Democratic 'Presupposi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pp. 743~761.
- Lintott, A. (1992), "Aristotle and Democracy", *The Classical Quarterly* 42, pp. 114~128.
- Lintott, A. (2000), "Aristotle and the Mixed Constitution", in R. Brock and S. Hodkinson (eds.), *Alternatives to Athens: Varieties of Political Organization and Community in Ancient Gree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52~166.

- Lockwood, T. (2006a), "Polity, Political Justice and Political Mixing",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27, pp. 207~222.
- Lockwood, T. C. (2006b), "The Best Regime of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Ancient Philosophy* 26, pp. 355~370.
- Lockwood, T. (2015), "*Politics II*: Political Critique, Political Theorizing, Political Innovation", in Lockwood and Samaras (eds.), pp. 64~83.
- Long, R. T. (1996), "Aristotle's Conception of Freedom", *Review of Metaphysics* 49, pp. 775~802.
- Long, R. T. (2005), "Aristotle's Egalitarian Utopia: The *Polis Kat' Euchen*", in H. H. Hansen (ed.), *The Imaginary Polis*, Copenhagen: Det Kongelige Danske Videnskabernes Selskab, pp. 164~196.
- Lord, C. (1978), "Politics and Philosophy in Aristotle's *Politics*", *Hermes* 106, pp. 336~359.
- Lord, C. (1981), "The Character and Composition of Aristotle's *Politics*", *Political Theory* 9, pp. 459~478.
- Lord, C. (1982), *Education and Culture in the Political Thought of Aristotl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ord, C. (1990), "Politics and Education in Aristotle's *Politics*", in Patzig (ed.), pp. 203~216.
- Lord, C. (1991), "Aristotle's Anthropology", in Lord and O'Connor (eds.), pp. 49~73.
- MacKenzie, M. (1989), "Aristotelian Authority", in M. M. MacKenzie and C. Rueche (eds.), *Images of Authority*,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Supplement 16, pp. 150~169.
- Mara, G. (1987), "The Role of Philosophy in Aristotle's Political Philosophy", *Polity* 19, pp. 375~401.

- Marhie, W. (1987), “Political and Distributive Justice in the Political Science of Aristotle”, *Review of Politics* 49, pp. 59~84.
- Martin, T. R. (2003), 『고대 그리스의 역사』 (원제: *Ancient Greece*, 1996), 이종인 옮김, 서울: 가람기획.
- Mayhew, R. (1997a), *Aristotle's Criticism of Plato's Republic*,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Mayhew, R. (1997b), “Part and Whole in Aristotle's Political Philosophy” *Journal of Ethics* 1, pp. 325~340.
- Mayhew, R. (2009), “Rulers and Ruled”, in Anagnostopoulos (ed.), pp. 526~539.
- McGrade, A. S. (1996), “Aristotle's Place in the History of Natural Rights”, *Review of Metaphysics* 49, pp. 803~829.
- Michell, H. (2000), 『스파르타』 (원제: *Sparta*, 1964), 윤진 옮김, 서울: 신서원.
- Miller, F. D. Jr. (1991), “Aristotle on Natural Law and Justice”, in Keyt and Miller (eds.), pp. 279~306.
- Miller, F. D. Jr. (1995a), “Aristotle on Deviant Constitutions”, in Boudouris (ed.) vol.2, pp. 105~115.
- Miller, F. D. Jr. (1995b), *Nature, Justice and Rights in Aristotle's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r, F. D. Jr. (1999), “Aristotle and the Origins of Natural Rights”, in Gerson (ed.), pp. 1~30.
- Miller, F. D. Jr. (2001), “Sovereignty and Political Rights”, in Höffe (ed.), pp. 107~119.
- Miller, F. D. Jr. (2007a), “Aristotelian Statecraft and Modern Politics”, in Goodman and Talisse (eds.), pp. 13~31.
- Miller, F. D. Jr. (2007b), “Aristotle's Philosophy of Law”, in F. D. Miller, Jr., and C.-A. Biondi (eds.), *A History of the*

- Philosophy of Law from the Ancient Greeks to the Scholastics*, Dordrecht: Springer, pp. 79~110.
- Miller, F. D. Jr. (2009), "Aristotle on the Ideal Constitution", in Anagnostopoulos (ed.), pp. 540~554.
- Miller, F. D. Jr. (2013), "The Rule of Reason", in Deslauriers and Destrée (eds.), pp. 38~66.
- Miller, J. (1998), "Aristotle's Paradox of Monarchy and the Biographical Traditio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9, pp. 501~516.
- Morrison, D. (1999), "Aristotle's Definition of Citizenship: A Problem and Some Solutions",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16, pp. 143~165.
- Morrison, D. (2001), "Politics as a Vocation, According to Aristotl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22, pp. 221~241.
- Morrison, D. (2013), "The Common Good", in Deslauriers and Destrée (eds.), pp. 176~198.
- Mossé, C. (2002), 『고대 그리스의 시민』 (원제: *Le Citoyen dans la Grèce antique*, 1993), 김덕희 옮김, 서울: 동문선.
- Mulgan, R. (1970), "Aristotle's Sovereign", *Political Studies* 18, pp. 518~522.
- Mulgan, R. (1972), "Aristotle's Doctrine that Man is a Political Animal", *Hermes* 102, pp. 38~45.
- Mulgan, R. (1974), "A Note on Aristotle's Absolute Ruler", *Phronesis* 19, pp. 66~69.
- Mulgan, R. (1977), *Aristotle's Politic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lgan, R. (1990), "Aristotle and the Value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Theory* 18, pp. 195~215.
- Mulgan, R. (1991), "Aristotle's Analysis of Oligarchy and

- Democracy", in Keyt and Miller (eds.), pp. 307~322.
- Mulgan, R. (1999), "Debate: Aristotle, Ethical Diversity and Political Argument",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7, pp. 191~207.
- Mulgan, R. (2000), "Was Aristotle an Aristotelian Social Democrat?", *Ethics* 111, pp. 79~101.
- Mulgan, R. (2001), "Constitutions and Purpose of the State", in Höffe (ed.), pp. 93~106.
- Mulhern, J. J. (2007), "The *Aristē Politeia* and Aristotle's Intended Audience in the *Politica*", *Polis* 24, pp. 284~297.
- Mulhern, J. J. (2014), "Politeia in Aristotle's *Politica*: An Annotated Catalogue", Penn Library Scholarly Commons: Departmental Papers (Classical Studies),
http://repository.upenn.edu/classics_papers/31/.
- Mulhern, J. J. (2015), "Politeia in Greek literature, inscriptions, and in Aristotle's Politics: Reflections 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Lockwood and Samaras (eds.), pp. 84~102.
- Murphy, J. B. (2002), "Nature, Custom and Reason as the Explanatory and Practical Principles of Aristotelian Political Science", *Review of Politics* 64, pp. 469~495.
- Murray, O. (1993), "*Polis* and *Politeia* in Aristotle", in H. H. Hansen (ed.), *The Ancient Greek City-State*, Copenhagen: Det Kongelige Danske Videnskabernes Selskab, pp. 197~210.
- Newell, W. R. (1991), "Superlative Virtue: The Problem of Monarchy in Aristotle's *Politics*", in Lord and O'Connor (eds.), pp. 191~211.
- Newman, W. L. (1892), "Aristotle's Classification of Forms of

- Government", *Classical Review* 6, pp. 289~293.
- Nichols, M. (1992), *Citizens and Statesmen: A Study of Aristotle's Politics*,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Nieuwenburg, P. (2004), "Learning to Deliberate: Aristotle on Truthfulness and Public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32, pp. 449~467.
- Nederman, C. J. (1994), "The Puzzle of the Political Animal: Nature and Artifice in Aristotle's Political Theory", *Review of Politics* 56, pp. 283~304.
- Nussbaum, M. (1990), "Nature, Function, and Capability: Aristotle on Political Distribution", in Patzig (ed.), pp. 153~187.
- Ober, J. (1989), *Mass and Elite in Democratic Athens: Rhetoric, Ideology, and the Power of the Peop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ber, J. (1991), "Aristotle's Political Sociology: Class, Status, and Order in the *Politics*", in Lord and O'Connor (eds.), pp. 112~135.
- Ober, J. (1998), *Political Dissent in Democratic Athe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ber, J. (2005), "Aristotle's Natural Democracy", in Kraut and Skultety (eds.), pp. 223~243.
- Ober, J. (2013), "Democracy's Wisdom: An Aristotelian Middle Way for Collective Judg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7, pp. 104~122.
- Ober, J. (2015), "Nature, History, and Aristotle's Best Possible Regime", in Lockwood and Samaras (eds.), pp. 224~243.
- O'Connor, D. K. (1991), "The Aetiology of Justice", in Lord and O'Connor (eds.), pp. 136~164.
- Pangle, T. (2011), "The Rhetorical Strategy Governing Aristotle's

- Political Teaching”, *Journal of Politics* 73, pp. 84~96.
- Pangle, T. (2013), *Aristotle’s Teaching in the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pageorgiou, C. I. (1990), “Four or Five Types of Democracy in Aristotl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1, pp. 1~8.
- Pianka, R. (1995), “The Sovereignty of The ΠΛΗΘΟΣ in Aristotle’s *Politics*”, in Boudouris (ed.) vol.2, pp. 116~124.
- Pierris, A. L. (1995), “Cause and Nature of Constitutional Diversity in Aristotle’s *Politics*”, in Boudouris (ed.) vol.2, pp. 125~159.
- Pierris, A. L. (1995), “ΟΡΟΣ ΠΟΛΙΤΕΙΑΣ and ΤΕΛΟΣ ΠΟΛΕΩΣ Political Constitution, Social Structure and End of Life in Aristotle’s *Politics*”, in Boudouris (ed.) vol.1, pp. 127~142.
- Polansky, R. (1991), “Aristotle on Political Change”, in Keyt and Miller (eds.), pp. 323~345.
- Quinn, T. (1986), “Parts and Wholes in Aristotle’s *Politics Book III*”,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24, pp. 577~588.
- Quinn, M. (1990), “Aristotle on Justice, Equality, and the Rule of Law”, *Polis* 9, pp. 170~186.
- Reeve, C. D. C. (2009), “The Naturalness of the Polis in Aristotle”, in Anagnostopoulos (ed.), pp. 512~525.
- Rhodes, P. J. (2007), *The Greek City States: A Source Book*, 2nd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ter, M. (1990), “Aristotle and the Classical Greek Concept of Despotism”, *History of European Ideas* 12, pp. 175~187.
- Riesbeck, D. J. (2016a), *Aristotle on Political Commu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esbeck, D. J. (2016b), “The Unity of Aristotle’s Theory of Constitutions”, *Apeiron* 49, pp. 93~125.

- Risse, M. (2001), "The Virtuous Group: Foundations for the Argument from the Wisdom of the Multitud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31, pp. 53~84.
- Roberts, J. (1989), "Political Animals in the *Nichomachean Ethics*", *Phronesis* 34, pp. 185~202.
- Roberts, J. (2000), "Justice and the Polis", in Rowe and Schofield (eds.), pp. 344~365.
- Roberts, J. (2009), "Excellences of the Citizen and of the Individual", in Anagnostopoulos (ed.), pp. 555~565.
- Roochnik, D. (2008), "Aristotle's Defense of the Theoretical Life: Comments on *Politics* 7", *Review of Metaphysics* 61, pp. 711~735.
- Roochnik, D. (2010), "Substantial City: Reflections on Aristotle's *Politics*", *Polis* 27, pp. 275~291.
- Rosen, F. (1975), "The Political Context of Aristotle's Categories of Justice", *Phronesis* 20, pp. 228~240.
- Rosler, A. (2005), *Political Authority and Obligation in Aristot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ler, A. (2013), "Civic Virtue: Citizenship, Ostracism, and War", in Deslauriers and Destrée (eds.), pp. 144~175.
- Ross, W. D. (2011),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저술과 사상에 관한 총설』 (원제: *Aristotle*, 1995), 김진성 옮김, 서울: 누멘.
- Rowe, C. (1989), "Reality and Utopia", *Elenchos* 10, pp. 317~336.
- Rowe, C. (1991), "Aims and Methods in Aristotle's Politics", in Keyt and Miller (eds.), pp. 57~74.
- Rowe, C. J. (2000), "Aristotelian Constitutions", in Rowe and Schofield (eds.), pp. 366~389.
- Rubin, L. G. (2010), "Aristotle's Politics on the Hoof: Sparta, Crete and Carthage", *APSA 2010 Annual Meeting Paper*.

- Salkever, S. G. (1990), *Finding the Mean: Theory and Practice in Aristotelian Political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kever, S. G. (1991a), "Aristotle's Social Science", in Lord and O'Connor (eds.), pp. 11~48.
- Salkever, S. G. (1991b), "Women, Soldiers, Citizens: Plato and Aristotle on the Politics of Virility", in Lord and O'Connor (eds.), pp. 165~190.
- Salkever, S. G. (2007), "Whose Prayer? The Best Regime of *Book 7* and the Lessons of Aristotle's *Politics*", *Political Theory* 35, pp. 29~46.
- Samaras, T. (2007), "Aristotle's *Politics*: the City of *Book Seven* and the Question of Ideology", *Classical Quarterly* 57, pp. 77~89.
- Samaras, T. (2015), "Aristotle and the Question of Citizenship", in Lockwood and Samaras (eds.), pp. 123~141.
- Saunders, T. J. (1980), "Arete and Ergon in Aristotle, *Politics* III.4", *Mnemosyne* 33, pp. 353~355.
- Saxonhouse, A. (2015), "Aristotle on the Corruption of Regimes: Resentment and Justice", in Lockwood and Samaras (eds.), pp. 184~203.
- Schall, J. V. (1999), "Friendship and Political Philosophy", in Gerson (ed.), pp. 147~163.
- Schofield, M. (1996), "Sharing in the Constitution", *Review of Metaphysics* 49, pp. 831~858.
- Schofield, M. (1999), *Saving the City: Philosopher-Kings and Other Classical Paradigms*, New York: Routledge.
- Schroeder, D. (1981), "Aristotle on Law", *Polis* 4, pp. 17~31.
- Schütrumpf, E. (1980), *Die Analyse der Polis durch Aristoteles*,

Amsterdam: Grüner.

- Schütrumpf, E. (1995), "Philosophical Concepts in the System of Constitutions in Aristotle's *Politics*: Plato's Influence", in Boudouris (ed.) vol.1, pp. 177~188.
- Schütrumpf, E. (2015), "Little to Do with Justice: Aristotle on Distributing Political Power", in Lockwood and Samaras (eds.), pp. 163~183.
- Schwartzbach, S. (1996), "On Civic Friendship", *Ethics* 107, pp. 97~128.
- Shulsky, A. N. (1991), "The Infrastructure of Aristotle's *Politics*: Aristotle on Economics and Politics", in Lord and O'Connor (eds.), pp. 74~111.
- Shuster, A. (2011), "The Problem of the 'Partheniae' in Aristotle's Political Thought", *Polis* 28, pp. 279~308.
- Sidgwick, H. (1892), "Aristotle's Classifications of Forms of Government", *Classical Review* 6, pp. 141~144.
- Sinclair, R. K. (1991), *Democracy and Participation in Ath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ultety, S. (2008), "Aristotle's Theory of Partisanship", *Polis* 25, pp. 208~232.
- Skultety, S. (2009a), "Competition in the Best of Cities: Agonism and Aristotle's *Politics*", *Political Theory* 37, pp. 44~68.
- Skultety, S. (2009b), "Delimiting Aristotle's Conception of Stasis in the *Politics*", *Phronesis* 54, pp. 346~370.
- Smith, N., and R. Mayhew (1995), "Aristotle on What the Political Scientist Needs to Know", in Boudouris (ed.) vol.1, pp. 189~198.
- Solmsen, F. (1964), "Leisure and Play in Aristotle's Ideal State",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107, pp. 193~220.

- Stalley, R. (2009), "Education and the State", in Anagnostopoulos (ed.), pp. 566~576.
- Strauss, B. S. (1991), "On Aristotle's Critique of Athenian Democracy", in Lord and O'Connor (eds.), pp. 212~233.
- Strauss, L. (1964), *The City and 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rauss, L., and J. Cropsey (1992), 『서양 정치철학사 I』 (원제: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1987), 김영수 외 옮김, 서울: 인간사랑.
- Swanson, J. A. (1992),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Aristotle's Political Philosophy*,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Swanson, J. A., and C. D. Corbin (2014),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입문』 (원제: *Aristotle's Politics: A Reader's Guide*, 2009), 김영균 옮김, 파주: 서광사.
- Swazo, N. K. (1991), "The Authentic Tale of Politics: a Reading of Aristotl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2, pp. 405~420.
- Taylor, C. C. W. (1995), "Politics", in Barnes (ed.), pp. 233~258.
- Trott, A. (2010), "Logos and the Political Nature of Anthropos in Aristotle's *Politics*", *Polis* 27, pp. 292~307.
- Trott, A. M. (2013), "Ruling In Turn: Political Rule against Mastery in Aristotle's *Politics*", *Epoché* 17, pp. 301~311.
- Vander Waerdt, P. A. (1985a), "Kingship and Philosophy in Aristotle's Best Regime", *Phronesis* 30, pp. 249~273.
- Vander Waerdt, P. A. (1985b), "The Political Intentions of Aristotle's Moral Philosophy", *Ancient Philosophy* 5, pp. 77~89.
- Waldron, J. (2005), "The Wisdom of the Multitude: Some Reflections on *Book III, Chapter 11* of Aristotle's *Politics*", in Kraut and Skultety (eds.), pp. 145~165.

- Walsh, M. (1997), "Aristotle's Conception of Freedom",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35, pp. 495~507.
- Ward, J. K. (2015), "Aristotle on Physis: Human Nature in the *Ethics* and *Politics*", *Polis* 22, pp. 287~308.
- Weil, R. (1977), "Aristotle's View of History", in Barnes (ed.), pp. 202~217.
- West, J. L. A. (1994), "Distorted Souls: The Role of Banausics in Aristotle's *Politics*", *Polis* 13(1~2), pp. 77~95.
- Wexler, S., and A. Irvine (2006), "Aristotle on the Rule of Law", *Polis* 23, pp. 116~138.
- Wheeler, M. (1977), "Aristotle's Analysis of the Nature of Political Struggle", in Barnes (ed.), pp. 159~169.
- Wilson, J. L. (2011), "Deliberation, Democracy, and the Rule of Reason in Aristotle's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 pp. 259~274.
- Winthrop, D. (1975), "Aristotle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Political Theory* 3, pp. 406~422.
- Winthrop, D. (1978a), "Aristotle and Theories of Jus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pp. 1201~1216.
- Winthrop, D. (1978b), "Aristotle on Participatory Democracy", *Polity* 11, pp. 151~171.
- Yack, B. (1993), *The Problems of a Political Animal: Community, Justice, and Conflict in Aristotelian Political Though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Yack, B. (2006), "Rhetoric and Public Reasoning: An Aristotelian Understanding of Political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34, pp. 417~438.
- Young, M. A. (2005), *Negotiating the Good Life: Aristotle and the Civil Society*,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Zingano, M. (2013), "Natural, Ethical, and Political Justice", in Deslauriers and Destrée (eds.), pp. 199~222.

곽준혁 (2013), 「마키아벨리와 아리스토텔레스: 참주교육의 정치철학적 재고」, 『대한정치학회보』 21집 3호, pp. 21~45.

김경희 (2006), 「데모크라티아를 넘어 이소노미아로: 아테네 민주정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혼합정의 이념에 대하여」, 『한국정치학회보』 40집 5호, pp. 5~25.

김경희 (2013), 「갈등해결의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빈부갈등」, 『한국정치연구』 22집 1호, pp. 259~281.

김용찬 (1999),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및 정치철학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3집 2호, pp. 9~28.

김재홍 (2008),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정치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교육론과 공교육의 이념」, 『시민과 세계』 14호, pp. 421~439.

김재홍 (2017),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구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 『동서인문』 7권, pp. 29~59.

김재홍 (2018),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최선의 공동체를 향하여』, 파주: 쌤앤파커스.

노희천 (2014),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7~8책들에 나타난 이상국가관에 관하여」, 『대동철학』 69집, pp. 90~114.

노희천 (2017),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 국가관의 정체에 관하여」, 『범한철학』 84집, pp. 277~294.

박성우 (2005), 「행복의 정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철학적 삶과 정치적 삶의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39집 5호, pp. 111~131.

박성우 (2009), 「윤리와 정치의 통합으로서의 법의 지배: 『니코마코스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 『21세기정치학회보』 19집 3호, pp. 23~48.

박성우 (2011), 「국익 추구의 도덕적 한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과

- 정치」, 『21세기 정치학회보』 21집 2호, pp. 1~21.
- 손병석 (1999a),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독사의 인식론적 위상에 관하여」, 『서양고전학연구』 13권, pp. 105~132.
- 손병석 (1999b),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데모스의 집합적 지혜」, 『서양고전학연구』 14권, pp. 135~159.
- 손병석 (1999c), 「폴리스는 개인에 우선하는가?: “폴리스는 본성상 개인에 우선한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22집, pp. 41~75.
- 손병석 (1999d), 「폴리스는 자연적 존재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자연주의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44집, pp. 167~191.
- 손병석 (2000),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실천지의 적용단계: 숙고와 선택·결정에서 제기되는 판단과정의 위치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48집, pp. 21~43.
- 손병석 (2001),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덕의 통일성과 민주주의」, 『철학』 68권, pp. 81~106.
- 손병석 (2004),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자연적 정의와 권리의 문제」, 『철학연구』 65집, pp. 75~100.
- 손병석 (2005), 「정치 윤리와 공공성: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정치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29집, pp. 75~103.
- 손병석 (2012), 「공적주의 정의론과 최선의 국가」, 『범한철학』 67권, pp. 103~139.
- 손병석 (2016),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 강상진 외, 『서양고대철학 2』, 서울: 도서출판 길, pp. 193~225.
- 손병석 (2018), 「아리스토텔레스의 ‘바람에 따른 폴리스’는 어떤 정체인가?: 『정치학』 7권과 8권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57권 2호, pp. 139~174.
- 손병석 (2019),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연구: 플라톤과의 대화』, 서울: 한국문화사.
- 손윤락 (201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국가와 시민 교육」, 『서

- 양고전학연구』 48권, pp. 149~174.
- 손윤락 (2013),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 교육에서 덕-성격과 음악」, 『동서 철학연구』 69권, pp. 29~47.
- 손윤락 (2015),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시민교육과 그 대상의 문제」, 『서양고전학연구』 54권 1호, pp. 65~86.
- 손윤락 (2018a),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소통하는 시민’ 개념: 대학의 시민 인성교육을 위한 연구」, 『서양고대사연구』 52집, pp. 11~39.
- 손윤락 (2018b),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축제와 시민의 여가, 그리고 관조」, 『인문논총』 75권 3호, pp. 79~109.
- 송대현 (2012),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철학사상』 45권, pp. 95~130.
- 송대현 (2014),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7-8권에서 여가 개념」, 『서양 고전학연구』 53권 2호, pp. 123~164.
- 유원기 (2013), 「여성의 위상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철학연구』 126집, pp. 159~190.
- 유원기 (2014),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 개념과 공동체의 목적」, 『서양고전학연구』 53권 1호, pp. 97~119.
- 이병택 (2011), 「고대 아테네 헌정의 발전과 공동성의 변천: 『아테네 헌정』을 중심으로」, *OUGHTOPIA* 26집 1호, pp. 5~27.
- 이재현 (2015),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적 자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자유 개념의 정치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철학논집』 43집, pp. 105~138.
- 장미성 (2016), 「마음의 일치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적 친애」, 『철학연구』 115집, pp. 245~270.
- 주광순 (2006),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 『대동철학』 34집, pp. 253~280.
- 최자영 (2007), 『고대 그리스 법제사』, 서울: 아카넷.
- 한석환 (1998), 「인간의 본질과 폴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I 2의 한 이해」, 『서양고전학연구』 12권, pp. 229~255.

Abstract

The Best Constitution, Mixed Constitution, and Political Rule in Aristotle's *Politics*

Lim, Sung-Jin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two problems of crucial importance in Aristotle's *Politics*. One is to define the best constitution, and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st constitution and the real constitution is another. The issue of the first problem is whether the best constitution of the Book 3 and that of the Book 7 are the same, while the issue of the second problem is whether the discussion on the real constitution derives from the discussion on the best constitution, or is independent of it.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solutions to these two central problems in *Politics* by examining the concept of *political rule*.

Part II analyzes the city, citizen and constitution. The city is essentially a community established to realize happiness of its inhabitants, which consists of the ruler and the ruled. Rule is divided into rule of a master, kingly rule, and political rule,

depending on whether the ruler is superior to the ruled or is equal to each other, and whether the ruler pursues common advantage or personal advantage. In the city, the citizens who are eligible to take part in public office can become rulers, but they differ between constitutions. Constitution is the organization of the city concerning public office, and it varies according to the ruler: kingship, aristocracy, polity, democracy, oligarchy, and tyranny. A constitution is better if the ruler has more virtue, or rulers are well-mixed.

Part III scrutinizes the best constitution and mixed constitution, which are the topics of politics. First of all, the best constitution is presented in both the Books 3 and 7. The best constitution of the Book 3 is the kingship or the aristocracy led by a single virtuous person or a small number of virtuous people, whereas the best constitution of the Book 7 is the one led by a large number of virtuous people. Although the best constitution of the Book 3 and that of the Book 7 are outwardly not the same, I equate the latter with the former because in both constitutions, the virtuous rulers pursue the best common advantage so that political rule can be exercised. The mixed constitutions presented in the Books 4-6, meanwhile, include the second-best constitution and well-mixed, long-preserved constitutions. In the mixed constitutions, political rule is possible even when mixed rulers lack virtue. However, ultimately, if the more mixed rulers are virtuous, the better political rule is possible. The mixed constitutions require the best constitution, and it is meaningful as a *paradigm*.

Part IV discusses constitutions exercised by political rule. Political rule should be implemented, pursuing common

advantage instead of personal advantage as in rule of a master. There are four necessary conditions for political rule to be achieved: alternation of rule, rule of law, majority rule, and pursuit of the common advantage. The last one i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se four conditions. Political rule is possible without alternation of rule, which makes an exception, even though all of the four conditions are necessary in principle. In conclusion, the best constitution and the mixed constitution are the constitutions exercised by political rule.

Discussions to find solutions to two important problems in *Politics* above point to two conclusions. First, although the best constitution of the Book 3 in which kingly rule is exercised and that of the Book 7 in which political rule is exercised are not the same in terms of the authoritative rule, if the virtuous ruler pursues the common advantage (the core of a political rule) to the best, the best constitutions of the Book 7 and the Book 3 can be defined as the same (aristocracy) because political rule is exercised among the virtuous. Second, although the discussion of the mixed constitutions can be made regardless of that of the best constitutions because political rule can be achieved regardless of virtue, the discussion of the mixed constitutions is ultimately made as an extension of the discussion of the best constitution as a *paradigm*, for political rule depends on virtue.

keywords : political rule, constitution, best
constitution, mixed constitution,
constitution classification, virtue, mix
Student Number : 2006-30037